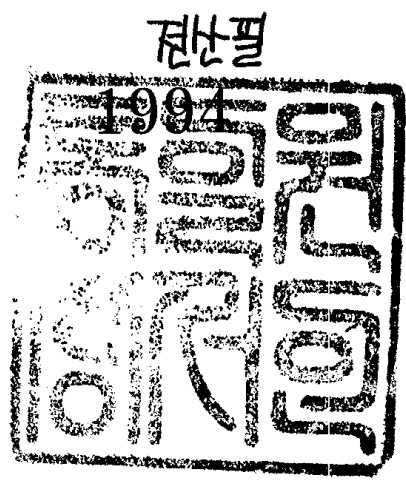


통분 94-11-51<sup>10f</sup>

3103 (300.41)  
559

V.2

# '94 北韓 및 統一研究 論文集 (第Ⅱ卷)



북한인권문제  
남북한을 잇는  
북한이성교육  
"실화"  
"무에어른"

統 一 院

우리원은 통일문제를 연구하고자 하는 신진학자들에게 연구기회를 부여하여 북한 및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하고, 남북 교류협력시대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신진학자들의 참신한 정책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89년 이후 매년 신진학자들에게 연구용역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6개의 연구과제를 위촉하여 그 연구결과를 「'94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5권으로 분류하여 발간하였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논문들에는 관련분야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제시등 참신하고 건설적인 의견들이 많이 논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수록된 내용들은 우리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북한 및 통일문제를 연구하거나 관련정책을 수립하는데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1994년 12월

통일원 정보분석실

## 권 별 수 록 논 문 일 람 표

권별	수 록 논 문 명	집 필 자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의 관료 부패에 관한 연구</li> <li>○북한의 해양법 정책</li> <li>○북한회계제도에 관한 연구</li> <li>○북한의 합자투자기업 회계제도</li> <li>○북한의 대외개방정책 유형 전망</li> <li>○북한의 대외무역 결합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li> <li>○북한 주체농법의 추진현황과 변화전망</li> <li>○북한경제개혁의 정치 경제적 제약</li> </ul>	金令鍾(송 실 대) 李昌偉(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金炳昊(국 민 대) 崔相文(부 산 대) 梁吉炫(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李贊度(동 국 대) 林相喆(상 지 대) 金鍊鐵(평화문제연구소)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의 가정문화 정책과 가정윤리</li> <li>○최근북한문학에 나타난 세대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li> <li>○북한설화집의 체제, 성격 및 설화의 변이 양상 분석</li> <li>○남북문학사 기술의 통일방안연구</li> <li>○북한문예이론의 역사적 변모과정 고찰</li> <li>○1980년대 북한의 여성정책연구</li> </ul>	趙鏞官(경찰대 공안문제연구소) 李相瓊(한신대) 金文泰(성균관대) 金垠哲(상 지 대) 金成洙(성균관대) 李承姬(이화여대)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경제교류의 내국간 거래 제도화 방안 연구</li> <li>○남북교류 활성화에 관한 연구</li> <li>○남북한 교역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대금결제 방식의 모색</li> <li>○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의 추진 방식에 관한 연구</li> <li>○남북한 수송체계의 적합적 결합에 관한 연구</li> <li>○북한의 화폐, 금융실태와 남북한 화폐 단일화 방안</li> <li>○통일시 남북한 토지문제의 전망과 정책과제</li> <li>○남북한 경제협력</li> </ul>	朴晚秀(송 실 대) 金一龍(홍 익 대) 尹基官(충 남 대) 申英俊(대 전 대) 김길수(해 양 대) 韓鍾萬(배 제 대) 李兌一(국토개발연구원) 李泰桓(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권별	수 록 논문 명	집 필 자
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방송협력 사업을 위한 연구 (공동연구)</li> <li>○ 남북 종교교류 확대가능성과 통일에의 영향에 대한 연구</li> <li>○ 주변국의 군사체제 재편과 한국의 통일시대 군사 정책 방향</li> <li>○ 대북군비 통제 협상방안연구 (공동연구)</li> <li>○ 아·태다자간 안보포럼과 한반도 평화체제</li> <li>○ 합리적선택이론으로 분석한 북한핵협상과정</li> <li>○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통일환경의 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朴興壽(연 세 대)</li> <li>朴鍾洙(연 세 대)</li> <li>柳鍾善(울 산 대)</li> <li>鄭春日(국방연구원)</li> <li>朴主鉉(국방연구원)</li> <li>金尙範(국방연구원)</li> <li>李赫燮(육사 교수부)</li> <li>金廷憲(성대 사회과학연구소)</li> <li>金用浩(국 방 부)</li> </ul>
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관계와 미·북한 관계의 연구</li> <li>○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li> <li>○ 일본·북한의 관계 정상화와 남북 관계</li> <li>○ 신국제 질서하 일본의 동북아 전략과 남북관계</li> <li>○ 통일한국의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li> <li>○ 통일이후의 교육과정에 관한 모델 연구</li> <li>○ 통일한국 교육제도의 표준모형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宋銀姬(경 희 대)</li> <li>李來榮(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li> <li>裴廷鎬(연 세 대)</li> <li>金珍基(대륙연구소)</li> <li>全宰鎬(서 강 대)</li> <li>金周晟(한국교원대)</li> <li>崔榮杓(한국교육개발원)</li> </ul>

( )은 소속기관임

## <收 錄 論 文>

- ◇ 북한의 가정문화 정책과 가정윤리 ..... 1  
趙 鏞 官(경찰대 공안문제연구소)
- ◇ 최근북한문학에 나타난 세대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 79  
李 相 瓊(한신대)
- ◇ 북한설화집의 체제, 성격 및 설화의 변이 양상 분석 ..... 145  
金 文 泰(성균관대)
- ◇ 남북문학사 기술의 통일방안연구 ..... 221  
金 垠 皙(상 지 대)
- ◇ 북한문예이론의 역사적 변모과정 고찰 ..... 293  
金 成 洙(성균관대)
- ◇ 1980년대 북한의 여성정책연구 ..... 363  
李 承 姬(이화여대)

# 北韓의 家庭文化政策과 家庭倫理

研究責任者：趙 鏞 官 (警察大 公安問題研究所)

## 目 次

<要約文> .....	5
I. 序論 .....	9
1. 研究의 目的과 方法 및 範圍 .....	9
2. 家庭倫理의 概念과 分析의 틀 .....	12
II. 韓國의 傳統的 家庭倫理 .....	19
1. 傳統 韓國社會 家庭文化의 特質 .....	19
2. 傳統的 家庭倫理 .....	23
III. 金日成體制下의 北韓의 家庭文化政策 .....	33
1. 家庭文化政策의 思想的 基底 .....	33
2. 社會主義 建設初期의 家庭文化政策 .....	36
3. 社會主義 發展期의 家庭文化政策 .....	43
4. 社會主義 沈滯期의 家庭文化政策 .....	47
IV. 北韓 家庭倫理의 實際 .....	52
1. 夫婦간의 倫理 .....	52
2. 父母·子女(兄弟·姊妹)간의 倫理 .....	61
3. 祖上·親族간의 倫理 .....	69
V. 結論 .....	72

## 北韓의 家庭文化政策과 家庭倫理

### <要 約 文>

1. 本 研究는 1948년 수립된 북한정권이 傳統的 家庭文化를 타파하고 그들이 지향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김일성 主體思想이라는 統治이데올로기에 照應하는 社會主義文化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였으며, 또 그러한 정책적 노력의 과정에서 야기되는 葛藤과 摩擦은 무엇이었으며, 나아가 현재 어떠한 형태로 남아 있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2. 1945년 8·15해방 직후까지 農業이 주종을 이루었던 우리사회는 비록 일제 36년간의 植民地 생활을 경험하기는 했으나 당시 우리 국민들의 意識은 傳統的 家庭文化가 지배적이었다. 夫婦간에는 전통적 유교적 관념에 따라 男尊女卑思想이 지배적이었고, 이로 인하여 <夫高於妻>, <夫唱婦隨>, <三從四德>, <夫爲妻綱>, <夫主外, 妻主內> 등의 규범이 부부관계를 규정짓었고, 부모와 자식간의 윤리는 원래 <父慈子孝>, 즉 부모는 慈悲로와야 하고 자식은 부모한테 孝道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일반적으로 부모에 대한 孝道만 일방적으로 강요되었다. 兄弟姊妹간의 윤리는 <兄友弟恭>으로 형제간의 友愛있게 지내는 것이었고, 또 祖上崇拜과 親族간의 유대를 강조한 血緣的 家族主義가 강했다.

3. 社會主義 建設初期의 家庭文化政策: 1946년 이미 북한은 土地改革과 男女平等法을 제정 공포하였고, 이는 1948년 북한정권의 공식출범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되었다. 男尊女卑思想이 사회의 지배적 價値觀이었던 시기에 남녀, 또 아동에게까지 土地를 配分한다는 것과 結婚의 自由와 離婚의 自由는 傳統的 結婚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이로 인하여 한때 북한에서는 自由戀愛와 離婚이 급증하기도 하였다.



4. 社會主義 發展期의 家庭文化政策: 6·25 전쟁 복구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1956년 북한은 離婚의 두가지 절차였던 協議離婚과 裁判離婚중 협의이혼은 완전히 廢止하고 재판관을 통한 이혼만을 허락하도록 하였고, 또 戶籍制를 폐지하였으며, 1972년에 제정된 「社會主義憲法」과 1976년에 제정된 「어린이보육교양법」에 兒童의 共同養育制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무상으로 配分되었던 土地는 「自願性的의 原則」을 내세워 1958년 까지 強制的으로 국가에 헌납하도록하여 農業集團化政策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1960, 70년대 農業集團化政策과 經濟成長를 추구하는 한편, 김일성 主體思想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金日成은 「家庭의 革命化」를 통한 全社會의 革命化를 주창하였다. 북한이 이같이 女性의 社會參與와 兒童의 共同養育制에 관심을 가진 것은 인간의 모든 價値觀과 行爲規範을 우선적으로 家庭에 두었던 傳統的 家庭文化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바라는 社會主義 經濟復興을 이룰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5. 社會主義 沈滯期의 家庭文化: '80년대 이후의 북한은 정치적으로는 金正日 후계 체제에 지장을 주는 제반요소를 제거하는 시기였고, 경제적으로 폐쇄정책으로 침체국면을 맞는 시기였다. 이 시기 가정문화정책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한 「社會政治生命體」와 「社會主義 大家庭」 그리고 1990년에 제정·공포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가족법」이다. 「社會政治生命體論」과 「社會主義 大家庭」은 자식이 부모의 恩惠를 배신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의 북한 사회주의가 있게 한 首領과 黨을 배반하지 말고 革命的 義理로 어버이인 首領과 어머니인 黨, 그리고 자식인 인민대중이 혈연적 관계인 「社會主義 大家庭」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金日成·金正日 父子를 대를 이어 忠誠하도록 정치적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으며, 이는 君主에게 忠誠해야 한다는 전통 유교사회의 社會的 倫理關係와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 하겠다.

북한 또 신혼인법에서 近親婚禁止規定, 즉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간의 혼인을 금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혼인법의 6촌보다도 넓은 것으로 우리민족의 傳統 家族意識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중국과 달리 父姓追從의 原則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부모에 대한 孝道를 강조하고 있다.

## 6. 家庭倫理의 實際

첫째, 共產化 이후 북한의 夫婦關係는 북한 당국에서 전통적 男女差別的 夫婦關係를 土地改革이나 男女平等法制定 등 強壓的 方法을 동원하여 平等한 關係로 유도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封建的 男尊女卑思想은 많이 없어졌으나 아직까지 남자는 바깥일에 전념하는 반면 여성은 社會勞動과 가사일을 도맡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또 전통사회에서 강조하던 여성의 貞節과 守節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또 離婚도 특별한 경우에만 정부에서 허락하는 등 傳統的 儒敎的 夫婦倫理가 많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共產化 이후 초기에는 父母와 子女간이라도 黨의 방침에 어긋나면 부모를 고발하는 등 反人倫的 요소도 없지 않았으나, 정권이 안정된 후에는 전통적 부모와 자녀관계로 回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과거와 같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인 孝道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義務도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80년 이후 金正日 世襲體制를 공고히하는 과정에서 孝道와 忠誠을 강조하고 있는 바, 이는 傳統的 儒敎文化에서 강조하던 父子간 그리고 君臣사이의 윤리규범과 그 類似性을 띠고 있다.

또 과거 家父長的 社會에서 일반화되었던 子女結婚에 있어서 부모의 결정권은 公산화 이후 土地改革과 男女平等法 제정등으로 많이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父母의 影響力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戀愛와 離婚은 아직 不道德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傳統的 遺習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겠다.

셋째, 전통적 兄弟·姉妹간의 윤리규범인 友愛은 별다른 變化없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또 黨에서는 이러한 倫理德目보다도 革命的 同志간의 友愛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祖上·親族간의 윤리관계 한 方面이었던 祭祀는 정권 초기에 封建的 殘滓로 迷信이라 일시 批判을 받기도 하였으나 최근들어 민간에서 普遍化되고 있는 것을 容認하고 있으며, 또 男兒選好思想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나아가 傳統 民族名節도 부활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7. 결과적으로 北韓은 정권 수립이후 그들이 指向하고자 하는 社會主義 政治體制를 수립하고 이에 照應하는 社會主義 家庭文化建設을 위하여 人爲的·強壓的 方法으로 傳統的 家庭文化를 打破하기 위한 많은 努力을 경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傳統的 家庭文化가 부분적 變化를 겪기는 하였지만 아직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常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8. 이같은 사실은 社會變動에 있어 한 국가의 통치이데올로기의 變動이 기존 사회의 文化體制와 調和를 이루지 못할 경우, 政治體制는 정치권력 주체의 人爲的·強壓的인 정책으로 인해 단시일내 強制的 變化가 가능하지만, 歷史·文化的 傳統性을 갖는 文化體制는 정치적 의도에 의해 斷絶을 강요받으며, 그 결과 不連續性을 형성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여전히 連續性을 維持하려는 慣性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 I. 序 論

### 1. 研究의 目的과 方法 및 範圍

#### 가. 研究의 目的

본 논문은 5천년 동안 동일한 민족문화를 형성해 왔던 북한이 1948년 공산정권 수립 이후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라 할 수 있는 가정에 대해 어떠한 정책들을 실시해 왔는가를 살펴 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1948년 수립된 북한정권이 傳統的 家庭文化<sup>1)</sup>를 타파하고 마르크스-레닌主義와 金日成 主體思想이라는 統治이데올로기에 照應하는 社會主義 家庭文化를 정착시키기 위해 어떠한 政策的 努力을 시도했으며, 또 그러한 정책적 노력의 과정에서 야기되는 葛藤과 摩擦은 무엇이며, 나아가 현재 어떠한 형태로 殘存 또는 變形(連續성과 不連續性)되었으며, 또 실제 생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같은 연구를 시도하려는 것은 社會變動에 있어서 한 국가의 統治이데올로기의 變動이 그 사회의 政治體制와 文化體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아울러 살펴보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체제는 統治理念의 변화에 따라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쉽게 바뀌어 질 수 있는 반면, 오랜 세월을 두고 형성된 文化體制는 쉽게 변화될 수 없다는 주장<sup>2)</sup>을 북한에 적용시켜 그 妥當性을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1945년 해방 당시 전통적 儒敎文化를 근간으로 이루어진 북한사회가 1948년 사회주의를 통치이념으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의 適實性을 살펴보기에 합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家庭倫理를 택한 이유는 전통 한국사회가 다른 어느 사회보다 家庭과 倫理를 중시하는 사회였고, 또 가정이 사회의 근간이 되는 조직이었으므로 가정에 대한 연구가 북한사회 전체에 관한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기

1)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家庭文化란 家族成員들 간에 지켜야 할 倫理道德規範 및 行爲樣式과 個人이 社會(國家) 및 家族關係에 대해 갖는 일정한 生活樣式을 의미한다.

2) 朴容憲, “北韓의 政治敎化敎育”, 北韓研究所編, 『北韓敎育論』(서울:北韓研究所, 1977), pp. 266-270.

때문이다.<sup>3)</sup> 또한 家庭은 쉽게 變化되기 어려운 保守的 社會化(conservative socialization)機關<sup>4)</sup>이라는 점에서, 家庭倫理體系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가 북한의 전반적 사회체제와 문화체제의 변천과정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동안 우리 학계의 북한연구는 주로 國家安保와 현실 정책적 요구에 의한 연구로서 정치·군사·외교·경제 등에 치중하였고, 사회·여성·가정문제에 관한 연구는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sup>5)</sup> 따라서 인간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집단인 家庭에 대한 연구는 북한 사회 실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나아가 異質化된 分斷를 극복하고 民族 同質性을 回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나. 研究의 方法과 範圍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연구접근 방법은 학자들에 따라 서로 상이하지만 크게 ①歷史-文化的 接近法(The Historical-Cultural Approach), ②全體主義 接近法(The Totalitarian Approach), ③複合-組織 接近法(The Complex-Organizations Approach), ④近代化, 發展論的 接近法(The Modernization or Developmental Approach), ⑤集團-葛藤 接近法(The Group-Conflict Approach) 등으로 나눌 수 있다. 6) 歷史-文化的 接近法은 공산정권의 形成과 機能化 및 發展樣相이 이미 공산화 이전에 集積된 전통적 慣例와 經驗에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발상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방법론이며,<sup>7)</sup>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Friedrich and Brzezinski)로 대표되는 全體主義

3) 李光奎, 『韓國家族의 構造分析』(서울: 一志社, 1990), pp. 15-16.

4) 金在泳, 『政治社會化論』(서울: 大旺社, 1982), pp. 120-121; Dean Jaros, *Socialization to Politics* (N.Y: Praeger Publishers, 1973), p. 79.

5) 『북한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2), pp. 7-8.

6) 자세한 방법론은 L.J. Cohen & J.P. Shapiro(ed), *Communist System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Anchor Press, 1974), pp. x ix-x x x vii; John Bryan Starr, *Ideology and Culture : An Introduction to the Dialectic of Contemporary Chinese Politics* (New York: Harper, 1973), pp. 3-14; 安秉永, 『現代共產主義研究』(서울: 한길사, 1983), pp. 350-378; 廉弘喆, 『比較共產主義政治論』(서울: 博英社, 1977), pp. 61-101 참조.

7) 역사문화적 접근법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L. W. Pye, *China: An Introduction*(Boston: Little Brown, 1972) ; S. H. Beer (ed.), *Pattern of Government*(New York: Praeger, 1956); Ernst J. Simmons(ed.), *Continuity and Change in Russian and Soviet Thought*(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55); Karl A. Wittfogel, *Oriental Despotism: A Comparative Study of Total Power*(New Haven: Yale Univ. Press, 1957) 등이 있다.

接近法은 공산주의가 전체주의체제의 特性(interrelated traits)과 그 徵候(syndrome)<sup>8)</sup>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접근법이고, 複合-組織 接近法은 공산주의체제의 정치적 의사결정 및 그 집행과정에서 黨機構와 政府行政機關의 역할에 중요성을 두는 접근법이다.<sup>9)</sup> 그리고 近代化, 發展接近法은 공산주의를 후진사회의 近代化 내지 産業化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연구방법<sup>10)</sup>이며, 集團-葛藤 接近法은 공산주의 국가의 정치과정을 각기 서로 다른 이해와 목표로 인식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다양한 집단간의 경쟁이나 갈등에 초점을 두는 연구방법이다.<sup>11)</sup> 공산주의에 대한 이같은 다양한 연구접근 방법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전체를 適實性있게 설명할 수 있는 分析의 틀은 다른 사회과학의 접근법이 다 그러하듯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정치이념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각국이 가지는 特異性 때문에 각국을 適實性있게 설명할 수 있는 일반론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sup>12)</sup>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연구는 연구대상 국가의 특성과 연구자의 관심을 고려하여 현실을 보다 적절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연구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전통 儒敎思想을 통치이념으로 하여 비교적 오랜 세월을 두고 형성된 文化體制, 그 중에서도 가정윤리체계가 1948년 共產化 이후의 家庭倫理體系와의 連續性 및 不連續性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체제의 共有的 特性, 즉 理念的 同類性, 構造的 特性 그리고 長期的 目標의 중요성을 간과할 위험이 없지 않으나<sup>13)</sup> 어떤 變化 속에서의 歷史的 傳統의 連續性을 규명하려한다는 측면에서 歷史

8)全體主義 接近法은 1920년, 30년대에 소련, 이태리, 나치독일의 독재정권들에서 나타났던 ①관제 이데올로기, ② 독재자 한사람에 의해 영도되는 단일 대중정당, ③ 테러체제, ④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을 독점으로 통제, ⑤ 군대의 독점적통제, ⑥ 중앙집권적 경제 등의 특징들이 공산주의 체제에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조망한다.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2nd ed. (revised by C. J. Friedrich) (Cambridge:Harvard Univ. Press, 1965), p. 27.

9)보다 자세한 내용은 Alfred Meyer, *The Soviet Political System*(New York:Random House, 1965), pp. 467-476와 Allen Kassof, "The Administered Society:Totalitarianism Without Terror," *World Politics*, x vi, 4 (July 1964), pp. 558-575 참조.

10)Robert Sharlet, "The Soviet Union as a Developing Country : A Review Essay, *Journal of Developing Areas* II, (Janunary 1968), pp. 270-276.

11) 安秉永, 앞의 책, pp. 365-368.

12) 『韓國共產圈研究白書』 (서울: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1989), pp. 55-56; Charlmers Johnson, "Comparing Communist Nations," in Johnson(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ibid., pp. 1-3 참조.

13)Cohen and Shapiro, op. cit., p. x x iii.

-文化的 接近法을 적용코자 하였다.

또 구체적 분석방법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북한주민과의 面接이나 질문지법에 의한 現地調査방법이겠으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로 문헌분석 방법을 따랐다. 문헌분석에 사용된 본연구의 자료는 전통 한국 사회의 윤리적 기초가 되었던 儒敎經典과 북한당국의 정책, 법률 및 사회제도와 기타 북한에서 발간된 1차 자료, 현지를 방문한 사람들의 기록 및 북한에서 발간한 소설, 그리고 귀순자들의 증언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였다.<sup>14)</sup> 분석대상에 있어서는 종래 社會學이나 文化人類學에서 다루고 있는 가족제도론이나 가족관계론 보다는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實際의 倫理關係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본 연구는 먼저 한국의 傳統的 家庭倫理를 살펴보고, 이러한 傳統的 家庭文化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家庭倫理體系가 1948년 共產化이후 북한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變化되어 갔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또 공간적 범위는 1948년 북한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실시된 북한의 家庭文化政策 그리고 家庭倫理實際 사이의 相關性에 한정하여 살펴 보도록 하였다.

## 2. 家庭倫理의 概念과 分析의 틀

### 가. 家庭倫理의 概念

헤겔(Hegel)은 家庭(Familie)을 人倫的 國家의 基本的 構成要素로서 최초의 倫理的 共同生活體로 보았다.<sup>15)</sup> 이러한 倫理的 共同生活體인 家庭에서 가족 구성원들간에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통상 '家庭倫理' 또는 '家族倫理'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다양한 윤리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家庭倫理 또는 家族倫理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sup>16)</sup>. 이같이 가정윤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이유는 전통적 가치관에 입각한 가정윤리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사회에 순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倫理的 遲滯<sup>17)</sup> 현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4) 北韓研究에 있어서 資料의 한계에 대해서는 李溫竹,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서울: 法文社, 1993), p. 171 참조.

15) 李壽允, 『政治哲學』(서울: 法文社, 1981), pp. 352-353.

16)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家庭倫理의 해체에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李箕永, "家庭倫理와 社會敎育," 栗谷思想研究院 주최 제2회 세미나(1992年) 『汎國民세生活倫理學講演大會』 주제발표원고, pp. 15-25.; 陳德奎, "한국사회에서의 가족체 운동의 전개," 『민주문화논총』, 제1권6호, pp. 26-36. 『現代社會와 家族』(서울: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 1986) 참조.

가정윤리에 대한 관심이 이같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료한 개념정의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정과 가족에 대한 명확한 개념구분 없이 혼용되는 경향마저 있다. 이는 가정윤리에 대해 별도의 정의를 내리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된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가 家庭倫理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家庭과 관련된 유사개념인 “家族”과 “家(집)”의 개념을 분석 검토한 후, 가정윤리의 개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家族과 家庭에 대한 정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대표적인 몇몇 학자들의 정의를 간추려 살펴 보고자 한다.

家族(Family)에 대해서, 머독(G. P. Murdock)은 “共同의 居住, 경제적 협력, 그리고 生殖이란 특성을 갖는 社會集團<sup>18)</sup>”으로, 구드(W. J. Goode)는 “부모와 자녀들로 구성된 사회적 단위<sup>19)</sup>”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李光奎는 “결혼이나 혈연 관계로 結付된 사람들이 이룩한 사회집단이며 同居同財의 공동체이고 생식과 양육의 기능을 가진 生活共同體<sup>20)</sup>”로, 金斗憲은 가족을 “일반적으로 영속적인 결합에 의한 부부와 거기에서 생긴 자녀로써 된 生活共同體”라 하였고, 崔在錫은 “가계를 공동으로 하는 親族集團”

17) 사회학자들은 社會變動을 技術的 變動(technological change), 組織의 變動(organizational change), 理念的 變動(ideological change)으로 구분하여, 기술적 변동은 사회적 抵抗이나 葛藤을 가장 적게 일으키며, 이념적 변동은 가장 많은 저항과 갈등을 거쳐서 진행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만일 이러한 세가지 형태의 사회변동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는 광범하고도 중요한 사회구조적 변동이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오그번(W. F. Ogburn)이 말했던 文化遲滯의 현상이 불가피하다. 임희섭, “韓國文化의 變化와 展望,” 임희섭(編), 『韓國社會의 發展과 文化』(서울: 나남, 1987), p. 234. 文化遲滯理論에 관해서 보다 자세한 것은 W. F. Ogburn, *On Culture and Social Change*(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R. P. Appelbaum, *Theories of Social Change*, 김지화 옮김, 『사회변동의 이론』(서울: 한울, 1983), pp. 73-76 참조. 한편 高範瑞는 사회적 제도 및 구조의 변화와 거기에 부합되어야 할 가치관, 의식구조, 행동방식 사이의 불일치를 ‘倫理的 遲滯’(ethical lag)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高範瑞, 『變革期의 社會倫理』(춘천: 翰林大學出版部, 1986), pp. 37-39.

18) Murdock, R. K., *Social Structure* (N. Y: Fress Press. 1966), p. 1, 李光奎, 앞의 책, p. 23. 재 인용. 한편 레비스트로스는 家族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즉 (1)가족은 결혼에 의해 출발하며, (2)夫婦와 그들의 결혼에 의해 출생한 子女로써 구성되지만 이 중 核集團에 다른 近親者가 포함될 수도 있고, 또 (3)家族構成員은 a)法的 紐帶, b)經濟的, 宗教的, 그리고 그 외에 다른 權利와 義務, c)性的 權利와 禁制, 愛情, 尊敬, 敬畏 등 多種多様な 心理的 情感으로 結合되어 있다. 머독은 共同의 居住를 家族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한 데 반하여 레비스트로스는 家族員의 紐帶, 關係, 結合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위의 책, p. 28.

19) William J. Goode, *The Family*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2), p. 8.

20) 李光奎, 앞의 책, p. 27.



21)으로, 그리고 金瓊東은 “두 사람 이상의 남녀가 婚姻으로 결합하여 자녀를 갖고, 함께 협력(즉, 同居)하여 사는, 비교적 영속적인 사회단위”<sup>22)</sup>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또한 劉永珠는 “夫婦와 그들의 子女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사회집단”<sup>23)</sup>으로, 또 李效再는 “일상적인 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夫婦와 子女들, 그들의 친척 그리고 입양이나 기타 관계로 연대의식을 지닌 공동체 집단”<sup>24)</sup>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부모와 자식·부부 등의 관계로 맺어진 한 집안에서 생활을 함께 하는 집단”<sup>25)</sup>으로, 그리고 북한에서는 “결혼과 가장 가까운 혈연적 관계에 기초하여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sup>26)</sup>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家庭에 대한 정의를 살펴 보면, 劉永珠는 “공간적 장소와 함께 그 속에서 가족들이 그들의 信念이나 愛情을 주고 받으며 정서적 만족을 얻는 심리적 분위기를 포함하는 개념”<sup>27)</sup>으로, 그리고 李效再는 “가족이 衣食住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집안으로서 온정이나 사랑에 기반을 둔 정서적 유대와 서로 소속감을 느끼는 연대의식을 가진 共同體”<sup>28)</sup>로, 또 朴容憲은 “夫婦, 父母와 子息 등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 구성원이 생리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혈연적 공동생활의 터전이며 사회생활의 기본적 단위”<sup>29)</sup>로 정의하고 있다.

李熙昇은 간략하게 “한 가족이 살림하고 있는 집안, 또는 부부와 아버지 자식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sup>30)</sup>으로, 그리고 북한에서는 “생활을 함께 꾸려 나가는 하나의 집단”<sup>31)</sup>으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家庭의 정의에 대해 이길표는 “가정이란 용어는 근자에 와서 쓰게 된 용어이며 과거에는 “집” 또는 “집안”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家”라는 말로 씌어져왔다”<sup>32)</sup>고 주장한다. 이때

21) 崔在錫, 『韓國人の 社會的 特性』(서울: 開文社, 1980), p. 23.

22) 金瓊東, 『現代의 社會學』(서울: 博英社, 1989), pp. 302-305 참조.

23) 劉永珠, 『新家族關係學』(서울: 敎文社, 1991), p. 24.

24) 李效再, 『家族과 社會』(서울: 經文社, 1991), p. 12.

25) 李熙昇, 『國語大辭典』(서울: 民衆書林, 1988), p. 36.

26) 『철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42.

27) 劉永珠, 앞의 책, p. 29.

28) 李效再, 앞의 책, p. 7.

29) 朴容憲, “價値教育을 위한 概念設計,” 『민주문화 논총』, 1991, 제2권 제8호, p. 62.

30) 李熙昇, 앞의 책, p. 35.

31) 『철학사전』, 앞의 책, p. 41.

32) 李光奎, “가정문화(2): 규범문화,” 『민주문화논총』, 제2권제6호, p. 10. 또 李光奎는 ‘집’은 학술적 용어는 아니나 ‘집’의 개념에는 가족과 건물, 家風, 家格 등의 文化的 의미가 포함되는 넓은 개념이라 규정하고 있다. 李光奎, 『文化人類學의 世界』(서울: 서울大出版

적의식에 따라 단기간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의도성은 수령형상창조에 대한 이론의 대두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보여진다. 결국 수령형상문학 이론에 따라 특정한 개인 내지 기관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든 김일성전설집은 전설이 지닌 고유의 진술성, 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에서 중시하는 진실성이 결여됨으로써 사실주의문학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김일성의 죽음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편찬되던 김일성전설집의 단절을 의미한다. 김일성은 이미 인민과 노동계급과 당을 영도하는 수령이 아니기에 북한주민들에게 현실적인 정책이나 노선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일성전설집은 그야말로 전설 그 자체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북한에서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며, 그에 따른 수령계승자에 대한 형상창조이다. 그러나 문제는 수령의 위대함을 극대화 한 김일성전설집과 같은 문학작품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는 데에 있다. 김일성은 항일무장투쟁을 통한 승리라는 구체적인 혁명성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김정일은 이러한 혁명성과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형상화한 '김정일전설집'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단지 수령계승자로서의 김정일의 역할은 김일성이 주도해온 노선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만 의의가 있는 것이다. 물론 김일성전설집이 새로이 편찬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김일성전설집은 이미 사망한 김일성의 혁명성과 위대성을 드러내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수령인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 혁명적 자질과 위대성을 물려받았다는 김정일 체제의 정통성과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현실적인 수령은 김정일이므로 김일성전설집이 김정일의 혁명성과 위대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줄 수는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러나 일반전설집의 경우에는 김일성전설집과 달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간될 것이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일반전설집들과 문학의 각 방면에 대한 이론서들이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북한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김일성전설집의 단절로 인한 공백을 또 다른 설화집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보상심리도 이러한 일반전설집의 발간에 가일층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북한의 문학일반, 특히 설화문학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설화문학은 민족적 정서를 풍부하게 구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 정통성 계승이라는 기능적인 면까지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북한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것이다.

이같은 차이점에 비추어 볼때, 본 논문이 가족공동체내 구성원들간에 이루어지는 倫理關係(夫婦關係·父子關係·兄弟關係·姉妹關係, 崇祖·親族關係에서의 倫理)를 중심과제로 다루기 때문에 단순히 구성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역할을 중시하는 “家族”이란 용어보다 가족 구성원들이 만들어 내는 물리적, 정서적 공간과 규범문화에 보다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家庭”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倫理의 개념을 語源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東洋에서 쓰이는 “倫理”는 儒家의 經典인 『禮記』에서 유래된 것으로,<sup>34)</sup> “倫理”의 “倫”字는 “무리, 동료, 또래 등 인간집단”의 의미와 “秩序, 法, 紀” 등을 뜻하고, “理”는 “治玉, 分別, 條理, 道理”등을 뜻한다.<sup>35)</sup> 따라서 “倫理”는 “무리들간의 지켜야 할 道理”나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理法”을 뜻한다. 그리고 西洋에서 쓰이는 ethics는 원래 그리스어 “ethike”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는 習慣을 의미하는 ethos의 변형된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일반적으로 세가지 의미로 구분하여 사용된다. 첫째, 廣義로는 생활방식 및 그 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종교적 의미의 윤리개념으로 즉 기독교·불교·유교에서 말하는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두번째 의미로는 行爲의 規則 또는 道德綱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가정윤리·직업윤리·공직윤리·기업윤리 등과 같이 專門的 영역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의미한다. 세번째 의미로는 生活樣式과 그 類型 및 行爲規範에 관한 哲學의 한 영역으로 쓰여지는 것으로, 이는 주로 道德規範에 관한 철학의 한 영역인 倫理學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sup>36)</sup> 이렇게 구분해 볼 때 <家庭倫理>에 부합되는 윤리의 의미는 두번째의 의미, 즉 행위의 규범과 도덕강령에 해당된다. 따라서 동서양에서의 倫理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倫理란 “인간이 共同生活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옹당 지켜야 할 行爲의 規則과 道理”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이러한 “倫理”의 개념과 앞서 고찰한 “家庭”의 개념으로 부터 가정윤리개념을 도출해 보면 결국 家庭倫理란 “婚姻關係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夫婦·父子·兄弟(姉妹)關係등 혈연적 유대관계로 맺어지는 物理的, 情緒的 生活共同體에서 지켜야 할 行爲規範”으로 규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家庭倫理란 이러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34) 『禮記』(第19章:樂記篇), “樂者通倫理者也.”

35) 崔東熙 外 2人, 『倫理』(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3), p. 55;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編輯部編, 『中國大百科全書1』(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7), p. 515. 『辭源(修訂本)』(北京: 商務印書館, 1990), p. 234. pp. 2061-2062.

36) Jonathan Harrison, Ethics, in Paul Edwards(ed),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3, (New York: MacMillan, 1967), pp. 81-82.

### 나. 分析의 틀

家庭은 인간생활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동시에 傳統과 慣習을 습득, 전수하는 文化的 機能을 수행<sup>37)</sup>하며, 나아가 개인의 욕구충족과 사회관계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집단으로 다른 社會制度和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다. 社會構造가 크게 分化되지 않았던 傳統社會에서는 家族-親族制度가 가장 중추적인 사회제도였으며 또 그와 관련된 영역이 가장 중요한 중심적 생활영역이었다.

近代로 접어들면서 여러가지 社會制度가 分化되어 家族制度이외의 여러가지 사회제도, 예컨대 경제·교육·종교·매스컴 등과 같은 제도가 등장하였으나 여전히 가정은 사회의 원초적, 기초적 제도로서 존재하고 있다.<sup>38)</sup>

이와같이 家族制度는 傳統社會나 現代社會를 불문하고 사회를 이루는 가장 基礎的이고도 중요한 사회제도이기 때문에 사회나 국가를 통치하는 담당자들은 가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래서 정치권력의 주체들은 항상 가정을 사회나 국가경영의 기본단위로 간주하여 그들의 統治理念을 가정이라고하는 社會化機關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內面化하려고 시도하게 된다. 또한 가정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생활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그 사회가 理念으로 하는 社會秩序의 유지와 관련된 사회적 기능도 아울러 수행하는 사회적 제도이다. 이때 “그 사회가 理念으로 하는 社會秩序”란 기존의 확립된 社會秩序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 사회가 理念으로 하여 새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회질서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sup>39)</sup> 이와 같이 가정은 사회의 질서유지와 관련하여 그 사회가 指向하고자 하는 目標, 價値, 規範 등을 주입하는 社會化의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그 사회질서에 동조하도록 직접·외적 압력을 가하여 질서를 보장하는 기능을 또한 수행한다.<sup>40)</sup>

그러나 家庭과 국가의 統治理念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 국가의 政體가 제시하는 統治理念과 文化體制가 同質的일 경우 그 국가의 통치이념은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37) J. Messner, J. U. D., Dr. Econ. Pol., *Social Ethics* (Binghamton and New York: Herder Book Co, 1949), p. 291.

38) 崔弘基, “家族과 社會秩序,” 서울大學校現代思想研究會編, 『이데올로기와 社會變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p. 19.

39) 위의 책, pp. 42-43.

40) 위의 책, p. 36.

가족 구성원들에게 쉽게 內面化되지만, 국가의 統治理念이 文化體制와 異質的일 경우 권력의 주체들은 그들이 지향하는 이념을 사회구성원들에게 內面化시키기 위해 意圖的으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며, 이 때 많은 갈등과 마찰이 야기된다. 이 경우 政治權力의 담당자들은 그들의 통치이념에 입각한 社會價值體系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文化體制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의 주요한 대상이 家庭이다. 따라서 그들은 家庭文化政策을 통하여 그들이 의도하는 文化를 창출하기 위해 家庭倫理의 變化를 시도하게 된다. 통치자들이 특히 家庭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가정이 일반적으로 體制및 文化를 維持시키는 가장 保守的 機能을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치, 사회적 변화를 비교적 그 틀에 맞춰 나가고자 하는 공산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다.<sup>41)</sup> 구소련이나 중국의 경우 마르크스-레닌主義라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그 구성원들에게 注入시키기 위해 전통적 가족제도를 파괴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시도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치권력을 담당하는 자들은 政治的 安定과 社會秩序를 유지하고 그들이 지향하는 통치이념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政策이나 運動을 실시한다. 이러한 정책이나 운동을 통하여 個人들은 국가이념에 부합된 行動을 하도록 여러가지 제재를 받거나 또는 권장받기도 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行動이 慣習化되어 사회통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倫理”가 되며, 이것이 가족구성원들에게 적용될 때 “家庭倫理”가 되어 개인의 行動을 지배·규제하게 된다. 이같은 현상은 社會變化를 급격히 시도하려는 국가, 즉 革命을 통하여 社會를 변화시키려는 곳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본 논문은 共產化 이후 북한이 시행한 정책 중에서 家庭文化와 관련되는 정책들,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공식화된 婚姻制度, 離婚制度, 相續制度, 그리고 家父長制度, 戶籍制 철폐 등을 먼저 살펴본 다음, 이러한 정책들이 북한주민들의 실생활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夫婦·父子·兄弟·姉妹·祖上(親族)간의 倫理關係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41) 羅昌柱, 『比較共產政治論』(서울:形成社, 1983), pp. 332-335.

## II. 韓國의 傳統的 家庭倫理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傳統社會란 1945년 이전의 한국사회를 의미 한다. 해방과 더불어 서구문화가 들어오기 이전의 우리사회는 自給自足하는 농경경제체제의 일제 식민지 사회였고, 開化 역시 일본이 주도한다하여 오히려 조상전래의 儒敎倫理와 風俗을 더욱 고집하는 반작용 때문에 가족집단에는 전통적 가족구조나 기능면에서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었다.<sup>42)</sup>

따라서 북한사회가 1948년 공산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은 전통적 儒敎文化가 지배하던 사회라고 단정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기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전통 한국사회의 윤리규범을 儒敎倫理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1. 傳統 韓國社會 家庭文化의 特質

#### 가. 血緣中心의 農耕社會

가정은 생명지속의 時間性과 생명확충의 空間性이 교차되는 하나의 장소인 동시에 혈연 중심으로 모인 生命群이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살아가는 최소의 사회단위이자 文化傳承의 기관<sup>43)</sup>이기도 하다. 또 가족제도는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보편적 제도인 동시에 한 사회내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제도이기도 하다. 사람은 누구나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는 가정 속에 태어나 그 속에서 성장하며 성인이 되면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간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가정을 떠나 살 수 없다. 가정은 이와 같이 個人에게 있어서나 社會組織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개인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서구사회와 달리 家族主義<sup>44)</sup>를 基幹으로 하여 형성된

42) 柳岸津, “韓國 傳統社會의 特性과 初期 社會化,” 『한국인의 初期 社會化過程 研究』(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p. 46.

43) 池敎憲, “家庭의 倫理적 特性과 社會·敎育的 機能,” 『個人과 國家』(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5), p. 83. 이는 곧 가정의 기능 중 일부를 의미한다. 가정의 기능에 대해 여러가지 학설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①性的 機能, ②生殖的 機能, ③社會·敎育的 機能, ④經濟的 機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劉永珠, 『新家族關係學』(서울: 敎文社, 1991), pp. 34-39; 高柄翊, “現代社會와 家族,” 『現代社會와 家族』(서울: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 1986), p. 20 참조.

44) 가족주의란 일반적으로 “일체의 價値가 家族集團의 유지, 지속, 기능과 관련을 맺어 결정되는 가족집단의 단결과 영속화,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가족구성원들의 꾸준한 집단적 노력을 말한다.” 崔在錫, 『韓國人の 社會的 特性』(서울: 開文社, 1980), p. 23.

우리를 비롯한 동양사회에서 가정이 지니는 의미는 특별하다고 하겠다.

전통적 한국사회가 정치문화적 통일체를 이룬 하나의 보편적 국가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家族制度의 연장이었다. 그래서 동양사회에서는 ‘家’는 ‘國’의 원형이자 母體였으며, 또 ‘國’은 ‘家’가 확대된 것(化家爲國)으로 그리고 國家의 구성원리도 家庭의 구성원리가 확대된 것으로 보았다.<sup>45)</sup>

전통 한국사회나 중국사회가 이같이 가정을 중시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농업 중심의 사회라는 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1948년 공산화전만 하더라도 북한인구의 대다수가 주업인 농업에 종사하였고, 또 농업은 그 특성상 개인이나 소수 몇몇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家族·親族·氏族간의 협동을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자연 많은 사람이 한 곳에서 집단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家庭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이같은 사회·경제적조건에 부합된 思想이 바로 儒敎思想이라 할 수 있다.<sup>46)</sup> 그리고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이유때문에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복잡하고 잘 組織된 家族制度가 발달하게 되었다.<sup>47)</sup> 결국 경제적 여건이 가족제도의 기반을 제공하고 또 儒敎가 그 倫理的 意義를 강조했다. 이와 같이 전통적 가정은 유가적 가치관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sup>48)</sup>

1948년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까지 우리 사회는 사회의 경제적, 교육적, 종교적, 오락 그리고 정치적 기능조차도 家族制度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개인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그의 육체적 도덕적 성장, 정서와 태도의 형성, 교육훈련, 사회적 결사, 사회적 교제, 정신적 물질적 안정 등에 관하여 계속 가정의 영향권 속에 들어 있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가족 이외에 개인의 사회적 요구를 해결해주는 사회적 조직이나 결사는 거의 없었다. 그 결과 개인은 그의 전생애에 걸쳐 끊임없이 부모와 자식, 남편과 부인, 형과 동생, 시부모, 시형제·자매와 며느리, 삼촌, 사촌, 조카, 조부모와 손자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親戚社會 내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살아야만 했다.

이와 같이 전통 한국사회가 家庭中心의 사회가 된 것은 儒敎思想의 중요한 가치관

45) 李光奎, 앞의 책, p.15.

46) 全海宗, “儒敎文化의 普遍性和 特殊性,” 『儒敎文化의 普遍性和 特殊性』(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8회국제학술회의자료집, 1994), p. 5; 박병련, “南北韓 道德規範의 葛藤樣相,” 『統一後遺症 克服方案研究』(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p. 175-176.

47) Fung Yu-Lan, *A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New York: The Free Press, 1948), p. 21.

48) 趙惠貞, “家族倫理(2),” 『현대사회와 家族』, 앞의 책, pp.167-168.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親親(父母나 親戚과 같이 마땅히 가까이 친하여야 할 사람과 매우 친함)의 原理에 따른 것이다.<sup>49)</sup> 이러한 親親의 원칙은 전통 가정전체 성원들에게 확고한 一體感(identity)을 갖게 하는 기능을 하였다. 역대 家規, 族制 및 法律條文들이 親親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밖의 생활에서도 응집력을 강조되었다.

#### 나. 崇祖·家門重視 社會

전통적 家庭文化의 특질 중의 하나는 先祖 崇拜와 先祖에 대한 祭祀이다. 원래 先祖 崇拜는 선조와 나(我)와의 관계를 규정지어 줄 뿐 아니라 나의 존재가 선조의 생명의 연장임을 깨닫게 해 주는 기능을 하였다.<sup>50)</sup> 조상에 대한 報恩의 구체적 표현이 祭祀이고, 살아 있는 부모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孝道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전통 한국사회에서는 다른 어떠한 행사보다 先祖에 대한 제사의식을 중시여겼다. 이러한 제사의식은 한국인들에게 정신적,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家族-同宗, 同姓 등 氏族間에 一體感和 紐帶感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려면 代를 이를 후손, 즉 男兒가 있어야 했다. 만약 代를 이를 子孫이 없으면 儒家의 최고의 도덕인 孝道를 표현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單系로 구성된 親族들은 죽은 祖上에게 祭祀지낼 사람도 없어지게 되어 家門이 滅族하고 만다. 친족의 조직이 이와 같이 파괴되면 事親(부모를 섬김)의 倫理價値도 의지할 바를 잃게 된다. 또 전통사회에서는 순조롭게 出世하지 못하는 것을 인생의 최대의 좌절로 여겼고, 後嗣가 없어 列祖에 列宗을 잇지 못하면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모두는 조상의 생명을 이을 자식(後嗣)의 귀중함을 말해 주고 있다, 그래서 孟子는 “不孝에는 세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代를 이을 아들이 없는 것이 가장 큰 不孝”라고 했다.<sup>51)</sup> 先祖나 살아 있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많은 자손을 두는 것이 자식으로서 가장 큰 임무로 여겨졌다.

49) 이 같은 親親의 原理는 『論語』, 『孟子』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論語』學而篇, “孝弟는 仁을 完成해 가는 근본이다”(…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孟子』, 告子章句下二 “堯와 舜의 道는 孝弟일 뿐이다”(…堯舜之道, 孝弟而已矣) 이는 孝와 弟가 仁과 道의 모든 출발점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전통 유가 윤리에서는 家庭에 대한 個人의 의무를 특히 강조하였다. 李漢龜, “儒教倫理의 構造와 社會的機能,” 『韓國哲學思想研究』(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pp.107-108.

50) 池敎憲, 앞의 논문, p. 91.

51) 『孟子』, 離婁章句上二十六, “不孝有三 無後爲大,” 不孝有三이란 아버지를 不義에 빠뜨리는 것, 집이 가난하고 아버지가 年老하여도 祿을 받는 벼슬을 하지 않는 것, 아내를 쫓아내지 않아서 無子로 선조의 제사를 끊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子孫의 번성을 바라는 것은 전통사회가 先祖와 父母에게 孝道해야 한다는 倫理的 측면 외에도 經濟的 측면에서의 요구도 없지 않았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요구란 전통사회가 농업·수공업사회였기 때문에 집집마다 많은 일손을 필요로 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손을 갖는 것이 富를 축적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가정문화의 또다른 특질중의 하나는 家族, 親族, 同族안의 家門意識이다. 전통 한국사회의 가정구성원들은 무엇보다도 家庭과 家門의 名譽를 중시여겨 개인의 成功은 곧 家庭 전체의 성공이며, 나아가 家門의 영광으로 간주하였는 반면 개인의 失敗는 가정과 가문 전체의 실패와 同一視하였다. 따라서 개인은 가정과 가문의 명예를 위해 분투 노력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家門의 家風을 유지하기 위해서 家譜나 族譜등을 만들어 자손들로 하여금 家門의 名譽를 지키도록 했고, 어떠한 劣惡한 혼인관계를 막론하고 離婚이 허락되지 않았으며, 和平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은 반드시 자기의 意思를 억제하고 父母나 家門의 命令에 따라야 했다.

#### 다. 家父長制 中心의 社會

家族을 지배하고 가사를 지휘하고 가족원을 통솔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家長이라고 하며, 父系 확대가족에서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最上世代에 속하는 최고령자인 父이기 때문에 家長을 家父長이라고 한다.<sup>52)</sup>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주인> 또는 <어른>으로 불리우는 家長은 가족의 所有者였다. 여기서 所有란 경제학적 물질 지배, 관리, 처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人物에 대한 지배하는 권리와 그를 외부에 대표하는 권리를 말한다. 가장이 가지는 대표권은 가족원의 의사를 대표하여 지역공동체의 전체회의에 참가하여 의사를 표명하고 지역공동체의 공동행사에 참가하는 것과 친족공동체인 同族의 회의와 儀禮에 참가하는 것, 그리고 婚喪禮가 있을 때 가족을 대표한 가장의 名義로 婚家나 喪家에 부조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sup>53)</sup>

가장은 또 가족구성원을 지배하는 制止權, 決定權, 敎令權 등을 가진다. 가족을 영도하고 家事를 처리하여 감에 따라 가족내에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 이를 조정하고 가족의 集團的 安定을 위하여 가족구성원의 結束을 도모한다. 가족이 생산과 소비의

52) 李光奎, 앞의 책, p.129.

53) 위의 책, pp.130-131.

단위인 농촌사회에서는 가내노동력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가장은 노동력의 획득이나 유지에서 가족구성원의 신분적 변경 즉 결혼이나 직업 또는分居 등에 큰 발언권을 갖고 가족원의 증대사에 대하여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가장은 가족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가족원의 외부행위에 대한 道義的 責任을 지고 가족의 장래발전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에 대한 敎令權을 소유한다. 말하자면 가장은 道具的 指導者((instrumental leader)로서 規範維持에 힘쓰고 가족원의 교육을 담당하고 진학 등 학교교육 등에 관여한다.<sup>54)</sup>

가장이 소유한 또 하나의 큰 영역은 財産權이다. 재산권은 가족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衣食住를 포함하는 것이기에 가장의 입장에서는 가족원들에게 식사와 의복을 제공하고 거처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義務이기도 하지만 가족원을 위한 財産을 관리하고 처분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權限이기도 하다.<sup>55)</sup>

家長이 소유하는 다른 권리, 특히 한국과 같이 祖上崇拜가 발달한 사회에서 가장이 갖는 권리는 祭祀權이다. 제사는 조상의 영혼에 대한 奉獻이란 면에서 가장의 의무이지만 가장은 제사권을 소유함으로써 가족의 正當한 繼承者란 사회적 시인과 가족구성원에 대하여는 司祭權을 더욱 강하게 행사할 수 있어 간접적 권리라 할 수 있다.<sup>56)</sup>

또 家父長制는 宗法社會<sup>57)</sup>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尊卑上下의 從屬關係를 중요시 하였다. 이 때 尊卑上下의 從屬關係란 父系, 父權을 중심으로 모든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夫婦관계에 있어서는 夫權이 婦權보다 우위에 있음을 의미하고 父子관계에 있어서는 父가 子보다 높고 兄弟간에 있어서는 長子가 다른 형제보다, 그리고 嫡庶간에 있어서는 嫡子가 더 높은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 男女간에 있어서는 男子가 女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男女不平等思想을 의미한다.

## 2. 傳統的 家庭倫理

전통 한국사회에서 家庭은 가장 중요한 사회제도이자 모든 윤리의 출발점이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사회조직보다 가족제도를 중요시하였고 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54) 위의 책, pp. 131-132.

55) 尹泰林, 『韓國人の 性格』(서울:東方圖書, 1986), pp. 158-159; 위의 책, p. 132.

56) 위의 책.

57) 宗法社會制度란 神權주의 사상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이때 「宗法」이란 바로 父系, 父權, 父治의 氏族制度를 말한다.

倫理 중에서도 家庭倫理를 중시하였다. 한국윤리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儒敎의 五倫 중에서도 가정윤리(父子, 兄弟, 夫婦)가 3가지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윤리에 속하는 父子, 夫婦, 兄弟 간의 倫理를 다른 어떠한 倫理보다 중시 여겼으며, 그 밖의 나머지 윤리인 君臣, 朋友에 관한 윤리는 사회윤리로서 가정윤리의 확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sup>58)</sup>

여기서는 家庭倫理, 보다 구체적으로는 (1)부부관계에서의 지켜야 할 倫理 (夫婦倫理), (2)부모와 자식간에 지켜야 할 倫理 (父子의 倫理), (3)형제 자매간에 지켜야 할 倫理 (兄弟姊妹間의 倫理), 그리고 (4)가정윤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는 조상과 친족에 관한 윤리(祖上·親族間의 倫理)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가. 夫婦간의 倫理

부부관계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란 두 男女가 婚姻이란 儀式 또는 制度로 관계를 맺게 된 非血緣的인 한 가장 밀접한 인간관계이자 가정을 이루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儒敎의 古典에서도 夫婦의 결합에 관한 언급이 많다. 『周禮』에는 “부부가 있고 난 후에 가정이 있다.”(有夫有婦, 然後有家)라고 하였으며, 『中庸』에서도 “夫婦로부터 君子之道의 端初가 비롯된다.”(君子之道 造端乎夫婦)고 언급하고 있다.<sup>59)</sup>

전통 儒家들은 五倫 중에서도 孝道, 友道, 그리고 君臣之道 등에 관한 것을 강조하였는데, 夫婦관계에 관한 도리(道)를 언급한 것은 별로 없었으나 朱熹는 다른 儒家와 달리 夫婦倫理에 관한 언급이 많았다고 한다.<sup>60)</sup> 공자와 맹자도 이 문제에 대하여 특히 중요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후세들의 유가들은 남녀에 대해 尊, 卑, 貴, 賤, 健, 順 등 서로 다르게 평가하였는데, 이는 『周易』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도덕적 意義는 모두 中庸, “君자의 道는 匹夫匹婦에서 發端되지만 그 지극한 데에 이르러선

58) 統治理念을 儒家思想(性理學)에 기초를 둔 朝鮮時代의 社會規範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家族的 차원의 倫理關係를 政治的 倫理關係인 君·臣간의 윤리로 연결시켜 정치적 권위를 공고히 하여왔다. 夫南哲, 『朝鮮前期 政治思想研究』(1990, 韓國外國語大學 博士學位論文); 柳岸津, 앞의 논문, p. 34.

59) 儒敎의 經典들은 모든 인간관계가 夫婦關係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생활에서는 父子關係를 더욱 중시하였다. 이러한 사회인식 때문에 夫婦간의 倫理보다 父子간의 倫理規範이 더 強調된 것으로 보인다. Francis L.K.Hsu, "Kinship and Ways of Life: An Exploration," in Francis L.K.Hsu(ed), *Psychological Anthropology: Approaches to Culture and Personality* (Homewood: The Dorsey Press, INC, 1961), pp. 406-414.

60) 楊懋傑, 『朱熹倫理學』(臺北: 牧童出版社, 1978), p. 127.

天地에 나타난다”(君子之道, 造端乎夫婦, 及其至也, 察乎天地)에서 나온 것이다.<sup>61)</sup>

전통 동양사회에서의 부부관계는 흔히 <夫高於妻>, <夫唱婦隨>, <夫主外, 妻主內>로 표현된다. 여기서 <夫高於妻>란 남편이 부인보다 높다는 의미로서 부인은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남편은 하늘이고 부인은 땅이라 하여 부부간의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였으나 이것은 곧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의미로 바뀌어지고 말았다. 남편이 부인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남녀의 差別的 位置에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말해서 이것은 부부관계도 男尊女卑思想에 따라 不平等한 관계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남녀불평등관계는 전통적 우리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들이다. 그래서 우리말에 “암닭이 울면 나라(집안)가 망한다”, “아침부터 계집이 재수없게--”, “무어니 무어니 해도 女子는 남편 잘 만나게 제일이야”라는 말 등에 잘 나타나 있다.<sup>62)</sup> 이같은 남존여비의 관념이 언제부터 생기게 된 것인가는 확실하지 않으나 『禮經』이 확립된 이후 ‘3從’의 이론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禮記-郊特性』에 “婦人은 다른 사람을 따라야 하는데, 어려서는 父兄을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며,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른다”(婦人從人者也, 幼從父兄, 嫁從夫, 夫死從子)라고 하였고 또 『儀禮-喪服傳』에 “女子는 3가지 도리(義)를 따라야 하며, 오로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고,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며,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른다”(婦人有三從之義, 无專用意, 故未嫁從父, 既嫁從夫, 夫死從子)라 하였다. 三從(之道)는 고대 중국의 부녀의 지위를 밝히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男尊女卑와 婦女의 生活중에 夫權의 통치를 집중적으로 體現한 것이라 하겠으며, 이는 또 전통 한국사회에서도 이를 그대로 적용시키고자 하였다.<sup>63)</sup>

또 부부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윤리 중의 하나가 夫爲妻綱이다. 『儀禮·喪服傳』에 “아버지는 아들의 하늘이고, 남편은 아내의 하늘이다.”(父者子之天也, 夫者妻之天也)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부부간의 지위가 천양지차(天壤之別)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 『說文 解釋』에는 “婦는 복종하는 것이며, 복종은 夫에게 하는 것이다”(婦, 言服也, 服事于夫也)라고 언급하면서, ‘夫人’이란 비록 존칭이지만, 그말의 의미는 타인을 도와(扶助)주는 데 불과하며, ‘夫人’은 오직 남자에게 속해 있음을 말한다<sup>64)</sup>

61) 위의 책, p.127 재인용.

62) 崔在錫, 『韓國人の 社會的 性格』(서울: 開文社, 1980), pp. 30-37.

63) 史鳳儀, 『中國古代婚姻與家庭』(湖南: 湖南人民出版社, 1987), pp. 120-121. 李光奎, 앞의 책, p. 143.

고 밝히고 있다. 전통 한국사회의 부녀자들의 도덕규범이었다고 할 수 있는 『內訓』에도 “남편은 역시 아내의 하늘이다. 아내는 마땅히 예로써 공경하여 섬기기를 그 아버지에게 하듯 할 것이다. 몸을 낮추고 뜻을 나직이 하며, 그짓 존대하는 척하지 말 것이며, 오직 순종할 뿐 감히 어긋남이 없도록할 것”이라며, 『女教』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sup>65)</sup>

부부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또 다른 도리는 夫唱婦隨이다. 부창부수란 원래 남편의 주장에 아내가 따르는 夫婦和合의 道를 의미하는 것이다. 아내가 남편의 주장에 따르는 것이 夫婦和合의 道라고는 하지만 전통 중국사회나 한국사회에서는 남편의 뜻이 일방적으로 아내에 강요되는 강요된 화합을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sup>66)</sup>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男尊女卑思想으로 남자가 가정의 모든 문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여자에게는 다만 남편에게 順從할 의무만 있었기 때문이다. 또 아내는 자기의 의견을 남편에게 건의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다고는 하나 대부분의 경우 남편의 뜻을 따르거나 옹호하는 것이 상례였다. 남편된 자는 가정에서 이같은 특권이 있는 반면에 처와 가족들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도 아울러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과 의무는 잘 지켜지지 않았고, 재산에 대해서도 여자에게는 권한이 거의 없었다.

또한 전통사회에서는 여자를 남자에게 예속시키기 위한 많은 책들이 있었다. AD 1세기경 중국 東漢의 반소(班昭)는 그녀가 쓴 『女誡』에서 “음과 양은 남자와 여자처럼 매우 다른 원리이며, 양의 미덕은 안정성이며 음의 미덕은 유연성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여성들이 순종적이고 겸손하며 순복하고 소심하며 공손하고 말을 적게 하며 이타적인 성품을 갖도록 교훈했다. “‘남을 먼저 생각하라.’ 여인은 꾸짖음을 감내하고 훈계를 마음에 새기며 ‘남편은 하늘’이며 하늘은 불변의 것, 제쳐둘 수 없는 존재’로서 섬겨야 할 대상이며, ‘만약 아내가 남편을 받들지 않는다면 예법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라고 했다.<sup>67)</sup> 이와 비슷하게 『여아경』은 이상적인 여자의 성품들에 대한 목록을 만들었는데, 그 책에서는 ‘三從’과 ‘四德(婦德, 婦言, 婦容, 婦功)’을 더욱 상세하게 범주화시켰다. 三從이란 여성은 자기 생애를 통해 어릴 적에는 아버지와 오빠들, 결혼해서는 남편, 남편을 여윈 후에는 아들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sup>68)</sup> 4德은

64) 위의 책, p.124.

65) 昭惠王后 韓氏 陸完貞 譯註, 『內訓』(서울: 열화당, 1988), p. 79.

66) 楊懋春, 앞의 책, pp. 109-119.

67) Elisabeth Croll, *Feminism and Socialism in China*, 김미경·이연주 옮김, 『中國女性解運動』(서울: 사계절, 1985), p. 18.

첫째 婦德은 여자가 우주내에서의 자기 위치를 알며 언제나 시대가 존중하는 윤리규범들에 맞추어 행동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婦言은 여자는 너무 많이 지껄이거나 남들을 괴롭게 하지 않도록 언제나 말을 삼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셋째, 婦容은 여자는 항상 몸을 깨끗이 하고 습관을 바르게 하며 남성을 즐겁게 하기 위해 그녀 자신을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고, 넷째, 婦功은 여자는 가사일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sup>69)</sup> 이러한 중국여성들의 內訓은 조선시대 우리 여성들이 지켜야 규범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sup>70)</sup>

또 AD 1세기에 유향(劉向)에 의해 『열녀전(烈女傳)』이 처음으로 편찬되었는데 이 전기들의 총서문에 이렇게 씌어져 있다. “아내는 남편을 의지한다. 부드럽고 순종하면서 여자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기울인다. 여자는 정숙한 방법으로 남편을 조종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사람으로서의 본성과 감정을 갖고 있다.” 그 전기들은 효녀들, 불명예보다는 죽음을 택하고자 했던 정숙한 처녀들, 이상적인 율케, 아내, 어머니, 그리고 그 정숙함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헌신으로 인해 교훈이 될 만하며 서로 견줄 만한 미망인들을 다루고 있다.<sup>71)</sup> 이에 반해 남편은 많은 첩을 들 수 있었으며, 심지어 大明律의 七去之惡 즉, 강제이혼이 가능한 일곱가지 규정으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無子), 不貞한 行爲(淫佚),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不事舅姑), 질투하는 것(妬), 나병 간질병 등의 유전병이 있을 경우(惡疾), 말이 많은 것(多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竊盜) 등에 따라 부부간의 差別을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sup>72)</sup> 또한 여자에게만 일방적으로 貞節을 강조하여 종종 목숨까지 잃은 경우가 없지 않았다.<sup>73)</sup>

이와 같이 전통 한국사회의 부부관계는 男尊女卑의 不平等한 儒敎的 倫理關係에 입각하여 主人과 下人 또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라는 差別的 人間關係로 보았다.<sup>74)</sup>

#### 나. 父母와 子女간의 倫理

인간관계에서 부부 다음으로 중요한 관계가 父母와 子女간의 관계이다. 그러나 전통

68) 李光奎, 앞의 책, p.143.

69) 위의 책, p.18.

70) 昭惠王后 韓氏, 앞의 책, pp.30-31.

71) Elisabeth Croll, *Feminism and Socialism in China*, *ibid.*, p.18.

72) 劉永珠, 앞의 책, pp.84-85.

73) 崔在錫, 앞의 책, p.38.

74) 위의 책, p.30.

적 동양사회에서는 결혼을 자녀출산에 그 목적을 두었기때문에 부부관계보다는 부자관계가 보다 중시되는 인간관계였다.<sup>75)</sup> 따라서 전통사회에서는 어떠한인간관계보다도 父母와 子女간의 관계에 관한 倫理가 발달하였다.

부모와 자녀간에 지켜야할 윤리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지켜야 할 倫理이고, 또 하나는 子女가 父母에 대해서 지켜야 할 윤리이다. 흔히 이 양자간에 지켜야 할 윤리를 ‘父慈子孝’로 표기한다. ‘父慈子孝’란 부모는 자녀에게 慈悲로움으로 대해야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孝道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곧 孝와 慈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상호 분리시켜 존재할 수 없음을 뜻한다. 그래서 孔子도 “효도와 자비로 일하면 충성스러워진다”(孝慈則忠)<sup>76)</sup>라고 하였다. 이 말은 위에 있는 사람이 孝와 慈로써 백성을 인도하면 각 사람은 그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는 자식을 자비롭게 다스려, 곧 백성은 스스로 위에 있는 사람에게 忠誠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孔子 이래 많은 儒家들은 ‘孝’에 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었지만 ‘慈’에 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이에 반해, 朱子は 孝에 관한 언급이 적은 반면에 慈에 관해서는 자주 언급을 하였다.<sup>77)</sup> 예를 들면 주자는 “사람이 누군들 알지 못하겠느냐? 자식이 孝를 알며, 아버지가 慈를 안다. 단지 아는 것을 하지 않을 뿐이다.”<sup>78)</sup>라고 慈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朱子は 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부모가 자식에게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 그 자식이 총명하기를 바라는 데 이것을 誠心이라고 합니까?”라고 묻자 朱子は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끝없이 사랑하여 자식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욕망 사이에서 바르게 판단할 일이다.” 또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至誠에서 나오는 것임으로 막기가 어렵다. 따라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가 총명하기를 바라고 또 그가 장래 무엇을 성취하고자 바라는 것은, 모두 天理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자식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가 반드시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바라는 것은 이미 자기의 희망으로써 인간의 욕심을 면하기 어렵다.”<sup>79)</sup> 여기

75) 李光奎, 앞의 책, pp. 284-285.

76) 『論語』, 爲政篇. 전통 중국사회에서 父子간에 지켜야 할 倫理規範은 “父慈子孝”이나 실제로 子女가 父母에게 지켜야 할 도리인 ‘孝道’만이 일방적으로 강조되었다. 史鳳儀, 앞의 책, p. 186.

77) 楊慧傑, 앞의 책, p. 126.

78) 『朱子語類』, 卷十五, “人誰無知? 爲子知孝, 爲父知慈, 只是知不盡.” 위의 책, p. 126, 재인용.

에 朱子는 진정한 慈愛의 하나의 표준을 제시하여 천하의 부모된자들에게 자식사랑의 어려움을 밝힌 것이라 하겠다.

한편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를 孝라 한다. 孝는 동양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윤리도덕인 동시에 儒敎哲學에서 중시여기는 仁의 기초이기도 하다.<sup>80)</sup> 仁과 孝는 서로 상관관계에 있으며, 孝는 仁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孔子는 “효성과 우애는 仁의 근본이다”<sup>81)</sup>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孝道는 유교윤리의 원리들 중 근본이 되는 윤리였으며, 또 유교윤리에 있어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여 왔다. 그리하여 孝道가 전통사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실천되어 왔는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전통윤리, 나아가서 한국을 비롯한 동양의 전통사회를 이해하기 어렵다.<sup>82)</sup>

그러나 孝道가 곧 도덕실천의 최종목적은 아니고 孝道는 단지 도덕실천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孝經』에 “무릇 孝는 부모를 섬기는 데서 시작하여,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그 다음이며, 몸을 세우는 것이 그 끝이다”<sup>83)</sup>라고 하였다. 그러면 ‘孝’란 무엇인가? 儒敎에서는 ‘孝’의 方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禮記』에서는 孝의 內容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것을 大孝, 中孝, 小孝로 설명하고 있다. 大孝는 尊親이고, 其次는 不辱이고, 其下는 能養<sup>84)</sup>이라는 구절이 바로 그것이다. 孝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으로 評價되는 것은 父母를 모심에 있어서 그를 정신적, 정서적으로 편안히 해드리는 것이라 했다. 孝道중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不辱이라 했다. 父母를 욕되게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子息된 자가 父母에게는 제아무리 극진한 孝誠을 다한다 하더라도 대인관계 또는 사회활동에서 옳지 못한 일을 일삼는다면 그 어버이에게까지 누를 끼치게 됨으로 行動舉止를 조심하는 것이 孝와 연결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孝 중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能養이다. 能養이라 함은 부모에 대한 물질적인 봉양을 의미하는 데, 孔子는 이것을 孝行 중에서

79) 張伯行編, 『續近思錄, 卷六』. 有人問: “父母之於子, 有無窮憐愛, 欲其聰明成立, 此之謂誠心 耶?” 朱子答: “父母愛其子, 正也, 愛之無窮, 而必欲其如何則非矣, 此天理人欲之間正當審決.” 위의 책, p.126 재인용.

80) Hsieh Yu-Wei, “Filial Piety and Chinese Society,” Charles A. Moore, (ed) *The Chinese Mind*(Honolulu: The University of Hawaii, 1967), p.167; Jack Gray, “China: Communism and Confucianism,” Archie Brown and Jack Gray(eds.),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Change in Communist States* (New York: Holmes & Meier Publishers, Inc., 1979), p.200.

81) 『論語』, 學而篇.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82) Hsieh Yu-Wei, *ibid.*, p.172.

83) 『孝經』開宗明義章, “夫孝, 始於事親, 中於事君, 終於立身,”

84) 『禮記』, “大孝尊親 其次不辱 其下能養,”



는 가장 비중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孔子는 弟子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일반적으로 “효란 음식을 봉양하는 것으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犬馬라 할지라도 모두 기쁨이 있으니 恭敬하는 마음이 없다면 짐승과 人間을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sup>85)</sup>라고 했다. 父母奉養에 있어서 공경하는 마음이 결여된다면 이를 孝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孔子는 『孝經』에서 身體髮膚는 受之父母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子息된 자는 자신의 신체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라야 말로 孝道의 시작이라 했다.<sup>86)</sup> 父母로부터 받은 身體를 온전하게 保存하는 것이 父母에게 孝道하는 方法<sup>87)</sup>이라는 뜻이다. 또 『孝經』에는 孝의 完成이 ‘立身’하여 이름을 후세에 남기는 것으로 보고 “立身하여 후세에 그 부모의 이름을 드러내면 孝의 마지막이다”<sup>88)</sup>

위의 설명을 정리하면 부모와 자녀간에 지켜야 될 윤리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되 天理와 人欲을 잘 분별하여 사랑해야 할 것이고, 자식은 부모를 정성껏 봉양하고, 자기의 건강을 돌보아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아니하며, 저로 인하여 부모를 욕되게 아니하며, 나아가 ‘立身’하여 후세에 그 부모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부모와 자녀간의 윤리규범이 있으었나 실제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孝道만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sup>89)</sup>

#### 다. 兄弟(姉妹)간의 倫理

전통 유교윤리에는 孝, 悌, 忠, 信 등이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德目이었다. 이 중 가정윤리에 해당되는 것은 孝와 悌이다. 孝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悌에 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悌는 가정 혹은 가족내의 윤리로 동년배의 친척(숙)을 어떻게 대접하며, 또 서로 돕고, 서로 상대방에게 이롭게 하며, 자기에게도 이롭고, 공동으로 이로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적극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고,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는 것을 뜻한다.<sup>90)</sup>

85) 『論語』, 爲政篇, “子曰 今之孝者 是謂能養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何以別乎,”

86) 『孝經』, 開宗明義章,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87) 朴在侃, “傳統的 孝思想과 그 現代的 意義,” 『傳統倫理의 現代的 照明』(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9), p. 94.

88) 『孝經』, 開宗明義章,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孝之終也,”

89) 崔在錫, 앞의 책, pp. 140-141.

90) 楊懋春, 앞의 책, p. 149.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위를 가하는 것을 좋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곧 나를 속박하기 때문이며, 또 그러한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가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내 몸에 어떤 행위를 가하면 인내나 용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보복을 하게 된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은 모두 내 가족이든지 혹은 나와 동년배에 있는 친척관계의 형제자매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悌의 실천은 곧 兄友弟恭을 의미한다. 이때 友는 곧 사랑하고 보호함(愛護)을 의미하며 恭은 존경하는 것을 뜻한다. 이 말은 兄(언니)된 사람은 동생을 사랑하고 保護해야 하며, 동생된 사람은 兄(언니)에게 敬意를 품고 尊敬해야 한다. 형제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며 또 존경하는 것은 어릴 때나 청소년기에 가장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일단 성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점차 薄弱해지거나 심한 경우 사라지기도 한다. 성년이 되면, 형제간의 유지해왔던 좋은 관계, 즉 어릴 때 友愛가 변하여 <手足之義(情)>가 된다. <手足之義>의 의미는 사람몸의 손과 발처럼 서로 돌보며 서로 대접하는 것을 뜻한다.

#### 라. 祖上·親族간의 倫理

전통 동양사회 가족주의의 특질 중의 하나가 祖上 崇拜意識이다. 이는 儒敎思想에 기초를 둔 것으로, 고대 중국 周禮에서도 조상에게 祭祀지내는 것을 가장 중요한시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다. <祭祀>의 심리적 근거는 祖上의 恩惠에 보답하는 것(報本反始)에서 출발하였다.<sup>91)</sup>

동양사회, 특히 중국과 한국에서 조상에게 祭祀지내는 조상숭배 의식은 서양의 神에 대한 숭배의식과 마찬가지로 중시여겼다. 조상숭배는 조상에 대한 살아 있는 후손들의 感激과 그리운 情을 표현하는 것일 뿐 아니라 血緣關係를 확인시켜주는 기능도 하였다.

또 祭祀는 동일한 조상을 숭배하는 자손간에는 친족간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였으며, 나아가 족보를 만들어 친족간의 같은 집안이라는 귀속감을 갖게 해주어 心理的 安定感을 가져다 주는 기능도 했다.<sup>92)</sup> 반면에 지나치게 자기와 가문의식만을 강조하여 보다 넓은 사회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sup>93)</sup> 이는

91) 吳自甦, 『中國家庭制度』(臺灣:臺灣商務印書館, 1973), p. 16.

92) 崔鳳永, 『韓國人的 <家의 實現>에 관한 研究』(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2), p. 90.

93) 崔在錫, 앞의 책, pp. 148-150.

家族主義가 인간의 잠재의식을 지배하여 제사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동양사회의 家族主義精神의 유지, 발전과 祖上崇拜意識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것은 마치 서양인들이 믿는 宗教가 個人主義 文化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과 같다. 조상숭배는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의 정신적 안식처(寄托)를 찾는 출발점이며 또 다른면에서는 家族 - 同宗 同姓의 죽은 조상과 활동하고 있는 族長과 族群이 개체의 집단적 소속감을 반영하는 것이도 하다. 조상숭배 의식 그 자체는 일종의 혈연관계의 숭배와 神格化였다. 개체의 숭배행위와 활동은 필연적으로 현실적인 직접 혈연관계의 結束을 가져 오고, 죽은 친척에 대한 존경심도 필히 활동하고 있는 친척간에 信賴關係를 갖게 하였다. 또 죽은자에 대해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을 요구하기에 앞서 먼저 살아있는 사람간에 서로 禮로써 대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祖上崇拜의 가장 좋은 방법은 그 遺志를 받들고, 또 그가 생전에 이루지 못한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때문에 조상숭배와 家長에게 孝道하고 族長에게 복종하는 것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조상숭배는 조상의 뜻을 따르고 집행하며, 家門의 이름을 높이며, 祖上을 빛내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는 곧 우리사회에 가족주의를 배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親族은 같은 先祖 아래 결합된 하나의 공동체 조직으로 선조를 숭배하기 위해서는 서로 和睦해야만 한다.

따라서 전통 한국사회에서와 같은 大家族 社會에서는 家庭道德이 높이 평가될 수밖에 없었다. 원래 친족은 父族, 母族, 妻族의 三族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父系中心으로 된 宗法社會에서는 父族이 主宗이 되었고 나머지는 이에 종속되었다.

또한 조상숭배는 제사라는 의식을 행해야 하기때문 祭祀權에 대한 문제가 삶의 중요한 하나의 문제였다. 그래서 전통사회에서는 祭祀權을 장자에게 줌으로써 가족의 정당한 계승자로 사회적 인정을 받았고, 나아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司祭權을 더욱 강하게 행사할 수 있었다.<sup>94)</sup> 이와 같이 조상숭배는 혈연집단간의 縱的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의미하고, 친족간의 和睦은 후손들 사이의 橫的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94) 李光奎, 앞의 책, p.132.

### III. 金日成體制下的 北韓의 家庭文化政策

政策이란 일반적으로 “政府·團體·集團 등에 의해 여러가지 대안들 중에서 선택된 일정한 행동경로 또는 행동방법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세부결정을 정해주는 지침” 또는 “當爲性에 입각한 社會價值體系의 변화를 통해서 형성되는 행동지향적인 企圖” 로 정의된다.<sup>95)</sup> 다시 말해서 정책은 “정부 또는 어떤 집단의 주체가 바라는 바람직한 理想과 現實간의 갭(gap)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적 노력” 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정의에 따르면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북한의 家庭文化政策이란 북한이 理想으로 삼고 있는 家庭像과 주어진 現實의 家庭간의 갭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이때 북한이 理想으로 삼고 있는 家庭像이란 다른아닌 社會主義의 家庭을 의미하며 주어진 現實의 가정이란 비교적 儒家文化에 기초를 두고 형성된 傳統的 家庭을 의미한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북한정부가 그들이 바라고 있는 家庭觀, 즉 社會主義 家庭觀을 실현하기 위해서 現實을 어떻게 인식하였으며 어떠한 政策과 運動으로 對處해 나갔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 1. 家庭文化政策의 思想的 基底

어떠한 社會體制를 막론하고 家庭과 調和를 이루지 않으면 體制가 불안정할 뿐 아니라 사회적 혼돈이 야기된다. 만약 社會와 家庭이 그 原理와 理念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相馳될 것 같으면 그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권력에 의해 궁극적으로 파괴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sup>96)</sup>

따라서 家族制度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이 놓여진 社會體制와 관련하여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체제와 가정과의 관계는 과거 전통적 사회에서와 같이 사회가 분화되지 않았던 시대에서는 가정이 사회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가정의 社會的 機能이 비교적 증시되었으나, 현대와 같이 사회적 분화가 이루어진 산업사회에서는 가정의 기능은 과거와 달리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한때 서구사회에서는 가정이 개인의 욕구와 自我實現을 위한 私的인 것으로 이해되어 가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배제한 적이 있었으나 70년대 이후부

95) 俞焄, 『政策學概論』(서울: 法文社, 1981), p. 39.

96) 崔弘基, “北韓의 家族制度,” 北韓研究所編, 『北韓社會論』(서울: 北韓研究所, 1977), p. 370.

터는 가정이 국가발전과 중요한 함수관계가 있다는 것을 재인식하게 되었다.<sup>97)</sup> 특히 社會主義 社會에서는 사회주의체제의 秩序維持를 위해 가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어 사회체제와 가정과의 관계가 다른 체제보다 중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체제가 가정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부분의 사회주의체제가 기존의 社會文化體制와 다른 理念을 표방하고 있고, 나아가 그에 조응하는 社會主義文化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家庭文化를 改造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대부분의 사회주의체제는 정권을 장악하자마자 기존의 傳統文化를 파괴하고 새로운 문화, 즉 社會主義文化를 定着시키기 위해 다양한 共產化政策을 시행하게 된다.

1945년 분단 이후 북한이 지향하고자 했던 가정관은 바로 社會主義 家庭觀임은 두말 할 나위 없다. 그러면 社會主義 家庭觀이란 어떠한 가정관을 의미하는가? 사회주의 가정관도 다른 사회주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역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847년에 쓴 『共產主義原理』(*Grundsätze des Kommunismus*)에서 공산주의의 가족질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男女의 關係는 간섭이 필요없는 당사자들 간의 관계, 즉 순전히 사적인 관계가 될 것이다. 이것은 私的 所有의 제거 및 자녀들의 共同敎育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 결과 사적 소유를 매개로 지금까지 결혼의 토대가 되어 왔던 두가지, 즉 남편에 대한 아내의 從屬과 부모에 대한 자녀의 從屬이 없어진다. 이것이 공산주의적인 婦人公有制에 반대한다고 떠들어 대는 고결한 속물들에 대한 대답이기도하다. 부인공유제는 전적으로 부르조아 사회에 속하는 관계로서 오늘 날 賣淫이라는 형태로 유감없이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매음은 사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사적 소유의 폐지와 더불어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적 조직은 부인공유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廢止할 것이다.<sup>98)</sup>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러한 주장은 私有財産制度를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의 夫婦關係는 아내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從屬되어 있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는 不平等한 관계라고 규정짓고, 이러한 관계는 私有財産制度가 폐지되는 공산주의사회에서는 부부 및 부자간의 관계가 平等한 관계가 될 것이며 또한 자녀에 대한 共同敎育이 실시되고 사적소유에 기초한 賣淫도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共產黨宣言』(*Manifesto*

97) 崔弘基, “家族과 社會秩序,” 서울大現代思想硏究會編 『이데올로기와 社會變動』(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pp. 46-47.

98) K. 마르크스 F. 엥겔스, 김제기 편역, 『마르크스·엥겔스 저작선』(서울: 거름, 1988), p. 28.

of the Communist Party, 1848년)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부부관계를 남편이 아내를 단순히 생산도구로 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부르조아들은 자신들의 아내를 단순한 生産道具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르조아들은, 생산 도구를 공동으로 사용하려한다는 말을 듣고서는 여성들도 똑같은 처지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한갓 생산도구에 지나지 않는 女性의 처지를 타파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sup>99)</sup>

엔겔스는 1884년 인류학자 모건(L.H.Morgan)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쓴 『家族, 私有財産 그리고 國家의 起源』(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이라는 저서에서 당시의 가족론을 언급하면서, 부르조아 가족 및 가족법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社會主義 家族制度를 제창하고 있다. 특히 엔겔스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인 一夫一妻制를 경제적 조건, 다시 말해서 私的財産所有에 따른 가족제도라고 보고 이러한 일부일처제는 가족내에서의 남편의 지배와 자기의 財産을 相續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

一夫一妻制 가족은 남편의 지배에 따른 것으로서 아버지의 血統이 확실한 아이를 낳자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혈통이 확실해야 할 필요성은 아이들이 후에 직계 相續人으로서 아버지의 財産을 所有해야 했기 때문이다.<sup>100)</sup>

그는 또 共產主義 社會가 되면 생산수단이 社會的 所有가 되기 때문에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부일처제의 경제적 기초가 소멸 되면 일부일처제도 소멸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공산사회가 되면 생산수단이 社會的 所有로 됨과 더불어 賃金勞動도 프롤레타리아트도 소멸하기 때문에 個別家族은 사회의 경제적 단위가 되지 않아 보다 확고한 일부일처제가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101)</sup> 또한 “사사로운 집안살림은 사회적 산업으로 되고, 아이들을 돌보며 교육시키는 것은 公共事業으로 될 것이며, 사회는 嫡者나 私生兒를 막론하고 모든 아동들을 똑같이 돌보아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102)</sup>

엔겔스는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夫婦關係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를 지배하는 不平等한

99) 위의 책, p. 66.

100) F. 엔겔스, 김대웅역,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서울:아침, 1991), p. 83.

101) 위의 책, p. 102.

102) 위의 책, p. 103.

관계였기 때문에 이혼이 불가능했으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離婚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一夫一妻制가 所有關係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가지게 된 그 모든 특징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인 바, 그것은 첫째로 남자의 지배이며, 둘째로 離婚의 불가능성이다. 혼인에 있어서 남자의 지배적 지위는 그의 경제적 지배의 단순한 결과이며, 후자의 소멸과 함께 자연히 소멸한다. 離婚의 불가능성은 부분적으로는 이 경제적 조건과 일부일처제 사이의 연관이 아직 옳게 이해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위장되고 있던 시대의 전통이다. 이혼의 불가능성은 이미 오늘에도 몇 천 번이나 위반되었다. 만일 사랑에 기초한 혼인만이 도덕적이라면 그 사랑이 지속되는 동안은 도덕적 혼인이 된다. 그러나 개인적 性愛의 지속성은 사람마다 다르며, 남자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그리고 일단 애정이 아주 식어 버리거나 또는 딴 사람과의 정열적 사랑으로 구축되고 말 때에, 이혼은 당사자 쌍방에 대해서나 사회에 대해서나 선한 행위로 변한다. 103)

이상에서 살펴본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家族理論을 정리하면, 사회주의의 家庭觀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婚姻의 自由, 즉 혼인의 당사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유의지에 따라 결혼할 수 있으며 둘째, 가정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는 모든 면에서 絶對平等을 보장하며 셋째, 離婚의 自由로 부부간에 愛情이 없을 경우 자유로운 이혼을 보장하고 넷째, 兩親의 子息에 대한 專制의 폐지와 어린이에 대한 早期公教育 실시를 실시하며, 정당한 결혼관계에서 태어난 사람과 사생아와의 차별을 一掃한다. 다섯째, 사유재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재산상속제도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 2. 社會主義 建設初期의 家庭文化政策

1945년 해방 직후에 진주한 미·소양국의 지원을 받아 출범하게 된 남북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서로 다른 이념을 통치이념으로 수용하여 체제정비를 서둘렀다. 우리 문화와는 전혀 이질적인 이데올로기를 이식시키는 과정에는 많은 葛藤과 摩擦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국가에서 시도했던 것과 같이 傳統文化를 인위적·강압적인 방법으로 타도하고 새로운 체제문화라 할 수 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社會主義文化를 이식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시도하였다. 그 구체적인 노력중의 하나가 土地改革과 男女平等法 제정이다.

103) 위의 책, p.110.

## 가. 土地改革

역사적으로 土地와 政治는 밀접하면서도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정한 土地所有制 형태는 政治權力的 형식에 대해 중요한 결정적 인자로 작용하였으며, 또 하나의 특수한 權力形態는 그에 따른 특별한 형식의 土地所有制를 영속시켰다. 이러한 상호의존적인 土地所有制와 政治權力형태 사이의 상관관계는 古代社會, 中世封建社會, 그리고 家族農에 입각한 농업사회에서도 명백히 나타났다.<sup>104)</sup> 또 전근대사회에 있어서의 土地制度나 土地所有에 관한 문제는 家族制度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모든면에 걸친 중요한 문제로서 사회발전의 관건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경제연구의 주관심의 대상이되어 왔다.<sup>105)</sup>

북한 사회주의정권이 정식출범하기 전인 1946년 3월 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조선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공포했다. 이는 광복 후 북한사회의 재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다. 그것은 일제의 植民地 지배하에 온존되었던 植民地 반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에 기초를 마련하는 과도기적 조치로, 당시 총 농가호수의 4%밖에 안되면서도 총 경지면적의 58%를 점유하고 있던 지주와 총 인구의 80%에 가까운 소작 농민들을 대상으로 단시일내에 실시되었다.<sup>106)</sup>

총17조로 되어있는 이 법령은 제1조에 “토지개혁의 과업은 일본인 토지소유와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고, 토지이용권은 경작하는 자에 있다. 북조선에서의 농업제도는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은 농민의 개인소유인 농업경영에 의거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土地改革의 대상과 목표를 분명히 하였다.<sup>107)</sup>

몰수한 土地는 모두 농민의 영원한 소유로 규정하되(제5조), 그 처리는 인민위원회에 위임하였다. 또 토지가 몰수된 지주들은 타향에서만 토지를 분배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강제이주대상으로 하였다.(제6조)<sup>108)</sup>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소유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경작권 내지 관리권」이나 다름 없으며, 이같은 「관리권」마저도 자신의 마음대로 포기할 수도 없었다.<sup>109)</sup> 북한이 토지개혁

104) 李秉錫, 『土地改革과 政黨의 制度化』(1987,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p. 5.

105) 朴秉濠, 『韓國法制史攷』(서울: 法文社, 1987), pp. 329-330; 福島正夫 外, 원화봉역, 『家族』(서울: 한울림, 1985), pp. 89-90.

106) 都興烈, “광복 이후 남북한 사회의 변화,” 『정신문화연구 통권47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p. 53.

107) 鄭慶謨·崔達坤, 『北韓法令集 第2卷』(서울: 大陸研究所, 1990), p. 273.

108) 위의 책, p. 274.

109) 法制處, 『北韓法制概要』(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2), p. 425.



제1조에 일본인 토지소유와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 패전하여 일본으로 돌아갈 일본인들의 토지를 몰수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고 타향에서 토지를 받게한 것은 지주들이 갖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이 커섬을 의미한다. 중국이나 한국 전통사회에서 지주는 주로 氏族이나 門中の 종가집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은 토지를 기반으로 하여 祭祀, 洞祭를 지내고, 가문의식이나 향토 문화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중국의 모택동도 이들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건설을 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가장 먼저 地主階級을 타도하기 위해 토지개혁을 실시하였음은 김일성과 그 맥을 같이 한다. 110)

따라서 김일성이 土地改革을 실시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전통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地主階級과 그들의 경제적 토대가 되었던 토지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바라는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음을 일찌기 인식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또한 전통 우리 사회에서 대다수 농민들은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준다는 것은 실로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농민들은 土地改革을 열광적인 환영을 하였을 것이다. 공산당이 농민들에게 토지를 배분한 이유 중 또 다른 이유중의 하나는 그들을 社會主義 革命의 動力으로 활용하자는 의도가 강하였다고 하겠다. 이는 북한이 동년 4월 1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조직위원회 제6차확대회의가 제출한 「토지개혁의 종결과 금후 과제」라는 토지개혁 평가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토지 개혁을 실시한 결과 반민주주의적 반동세력의 사회경제적 토대인 봉건적 토지소유제도 는 우리 농촌에서 영원히 청산되었습니다. 봉건적 질곡에서 해방된 북조선 농민들 앞에는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며 자기들의 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광활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을 지주의 예속에서 해방하고 락후한 우리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이 과업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111)

북한은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공포한 3일 후인 1946년 3월 8일에는 「土地改革法令에 關한 細則」을 공포하였는데, 동 세칙 제15조에 “고용자와 토지없는 농민과 토지

110) 趙鏞官, 『中國 共產化政策이 家庭倫理에 미친 影響에 關한 研究』(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2), pp. 71-72.

111) 『김일성저작선집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p. 34.

적은 농민에 대한 토지의 분배는 <가족수와 그 가족내의 노동능력을 가진 자수의 원칙>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며 그 예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sup>112)</sup> 토지를 가족수와 노동능력에 따라 분배한다고 하는 것은 男女差別과 長幼有序思想에 젖어 있던 당시 북한 주민들에게는 파격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었다. 男女差別과 長幼有序的 유교문화가 지배적이었던 당시에 부녀자와 아이들에게 자기 명의의 땅을 준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인 일이지만, 그 배경에는 공산당은 부녀자와 아동들을 그들의 사회주의혁명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1953년에 시작되어 1958년에 완료된 農業協同化로 농민의 토지소유권은 사실상 소멸되고 말았다. 즉 농가구당 극히 적은 넓이의 터밭을 제외하고는 모든 농지가 농협농장으로 無償으로 흡수되었고, 농민들은 그들이 투입한 노동량에 의해서만 분배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토지사유제의 폐지는 한국사회에서 뿌리깊은 전통적인 문화요소인 財産相續制의 소멸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가족구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sup>113)</sup> 특히 相續制의 폐지는 조상전래의 핏줄을 이어서 帶를 끊기지 않게 한다는 전통적인 家系存續의 관념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하였다.

#### 나. <男女平等法>制定

전통적 우리 사회는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男女差別意識이 사회에 널리 퍼져있었다. 비록 일제가 물려갔다고는 하나 일제의 지배도 그 바탕이 군국주의이었기 때문에 해방 직후 한국사회는 과거의 전통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합법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1946년 7월 22일 제10차 임시인민위원회에서 「男女平等權에 對한 法令草案에 對한 決定書」라는 남녀평등에 관한 내용을 김일성·강랑욱의 이름으로 발표했다. 2개항으로 되어 있는 결정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담고 있다.

오랜 세기동안 조선 여성들은 중세기적 봉건적 억압과 모욕과 착취 아래에서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여 왔다. 특별히 과거 36년간 동안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조선여성들은 놈들의 이중삼

112) 위의 책, p. 280. 예에 따르면, 남자 18세-60세 또는 여자 18세-50세의 경우는 1점, 18세 미만청소년은 0.7점, 남자 61세 이상 여자 51세 이상은 0.3점으로 하여 가족의 각 점수를 합산하여 분배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113) 李文雄, “北韓의 社會와 家族形態,” 韓國社會科學研究所編, 『韓國社會論』(서울: 民音社, 1980), p. 238.

중의 압박과 착취를 당하여 왔으며, 모든 사회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붉은 군대의 희생적 분투에 의하여 해방된 오늘 조선에 있어서 북조선 인민들은 과거 일본제국주의 시대의 모든 봉건적 식민지적 불합리한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민주주의적 발전의 조건과 근거를 만들어 주었다. 이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은 일본 식민지적 착취의 잔재를 숙청하고, 낡은 봉건적 남녀간의 관계를 개혁하고, 여성으로 하여금 문화와 사회 정치생활에 전면적으로 참여시킬 목적으로 금후 조선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위대한 작용을 가져올 것을 인정하며 이를 널리 발표한다<sup>114)</sup>

또 1946년 7월 30일 임시인민위원회가 공포한 「男女平等權에 관한 法令」과 공포와 동년 9월 14일에 발효된 「男女平等權에 대한 法令施行細則」은 주로 女性の 平等權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동 법령 전문에는 “중세기적, 봉건적 가정관계가 여성들의 정치적 압박을 더하였으며 또 강화시켰다. 蔑視와 侮辱과 文盲은 조선근로대중의 운명이 되었다. 붉은 군대가 북조선을 일본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킴으로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변경되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제민주주의적 革新은 여성들을 과거 정치, 경제, 문화 및 가정생활의 不平等으로부터 解放하는 조건을 지어 주었다”고 언급하면서 인민군이 조선을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시켰음과 여성들을 과거 封建社會의 속박에서 해방시켰다며 그들의 공로를 선전하고 있다. 동 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는 “국가 경제 문화 사회 정치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있어서 여성들은 남자와 같은 평등권을 가진다”, 제2조에는 “여성들은 남자와 동등의 노동권리와 임금과 사회 보험 및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며 男女平等權을 명시하고 있다. 당시 까지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傳統的 儒敎文化의 영향으로 남녀차별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이같은 조치는 전통문화를 타파하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을 것이다. 또 제4조에서는 “여성들은 남자들과 같이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할 본인들의 동의없는 비자유적이며 강제적인 결혼은 금지한다”라며 남녀간의 자유로운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또 제5조에는 “결혼생활에서 부부 관계가 곤란하고 부부관계를 더 계속할 없는 조건이 생길 때에는 여성들도 남자와 동등한 자유리혼의 권리를 가진다. 모성으로서 아동양육비를 전 남편에서 요구할 소송 권을 인정하며 리혼과 아동양육비에 관한 소송은 인민재판소에서 처리토록 규정한다”라고 되어있다. 제 7조에는 “중세기적 봉건관계의 유습인 一夫多妻制와 자녀들을 처

114) 鄭慶謨·崔達坤, 앞의 책, 제4권, p. 548.

와 첩으로 매매하는 여성인권유린의 폐해를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다.

남녀간의 평등권이나 結婚과 離婚의 自由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동년 9월 14일에 공포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시행세칙」에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총29조로 된 세칙에서는 앞 법령을 보다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조 봉건적 유습인 男尊女卑思想에서 나온 女性에 대한 학대, 폭행, 일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다

제4조 여성은 남성과 같이 재산을 소유하며 관리할 권리를 갖는다

제5조 여성은 피상속자와 적을 같이 하는 한 남성과 같이 재산 및 토지의 상속권을 가진다

제8조 결혼은 당사자의 自由意思에 의한 결혼서를 당사자가 소속 시·면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 童養息(민며누리)과 童養婿(데릴사위)는 禁止한다.

제10조 결혼생활에 있어서 부부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그 협의에 의한 이혼서를 소관 시·면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다

제25조 婦女의 부모, 親族 또는 보호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부녀를 출가시킴에 있어서 상대방인 남성 또는 그 부모, 친족 혹은 보호자로부터 金錢, 財物 또는 노력의 제공을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조 一夫一妻制를 준수하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 시행전의 기성사실은 전항의 예외로 한다. 115)

과거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자기 마음대로 결혼할 수 없었고 부모가 맺어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었으며, 또 여자가 離婚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다. 부득이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여자측에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大明律에 따라 七出(七去) 不三去 등에 해당될 때 남자의 일방적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반적이었지만, 116)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이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전통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一夫多妻制의 폐지나 여자들을 처와 첩으로 매매하는 행위의 금지, 그리고 민며누리제와 데릴사위제 등 전통적 유습의 폐지는 여성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이다.

115) 앞의 책, pp. 551-553.

116) 尹泰林, 『韓國人の 性格』(서울: 東方圖書, 1986), pp. 166-167.

우리는 여기서 이 婚姻法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내용들이 대부분 전통적 혼인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男女婚姻의 自由란 혼인에 대한 부모의 관여를 배제시키려는 것으로, 이는 곧 자녀에 대한 父母의 權威, 특히 그중에서도 家長에 의한 강제결혼을 막으려는 것으로 가장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또 민며느리제나 데릴사위제 및 一夫多妻制 금지도 전통적 혼인제도의 관습을 부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 결혼과 이혼에 있어서 초기 법령에는 자유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으나 시행세칙에서는 結婚書 및 離婚書를 소관 시·면 인민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전통적이고도 보수적인 인습을 답습하고자 하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sup>117)</sup> 다른 한편으로는 개개인의 결혼과 이혼행위에 국가가 직접 간여하겠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離婚의 自由를 보장한다는 것은 과거 傳統社會에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男女離婚을 자유롭게 하여 女性들을 家庭으로부터 解放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

혼인법등에 전통적 잔재를 타파하고자하는 내용을 언급한 예는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국공산당도 정권이 정식 출범하기 전에 1931년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임시정부때 이미 혼인법을 공포하여 시행한 적이 있다.<sup>118)</sup> 추측컨대 중국에서 활동한 김일성이 중국의 혼인법을 참고로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북한은 개별법령에 명시되었던 男女平等의 원칙을 1948년 9월 8일 공포한 북한헌법에 확정하였다. 동 헌법 제11조와 제12조에 공민의 의무와 권리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남성과 여성간의 여하한 不平等도 부인하고 있으며, 또한 제22조는 “녀자는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부분에서 남자와 동등하다”는 내용과 함께 “국가는 모성 및 유아를 특별히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3조는 “혼인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 밑에 있다”라고 명기함으로써 개인적 사적관계에 국가가 직접 간여할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sup>119)</sup>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자녀양육의 社會化를 일찍부터 인식하여 1946년 평양에 국영 ‘3·8탁아소’가 등장하였고, 1948년 12월 23일에는 「유아상당소에 관한 규정」이, 그리고 1949년 2월 1일에는 보건성 규칙으로서 「탁아소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는 등, 탁아소 건립을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sup>120)</sup>

탁아소 규정들의 주요내용은 생후1일부터 만3세까지의 幼兒를 국가 및 사회단체에서 양육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탁아소의 설치목적은 “로동녀성으로 하여금

117) 全相仁,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pp. 19-20.

118) 張賢鈺 外 3人, 『婚姻家庭法概論』(浙江: 浙江人民出版社, 1986), p. 258.

119) 全相仁, 앞의 논문, pp. 20-21.

120) 위의 논문, p. 21.

로동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라고 하겠으나<sup>121)</sup> 다른 한편으로는 文化傳承의 역할을 하는 가정에서의 유아교육을 차단하고 그들이 바라는 社會主義思想으로 유아들을 社會化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1950년부터 1953년까지 계속된 6.25 전쟁으로 북한의 사회경제는 위기적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는 또 가족제도의 구조와 기능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6.25전쟁은 북한에 약 30-40만명에 달하는 전쟁미망인을 발생시켰으며, 또 그 보다 더 많은 월남자가족의 부인이 獨身으로 남게되었다. 전쟁미망인에 대해서는 내각결정으로서 원칙적으로 再婚을 禁止하고 다만 자녀가 없고 나이 어린 미망인은 본인과 부모의 의사에 따라 非公開的으로 재혼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월남자 가족의 독신부인들은 쉽사리 재혼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성분이 불량한 월남자 가족과 혼인하면 그 사람 역시 성분 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월남자 부인과의 혼인을 기피하였기 때문이다.  
122)

또 3년간의 한국전쟁으로 인해 북한지역은 초토화되었을 뿐 아니라 장년층의 사망으로 인해 노동인구가 격감하게 되어 가족관계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부족한 勞動力을 메우기 위해서는 여성들을 가정으로부터 끌어낼 수 밖에 없었다. 1953년 노동자 사무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6만 5천명으로 전체 노동력의 26.2%에 이르렀다고 한다.<sup>123)</sup>

결국 한국전쟁은 북한정권에게 傳統的 家庭文化를 타도하고 그들이 바라는 社會主義文化를 정착시키는데 좋은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 하겠다.

### 3. 社會主義 發展期の 家庭文化政策

북한은 전쟁 이후 生産手段의 集團化와 國有化를 근간으로 한 생산양식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본격화하여 사회의 모든 부분을 전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1956년에는 農業·教育·文化·保健 부분등에서 전쟁전 수준으로 커다란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124)</sup> 이 시기 가정문화정책도 다른 정책에 발맞추어

121) 위의 논문, pp. 22-23.

122) 崔弘基, “北韓의 家族制度,” 『北韓社會論』(서울:北韓研究所, 1977), pp. 391-392.

123)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61』(평양:조선중앙통신사, 1961), p. 208, 全相仁, 앞의 논문, p. 27 재인용.

124) 『조선로동당략사』(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451.

안정화를 피하려고 많은 노력을 시도하였다. 이같은 시도는 1955년 3월 5일의 「국민의 신분등록에 관한 규정」, 1956년 3월 8일의 「협의이혼절차를 폐지하고 재판이혼에만 의하게 하는 규정」 등에 반영되었다. 즉, 1946년 남녀평등법에서는 이혼절차로서 協議離婚과 裁判離婚의 두 가지를 두고 재판이혼에 대해서만 부분적인 제한을 가했으나 1955년에 와서는 협의이혼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이혼에 대해 본격적으로 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혼의 억제정책은 물론 그것을 통해서 가족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제1단계 조치에 의해서 무질서하게 난무하게 된 이혼의 격증과 이에 따른 子女의 養育 및 家族의 解體와 같은 가족과 사회문제를 방지하는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다. 125)

또 국민의 신분등록제로 인하여 戶籍制가 폐지되었다. 戶主制度는 우리나라에서 깊은 혈연, 친족, 문벌과 이의 지속성을 중시하는 大家族主義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호적제의 폐지는 개인이 가족적 단위 또는 이를 근거로 사회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이 가족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정치사회의 활동영역에 참여하는 방식이 法的으로 保證되는 것이었고, 나아가 개인에 대한 가족 또는 친족의 구속력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126)

그러나 이러한 家庭의 安定化 政策은 경제제도의 발전 및 그 다음 단계의 정책과 또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시말해서 북한은 토지개혁후 6.25사변으로 사회주의적 토지정책인 집단화정책을 실시하지 못하다가 휴전 이듬해인 1954년부터 농업집단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農業의 集團化는 무상으로 분배된 토지를 소위「自願性의 原則」에 따라 협동농장에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강제적으로 추진되어 1958년에는 전농토와 농민의 集團化가 완료되었다.

남여평등화 정책과 함께 이혼제도의 규제를 통해 가족의 안정화 정책은 바로 이러한 농업의 집단화와 개인상공업의 폐지를 통하여 生産手段의 社會的 財産으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다. 즉 이 단계의 가족정책은 경제제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集團的인 生産制度에서 요구되는 여성인력을 원활히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127)

북한은 1953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중공업 우선정책을 채택하였

125) 崔弘基, 앞의 논문, pp. 392.

126) 夫南哲, “北韓의 儒敎的 傳統倫理 政策,” 統一院, 『北韓의 經濟·社會·司法制度 分野』(서울: 統一院, 1992), pp. 301-302.

127) 崔弘基, 앞의 논문, pp. 392-393.

고, 128) 이에 따라 공장과 기업소에는 남자의 노동력을 동원하고 농촌과 경노동에는 여성노동력을 강제적으로 동원하였다. 그러한 강제노동의 수단으로서 1953년 11월부터 종래 실시하던 食糧自由販賣制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면 配給制를 채택하여 노동자와 비노동자에게 차등적으로 식량을 배급하였다.

또한 임금정책에 있어서도 한 가정에서 한 사람 이상이 勞動하지 않으면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하는 저임금 수준이 부녀의 노동력 동원의 유효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強制的 手段에 의하여 노동력을 동원하는 경우에도 북한이 가정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은 그것이 여성 노동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여성노동력의 확보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離婚에 규제를 강화하여 가정을 안정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적인 子女養育制度를 급속히 추진해 나갔다. 129)

1953년까지 그나마 유지되었던 가정의 독자적인 생활기반이 全面配給制로 완전히 붕괴되어 농촌의 농민과 도시의 개인상공업자들은 임금노동자로 바뀌게 됨으로써 가족이 독자적인 경제적 생산단위로서의 기능을 중지할 수 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경제활동이 家長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경제제도하에서는 가족의 지도자 즉, 가장으로서의 權威가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여성이나 자녀들의 지위는 상승되었다.

가족성원은 이제 家長의 지배하에 부속되어 있는 가족원이 아니라 국가의 강제에 의해서 독자적인 賃金勞動者로서 집단농장과 국영상공업체와 같은 공적 산업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노동력이 있는 젊은 세대와 여자는 그 가정내에서는 물론 사회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130) 젊은 세대와 여자들의 지위의 상승은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의 權威配分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북한체제의 입장에서는 바로 새로운 가족제도의 실현을 위해서 당연한 것이었으며 오히려 그들이 이념적으로 지향·추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131) 특히 1961년부터 시작된 7개년계획을 추진하는데 부족한 勞動力을 메우기 위하여 女性の 勞動과 子女의 共同養育制를 계속 확대시키게 되었다.

한편 북한은 1960, 70년대 집단화정책과 더불어 경제성장 추구 및 主體思想을 부각

128)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P. 401.

129) 崔弘基, 앞의 논문, pp. 393-394.

130) 위의 책, p. 394.

131) 위의 책, pp. 394-395.



시키는 시기여서 共產主義的 人間改造를 또한 내세웠다. 이때 가족 및 여성에 관련된 정책방향은 金日成 唯一思想과 主體思想의 교양교육을 중핵으로 삼는 교육의 강조와 여성의 勞動力化로 집약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家庭의 革命化'를 통한 전체사회의 革命化를 주창하며 어머니의 자녀교양기능을 강조하였다. 이는 1961년 김일성이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라는 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연설내용의 일부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모든 낡은 사상 잔재들을 없애기 위하여 오랜 기간 꾸준히 싸워야 합니다.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어머니들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사람은 대체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또 일반 사회생활에서 교양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정교육은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기초로 되며 사람을 교양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가정은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를 비롯한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같이 하는 우리 사회의 세포입니다. 여기서는 어릴 때부터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늘 교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교육에서는 어머니가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의 책임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어머니이기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첫째가는 교양자입니다. 132)

한편 여성들이 노동에 동원될 수 있도록 자녀교육의 公共化·集團化를 위한 시설의 확충을 서두르게 된다. 133) 그 구체적인 예가 1972년에 제정된 「사회주의헌법」과 1976년에 제정된 「어린이보육교양법」이다. 1972년에 제정된 헌법은 제 43조에 “국가는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고 규정하였고, 1976년 4월에 제정된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외국인이 “가장 선진적인”으로 평가하였다고 선전하고 있다. 134)

북한이 이와 같이 女性의 社會參與와 兒童의 共同養育制에 관심을 가진 것은 인간의 모든 가치관과 행위규범을 우선적으로 가정에 두었던 傳統的 家庭文化를 타파하지

132) 『김일성선집 제3권』, p. 216.

133) 李溫竹, “家族制度,” 고현옥 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서울: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87), pp. 259-260.

134) 리재숙, “여성해방위업을 위하여: 가장 우월한 어린이보육교양지도를 마련해주시어,” 『조선여성』(1991. 5), pp. 10-11, 全相仁, 앞의 논문, p. 37 재인용.

않고서는 그들이 바라는 사회주의 건설에 북한주민들이 동참하지 않으리라고 믿었기때 문이었다.

#### 4. 社會主義 沈滯期の 家庭文化政策

‘80년 이후 북한정치는 金正日 후계체제 강화에 지장을 주는 제반요소를 제거하는 시기였고, 135) 경제적으로는 침체국면을 맞고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 가정문화정책은 주로 사회주의적 원리가 퇴조하는 반면 傳統的 家庭倫理가 다소 부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198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社會政治生命體’ 과 ‘社會主義 大家庭’, 그리고 1990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이하 「가족법」이라 약칭)이다. 136)

북한이 1980년대 초중반에 정립한 ‘사회정치생명론’은 김정일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그는 1982년 3월 31일 김일성의 70회 생일에 즈음하여 발표한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사람은 육체적 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진다”고 전제하고, “육체적생명이 생물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면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고 주장하였다. 137) 이는 육체적 생명은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법칙의 제한을 받아 유한하지만, 사회적 존재로서의 自主性和 創造性, 意識性을 가진 인간의 社會政治的 生命은 無限하다는 것이다. 138) 이는 결국 북한 주민들이 永遠性이 있는 金日成의 主體思想에 의지하여 사회정치생명을 계속 유지시켜 나갈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어서 김정일은 1986년 7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 앞에서 행한 「주체사상 교양에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담화(소위 「7·15」)에서, 主體思想이 맑스-레닌주의의 모든 혁명적 원칙을 계승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주체사상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革命的 首領觀’을 튼튼히 세우고 수령과 당, 그리고 인민대중을 하나의 生命으로 결합된 運命共同體로 인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수령과 당, 그리고 대중으로 구성되는 북한체제의 모든 구성원은 한 지붕, 한가족,

135) 康仁德, “光復以後 南北韓 政治의 變化,” 『정신문화』, 앞의 책, p. 16.

136) 북한 가족법 원문은 북한 연구소, 『북한 가족법과 가정실태』(서울: 북한연구소, 1991), pp. 119-137 참조.

137)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10.

138) 위의 책, pp. 9-14.

한몸의 사회정치생명체를 이루고 있다는 설명이었다.<sup>139)</sup>

북한이 이같이 사회정치생명체를 강조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자기를 낳아 주신 父母를 生命의 恩人처럼 여기듯이 오늘의 북한 사회주의가 있게 한 수령과 당을 배반해서는 안되며, 革命的 義理로 끝까지 어버이인 수령과 어머니인 당 그리고 자식인 인민대중이 혈연적 관계인 '社會主義 大家庭'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대를 이어 忠誠해야 한다는 것으로 뜻한다고 하겠다.

이는 君主에게 대를 이어 忠誠해야 한다는 전통 유교사회의 사회윤리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한편 '90년도 제정 공포한 「家族法」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존재하여 왔던 혼인 및 가족관계를 규제해온 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가족법이다. 199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이법은 6개장, 54조문으로서 제1장 가족법의 기본(제1조-7조), 제2장 결혼(제8조-14조), 제3장 가정(제15조-제39조), 제4장 후견(제40조-제45조), 제5장 상속(제46조-제53조), 제6장 벌칙(제54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법」은 제1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 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社會主義 大家庭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 한다”고 그 제정목적은 밝히고 있다. 이는 북한의 가족법이 사회주의제도라는 범주 내에서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또 가족제도란 “가족이외의 단체의 사회적 요구에 기초”하여 규정되는 제도라는 기본적 인식을 전제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40)</sup>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大家庭」이란 용어는 중국은 물론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혼인법에도 보기도 못한 용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국은 과거 유교적 전통에 따라 家庭이 확대된 것이 國家(化家爲國)라는 思想에 따라 국가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보았다. 따라서 북한이 가족법에 「대가정」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북한사회 전체를 한 가정으로 보고 그 어버이를 김일성으로 보아 金父子의 세습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傳統的 家族關係의 遺習에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가족법」 제2장에서는 혼인의 성립과 혼인의 무효만을 규정하고 있고, 기타 내용, 즉 혼인의 효력, 이혼 등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제3장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는 가정을 「사회의 세포」로 파악하는 북한의 실정에 비추어 볼때, 가정의 정치적·

139) 全相仁, 앞의 논문, pp. 56-57.

140) 法制處, 앞의 책, pp. 341-342.

사회적 중요성을 널리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sup>141)</sup>

또 가족법 제8조에 “공민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자녀 사이에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婚姻의 合意 및 重婚禁止를 규정한 내용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민주조선』은 입법취지를 “자유결혼의 권리는 결혼 나이에 이른 모든 남녀가 그 어떤 사회적인, 가정적인 구속도 받음이 없이 결혼시기와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sup>142)</sup> 그러나 自由結婚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로운 남녀 교제가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북한은 정치적·지역적·직업상 결혼제한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자유로운 상태의 결혼을 보장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sup>143)</sup>

동법 제9조에서는 “결혼은 남자 18살, 여자 17살부터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성인연령이 17세이므로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사실상 부모의 관여, 특히 父의 관여는 매우 적극적이어서, 많은 혼인이 부모의 반대로 성립되지 못한다고 한다.

실제로 1958년 북한의 가족법 해설서는 “가족법이 부모들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모들의 의견이나 충고를 배격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자녀들의 이익을 위하여 생활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여 父母의 同意를 묵시적으로 양해하고 있다.<sup>144)</sup>

이와 관련하여 1991년 5월 23일자 『민주조선』은 “가족법에서 혼인연령을 규정한 것은 우리 인민들의 정치문화적 수준, 육체적 양육정도로 보아 이 나이에 이르면 결혼해도 된다는 국가적인 최소한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혼인나이를 밝히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이 일을 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는 것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인 청년들에 대한 조국과 민족의 크나큰 믿음이며 기대이다”라고 해설하고 있다.<sup>145)</sup> 북한에서 실제 결혼하는 연령은 남자들은 28세부터 30세 사이이고 여자들은 23세 전후해서 한다고 한다.

近親婚禁止規定은 제10조에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사이에는 결혼할 수

141) 위의 책, p. 344.

142) 북한연구소, 앞의 책, p. 54.

143) 자유결혼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의 책, pp. 54-57 참조.

144) 崔達坤, “北韓 家族法 40년과 그 動向,” 『北韓法律行政研究論叢』(高麗大學校 法學研究所, 1990), p. 109, 法制處, 위의 책, p. 346 재인용.

145) 북한연구소, 앞의 책, p. 59 재인용.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禁婚의 範圍」는 중국의 3代(6寸)보다도 넓은 것으로서 우리 민족의 傳統 家族意識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북한 「가족법」은 “남편과 안해는 자기의 성과 이름을 그대로 가지며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할 수 있다”(제17조)며 姓不變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자녀가 父姓이나 母姓을 따를 수 있다는 「중국혼인법(제16조)」에 비해 父系血族을 증시하여 父姓追從하는 전통적 요소가 많이 잔존해 있다고 하겠다. 또 제20조에는 “남편과 안해의 관계는 리혼하면 없어진다. 리혼은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 출범 초기 協議離婚을 인정하던 것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이 출범 초기에 이혼자유의 정책을 추진한 것은 전통적 가부장제적 가족제도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바라는 사회주의 건설을 이룩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 사회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家長의 지시에 따라 활동을 하고 또 그들의 활동의 주목적도 가정경제의 부흥에 있었음을 고려해 볼 때,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해 黨에로의 忠誠을 유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傳統的 家父長制를 비판할 수 밖에 없고, 또 국가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離婚의 자유 등과 같은 조치를 통해 여성들을 家庭으로부터 解放시키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은 많았으나 부작용 또한 없지 않았다. 공산당 간부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자 많은 공산당간부들은 이혼자유정책을 이용, 본처를 버리고 소위 신여성과 재혼하는 경향까지 있었다. 당시 발간된 『여맹』에는 “남편이 공산당 간부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능력있는 여성이 모셔야 한다”고 선전하며, “무식한 여성들은 스스로 공산당 간부의 아내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이혼을 부추기기도 하였으나, 북한은 1956년 3월 8일자 내각결정으로 협의이혼을 폐지하고 이혼은 반드시 재판소의 판결을 통하도록 하였다.<sup>146)</sup> 북한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離婚을 不道德하게 여긴 우리의 전통적 문화로 인해 강한 저항을 받아 시정한 것으로 보인다. 신혼인법에서도 이혼을 법적으로 규제한 것은 북한의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여성의 사회참여도를 덜 필요로 하게 된 것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전통적 가치의식도 큰 작용을 하였을 것이다.

「親權」에 관해서는 “자녀교양은 부모의 중요한 임무이다”(제27조 전단), “부모는 자녀의 건강과 신체의 발육을 책임지고 그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노동능력을 잃은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

146) 북한 연구소, 위의 책, pp. 68-72.

주어야 한다”(제28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내용은 父母의 權利라는 측면보다 주로 義務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규정 중에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孝道」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노동력이 없는 부모를 봉양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을 개인들에게 전가하려는 의도 또한 없지 않으나 전통적 가치관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는 중국의 신혼인법(제22조)에도 잘 나타나 있다.<sup>147)</sup>

북한 「가족법」은 제29조에 “계부모와 계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계와 같다. 계부 또는 계모와 계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계자녀와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와의 관계는 없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외국의 입법예에 비추어 볼때 保守的이며 傳統的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sup>148)</sup> 또 가족법상의 친족간의 부양의무에 대해서 “조부모는 부모가 없는 손자녀가 건전하게 자라도록 양육하고 교양하여야 한다. 성년나이에 이른 손자녀는 자녀가 없는 조부모의 건강과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제35조), “돌볼자 없는 형제자매는 부양능력이 있는 형제자매가 부양할 의무를 진다”(제36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 전래의 「大家族制度」의 유습이 반영된 조문으로 특기할 만하나, 친족 내지는 가족부양의 범위를 넓혀서 가급적 국가부양의 내용을 축소시키고자하는 의도도 포함되는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相續制度에 관하여 북한은 「가족법」 제5장(제46조 내지 제53조)에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구소련이나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정권 출범 초기에는 私有財産制의 폐지원칙에 따라 상속제도를 폐지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곧 부활하였음을 상기해 볼 때 북한만이 가지는 현상은 아니라 하겠다.<sup>149)</sup>

결국 1990년에 제정·공포된 북한의 「가족법」은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과 김일성·김정일 父子世襲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상당히 傳統的 家族關係로 복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는 중국의 가족법과 유사한 경향을 가지나 중국의 가족법은 북한과 달리 서구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核家族 문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up>150)</sup>

147) 趙鏞官, 앞의 논문, pp. 152-154.

148) 法制處, 앞의 책, pp. 361-362.

149) 소련은 1918년에 상속제도를 폐지했다가 1922년에 원래대로 회복시켰고, 중국은 1985년 10월 1일부터 「中華人民共和國繼承法」을 제정·공포하여 시행 중에 있다. 趙鏞官, 앞의 논문, pp. 136-140.

## IV. 北韓 家庭倫理의 實際

앞장에서 우리는 북한정권 출범 후 가정과 관계되는 여러가지 정책들을 살펴 보았다. 어느 정책을 막론하고 정책이 추구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現實化되기란 쉽지 않다. 특히 그러한 정책들이 지나치게 현실과 遊離되어 있거나 주민들의 의식과 거리가 있을 때는 현실화하는데 여러가지 抵抗과 어려움이 따른다.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던 해방직후 우리사회에 전혀 異質的인 마르크스-레닌주의문화를 이식시키기 위해 북한정권은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여기서는 북한이 실시한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현실에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 보고자한다.

### 1. 夫婦간의 倫理

#### 가. 男主外 妻主內

전통적 유교사회에 부부관계는 男尊女卑思想로 인해 家庭에서도 남편은 항상 아내보다 우월적 위치에 있었다. 이같은 사회적 경향은 공산화되기전의 북한사회에서도 일반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정권출범부터 이같은 전통적 남존여비사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男女平等과 女性解放정책을 추진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정책의 영향을 입어, 부부관계는 과거 權威와 服從關係에서 愛情과 相互理解와 尊重하는 관계로 바뀌었다. 이는 사회주의 건설, 즉 신국가 건설에 필요한 모든 이용가능한 인력을 동원해야만 하는 당시 북한의 정치·경제체제하에서는 부인들을 家庭 밖으로 이끌어 낼 필요가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개선되었다.

당시 女性解放과 관련한 김일성의 교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1)

우리는 해방직후 여자들도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남녀 평등권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하여야만 뒤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150) 위의 논문 참조.

151) 『조선여성』90년 5월호, p.3 재인용.

로동계급의 사상을 체득할수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을 사회적으로동에 적극 참가시키는데는 사회주의건설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968년도판, 152페이지)

녀성들을 로동에 참가시키는 목적은 또한 그들을 온갖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평등한 사회적지위를 보장해주자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녀성들은 사회주의건설에 참가시키는데를 단순한 행정실무적조치로 볼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정치사업으로 여겨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27페이지)

북한정권의 이같은 女性解放정책으로 많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일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음은 북한소설 등에 자주 나타난다. 다음은 한 여성이 철도공장에서 남성들도 하기 어려운 고된 일을 하는 모습이다.

라옥은 모든것이 꿈만 같았다. 도대체 자기가 무슨 힘으로 장사같은 아با이를 떠밀고 불길의 솟구치는 대를속으로 뛰어들었는지, 그리고 남자들도 참기어려운 그속에서 견디어냈는지 전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152)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男女平等이 실제 북한주민들의 생활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를 그들의 소설을 통해 살펴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

다음은 한 여성이 처녀때 가졌던 꿈을 버리고 남편과 가정을 위해 犧牲하는 장면과 또 남편이 자기에 참견하려는 여성을 못마땅히 여겨는 장면이다.

선화는 그 때 자기의 희망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는 그가 고마와 눈물을 흘리며 그 편지를 몇번이나 다시 읽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생활이란 단순한것이 아니었다. 어느덧 나이들어 주간대학을 가기가 속스러워진 선화는 병두와 가정을 이룬후에 통신대학을 가려고 했었다. 하나 그때는 벌써 농장의 기사장이 된 병두는 총각시절과 달리 가정생활에 부담을 주면서 선화가 그렇게 하는 것을 그닥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결국 선화는 처녀시절의 꿈만 안은채 얼마전까지 평범한 농장원으로 일해왔던것이다. 153)

선화는 여전히 남편이 물린 상우의 수저를 만지작거리며 자기 의사를 어렵게 비쳤지만 병두는

152) 림재성, 『붉은기』(평양: 문예출판사, 1983), p. 443.

153) 김용한, 『사랑의 샘』(평양: 문예출판사, 1975), p. 8.



벌써 일어섰다.

농장사정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사람들이 하자는데로 하라는 선화가 어처구니없이 여겨질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 이르쿵저러쿵 하는 것이 그의 기분을 심히 불쾌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됐소 됐소>>

<<성내지 마세요. 저야 물론 구체적인 사정은 잘모르지요 뭐. 그렇지만 어쨌든 전 기사장인 당신이 하겠다고 나서기만 하면 안될 일도 될것 같아 그래요. 지금까지 한번 결심한 일이면 못해내신것이 없잔아요>>

병두는 끝내 역정을 버럭 내며 돌아섰다.

<<당신이 무얼 안다구 자꾸 그러요?>> 그리고는 벽에 걸린 밑집모자를 채듯이 벗겨 쓰며 땀에 찬 말을 던졌다.

<<아무것도 모르면서...제할 일이나 하구 가만히 있을게지->>154)

다음 내용도 집안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남편을 아내가 핀찬을 주는 내용이다.

<<여보, 휴가를 받았지요?>>.

퇴근한 마누라가 사어 문을 열자 그렇게 물었다.

<<응...>>.

경팔은 건성으로 대답하고 무엇인가 생각에 잠긴다.

<<감자가 이렇게 잘랐는데 떠 섭취야겠어요>>.

마누라는 아래 목에 놓아 둔 상자에 돌아 난 감자 썩을 만지면서 말하였다. 경팔은 괜스레 부아가 났다.

<<당신은 언제 가면 집안일 보다 직장 일에 다 마음을 쓰겠소? 그러니까 공연히 나까지 개인 리기주의라는 말을 듣지 않소?>>155)

다음은 남편이 자질구레한 가정일에 일절 無關心하고 손을 전혀 대지 않으려고 할 뿐더러 그런 일에 손대는 것을 남자의 人格을 損傷기키는 부끄러운 일처럼 여긴다는 것을 그리고 있다.

남자들은 다들 그렇게만 생각한다니까요. 집에서 아이를 보고 밥을 짓고 세탁을 하고 이런

154) 위의 책, p. 34.

155) 이정숙, 『면 해구에서』(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5)p. 27.

것들을 꼭 여자들만이 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나요?… 그는 갈수록 여성의 행복이란 결코 사회생활과 활동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며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그들에게 애정을 쏟아붓는 좁은 가정적 울타리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모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가를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었다. 156)

또 여성이 가정내의 役割과 사회적 역할 사이에 겪는 葛藤을 80년대에 발간된 소설의 한 장면을 통하여 살펴보자.

라옥의 입에서 무거운 한숨이 터져나왔다. 자기도 언젠가는 시집을 가면 저 경옥이처럼 가정에 묻혀 기저귀를 빨고 남편의 꿰진 양말작이나 손질하는것으로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슬퍼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했다. 이런 안온한 가정에 파묻혀 생활의 사말사(자질구레한 일)에나 정신을 쏟고 거기에서 락을 보려면 무엇때문에 대학을 나왔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여자의 운명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니 손뭉이 탁 풀렸다. 157)

여성이란 어차피 시집을 가게 마련이고 아이를 낳아 기르게 될 것이다. 남편의 뒤바라지도 해야 된다. 라옥은 거것을 부인하지 않을뿐 아니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여성들은 동자질(부엌일)에서 남모르는 쾌감을 느끼듯이 그 모든 일에서 기쁨과 희열을 맛보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그것이 전부이겠는가? 158)

남자들은 다들 그렇게만 생각한단나까요. 집에서 아이를 보고 밥을 짓고 세탁을 하고 이런 것들은 꼭 여자들만이 해야한다는 법이 어디 있나요? … 그는 갈수록 여성의 행복이란 결코 사회생활과 활동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며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그들에게 애정을 쏟아붓는 좁은 가정적 울타리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모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가를 절절하게 느끼는 것이었다. 159)

여기서 우리는 북한이 男女平等을 내세워 女性들에게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일면을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여성들이 傳統的 우리 遺習에 따라 家事를 도맡아하고 있고 남성은 주로 직장일에 전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6) 엄단웅, 『령마루』(평양: 문예출판사, 1980), p. 220. 이은죽, 앞의 책, p. 189 재인용.

157) 림재성, 앞의 책, pp. 215-216.

158) 위의 책, p. 219.

159) 엄단웅, 앞의 책, p. 220, 364, 李溫竹, “家族制度,” 고현옥 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7), pp. 271-272 재인용.

또 북한의 계몽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夫婦를 보아도 한결같이 남편이 아내에게 반말하고 있다. 그리고 무슨 거북한 일은 아내에게 미루려고 하는 장면을 자주보게 된다. 160) 김정일도 자신의 처를 소개하면서 “우리집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편네란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살림 잘하면 되는 거지요”<sup>161)</sup> 라고 말한 것은 현재 북한 권력층이 여성을 卑下하는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소설 류벽의 『조국의 품에서』(1971)에는 이러한 장면이 잘 묘사하고 있다. 거기에는 북송 교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일본 생활과 북한에서의 새로운 風習 사이에서 생기는 긴장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를 奉養하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하고 명령에 따르기를 원하는데, 아내는 직장일에 바쁘고 “옛날처럼 봉건적으로 억눌려 살 줄 아느냐?”는 항변과 함께, 오히려 남편에게 여러가지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견디다 못해 소리를 지르고 밥상을 뒤엎는 일이 벌어지며 부부간의 冷戰이 계속된다. 이 남편은 딸에게서 「폭군적 가부장」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남자들끼리 모여서 북한에 와서 여자들이 남자들의 「춤」(손아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不平하는 장면도 나온다.<sup>162)</sup>

한편 여성의 남편에 대한 관심과 從屬的 態度를 그린 작품들도 있다. 예컨대 남편의 생일을 정성으로 차리는 아내가 있는가하면,<sup>163)</sup> “남편이 음식을 맛갈스럽지 않아 조반을 안들고 사무실을 나가 버릴까봐 몹시근심”하는 아내도 있고,<sup>164)</sup> 자기의 건강보다 남편과 공장일을 먼저 걱정하는 아내상이 등장하기도 한다.<sup>165)</sup>

다음에 인용한 내용들은 1989년에 귀순한 임정희씨(전 개성직할시 소아병원 간호원)의 북한주민들의 부부관계에 관한 증언과 남편이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있음을 아내가 不平하는 소설의 한 장면이다.

한 가지 부러운 점은 한국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잘해준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여자라고 해서 못할 이유가 있느냐”면서 여자에게도 똑같이 일할 것을 강요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일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다. 집에 돌아오면 부엌일은 고스란

160) 李溫竹, 앞의 책, pp.186-187.

161) 신상욱·최은희, “가까이에서 본 김정일: 고독한 독재자,” 조선일보사, 『北韓, 그 충격의 실상』(서울:朝鮮日報社, 1991), p. 290.

162) 李溫竹, 앞의 책, pp.186-187.

163) 김보행, 『로동가정』(평양: 문예출판사, 1979), 李溫竹, 앞의 책, p.187 재인용.

164) 엄단웅, 『령마루』(평양: 문예출판사, 1980), 위의 책, 재인용.

165) 립재성, 앞의 책.

히 여자의 몫이다. 166)

이 집 세대주(남편을 지칭)가 집안일에는 손님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미처 모르고 이었으며, 집안 살림과 아이들 교양, 심지어 학부형 구실에 이르기까지의 온갖 부담들이 주부들에게 들춰워지고 있다는 것도 오늘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167)

또 다음은 김현희가 당 지도원에게 소환되어 가기전에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당부한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나는 너를 잘 키워서 좋은 데 시집보내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가 되길 바랬다. 아이들에게는 현모가 되고 남편에게는 양처가 되길 바랬어 ...

나를 고무하고 몇 가지 당부를 하였으나 여전히 섭섭해 하는 표정을 감추질 못했다. 어머니는 일손을 놓고 아버지 팔에 귀를 기울리다가 현모양처가 되길 바랬다는 대목에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168)

여기서 우리는 아직 북한 사회에서 男子는 주로 바깥일에 전념하고 집안 일은 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 남성들은 과거와 같이 여성들이 남편을 받들고 자녀들을 養育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나아가 딸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가 賢母良妻가 되길 바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아직 북한 사회가 많은 變化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傳統的인 儒敎的 慣習이 상존해 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 나. 女性의 貞節

전통 유교사회의 家庭倫理 중의 하나는 여성의 貞節이었다. 이는 아내가 가족의 權威體인 남편과 자기의 家門을 위해서 지켜야 할 하나의 덕목이었다.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정절은 아내된 자는 오로지 한 남편만을 섬겨야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래서 중국을 비롯한 동양사회에서는 婦德과 婦容을 여성이 지켜야 할 덕목으로

166) 임정희, “배고픈 환자들의 탈출소동,” 조선일보사, 앞의 책, p.147.

167) 현희균, 『새땅』(평양: 문예출판사, 1991), p. 73, 李溫竹, 앞의 책, pp.188-189 재인용.

168) 김현희,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제2부』(서울: 고려원, 1991), pp.180-181.

강조되어 왔다.

여성이 貞節을 지키지 않고 쉽게 再嫁하거나 淫行 또는 失節하는 것은 곧, 신하가 군주를 버리고 새 군주를 섬기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전통사회에서는 여성의 貞節을 개인차원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정치체제의 權威를 유지하는 忠節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었다.<sup>169)</sup>

이러한 전통은 해방 이후에도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있던 도덕관 중의 하나였다. 특히 북한은 최근까지 여성의 貞節을 강조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다음은 志操를 지켜온 한 여성을 높이 평가하는 소설의 장면이다.

최화실이 같은 부더럽고 아름답고 지조가 있는 녀성이 녀절한 인간의 속박에서 인생을 보낸다면 그야말로 비극이 아니겠는가. ……

그러나 전선에서 피흘리며 순정을 지니고 살아온 이 훌륭한 녀성을 함부로 모욕하고 시시껄렁한 요술로 농간을 부려온 것을 용서할 수 없었다.<sup>170)</sup>

다음에 소개되는 내용은 북한 동포가 분단 이후 40여년 동안 결혼하지 않고 守節하면서 子息과 家門을 위해 희생한 자기 어머니께 남한에 있는 아버지가 왜 편지 한 장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딸이 남한에 사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의 일 부분이다.

그토록 사랑해주시던 어머님을 42년에만에 생사여부를 알았는데 왜 어머님께 위안의 편지 한 장 없는지? 조선여성의 절개를 지켜 42년간 곳곳이 살아온 훌륭한 내 어머니께 왜 뜨거운 말 한 마디 적은 필체가 없습니까?

저도 과연 의문이 됩니다. 일생동안 아까운 청춘을 이씨 가문을 위하여 오로지 늙은 부모님과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오신 어머님께 아버님의 뜨거운 실제 필체를 저는 받아 보았으면 서운한 감정이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sup>171)</sup>

또 다음에 소개되는 구절은 남편이 죽은 후 再婚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 守節한 어머니의 이야기이다.

169) 夫南哲, 앞의 논문, pp. 320-321.

170) 허문길, 『대학시절』(서울: 개마고원, 1992), p. 279.

171) 통일원, 『북에서 온 편지』(서울: 통일원, 1993), p. 13.

젊은 나이에 홀몸이 된 후 관참은 혼처도 한두번만 나서지 않았고 마음고생도 적지 않았건만 오로지 자식들을 생각해서 그 모든 유혹과 고통을 한꺼번에 물리치고 곳곳이 살아오신 어머니였다. 172)

이와 같이 북한 사회에서 여성의 貞節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傳統倫理觀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의미도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일성 김정일에게 변함없이 忠誠을 유도하고자하는 일면도 있는것으로 파악된다.

#### 다. 離婚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전통사회에서는 離婚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결혼은 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집안과 결혼할 상대의 집안이 혈연적 관계를 맺는 일이기 때문에 결혼 당사자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가정의 해체라 할 수 있는 離婚도 한 개인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사회에서 政治的 權威로 뒤받침해주던 家父長에 대한 도전이요 배신이였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혼은 不道德한 것으로 여겼고, 국가에서도 再嫁한 부녀의 자손은 관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기까지 이르렀다. 173)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정권도 출범 직후 결혼과 이혼의 자유를 선포하였다. 이로 인하여 정권 출범 초기에 혼인 4건에 1건이 이혼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174) 정권 출범 직후 離婚率 이렇게 높은 것은 구소련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175) 이혼은 주로 「여맹」이 주동이 되어 남편의 <獨裁>에 고생하는 부인들의 편을 들어 이혼을 조장하였고 또 새로운 권력층에 있는 사람은 교육을 덜 받은 처를 버리고 도시 출신의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과 再婚하는 것을 正當化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기까지 하였다. 즉 「여맹」은 “남편은 공산당 간부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능력 있는 여성을 모셔야 한다”고 선전하며, “무식한 여성들은 스스로 공산당 간부의 아내의 지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하였다. 176) 또 부부 중 어느 한편이 反動的인 활동에 관여하였거나 전쟁중에 월남한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하였으며 한편 <반동

172) 림재성, 앞의 책, p. 309.

173) 夫南哲, 앞의 논문, p. 326.

174) 崔弘基, 앞의 논문, p. 408.

175) 趙鏞官, 앞의 논문, pp. 106-108.

176) 북한연구소, 앞의 책, p. 69.

자>나 <불순분자>로 찍인 경우에는 黨에 충성을 보이기 위해 이혼을 기도한 사례도 많았다고 한다. 177)

그러나 북한은 1956년 내각결정 제26호를 공포하여 종래 合議離婚의 절차를 폐지하고 裁判에 의해서만 離婚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이혼 청구시 일반 소송료 외에 5천원이라는 거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이혼을 어렵게 하고 있다. 178)

'87년에 귀순한 김만철씨의 증언에 의하면, 이혼에 대해 특별한 제한은 받지 않으나 사회적으로 良好하지 못해 不良하다는 평을 받기때문에 이혼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한다. 179)

한때 북한에서 회자되었고 남한에서도 출판되었던 백남룡의 『벗』이라는 소설은 주제 자체가 離婚問題이고 이혼사건을 다루는 판사를 등장시켜 이혼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혼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이 북한에서 인기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사회도 이혼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임을 反證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벗』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혼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것과, 가정의 이혼문제조차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북한사회의 논리와 정서를 읽을 수 있다. 꼭 헤어져야 할 사정이 아니면 당사자간의 和解와 再結合을 유도하는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180) 이는 離婚으로 자녀문제 등과 같은 社會的 不安 요인이 별로 정치적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 다는 측면과 아울러 아직도 북한주민들의 의식속에 이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傳統的 觀念이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다음은 소설 『벗』에 나오는 한 장면으로, 이혼에 대해 북한당국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처녀 총각이 사랑하고 결혼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이룰 때에는 법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가정의 형성은 법이 보증합니다. 그것은 가정이 국가의 개별적 생활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국가의 단위가 파괴되는 일을 간단히 볼 수있겠습니까...리혼문제는 부부관계를 끊어버리는가, 그대로 두는가 하는 사사로운 문제이거나 행정실무적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의 세포인 가정의 운명과 나아가서 사회라는 대가정의 공고성과 관련되는 사회정치적 문제입니다. 때문에 우리 재판소는 리혼문제를 신중히 다루는 겁니다. 181)

177)李文雄, 앞의 논문, p. 252.

178) 북한연구소, 위의 책, p. 76.

179) "북한 사람, 북한가정, 북한사회," 朝鮮日報社, 앞의 책, p. 83.

180) 주장현, 『북한의 민족생활 풍습』(서울:대동, 1994), p. 509.

## 2. 父母·子女(兄弟·姉妹)간의 倫理

### 가. 孝道

전통 유교문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德目 중의 하나는 부모에 대한 孝道였다. 가정에서의 孝는 곧 임금에 대한 忠으로 이어지기때문에 국가에서도 孝와 忠을 사회의 중심윤리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옛말에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나온다고 하였던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분화되지 못한 전통사회에서는 가정 자체가 사회의 중요한 기관이었기 때문에 한 개인은 출생하여 죽을때까지 家門의 굴레를 벗어나기 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家長의 명령에 복종할 수 밖에 없었고 가정에서나 학교 그리고 사회 전체가 부모에 대한 孝道를 가르쳐 왔다. 이것이 곧 家族主義를 배태시킨 원인이 되었다. 나아가 개인의 행복과 불행은 곧, 家門의 名譽와 직결되었기때문에 개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역량을 가정과 가문의 영광을 위해 바쳐야 했다.

북한이나 중국은 가정의 이같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가정, 특히 가정에서 거의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였던 家父長制를 타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시도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래서 정권출범 초기에는 비록 父母라 할지라도 黨의 원칙과 首領의 교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소속단체의 간부에게 보고하는 것이 자녀로서 지켜야 할 새로운 道德規範으로 강요되었다.<sup>182)</sup> 이는 구소련이나 중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전통적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상징하였던 가부장제는 그것을 지탱해주던 사유재산제 폐지와 남녀평등정책 등으로 그 權威가 실추될 수 밖에 없었다. 가장은 과거처럼 자신이 관할·통제하며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무런 생산수단으로서의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가정밖에서의 활동에 대한 통제력도 행사할 수도 없었다.<sup>183)</sup> 때문에 부모에 대한 孝道도 과거 전통사회처럼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았다.

북한이 儒敎的 殘在라하여 비판하던 이러한 <家族主義>는 정권이 어느정도 안정되자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은 것 같다. 1960년대 중반에 발간한 한 잡지에서는 <孝>를 문화유

181) 백남룡, 『벗』(평양: 문예출판사, 1988), p. 106, 135, 李溫竹, 앞의 책, p. 182 재인용.

182) 『内外通信 綜合版』(44호, 1991), p. 329.

183) 李文雄, 앞의 논문, p. 240.



산으로 보존되어야 할 美風良俗의 하나로 규정짓고 있으며,<sup>184)</sup> 당시 한 북한 작가는 어머니의 사랑을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은 것”<sup>185)</sup>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북한은 1969년 革命的 首領觀이 정착되고 난후에 忠孝의 전통적 윤리관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의 내용은 당원들에게 黨과 首領에게 忠誠과 孝誠을 다할 것을 담고 있는 글의 일부이다.

혁명적 수령관은 충신과 효자의 기본징표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참다운 충성심과 지극한 효성은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하고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가장 올바른 견해와 관점,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려는 투철한 립장과 자세를 떠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

당원들은 혁명적 수령관이 철저히 선 충신과 효자로 키우는 사업은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빛나게 해결된다. ...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것은 또한 당생활을 통하여 수령과 전사사이에 믿음과 충성, 사랑과 효성의 관계를 더욱 두터이하게 함으로써 당원들을 충신과 효자로 키울수 있게 된다.<sup>186)</sup>

또 다음 내용은 북한을 과거 전통적 儒敎社會에서 君王의 통치덕목으로 강조되었던 仁德政治가 실현되는 社會主義라고 주장하고 있는 「로동신문」의 한 구절이다.

<<수령님께서서는 조상전래의 인정과 성량성, 미덕을 조선민족의 자랑으로 여기시고 우리 인민을 위한 가장 훌륭한 인덕의 정치를 베푸시었습니다>>

인덕의 정치가 실시되는 참다운 인민의 락원에서 살아가려는 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세기적 숙망이다. ...

우리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시고 인민을 위해 한 평생을 바쳐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민위천>, <이신위민>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완성해 나가시려는 것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문무충효를 겸비하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니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지니시고 우리 인민을 위한

184) 『고고민속』, 53호(1966년 11월호), p. 3, 위의 책, p. 241 재인용.

185) 『조선녀성』, 1962년 1월호, p. 22, 위의 책, 재인용.

186) 김효삼,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것은 당원들을 충신과 효자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 『근로자』, 1991년 5호, p. 38.

가장 훌륭한 인덕의 정치를 베푸시고 계신다. … 이땅에 생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것없이 혁명의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따르며 충성과 효성을 다하려는 깨끗한 마음으로 가슴불태우고 있다. 187)

한편 북한은 최근 들어 김일성을 「할아버지」 그리고 김정일을 「아버지」 이미지작업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188) 이는 북한사회가 공산주의체제이면서도 儒敎的 家父長制의 전통을 뿌리 깊게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북한이 이와 같이 과거에 없던 忠誠과 孝道를 강조하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세습체제를 공고히하려는 것이 주목적이라하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북한 주민들의 의식속에 전통적 가치관이 잠재되어 있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마흔이 다 된 아들이 일만 알고 동리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자식을 꾸중하는 아버지의 叱責에 아들이 공손히 自省하고 있는 장면과 시집간 딸이 친정 어머니의 恩惠를 생각하고 있는 소설의 한 구절이다.

<<아버님, 비가 쏟아지려는데 집으로 들어가 말씀하십시오.>>

병두는 허연 눈섭이 사납게 일어선 로인의 머리우에 우산을 펴며 조심스레 권고 했다. 그러나 치삼은 들은체도 안했다.

<<무엇이 어찌? 사람들을 위해 일을 잘하라구 대학까지 공부시켰더니만 대체 이놈의 골통엔 무어가 들어박힌거냐?>> 엄한 꾸중을 이렇게 시작한 로인은 바늘같은 푸른 힘줄이 얽힌 주먹을 들어 아들의 이마뺨을 사정없이 밀어놓았다. 협의회가 있는 때로부터 가슴속에서 고패치던 불만이 드디어 터졌던 것이다.

박병두는 그 주먹앞에서 피하려 하지 않았다.

<<우산안으로 들어서시오. 아버님! 옷이 젖습니다.>> 189)

자식을 길러 봐야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속회는 딸을 낳아 키우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가를 새록새록 느껴지게 되었다.

그나마 결혼을 하고 어머니 곁을 훌쩍 떠나오고 말았으니 너자라는 것은 어차피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인지……. 협동농장 기사로 일하던 남편이 도 농촌경리위원회로 속환되게 되어 도시로

187) 「로동신문」, 1993. 1. 28.

188) 「한국일보」, 1994년. 5월 23일자.

189) 김용한, 앞의 책, p. 84.

이사와 보니 현대적인 살림집에 그 혼한 살림살이 정말 부러운 것이 없었다. 단지 근심은 고향에 남겨 두고 온 어머니였다. 농촌에 태어나 평생을 농사일로 늙어 온 어머니를 모셔다 여생을 편안하게 하여 드린다면 자식된 도리를 얼마간이라도 지킬상 싶었다. 남편의 마음도 다룰 바 없어 어머니에게 몇번이나 청을 드렸는지 모른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머리를 가로서은 것이었다. 190)

또 다음 내용들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 걱정하는 구절들이다.

그는 남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휴양소에도 가려고 하지 않았다. 휴양권은 항상 젊은이들에게 양보하였고 자신도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못내 기뻐다. 저녁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제각기 책상에 앉아 책을 보든가 할 때면 아래 목에 길게 누운 그는 남 부럽지 않게 살게 된 어제 오늘이 무척 대전하여 자주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의 에미 애비가 이전에 얼마나 선주 아래서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 먹을 것이 없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아느냐? 이런 부모를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대해서는 안된다!>>191)

네 얼굴이 딸이 아니구나. 입술도 터지고····· 수척해진 아들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어머니의 눈엔 물기가 보였다. 어제만 해도 방송야외무대에 출연하여 건설자들을 전부적으로 고무하는 힘찬 노래를 불러서 대 절찬을 받은 공훈배우인 어머니였지만 아들 앞에서는 약해지는 듯 하였다. 192)

맛나는 음식이 생기거나 찬이 생기는 때면 자기는 먼저 먹었다며 아들에게만 밀어 놓는다. 식은 밥이나 좀 좋지 않은 음식이 있으면 어머니는 그것을 담은 사발에 헛밥을 조금 얹어 가지고 들어 온다.····· 자기도 어머니를 위하고 싶었다. 그래 자기 편에서 대접을 할라치면 언제나 막무가내였다.···

자기를 위하여 얼마나 마음을 기울이시는 어머니인가! 언제나 최우등생이 되라고 아들을 체근하며 뜰에 나와 비도 못들게 하였다. 「남들이 한시간 공부하면 넌 두시간 해서라도 꼭 일등을 하여라.」 그러면 문을 달아주고는 대문밖에 나가 긴요하게 찾아오는 사람외에는 누구도 들여놓지 않았다. 193)

190) 김명의, 「임진강」, 림종상외, 『최씨르기』(북한 우수 단편집)(서울:산림터, 1994), pp. 98-99.

191) 리정숙, 앞의 책, p. 23.

192) 정창윤, 『먼길』(평양: 문예출판사, 1983), p. 319, 李溫竹, 앞의 책, p. 193 재인용.

193) 리현덕, 『벼꽃』(평양: 문예출판사, 1986), p. 51-52, 李溫竹, 앞의 책, p. 194 재인용.

문씨는 또 기겁을 한다. 그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이래 한 시도 떠나지 않은 검질긴 유혹을 물리치고 이날 이때까지 청렴하게 수절을 한 것은 결코 려려가 되려고 한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직 남편이 말기고 간 두 딸자식을 위한 것이었다. 194)

姑婦간의 관계도 전통적 관념과 별다른 조짐은 보이고 있지 않다.

얼마전 옆집에서 순두부를 앗았다면서 맛보라고 가져온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손자에게 주라고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애들이 귀엽다고 덮어놓고 애들만 위한다면 그것은 애들의 교양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옷사람을 위하는 태도에서도 옳은 자세로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무엇이나 색다른 것을 대접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집 모든 식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이튿날 아침 식구들이 모두 일터와 학교 그리고 유치원 간 다음 그것을 따끈하게 데워 시어머니에게 대접한 것입니다. ....

시어머니는 언제나 생활의 스승으로, 살림살이의 원로격으로 존경받고 있는 것이다. 195)

북한에서는 확대가족(대가족)이 전체 20% 정도로 알려지는데, 북한여성이 확대가족을 선호하는 것은 부모와 어른을 恭敬하는 傳統的 慣習이 남아있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봐주기 때문에 따로 탁아소에 맡기지 않아도 되는 등 가정적·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때문이다. 196)

1990년도에 제정 공포된 북한 가족법 제28조에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노동능력을 잃은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과거에 없던 것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노후 社會保障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197) 맞벌이 부부의 가사 일을 노부모가 도움을 준다는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점도 있다. 또한 이러한 것은 전통적 가치의식과도 부합되기때문에 별다른 저항없이 받아들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북한에서 傳統的인 부모와 자식간의 倫理가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194) 립재성, 앞의 책, p. 480.

195) 현희균, 『새땅』(평양: 문예출판사, 1991), p. 11, 李溫竹, 위의 책, p. 195 재인용.

196) 주강현, 앞의 책, p. 507.

197) 宋美順·李恩玉, “南北韓 老人生活 및 福祉實態 비교 研究,” 統一院, 앞의 책, p. 360.

### 나. 子女의 結婚問題

전통사회에서 男女간을 격리시키는 것을 하나의 美德으로 간주되었고, 나아가 전통적 社會秩序를 유지하는 하나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였다. 이는 결혼의식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혼전의 남녀가 自由롭게 사회적 접촉을 가진다든지 교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으며 仲媒結婚을 가장 理想的인 것으로 받아드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共產化되고 나서 이러한 전통적 남녀간의 장벽은 무너져 버렸다. 이러한 변화는 공산화 초기에 실시한 男女平等政策 등으로 우선 남녀가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었고 또 여성의 노동력 참가범위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정치활동과 조직활동에 여성들이 참여하여 남자들과 어울려야 하고, 또 공중 앞에서 발언도 해야 하는 등 남녀 異性交際의 가능성을 정부에서 배려한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

이같은 사회·정치적 활동으로 남녀간의 빈빈한 접촉은 전통적인 사회적 격리 관습을 많이 약화 내지는 제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성교제의 새로운 양상은 사회관계의 전통의 틀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다.<sup>198)</sup> 즉 젊은 남녀간의 戀愛는 드물게 일어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애는 아직 不道德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한다.<sup>199)</sup>

전통 사회에서 결혼문제는 결혼 당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과 가문의 문제였기 때문에, 결혼의 결정권은 주로 부모, 특히 家長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의 영향력도 공산화 초기 男女平等法 제정과 자녀결혼을 뒤받침해 줄 經濟的 土臺 자체를 없애버려 과거처럼 부모의 뜻을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강요할 수 없었다.

귀순자 김용규씨에 따르면 1958년도까지는 남녀가 아무런 규제없이 戀愛結婚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당시 북한의 문화선전상이었던 허정숙은 “서방문화를 받아드려야 한다”고 주장하여, 외국영화(특히 동구 공산권)를 대대적으로 수입해 오고, 사교댄스까지 대대적으로 장려·보급하다가 숙청을 당했지만 심지어 貞操開放論까지 들고 나왔다고 한다.<sup>200)</sup>

비록 자유연애로 인해 결혼에 있어 父母의 權威가 과거보다 많이 실추되었으나 여전히 자녀의 결혼문제는 부모의 큰 관심사였고 또 부모의 意思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198) 李文雄, 앞의 논문, pp. 245-246.

199) 조선일보사, 앞의 책, p. 118.

200) 金用珪, 『時效人間』(서울: 나라기획, 1979), p. 198.

있는 것으로 같다.

다음은 어머니가 딸에게 좋은 婚處가 났다며, 딸에게 선보기를 권유하는 소설의 한 장면이다.

어머니는 정희를 앞에 앉혀 놓고 이런 말을 자주했다. 그러던 어머니가 갑자기 좋은 혼처가 나졌다고 서두르며 급급히 조르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신랑은 형부 리윤서가 천거해서 알게 된 젊은 기사였는데 외국 류학을 하고 돌아온 지 오래지 않은 수재라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혼처란 때가 있고 네 나이도 어리지 않으니 잘 생각해서 결정하라>>고 하셨다. 201)

<<에그, 자식남이를 했으면 벌써 들은 뽕았겠는걸…쫓쫓쫓.>>

문씨는 어이없어 혀를 차며 눈을 흘겼다. 그러나 그 순진한 모습은 다시는 돌아올수 없는 동요 시절과 함께 자기의 청춘시절을 상기시켜주는것으로 하여 어머니의 가슴은 찌르르하니 아려났다.

내 전생애 무슨 죄를 졌기에 저 딸자식의 머리조차 얹어주지 못하고 궁상스레 끼고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 남들이 애비없는 과부자식이라고 숯보는것 같아 느닷없는 설음이 북받치기도 하였다. 202)

다음 내용에서는 아들 장가 보낼것을 걱정하고 있는 아버지의 고민을 살펴볼 수 있다.

아이들은 버젓이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학교를 나온 맏아들은 경리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래년 봄이면 장가를 들게 된다. 한 해 겨울 푸짐히 물고기를 잡으면 맏아들의 혼례식 비용쯤은 넉넉히 장만할 수 있다. 잘치는 좀 돈을 쓰더라도 남 못지않게 해야겠다.

집신에다 입던 옷을 빨아 입고 좁쌀 떡 한 사발도 잔치라고 하였던 자신의 팔자 원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아들의 혼례식만은 어엿하게 해야 한다. 203)

이와 같이 부모가 자식의 결혼 문제를 갖는 것은 傳統的 父母像과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비록 북한이 私有財産制度를 폐지하였지만 結婚에는 상당한 돈이

201) 윤시철, 『거센흐름』(평양: 조선문학예술총연맹출판사, 1965), pp. 26-27.

202) 립재성, 앞의 책, p. 475.

203) 이정숙, 앞의 책, pp. 23-24.

들기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결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녀의 결혼문제에 대하여 부모가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도 마찬가지다.<sup>204)</sup>

그리고 兄弟姉妹 간의 관계는 과거와 별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黨과 직접적인 摩擦을 야기시키지 않으면 전통적 형제 자매관계에 관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기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은 형제자매간의 사랑을 엿 볼수 있는 내용들이다.

쪽잠이 들었던 윤희는 오빠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에야, 윤희야, 이젠 돌아들가자.>>

<<괜찮아요. 오빠, 그만……>>

윤희는 오빠의 얼굴에 나타난 그늘을 보자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내가 이 오빠를 돕노라고 애쓰는걸 볼 때면 괴롭구나.>>

<<뭣때문에 오빠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오빠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다. 레일부터는 이런 불편, 저런불편 내 혼자 감당해낼테니 학교강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오빠, 정말 그런 말씀을 하지 말아요.>>

윤희는 고개를 돌리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에게 죄를 짓는것 같구나.>><sup>205)</sup>

누님! 제가 누님결을 떠난 지도 벌써 반년이 가까이와습니다. 그간 한장의 소식도 못전한 동생에 대하여 노여운 생각이 드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루밤만이라도 묵어기라고 그렇듯 잡아끌던 누님의 그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sup>206)</sup>

북한에서는 兄弟愛를 영화 같은데서 많이 강조하고 있다. 처음에는 큰형만이 유격대원이고 동생들은 청년의용군과 적위대활동을 하고 있으나 동생들은 형과 같이 유격대원이 되지 못하는 것이 불만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격대원이었던 큰형이 일본군에 잡혀 총살당하게 되고, 둘째 동생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한다.

“준혁아 나는 비록 떠났지만 내가 못한 일을 너희들이 해주기를 바란다. 너는 집안의

204) 趙鏞官, 앞의 논문, p. 155.

205) 정창운, 『빛을 따라서』(평양: 문예출판사, 1974), p. 32.

206) 『조선문학』(1972년 7월호), p. 61.

기둥이 아니냐? 너희 행동이 혁명앞에 정직해야 동생들이 따를 것이 아니냐? 내가 온 집안을 혁명화해야 한다.”<sup>207)</sup>

이는 큰형이 죽으면서 자기의 뒤를 이어 革命을 이룰것을 부탁하는 내용이다. 결국 형제애를 통해 혁명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사회가 공산화 이후 다소 變化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傳統的 父母와 子女 및 兄弟간의 家庭倫理가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祖上·親族간의 倫理

조상숭배가 철학적·윤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인식된 것은 儒敎를 국교로 삼은 조선시대부터이다. 죽은자와 산자를 한 공동체 안으로 묶는 조상숭배의식은 원래 철저한 報恩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예기』 祭義에 “聖人은 본을 돌아보고 시를 다시하여, 생의 근원을 잊지 않는다”(聖人反本復始 不忘其所由生也)라고 말하고 있다.

反本復始 혹은 反古復始라는 말은 원래 지나간 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本이나 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을 말하고 始는 자기의 생명이 시작된 것을 말한다. 報本이라는 것은 생명을 공급해준 은혜를 잊지 않음을 말한다면, 復始란 자기 생명의 직접적인 원인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sup>208)</sup>

그리고 자기에게 생명을 공급해준 先祖에 대해 의식이 바로 祭祀이다. 제사는 결국 한 핏줄 한 집안이라는 血緣意識과 親族意識을 갖게하는 가족주의를 형성하여 왔다. 이러한 조상 숭배의식은 해방 이후 북한이 공산화되기전까지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던 하나의 傳統的 文化意識이었다.

북한은 6.25전쟁 전까지는 제사지내는 것을 심하게 통제하지않았으나 휴전 후에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封建的이라고 비판하였다. 북한 이와 같이 제사를 봉건적 잔재라 하여 노골적으로 탄압한 것은 ① 戰亂으로 경제생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비등하고 있는 시기에 제사를 핑계로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黨에 대한 不滿에 제기될 수 있고, ② 제사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자가 낭비되고 이것을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 그 자손들의 不平·不滿은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③ 제사를 통하여 친족관념을

207) 李宇榮, 『北韓政治社會化에서傳統文化의 役割』(서울:民族統一研究院, 1993), pp. 57-58.

208)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20권』(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pp. 370-373.



강하게 하고 宗派思想과 分派主義를조장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보았기때문이다. 209)

그러나 1958년 제3차당대회 이후부터 제사에 대한 黨의 태도가 다소 완화되었다. 이는 제사의식을 통하여 당의 洗腦教育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믿었기때문이다. 즉 해마다 돌아오는 故人的 제사날이 되면 그이 생전시의 革命課業에 대한 批判과 繼承을 다짐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했기때문이다. 210)

다음은 김일성이 1974년 1월 10일 전국농업대회에서 한 연설을 한 대목으로 제사에 대해 그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다.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것도 낡은 생활습성의 하나입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이나 사진 앞에다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는것은 아무런 의의도 없습니다. 제사를 지내는것은 죽은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한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날에 무덤에 꽃다발을 가져다놓든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죽은 사람의 지난날의 투쟁을 회상하면서 그가 다 하지 못한 일을 살아있는 사람이 마저 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211)

김일성이 이같이 제사문제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비록 전통적 의미의 祭祀儀式은 많이 퇴색되었지만 공산화된 지 30년이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이 傳統的 遺習인 제사를 지내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최근에 귀순한 김만철씨 일가가도 현재 북한에서 祖上에 대한 祭祀를 지내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212) 또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이 남한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도 제사를 지내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산화 초기 종파주의 분파주의라고 비판하였던 家門意識 門中意識도 일부 남아 있는 것 같다.

다음은 조장에 대한 祭祀와 家門意識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묘지와 기일제사, 생일제사는 염려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머니은 대단히 단단하십니다. 절대로 그 누구한테 돌보게 하고 인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 저는 장손며느리여서 시집제사도 제가 맡아 다 올리구 내쪽 제사도 다 받아 올리니 어느년이고 일년 열두달 빼놓지않고 제사와 생일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209) 『北傀共産集團의 傳統文化抹殺』(서울: 自由評論社, 1980), p. 124.

210) 위의 책.

211) 『김일성저작선집』, 7권, p. 21.

212) 朝鮮日報社, 앞의 책, p. 90.

그러나 대기아버지는 저보다 제사날이 돌아오면 더 성의껏 준비하여 제를 올립니다. 213)

그는 열아홉살에 마음에도 없는 촌녀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늙어가는 부모들이 봉술가문의 대를 이어줄 자손을 저급하게 바랐던 것이다. 214)

한편 조상숭배에 관련된 것중의 하나가 男兒選好思想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 유교의 식에 따르면, 祖上의 代를 끊는다는 것은 不孝중의 가장 큰 불효였기 때문에 대를 잇기 위해 男兒을 선호하였던 것이 우리의 전통문화였다. 이러한 전통은 아직 우리사회에도 남아있어 태아가 女兒일 경우 낙태시켜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북한에서도 여전히 男兒를 選好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 남아를 선호하는 것은 첫째는 조상의 대를 잇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같이 해나가야 하는 二重苦를 자식에게만 안겨주고 싶지 않은 어머니의 딸에 대한 愛情과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를 아들에게 의지하려는 생각때문이라 할 수 있다. 215)

또한 북한은 그동안 「사회주의 명절」만을 국가명절로 용인해 오다가 지난 88년 秋夕을 부활시킨데 이어 89년부터 음력설을 民俗名節로 공인화 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주민들도 음력설을 비롯해 한식·단오·추석 등 4대 민속명절을 모두 쇠고 있다. 216)

북한은 이같이 민속명절을 부활 시킨것을 金父子의 「은덕과 배려」 때문이라 선전하고 있으나, 실지로는 그동안 북한주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던 전통적 명절을 공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북한 사회에 아직도 전통적 유습이라 할 수 있는 祖上崇拜意識이나 家門意識 그리고 男兒選好思想이 비록 부분적으로 탈색되기는 했으나 많은 부분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213) 통일원, 앞의 책, p. 14.

214) 림재성, 앞의 책, p. 119.

215) 朝鮮日報社, 앞의 책, p. 74, 李文雄, 앞의 책, p. 240, 宋美順·李恩玉, 앞의 논문, p. 360.

216) 『內外通信 綜合版45』, p. 344.

## V. 結論

本 研究은 社會變動에 있어서 한 국가의 統治이데올로기의 變動이 그 사회의 政治體制와 文化體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고, 북한을 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儒家思想을 統治理念으로 하여 비교적 오랜 세월을 두고 형성된 文化體制,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의 전통적 家庭倫理體系가 공산화이후 북한이 채택한 마르크스-레닌主義와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새로운 통치이데올로기를 受容한 이후 실시한 共產化政策(家庭文化政策)에 의해 어떠한 變化와 葛藤을 겪었으며,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努力들이 시도되었으며 나아가 현재 어떠한 형태로 殘存 또는 變形(連續性和 不連續性)되었는가를 論究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본 연구의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전통 한국사회는 農業爲主의 集團生活이 중심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복잡하고 잘 조직된 家族制度를 胚胎시킨 家庭中心의 血緣社會였다. 이러한 농경사회의 특성에 부합되는 思想體系가 儒敎思想이었으며, 이 儒敎思想은 상호간에 葛藤을 포출시키기 보다는 調和를 重視하여 上下간의 序列을 體系化시키는 倫理體系를 형성하여 왔다. 이와 같이 農耕社會에 기초한 전통 한국사회는 祖上을 崇拜하고 子孫의 蕃盛을 중시하였으며, 또 家庭의 모든 권한이 家長(氏族長)에게 주어져 있는 家父長的 社會인 동시에 家門의 名譽를 중시하는 社會였다.

분단 이후 북한의 家庭文化政策은 마르크스-엔겔스의 家族理論에 기초한 社會主義 家庭文化를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북한은 1940-1950년대 家父長制의 物的 토대가 되었던 土地改革을 단행하였고, 또 封建的 家庭文化를 打破하기 위하여 男女平等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이 시기에 시작된 女性의 社會參與와 育兒의 共同養育制 등을 강조한 家庭의 革命化는 197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金正日 世襲體制가 본격화된 1980년대부터는 「社會政治生命體論」과 「社會主義 大家庭」 등을 주장하면서 忠誠과 孝子를 강조하고 있고, 1990년에 제정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가족법」에는 父姓追從原則과 父母에 대한 孝道 등을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북한의 가정문화정책은 1940-1970년대까지는 주로 과거 封建的 家庭文化打破와 家庭의 革命化를 통한 全社會의 革命化에 주력하였으나, 1980년대 접어들면서 상당부분 傳統的 家庭文化에 復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金正日 世襲體制의 鞏固化와 무관하지 않으

나 傳統的 家庭文化가 강하게 남아 있음을 북한정권이 정치적으로 受用·利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이 실시한 家庭文化政策이 실제 현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共產化 이후 북한의 夫婦關係는 북한 당국에서 전통적 男女差別的 夫婦關係를 土地改革이나 男女平等法制定 등 強壓的 方法을 동원하여 平等的 關係로 유도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封建的 男尊女卑思想은 많이 없어졌으나 아직까지 남자는 바깥일에 전념하는 반면 여성은 社會勞動과 가사일을 도맡아하는 경향(男主外, 女主內)을 보이고 있으며, 또 전통사회에서 강조하던 여성의 貞節과 守節이 여전히 殘存하고 있고, 또 離婚도 특별한 경우에만 정부에서 허락하는 등 傳統的 儒敎的 夫婦倫理가 많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共產化 초기에는 父母와 子女간이라도 黨의 방침에 어긋나면 부모를 고발하는 등 反人倫的 요소도 없지 않았으나, 정권이 안정된 후에는 傳統的 父母와 子女關係로 回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과거와 같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인 孝道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義務도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80년대 이후 金正日 世襲體制를 공고히하는 과정에서 孝道와 忠誠을 강조하고 있는 바, 이는 傳統的 儒敎文化에서 강조하던 父子간 그리고 君臣사이의 윤리규범과 그 類似性을 띠고 있다.

또 과거 家父長的 社會에서 일반화되었던 子女結婚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은 公산화 이후 土地改革과 男女平等法제정 등으로 많이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戀愛와 離婚은 아직 不道德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傳統的 遺習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겠다.

세째, 전통적 兄弟·姉妹간의 윤리규범인 友愛은 별다른 變化없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黨에서는 이러한 血緣的 友愛보다도 革命的 同志간의 友愛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祖上·親族간의 윤리관계의 한 방편이었던 祭祀는 정권 초기에 封建的 殘滓로 迷信이라 일시 批判을 받기도 하였으나 최근들어 民間에서 普遍化되고 있는 것을 容認하고 있으며, 또 男兒選好思想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나아가 傳統 民族名節도 부활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北韓은 정권 수립이후 그들이 指向하고자 하는 社會主義 政治體制를 수립하고 이에 照應하는 社會主義 家庭文化建設을 위하여 人爲的·強壓的 方法으로 傳統의 家庭文化를 打破하기 위한 많은 努力을 경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傳統의 家庭文化가 부분적 變化를 겪기는 하였지만 아직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常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社會變動에 있어 한 국가의 통치이데올로기의 變動이 기존 사회의 文化體制와 調和를 이루지 못할 경우, 政治體制는 정치권력 주체의 人爲的·強壓的인 정책으로 인해 단시일 내 強制的 變化가 가능하지만, 歷史·文化的 傳統性을 갖는 文化體制는 정치적 의도에 의해 斷絶을 강요받으며, 그 결과 不連續性을 형성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여전히 連續性을 維持하려는 慣性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본 연구결과 北韓의 家庭이 많은 정치·사회적 變化와 屈曲에도 불구하고 傳統的 家庭倫理가 많은 영역에서 아직 殘存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南北韓 社會統合에 있어 家庭倫理가 하나의 중요한 디딤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 『고고민속』, 53호(1966년 11월호)  
 『로동신문』, 1993. 1. 28.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20권』(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조선여성』, 1962년 1월호, 1990년 5월호.  
 『조선문학』(1972년 7월호)
- 『김일성저작선집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内外通信 綜合版』(44호, 1991)  
 『조선로동당략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高範瑞, 『變革期の 社會倫理』(춘천: 翰林大學出版部, 1986)  
 高柄翊, “現代社會와 家族,” 『現代社會와 家族』(서울: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 1986)  
 金璟東, 『現代의 社會學』(서울: 博英社, 1989)  
 김명의, 「임진강」, 림중상외, 『최찌르기』(북한 우수 단편집)(서울: 산림터, 1994)  
 김보행, 『로동가정』(평양: 문예출판사, 1979)  
 金相浹, 『毛澤東思想』(서울: 一潮閣, 1978)  
 金用珪, 『時效人間』(서울: 나라기획, 1979)  
 김용한, 『사랑의 샘』(평양: 문예출판사, 1975)  
 金在泳, 『政治社會化論』(서울: 大旺社, 1982)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김현희,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제2부』(서울: 고려원, 1991)  
 김효삼,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것은 당원들을 충신과  
 효자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 『근로자』, 1991년 5호
- 羅昌柱, 『比較共產政治論』(서울: 形成社, 1983)  
 都興烈, “광복 이후 남북한 사회의 변화,” 『정신문화연구 통권47호』(한국정신문화연구  
 원, 1992)  
 리재숙, “여성해방위업을 위하여: 가장 우월한 어린이보육교양지도를 마련해주시어,” 『조선  
 여성』(1991. 5)  
 리정숙, 『먼 해구에서』(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5)  
 리현덕, 『벼꽃』(평양: 문예출판사, 1986)  
 림재성, 『붉은기』(평양: 문예출판사, 1983)  
 박병련, “南北韓 道德規範의 葛藤樣相,” 『統一後遺症 克服方案研究』(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  
 원, 1994)  
 朴秉濠, 『韓國法制史攷』(서울: 法文社, 1987)  
 朴容憲, “價値教育을 위한 概念設計,” 『민주문화 논총』, 1991, 제2권 제8호  
 朴容憲, “北韓의 政治敎化敎育,” 北韓研究所編, 『北韓敎育論』(서울: 北韓研究所, 1977)  
 朴在侃, “傳統的 孝思想과 그 現代의 意義,” 『傳統倫理의 現代의 照明』(성남: 韓國精神文化  
 研究院, 1989)  
 백남룡, 『벗』(평양: 문예출판사, 1988)  
 法制處, 『北韓法制概要』(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2)  
 夫南哲, “北韓의 儒敎的 傳統倫理 政策,” 統一院, 『北韓의 經濟·社會·司法制度 分野』(서울: 統  
 一院, 1992)  
 夫南哲, 『朝鮮前期 政治思想研究』(1990, 韓國外國語大學 博士學位論文)

- 북한 연구소, 『북한 가족법과 가정실태』(서울:북한연구소, 1991)
- 宋榮培, 『中國社會思想史』(서울:한길사, 1986)
- 신상옥·최은희, “가까이에서 본 김정일: 고독한 독재자,” 『조선일보사, 『北韓, 그 충격의 실상』(서울:朝鮮日報社, 1991)
- 安秉永, 『現代共產主義研究』(서울:한길사, 1983)
- 엄단웅, 『령마루』(평양:문예출판사, 1980)
- 廉弘喆, 『比較共產主義政治論』(서울:博英社, 1977)
- 柳岸津, “韓國傳統社會의 特性과 初期 社會化,” 『한국인의 初期 社會化過程 研究』(성남: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 劉永珠, 『新家族關係學』(서울:敎文社, 1991)
- 윤시철, 『거센흐름』(평양:조선문학예술총연맹출판사, 1965)
- 尹泰林, 『韓國人의 性格』(서울:東方圖書, 1986)
- 李光奎, 『韓國家族의 構造分析』(서울:一志社, 1990)
- 李光奎, 『文化人類學의 世界』(서울:서울大出版部, 1986)
- 李箕永, “家庭倫理와 社會教育,” 栗谷思想研究院 주최 제2회 세미나(1992年) 『汎國民生活倫理學講演大會』 주제발표원고.
- 李文雄, “北韓의 社會와 家族形態,” 韓國社會科學研究所編, 『韓國社會論』(서울:民音社, 1980)
- 李秉錫, 『土地改革과 政黨의 制度化』(1987,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李壽允, 『政治哲學』(서울:法文社, 1981)
- 李溫竹, “家族制度,” 고현옥 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서울: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87)
- 李溫竹,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서울:法文社, 1993)
- 李宇榮, 『北韓政治社會化에서傳統文化의 役割』(서울:民族統一研究院, 1993)
- 李漢龜, “儒敎倫理의 構造와 社會的機能,” 『韓國哲學思想研究』(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 李熙昇, 『國語大辭典』(서울:民衆書林, 1988)
- 임희섭, “韓國文化의 變化와 展望,” 임희섭(編), 『韓國社會의 發展과 文化』(서울:나남, 1987)
- 全相仁,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서울:民族統一研究院, 1993)
- 全海宗, “儒敎文化의 普遍性과 特殊性,” 『儒敎文化의 普遍性과 特殊性』(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8회국제학술회의자료집, 1994)
- 鄭慶謨·崔達坤, 『北韓法令集 第2卷』(서울:大陸研究所, 1990)
- 정창운, 『먼길』(평양:문예출판사, 1983)
- 정창운, 『빛을 따라서』(평양:문예출판사, 1974)
-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61』(평양:조선중앙통신사, 1961)
- 趙鏞官, 『中國 共產化政策이 家庭倫理에 미친 影響에 關한 研究』(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2)
- 주강현, 『북한의 민족생활 풍습』(서울:대동, 1994)
- 池敎憲, “家庭의 倫理의 特性과 社會·敎育의 機能,” 『個人과 國家』(성남: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5)
- 陳德奎, “한국사회에서의 가족체 운동의 전개,” 『민주문화논총』, 제1권6호
- 崔達坤, “北韓 家族法 40년과 그 動向,” 『北韓法律行政研究論叢』(高麗大學校 法學研究所, 1990)

- 崔東熙 外 2人, 『倫理』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3)  
 崔在錫, 『韓國人的 社會的 特性』(서울: 開文社, 1980),  
 崔弘基, “北韓의 家族制度,” 『北韓社會論』(서울: 北韓研究所, 1977)  
 崔弘基, “家族과 社會秩序,” 서울大現代思想研究會編 『이데올로기와 社會變動』(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崔弘基, “北韓의 家族制度,” 北韓研究所編, 『北韓社會論』(서울: 北韓研究所, 1977)  
 통일원, 『북에서 온 편지』(서울: 통일원, 1993)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韓國共產圈研究白書』 (서울: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1989)  
 한국여성개발연구원, 『북한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2)  
 허문길, 『대학시절』(서울: 개마고원, 1992)  
 현희균, 『새땅』(평양: 문예출판사, 1991)

「人民日報」. 1992. 1. 3.

『論語』

『孟子』

『禮記』

『禮記』

『孝經』

- 史鳳儀, 『中國古代婚姻與家庭』(湖南: 湖南人民出版社, 1987)  
 昭惠王后 韓氏 陸完貞 譯註, 『內訓』(서울: 열화당, 1988)  
 吳自甦, 『中國家庭制度』(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73) 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2)  
 劉應杰, “中國農村社會的家庭和親屬,” 『社會學研究』, 1983第5期  
 俞焄, 『政策學概論』(서울: 法文社, 1981)  
 張賢鈺 外 3人, 『婚姻家庭法概論』(浙江: 浙江人民出版社, 1986)  
 編輯部編, 『辭源(修訂本)』(北京: 商務印書館, 1990),  
 編輯部編, 『中國大百科全書1』(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7)

福島正夫 外, 원화봉역, 『家族』(서울: 한울림, 1985)

Alfred Meyer, *The Soviet Political System*(New York: Random House, 1965)

Allen Kassof, “The Administered Society: Totalitarianism Without Terror,” *World Politics*, x vi, 4 (July 1964)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2nd ed. (revised by C. J. Friedrich)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65)

Dean Jaros, *Socialization to Politics* (N.Y.: Praeger Publishers, 1973)

Elisabeth Croll, *Feminism and Socialism in China*, 김미경 · 이연주 옮김, 『中國女性解運動』(서울: 사계절, 1985)

F. Engels, 김대웅역,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서울: 아침, 1991)

Francis L.K.Hsu, “Kinship and Ways of Life: An Exploration,” in Francis L.K.Hsu(ed), *Psychological Anthropology: Approaches to Culture and Personality* (Homewood: The Dorsey

Fung Yu-Lan, *A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New York: The Free Press, 1948)

Hsieh Yu-Wei, “Filial Piety and Chinese Society,” Charles A. Moore, (ed) *The Chinese Mind*(Honolulu: The University of Hawaii, 1967)



- J. Messner, J.U.D., Dr. Econ. Pol., *Social Ethics* (Binghamton and New York: Herder  
J. Simmons (ed.), *Continuity and Change in Russian and Soviet Thought*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55)
- John Bryan Starr, *Ideology and Culture : An Introduction to the Dialectic of Contemporary  
Chinese Politics* (New York: Harper, 1973)
- Jonathan Harrison, Ethics, in Paul Edwards (ed),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3, (New  
York: MacMillan, 1967)
- K. Marx, F. Engels, 김재기 편역, 『마르크스·엥겔스 저작선』 (서울: 거름, 1988)
- Karl A. Wittfogel, *Oriental Despotism: A Comparative Study of Total Power* (New Haven: Yale  
Univ. Press, 1957)
- L. J. Cohen & J. P. Shapiro (ed), *Communist System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Anchor Press, 1974)
- L. W. Pye, *China: An Introduction* (Boston: Little Brown, 1972)
- Murdock, R. K., *Social Structure* (N. Y: Fress Press. 1966)
- R. P. Appelbaum, *Theories of Social Change*, 김지화 옮김, 『사회변동의 이론』 (서울: 한울,  
1983)
- Robert Sharlet, "The Soviet Union as a Developing Country : A Review Essay, *Journal  
of Developing Areas* II, (Janunary 1968)
- S. H. Beer (ed.), *Pattern of Government* (New York: Praeger, 1956)
- W. F. Ogburn, *On Culture and Social Change* (Chicago: The Uni. of Chicago Press, 1964)
- William J. Goode, *The Family*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2)

最近 北韓文學에 나타난 世代間的  
葛藤에 관한 研究

研究責任者 : 李相瓊 (한신대)

## 목 차

<요 약 문> .....	83
I. 머리말 .....	89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연구 대상 .....	89
2. 현재 북한 사회의 세대 구성과 그 사회적 의미 .....	90
II. 북한 소설에 나타난 세대 간의 갈등의 유형 .....	95
1. 세대 간의 갈등의 유형 분류 .....	95
2. 갈등에서 제1, 2세대의 입장이 주도적인 경우 .....	99
3. 갈등에서 제2세대와 제3, 4세대의 입장이 대등한 경우 .....	113
4. 갈등에서 제3, 4세대의 입장이 주도적인 경우 .....	122
III. 다른 사회 문제와 중첩된 세대간의 갈등의 유형 .....	130
1. 가부장제의 약화와 세대 간의 갈등 .....	130
2. 이농 현상과 세대 간의 갈등 .....	134
3. 관료주의 문제와 세대 간의 갈등 .....	137
IV. 맺음말 .....	139
※참고문헌 .....	141

## 최근북한문학에 나타난 세대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 <요 약 문>

이 연구는 최근 북한 문학에서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을 분석하여 오늘날 북한의 젊은 세대의 삶의 지향과 내면 세계를 드러내보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남북한의 통일과 통일 후 사회적 통합에 있어 젊은 세대의 향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젊은 세대는 그 이전 세대와는 다른 삶의 지향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전개될 사회 변동에서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가치관과 내면세계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것을 감안하여 남북한의 통일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와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의 내용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인간들의 내면세계란 바깥으로 드러난 공식적인 자료에 의해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북한의 새로운 세대의 내면세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그들의 내부적 움직임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단편 및 중 장편의 소설작품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내면세계를 드러내고자 한다. 소설 역시 공식적인 과정을 거친 출판물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제한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북한에서는 오늘날 북한의 세대를 다음 네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세대는 일제하에서 항일혁명운동을 했거나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다. 김일성과 현재 80세를 전후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

은 현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도 하다. 대부분 노환으로 세상을 떴기 때문이다.

2세대는 청년시절 6.25전쟁을 겪고 살아온 세대들이다. 그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의 북한을 건설한 주역들이다. 이들은 오늘날 북한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을 일차적으로 떠맡고 있는 층이다. 이들은 현재 환갑을 전후한 나이의 사람들로 젊은 세대들의 앞길에 대해 또한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3세대는 전후세대로서 그들은 앞세대가 겪었던 고난의 일제시대나 전쟁을 자신의 경험으로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현재 나이가 40대 전후로서 북한 사회의 허리 역할을 떠맡고 있는 층들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북한 사회의 앞길이 좌우될 만큼 매우 중요한 층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앞 세대와는 다르게 커 왔기 때문에 나이든 1세대나 2세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 세대이다.

4세대는 현재 20대로서 이제 사회의 문턱에 들어서려는 세대들이다. 일제시대나 전쟁을 체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3세대와 비슷하지만 아직 사회 경험이 없고 때가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1세대나 2세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 역시 3세대와 비슷하게 근심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이미 사회 속에서 틀이 짜여져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어떻게 하기 어려운 3세대에 비해 이들은 지도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세대로 인식되어진다.

북한 문학 작품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주로 다루어지는 방식은 크게 세가지 나누어져 있다.

첫째는 2세대의 입장이 강하게 드러나 있는 경우이다. 이들 작품에서는 2세대들이 3, 4세대에게 과거의 위업을 들려주면서 후대들도 그들을 따라 배우라고 주장하는 방식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둘째는 2세대의 입장과 더불어 3, 4세대의 입장이 상당히 많이 드

러나 있어 오늘날 북한의 3,4세대의 지향이 어느정도 그려져 있는 작품이다. 이들 작품에서도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결국 3,4세대들이 2세대들이 살아온 그 험난한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그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결말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 경향의 작품에서는 그러한 안이한 결말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 오늘날 북한의 세대간의 갈등을 엿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를 제공해주게 된다.

세재는 2세대들의 목소리보다 3,4세대들의 입장이 더 강하게 드러나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젊은 세대의 지향이 더욱 진보적인 것이며 늙은 세대들도 이에 맞추어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이들 작품에는 주로 가부장적 질서의 해체라든가 과감한 일의 진척 등이 주로 드러나고 있다.

그 밖에도 북한 소설이 자기 현실의 문제를 다룰 때에 세대 간의 갈등과 사회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북한 체제 성립 초기부터 수립한 남녀 평등을 위한 제도는 우선적으로 여성 생산력 동원이라는 목적을 가지지만 동시에 그러한 제도와 사회 활동을 통해서 여성 자신의 의식과 남성의 의식도 조금씩 변화시켰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을 보조자로 보던 전통적인 가부장제적 여성관은 약화되고 여성을 동반자로 보는 여성관이 확산되어 이것이 세대 간의 갈등의 양상도 띠게되었다.

또한 근대화 과정에서 예외없이 나타나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진취적인 젊은 세대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도시로 진출하려는 동기와 기회를 부여한다. 이것 역시 세대 간의 갈등과 중첩될 수 밖에 없다.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사회일수록 관료주의의 폐해는 클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도 여유있게 자란 젊은 세대들의 공명주의와 보신주의 그리고 물질적 욕망이 야기하는 폐해에 대해 늙은 세대가 간고한 항일 혁명 정신을 계승할 것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세대 간의 갈등과 중첩되어 나타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북한의 젊은 세대(3세대와 4세대)의 특징은 다음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젊은 세대는 전쟁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전쟁을 경험한 늙은 세대는 지금도 전시 상태에 준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고 언제 미국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한다고 믿는 반면, 젊은 세대는 전쟁은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 북한의 젊은 세대는 보다 나은 미래 사회에 대해 진취적이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현재에 대해 고마워하는 감정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일제시대라든가 전쟁을 겪은 늙은 세대들은 과거의 못살았던 처지에 비해 현저하게 나아진 현재의 조건에 대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반면, 젊은 세대들은 현재의 조건을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보다 나은 처지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욕망 추구에 대해 굉장히 솔직하다.

셋째 북한의 젊은 세대는 규범과 규율에 대해 비판적이다. 나이든 세대들은 비교적 규율이라든가 규칙에 익숙해 있는 반면, 젊은 세대들은 활달하고 격식이라든가 규범에 별로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넷째, 북한의 젊은 세대에게는 비교적 가부장적 사고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늙은 세대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환경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가부장적 의식을 농후하게 가지고 있는 반면,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러한 의식은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단순히 생산력주의로부터 빚어진 국가동원 체제에서의 여성인력의 활용이란 측면 보다는 실제적으로 여성들의 평등이 향상되는 방식으로 의식이 바뀌어져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북한의 젊은 세대는 농촌 보다는 도시를 선호한다. 농촌의 젊은 세대는 환경이 바뀐다는 부담을 안으면서도 과감하게 도시

로 진출하려고 한다. 이는 보다 나은 삶의 조건 즉 출세와 윤택하고 편리한 문명의 이기를 좇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I. 머리말

###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최근 북한 문학에서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을 분석하여 현재 북한의 젊은 세대의 삶의 지향과 내면세계를 드러내보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남북한의 통일과 통일 후 사회적 통합에 있어 젊은 세대의 향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젊은 세대는 그 이전 세대와는 다른 삶의 지향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전개될 사회 변동에서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가치관과 내면세계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것을 감안하여 남북한의 통일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와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의 내용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인간들의 내면세계란 바깥으로 드러난 공식적인 자료에 의해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폐쇄적이고 공식적인 언론만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내놓고 뿔뿔하게 말할 수 없는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들여다 보기란 더욱 어렵다. 북한의 새로운 세대의 내면세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그들의 내부적 움직임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단편 및 중 장편의 소설작품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내면세계를 드러내고자 한다.

물론 북한 사회의 다른 출판물과 마찬가지로 소설 역시 공식적인 과정을 거친 출판물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제한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북한 사회에 관해 접할 수 있는 자료 중에서는 공식화되고 추상화된 부정확한 통계 자료나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내놓는 선전용 자료, 아무래도 몇번의 외부 검열과 자기 검열을 거친 귀순자의 수기나 여행자의 표피적 방문기 같은 것보다는 그래도

구체적인 생활 사실에 근거하여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소설을 분석해보는 것이 북한의 젊은 세대의 내면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북한 소설을 읽고 분석할 때는 공식적인 목소리와 비공식적인 목소리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 북한소설은 소설의 장르적 성격에 의해 생활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제기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지만 체제의 요구에 의해 공식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곳은 그 문제가 제기되는 측면이다. 그리고 대부분 체제가 요구하는 슬로건의 확인이나 모범적인 인간형의 승리로 이루어진 결말은 현실이 그렇다기보다는 북한 체제를 요구하기 위한 상층 지도부의 희망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독일의 통일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되었던 것은 구 동독의 젊은이였다. 우리나라도 향후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젊은 세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 파악 없이는 그 과정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미리 이들 북한 젊은 세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향후 있을 사회변동에서 덜 혼란스러우면서도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2. 현재 북한 사회의 세대 구성과 그 사회적 의미

김일성 사후 남한 사회의 매스컴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인 것 중의 하나가 북한의 혁명 1세대와 2세대 사이의 연속성과 단절성 여부였다. 김일성이 죽고난 다음 얼마 남지 않은 혁명 1세대 중의 한 사람인 오진우와 북한 사회의 지도자이자 동시에 혁명 2세대 중추로 떠오른 김정일의 관계에 대해 경쟁 관계라는 등 후견자라는 등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관심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

다. 즉 아주 제한적으로 상층 지도부만을 볼 뿐이지 실제 북한 사회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궁극적 원동력으로서의 일반 대중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미처 눈돌릴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다. 혹은 생각은 했더라도 접근의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구동독의 붕괴에서 보듯이 사회 변화의 중요한 국면과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지도부의 역할 못지 않게 일반 대중들 그중에서도 젊은 층들의 불만과 지향은 결정적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의 가능성과 변화의 방향을 가늠해보는 데 있어서 혁명 1세대 혹은 2세대의 동향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재 북한 사회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문화와 지향을 이끌어 나갈 이른바 3세대와 4세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북한 사회를 한층 더 총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이후 북한문학은 물론 적대적이 아닌 비적대적 모순의 테두리 내에서이기는 하지만 현실의 갈등이나 모순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현실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담게 되었다. 그 중의 하나가 세대간의 갈등 문제이다.

북한에서는 오늘날 자신들의 사회를 구성하는 세대를 다음 네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제1세대는 일제하에서 항일혁명운동을 했거나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다. 김일성과 오진우 등 현재 80세를 전후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고향으로 세상을 떴기 때문에 현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제2세대는 청년시절 6.25전쟁을 겪고 살아온 세대들이다. 그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의 북한을 건설한 주역들이다. 이들은 오늘날 북한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을 일차적으로 떠맡고 있는 층이다. 이들은 현재 60대를 전후한 나이의 사람들로 젊은 세대들의 앞길에 대해 또한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제3세대는 전후세대로서 그들은 앞세대가 겪었던 고난의 일제시대나 전쟁을 자신의 경험으로 체험하지 않은 층의 사람들이다. 현재 나이가 40대 전후로서 북한 사회의 허리 역할을 떠맡고 있는 층들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북한 사회의 앞길이 좌우될 만큼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앞 세대와는 다르게 '고생하지 않고' 커 왔기 때문에 나이든 1세대나 2세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 세대이다.

제4세대는 현재 20대로서 이제 사회의 문턱에 들어서려는 세대들이다. 일제시대나 전쟁을 체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3세대와 비슷하지만 아직 사회 경험이 없고 때가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1세대나 2세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 역시 3세대와 비슷하게 근심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이미 사회 속에서 자기의 역할이 분명하고 틀이 짜여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어떻게 하기 어려운 3세대에 비해 이들은 지도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세대로 인식되어진다.

이러한 세대 구분을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현재 북한에서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혁명 3세대와 4세대가 과거를 잊어 버리거나 모른다고 하는 현실이다. 북한 사회 곳곳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혁명 2세대들은 실무 책임자인 3세대와 미래의 역군 4세대를 보면서 이해하기 힘든 사태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

이들의 이런 고민이 얼마나 크고 절실하며 또한 심각한 문제인가는 혁명 2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학평론가의 다음과 같은 질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3세 4세 청년들이 1세 2세들이 개척하고 고수 발전시켜온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 위업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할 투철한 신념과 각오로 시대 앞에 부과된 자기의 사명을 해야 할 때이다. 우리당에 의해서 교양육성된 세 세대들 속에서 당과 수령께 충성과 효성을 다해갈 일념으로 열

마나 많은 미거들을 속출시키고 있는가. 수많은 제대군인들과 처녀들이 대흥으로 농촌으로 자원해 달려가고 전우들 인민들의 생명을 위해 자기의 한복숨 서슴없이 바치는 군인들의 감동적 행동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가운데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하려는 처녀들이 수없이 늘어나는 오늘의 현실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 청년들의 참모습이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에는 아직 자기 개인을 먼저 내세우며 못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불미스러운 언행을 하는 청년들도 없지 않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작은 것으로 무시해서는 안된다. 자기만을 알고 향락에 재미를 느끼는 사소한 요소들이 자라면 종당에는 당도 국가도 인민도 몰라보는 속물로 정치적 오락자로 혁명의 배신자로 돼버리기 마련이다. 청춘시절이 아무리 소중한고 두번 다시 없는 것이라 해도 자기의 시대적 사명감도 모르고 쫄렁쫄렁 살아간다면 그러한 청춘을 열번 백번을 산다고 해도 단 한푼의 가치도 없다.

우리 혁명의 1세 2세들의 청춘시절을 본받아 그들이 높이 추켜든 붉은기를 지키기 위해 순간과 순간 날과 달을 바쳐가는 것이 3세 4세들이 자기의 청춘시절을 빛나게 살아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오늘의 부모들이 자식들을 두고 바라게되는 가장 큰 기대이며 소원이기도 하다.<sup>1)</sup>

상당히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 글에서 ‘불미스러운 행동’, ‘자기만을 알고 향락에 재미를 느끼는’ 등과 같은 대목을 보면 실제로 3세대 4세대들의 행동양식이 2세대들에게 얼마나 큰 괴리감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가를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세대간의 이러한 갈등은 일상적 생활을 묘사하는 소설에서는 훨씬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물론 북한의 문학작품은 이러한 문

1) 「혁명의 1세대 2세대들처럼 살며 투쟁하는 새세대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는 것은 작가들의 영예로운 임무」(『조선문학』 1993년 7월호)

제를 풀기 위해서 젊은 세대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양하는 데로 기울어진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많은 작품들 특히 소설은 많은 양이 할애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위업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 밑에 우리 혁명의 1세대 청년들인 항일 혁명 투사들에 의하여 개척되고 혁명의 2세대 청년들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하였으며 오늘은 혁명의 3세대 4세대 청년들에 의하여 튼튼히 이어지고 있다. 혁명의 선행 세대 청년들의 뒤를 이어 주체 혁명 위업을 계승하여 나가야 할 혁명의 3세대 4세대 청년들의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 책동을 짓부시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튼튼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혁명의 3세대 4세대 청년들은 원수와 피어린 싸움도 값비싼 피의 대가도 치르어보지 못하고 행복한 조건에서 태어나 삶을 누려온 세대들이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겨누는 원수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는데 행복만을 알고 살아온 세대들이 혁명의 대를 이를 주력군으로 나선 객관적 조건은 필연코 이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2)</sup>

북한 소설들이 왜 세대간의 갈등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세대간의 문제가 최근에 와서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인간의 삶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것이고 세상을 먼저 산 사람과 나중 산 사람 사이의 갈등이란 언제나 있어온 것이다.

2) 「우리식 사회주의를 튼튼히 고수하고 빛내어가는 청년 전위의 형상을 더 많이 창조하자」(『청년문학』, 1993년 3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노년과 청년의 갈등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환경에 의해 규정된 특정 세대 사이의 갈등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어떤 사회적 변화의 한 징후가 될 수도 있다.

북한 사회에서 이미 1960년대 초반부터 제기되었던 세대 간의 갈등이 최근에 와서 더욱 강조되고 이 주제의 작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위의 인용문에서 나와있다시피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문제와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 사정이 나빠지고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질서의 붕괴 등 북한을 둘러싼 주위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바로 북한의 젊은 세대들의 항배는 더 중요해졌다. 이들은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들이 동요하게 될 때 북한 사회는 근본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여러 차원의 정신적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II. 북한 소설에 나타난 세대 간의 갈등의 유형

### 1. 세대 간의 갈등의 유형 분류

북한 사회에서 세대간의 갈등을 다룬 작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작가의 가치평가가 혁명 2세대에 기울어져 있어 이들의 시각에서 3세대 4세대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일관되거나 교훈을 들려주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향의 작품은 당정책의 공식적 목소리를 그대로 담고 있어 현실의 구체적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 작품들은 하나같이 전세대와 후세대들 나란히 등장시키고 전세대가 후세대에게 과거에 있었던 위업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품들이 유형화 되어 있다.

가장 많은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한 것이다. 아버지가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노년과 청년의 갈등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환경에 의해 규정된 특정 세대 사이의 갈등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어떤 사회적 변화의 한 징후가 될 수도 있다.

북한 사회에서 이미 1960년대 초반부터 제기되었던 세대 간의 갈등이 최근에 와서 더욱 강조되고 이 주제의 작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위의 인용문에서 나와있다시피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문제와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 사정이 나빠지고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질서의 붕괴 등 북한을 둘러싼 주위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바로 북한의 젊은 세대들의 항배는 더 중요해졌다. 이들은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들이 동요하게 될 때 북한 사회는 근본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여러 차원의 정신적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II. 북한 소설에 나타난 세대 간의 갈등의 유형

### 1. 세대 간의 갈등의 유형 분류

북한 사회에서 세대간의 갈등을 다룬 작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작가의 가치평가가 혁명 2세대에 기울어져 있어 이들의 시각에서 3세대 4세대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일관되거나 교훈을 들려주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향의 작품은 당정책의 공식적 목소리를 그대로 담고 있어 현실의 구체적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 작품들은 하나같이 전세대와 후세대들 나란히 등장시키고 전세대가 후세대에게 과거에 있었던 위업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품들이 유형화 되어 있다.

가장 많은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한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과거의 힘들었던 시절과 그 난관 속에서 헤쳐나왔던 위업을 들려주고 소개해주는 구성이다. 이러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 대신에 스승과 제자, 전세대 노동자와 후세대 노동자 등의 관계로 바뀌면서 여러 작품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면은 작품들의 제목에서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 예컨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조선문학, 1992년 4월호), 「어제와 오늘」(조선문학, 1991년 6월호), 「언제나 그날처럼」(1992년 6월호)같은 것들이다. 또한 이러한 소설에서 가장 자주 들먹이는 시대는 이른바 천리마 시기이다. 실제로 이 천리마 시대는 혁명 2세대들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새롭게 건설을 주도했던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북한의 나이든 2세대들은 그때의 이야기를 즐겨 들려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다른 경향의 작품은 2세대들의 입장 뿐만 아니라 3세대 4세대들의 입장과 논리적 근거도 같이 제시하고 있어 그 갈등의 심각성과 현실성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준다. 특히 2세대들이 젊은이들을 비판하거나 꾸짖을 때 앞의 경향의 작품과는 달리 이 부류의 작품에서는 항상 젊은이들의 반론이나 변명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접점을 잘 살펴보면 그들 사이의 갈등의 구체적 내용을 어느정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이러한 흐름의 작품에서도 마지막에 가면 젊은 3, 4세대들이 2세대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으로 끝난다. (만약 그렇게 설정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기게 된다. 북한의 문예정책에서는 작품이 비적대적 갈등이나 모순만을 그릴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결말은 그것이 적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풀리거나 화해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이후의 논의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혁명 2세대와 3, 4세대 사이에 놓인 대립과 갈등에 한정되어 있고 혁명 1세대와 2세대 사이의 대립은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의 역사에서 혁명 1세대와 그 후대 특히 혁명 2세대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들 사이에서 제기된 갈등과 대립은 이미 지난 시절의 것으로 지금에 와서는 아무런 현실적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실제로 과거에 특히 전쟁 직후에 혁명 1세대와 혁명 2세대의 북한의 일반 주민들 사이에는 상당한 갈등과 차이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문학적 자료가 있다. 1988년에 출판된 김삼복의 『향토』에는 전쟁 직후에 있었던 혁명 1세대와 2세대의 현실감각의 차이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 우리의 주목을 끈다.

“자 들자구! 리당비서, 임자두 들게!”하고 외할아버지는 술잔을 들고 큰소리로 말했다. “오늘이야 마음껏 마시고 즐겨야지. 여보게, 내 노래 하나 하라나?”

“할아버지, 락후한 노래를 하면 안돼요”

내가 옆에서 미리 주의를 주었다.

“이것이 좋은 노래도 많은데 왜 하필 락후한 노래를 하겠니? 한데 너희들은 민요를 모르는게 탈이야 그저 ‘나가자, 나가자’ 하는 노래만 부르지 사로청원들이니까 그런 노래를 불러야 하겠지만 조선민요두 불러야 해”

이러면서 외할아버지는 가는 목소리로 한 곡조 뽑았다

새가 새가 날아든다

...

나는 눈을 가느스름해가지고 수염을 떨며 노래하는 외할아버지와 그에 따라 흥에 겨워 ‘좋지’하고 어깨를 들썩거리는 오근풍 아저씨 그리고 빙글빙글 웃어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오늘 이 집을 찾아온 것이 오아저씨가 ‘운암의 어른’이기 때문도 아니요 또 그가 재취하기를 권고하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것을, 최정임에 대한 애정을 품고 혼자 늙어가고 있는 오아저씨의 마음을 덮혀주고 무엇으로든지 기쁘게 해주려는 깊은 의도에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좌상인 외할아버지가 먼저 노래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들

아가며 다 노래를 불렀다. 나도 불렀고 오근퐁 아저씨도 불렀다. 오아저씨의 목소리는 잘 어울리는 저음이었다. 그는 조국보위의 노래를 불렀다. 손을 흔들며 열정적으로 불렀다.

가슴에 끓는 피를  
조국에 바치니

나는 좋은 목청을 가지고도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오아저씨를 보면서 웃음을 머금었으나 주먹을 흔들며 열정적으로 부르는 그 억센 모습과 전쟁때와 그리고 전후의 어려운 시기를 그러한 패기와 열정으로 피와 땀을 흘려온 그의 과거를 생각하니 저절로 눈물이 솟구쳤다. 이 노래는 그가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준엄했던 지난 전쟁때 많이 불리웠다고 한다. 잊을 수 없는 설날이었다<sup>3)</sup>

이 작품의 화자가 어느 설날 아침에 겪은 이야기를 묘사해 놓은 부분이다. 그런데 혁명 1세대에 해당하는 외할아버지가 부르는 노래와 혁명 2세대에 해당하는 오아저씨가 부르는 노래 사이에 개재된 차이를 통해 이 두 세대가 살아온 역사와 그것에 따른 정서적 차이를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혁명 1세대인 외할아버지는 일제하에서 주로 많이 불렀던 유행가와 민요 중에서 퇴폐적이라고 간주되는 유행가는 부르지 않고 민요를 부르게 되고, 혁명 2세대인 오아저씨는 전쟁 시절에 부른 혁명가요를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사소한 생활에서의 차이를 통해 작가는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놓여있는 세대간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혁명 1세대와 2세대 사이에도 과거에는 큰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혁명 1세대들이 거의 살아남아 있지 않는 현실에서 더 이상 그것은 의미를 가지기 어

3) 김삼복, 『향토』(문예출판사, 1988)121-122면

럽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1세대와 2세대 사이의 차이는 다루지 않고 2세대와 3,4세대 사이의 차이와 갈등만을 다루도록 하겠다.

## 2. 세대 간의 갈등에서 제 1, 2세대의 입장이 주도적인 경우

북한문학에서 세대간의 갈등을 다루는 작품 중에서 양과 질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세대가 3세대 4세대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실천을 들려주면서 후대들이 이를 따라배우기를 원하는 경향의 것들이다.

바로 이러한 목적에서 북한 체제는 작가들에게 3,4세대들이 따라 배울 수 있는 1,2세대들의 영웅적 모습을 창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항일혁명 투사들은 혁명의 자랑스러운 첫 세대이다. 항일 혁명 투사들은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모시고 천신만고를 다 이겨내면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였다. 항일혁명 투사들은 그들의 업적으로 보나 투쟁 정신으로 보나 우리 인민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본받아야 할 혁명가의 모범이다.

한편 조국 해방전쟁에서 영웅적 위훈을 세운 혁명의 2세대들인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은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고 해방된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개를 온 세상에 떨쳤다. 그들은 온 나라가 잿더미로 되고 모든 것이 완전히 폐허로 된 속에서 짧은 기간에 도시와 농촌들을 새로 일떠 세우고 사회주의를 훌륭히 건설하였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혁명의 1세대 2세대의 고귀한 혁명 정신과 투쟁 업적이 깊이 있게 형성됨으로써 혁명의 3세대 4세대가 따라배워야 할 숭고한 품모와 계승의 몫이 뚜렷하게 밝혀져야

한다. 4)

그런데 이들 작품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뻔하게 여겨질 정도로 판에 박힌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오늘날 북한의 핵심 중추 세력인 이 2세대가 젊은 후대들을 어떤 식으로 설득하고 있는지 또한 그 세대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하는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들 작품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3,4세대와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2세대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작품들이다.

리규택의 「인간의 수업」은 총국장 채석준과 그의 아들 정원이의 갈등을 다룬 것이다. 고위직에 있는 아버지의 힘을 빌어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했던 아들과 성적이 모자란다면 성적이 낮고 열의 있는 학생에게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아들을 제염소에 배치받게 한 아버지의 갈등을 제시하고, 처음에는 아버지의 그런 처사에 반발했던 아들이 아버지가 과거에 그 제염소에서 했던 노동과 생각을 알게 되면서 제염소 일에 열성을 쏟아 임시 반장까지 맡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석준은 아들이 고등 중학교를 졸업하면 상급학교로 보내려고 작정하고 있었으나 그의 아들 채정원은 성적이 되지 않아서 남동제염소에 배치를 받게 되었다. 석준이 좀 힘을 쓴다면 단과대학이나 고등전문학교 정도는 추천을 받을 수 있었고, 실제 정원이라도 “못해도 전문학교쯤은 시험에 응시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고 설사 실력이 얼마간 딸린다고 해도 아버지가 도와주리라 믿었”<sup>5)</sup>는데 채석준은 실력있고 열성있는 학생에게 양보하는 것이 양심적인 태도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4) 「혁명의 1세대 2세대들처럼 살며 투쟁하는 세 세대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는 것은 작가들의 영예로운 임무이다.」(『조선문학』, 1993년 7월)

5) 리규택, 「인간의 수업」, 『쇠찌르레기』 (살림터, 1993), 217면.

상급학교 추천 명단에 자기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아들은 “난 상급학교 시험두 쳐볼수 없단 말이에요? 됐어요. 더는 아버지 신세를 지지 않겠어요. 소금밭에 나가 소금 농사나 지어먹겠단말이에요.”<sup>6)</sup>이라고 원망에 차서 반항적인 말투로 대들었다. 거기다 아내까지도 아들의 편에서 남편의 고지식함을 따지고 든다.

남편과 아내의 다음과 같은 대화는 북한 사회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와 그것이 현실에서 왜곡되어 받아들여지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 4세대 격인 정원이는 내놓고 아버지에게 대들지 못하기에 남편의 견해에 반대하는 아내의 말은 바로 정원이의 불만이기도 하다.

“당신은 랭정해요. 그렇게 해야만 제 자식을 바르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원칙적일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처사로서는 너무도 몰인정해요. 그대 하다못해 정원이를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귀성 염전에라도 내보내면 큰일 나나요?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책임일군들로부터 제 자식들을 가장 멀고도 조건이 불리한 염전에 보냅시다. 나도 우리 맏아들을 남동 염전에 제염공으로 보내겠소’라고 했지만 기술부국장네도 철남이를 거기엔 안 보내겠대요. 당신이야 책임 일군으로서의 자기 체면이 있는데 정원이를 다른데루 빼돌리겠나요? 자식보다두 그게 몇배루 더 귀중할텐데요.”

안해는 옷방에서 정원이가 부모의 주고받는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다는 것조차 녀두에 두지 않았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면 더는 아들애를 붙잡아 둘 수 없다고 생각한 듯 결사적으로 나섰다.

“난 절대로 정원이를 남동 염전까지는 보내지 않겠어요.”

잠자리에 들었던 둘째 아들 경원이가 부시시 깨어나 웬일인가 하여 두리번거리며 량친을 번갈아 보았다. 파르끄레한 빛조차

6)같은 책, 같은 곳.

어린 경원의의 순결하고도 맑은 눈동자와 마주친 석준은 정색했다.

“여보 섭섭하구만. 거뿔 남동이 사람 못살 고장이기라도 하단 말이요? 거긴 내가 10여년 동안이나 제염로동을 한 고장이요. 어쩐지 내게는 북에 들어와 제일 오래 있는 그 염전이 나서 자란 고향 못지 않게 소중한 곳으로 여겨진단 말이요.”

“알고도 남았어요. 그렇다해도 설마 제 자식까지 그 소금밭에서 일을 시켜야만 하겠나요? 지금은 그때와는 사정이 달라요. 할수 없으니 그렇지 그래 자식들을 키워서 보란듯이 주간 대학에 보내면 나쁜게 뭔가요?”

(…)

“당신은 몰라요. 요새는 애들한테두 체육복을 철따라 해입히는게 유행이에요.”

언젠가 정원에게 몇번째인지 모르게 새 체육복을 해 입히는 걸 보고 너무 호강을 시키면 안된다고 했을 때 안해가 실통하여 대꾸한 말이다. 그 말이 아직도 가슴 속에 박혀 있는 걸 보면 애한테 지나친 사랑을 기울이는 것이 심히 못 마땅했던게 확실하다.<sup>7)</sup>

특권의식을 가진 아들에 대해 아버지는 자신이 옛날 그 남동 염전에서 일하던 경험을 들려주기 위해 편지를 쓴다. 채석준이 아들 정원에게 쓴 편지는 바로 북한사회에서 전후 복구 건설과 제1차 5개년 계획 등에 청춘을 바친 제2세대들이 후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 편지의 대강은 채석준 자신도 30년 전의 젊은 시절 남동 제염소에 배치를 받고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졌고 남반부에서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다가 목숨을 잃은 자신의 부모를 들먹이며 좀더 험한 작업에 배치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었다는 것, 그러나 제염소의 다른 일군들의 정성에 감복하면서 힘든 노동을 자기

7) 위의 책, 221-223면.

와의 싸움의 과정으로 받아들고 최선을 다하여 통신대학까지 다닐 수 있었고 그 경험이 밑천이 되어 총국장이 된 지금에는 염전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심정을 잘 알아 주는 지도 일군이란 뜻으로 '제염공 총국장'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 편지 중에서 다음 두 구절은 이 북한 사회의 지도층이 된 제2세대의 심정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대목이다.

홍분하여 분별을 잃은 나는 감히 저 세상으로 사라진 부친의 성스러운 이름까지 내뱉두르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 정원아, 지금도 이 애비가 농 안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너의 친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렬사증이 자기 자식에게 공짜로 험한 작업을 마련해주는 그런 늑거리 증표였겠니. 8)

요즘 일부 젊은이들은 우리가 지난 날 간고분투하며 전후 복구 건설을 하던 때 있던 일을 얘기할라치면 '새로운 말은 없구늘 듣던 그 얘기군요. 지금은 그때하구 달라요.' 라고 하기 일쑤이다. 세상일이란 그런 것이지. 지나간 일은 다 레사롭고 험해 보이는 법이거든. 9)

중간에 남동염전소 사람들이 지레 총국장에 대한 배려로 정원은 작업반장학교에 다니러 집으로 왔지만 아버지가 써놓은 편지를 읽고는 마음을 돌려 다음날 바로 제염소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임시반장까지 하여 아버지에게 뿌듯함을 안겨준다는 것으로 소설은 끝나고 있다.

남동제염소에서의 노동은 아버지나 아들 모두에게 '인간 수업'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창현의 「모래불」(조선문학 1992.5)은 1세대와 2세대가 그 후세

8)위의 책, 234면

9)위의 책, 235면



대들에게 자기들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소설에는 뚜렷한 갈등이 구성되지는 않으며 1, 2세대의 일방적인 경험과 목소리만 들린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뒤집어 읽으면 문제를 알아챌 수도 있다.

이 소설에는 무남로동자구 상업관리소 소장인 중년의 오철흙, 서촌 수산협동조합에서 바다 자원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칠순의 라희만이 등장하고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지금은 죽었지만 라희만의 10년 전배로 석산소비조합의 책임자였던 오철흙의 아버지 오성훈도 있다.

소설은 오철흙이 그동안 무남의 김장용 젓갈을 서촌에서 조달해 왔으나 유명한 조개산지였던 서촌 앞바다가 간석지로 막히면서 젓갈을 공급하기 어렵게 되어 궁지에 몰렸을 때 라희만 노인이 조개 젓갈을 보내주어 오철흙이 감사 인사를 하러 라희만 노인을 찾아가서 나누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그 대화는 주로 라희만 노인의 '조개이야기'이다. 즉 2세대인 라희만이 그 아래의 세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인 것이다.

해방 직후 라희만은 석산소비조합에 배치되었으나 물자가 귀한 판이나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아 라희만은 옮겨갈 궁리만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도상업일군양성소를 나온 오성훈이 와서 열성을 내는 바람에 라희만은 마지 못해 끌려갔다. 서촌 앞바다 모래블에는 원래 조개가 많았는데 일제 말기에 이르러 공장의 폐설물과 기름찌기가 마구 흘러들면서 조개들이 폐사해버렸다. 그런데도 오성훈은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조개 한알이라도 더 주워 젓을 담그려고 노력했다. 라희만은 오히려 앞바다를 간석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더 강했지만 오성훈에 끌려다니느라 죽도록 고생을 하게 되었다. 그때 라희만은 오성훈에게 '뭐 제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너무 극성을 부리는 게 아니냐'고 대놓고 말하고 학교에 보내달라고 보채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성훈의 진정을 조금씩 느껴가게 되었다. 6.25 전쟁이 나던 해에는 젓갈을 담기 위해 조개를 사서 싣고 오던

배가 풍랑을 만나 조개 자루를 모두 바다 속에 빠뜨리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오성훈은 “그래도 조합 재산을 제 앞바다에다 쳐넣었으니 다행이지!”라고 말했을 뿐이었다. 전쟁이 끝나 무남으로 라희만이 돌아와 보니 서촌 앞바다에는 조개가 짝 깔려 있었다. 풍랑에 빠뜨린 조개가 번식한 것이었다.

그뒤 라희만은 대학을 마치고 서촌의 간석지 건설사업소 부기사장으로 돌아와서 공사를 지휘하게 되었다. 그런데 라희만이 제방공사 계획 설명을 실컷 하고 나자 허리가 구부정해져서 안경 다리만 매만지며 자주 먼 바다만 내다 보던 오성훈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앞바다의 조개밭은 어찌되는 겁니까?”라고 말하여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다. 라희만을 포함하여 젊은 사람들은 앞바다에 큰 벌이 생긴다고 좋아하는 판에 조개 따위는 동문서답이었기 때문이다. 공사가 시작되어 차를 몰고 뛰어다니다가 라희만은 어느날 한 밤중에 오성훈을 만났다. 오성훈은 제방공사로 모래불이 말라드는 와중에 한알의 조개를 버리기 아까와 밤을 새워 조개를 캐던 것이다. 라희만은 오성훈의 그런 행동이 살림에 보태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오성훈은 조개가마니를 동쪽 위에 실고가자는 것이었다.

다음과 같은 오성훈의 훈계는 자기의 능력이 닿는 데까지 성실하게 해내는 숨은 영웅의 것이다.

“여보게, 조국의 지도가 넓어지고 여기에 새 땅이 생기는게 왜 나쁘겠나. 하지만 저 동쪽 너머에 조개를 다시 심는 일도 그만 못지 않은 일일세. 그래 이 모래불 속에서 주인을 잃고 죽어가는 한 알의 대합, 동조개, 바스레기가 우리의 재부가 아니란 말인가. 이 모래불이 간석지로 둘러 막혀 마를 수는 있어도 저 제방 너머 시퍼런 우리 바다야 어쩔 가겠나. 바다가 멀리 나갔으니 우리의 마음도 함께 따라 나가야 할 게 아닌가! 그래 저 새 바다의 모래불에서 다시 숨쉬게 될 조개가 우리의 재부가 아

니란 말인가!

사람들을 교양하게. 여기는 내 마지막 서식장이야. 자네들이  
뜨락또르며 자동차를 마구 몰아대니 내 밤잠을 집에서 잘 수 있  
겠나!”<sup>10)</sup>

그리고 이렇게 오성훈이 심어 놓은 조개를 라희만이 오철흠에게  
가져다 주듯이 오성훈의 훈계도 라희만을 통해서 오철흠에게로 이  
어지는 것이다.

전세창의 「초불」(1993.3)도 1, 2 세대가 제3세대에 느끼는 불만  
과 불안이 주로 묘사하면서 1,2세대가 아랫 세대에게 자녀 교양을  
잘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한 작품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언제나  
꼬장꼬장하게 ‘로동안전규정’을 적용하고 주위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일을 잘 주관해서 ‘홍판사’라는 별명을 가진 일흔 살이 된 홍  
만표 노인이다. 그는 첫째 아들은 군사분계선 초소에서 잃었지만  
그 손자들이 훌륭하게 자랐고 세째 아들 경수도 리원군에서 기업관  
리를 책임진 지배인 사업을 맡아보고 있어 늘 자식들에 대해 긍지  
를 느껴왔다. 그래서 인민반회의에서 자녀교양을 잘하자는 주제가  
나왔을 때 “자식이야 곁을 낳지 속을 낳나.”고 말한 사람에게 홍로  
인은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꾸짖을 수 있었다.

“자네 예전 시절에 우리 선친들의 운명이 어떠했는가를 모르  
지 않을테지. 자식을 낳고도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를 허  
희 탄식하며 제 스스로나마 사람구실 하기를 바래서 냇두리처럼  
그런 말을 했네. 현대 자네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런 말로 자식  
교양을 잘하지 못한 허물을 가리워보자는 건가? 그래 제 자식의  
속을 누구더러 책임지라는 건가, 학교선생들이? 아니면 우리 인  
민반에서?... 하도 제도가 좋아 배꼽떨어지자부터 그 부모들이  
어데서 무엇을 하건 골고루 입혀주고 무상치료, 무료교육에 세

10) 김창현, 「모레불」, 『조선문학』 1992년 5월, 34면.

상에 부러운 것 없이 키워주니 그 은덕에 자식을 잘 키워 보답할 대신에 … 에키 이 돼다 못한 사람같으니, 그래 제 자식이 잘못되면 남의 탓이고 잘되면 대끝에서 대가 난다구 아버지를 닮았다고 할텐가?”<sup>11)</sup>

그런데 홍로인이 그 세째 아들 경수에게 문제가 생겼다. 경수는 경공업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리원군 지방 산업 공장에 배치되었을 때 어떻게 하든 평양에서 떠나지 않으려다 종당에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엄한 훈계를 받고서야 행장을 꾸렸던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홍만표 노인은 경수가 가는 공장에 6.25 당시 꼬마전사로 자기를 따르던 대바르고 의리깊은 김갑석이 있기에 그곳에서 경수가 품성이 좋아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홍로인이 경수네 집을 다니러 가보니 지배인이 된 경수는 기업관리에서 수자를 묘리 있게 둘러 맞춰 걸만 그럴듯하게 넘기고 있었고 그의 정신 상태를 비판한 김갑석을 산골의 한지로 발령해버리는 수완을 부리고 있었다. 그 실상을 알게된 홍로인은 자기가 책임지고 그를 교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리원으로 이사를 한다.

이 소설에서도 3세대 격인 경수의 구체적 면모와 내면은 그려져 있지 않고 홍로인이나 김갑석이 비판과 우려 섞인 시선 속에서 그의 행태가 드러나 있다. 홍로인이 리원의 경수네 집에 도착하여 김갑석을 만나러 갈려고했을 때 며느리와 손자가 보이는 행태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묘사는 1, 2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에게서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홍로인은 행장을 풀면서 김갑석과 마주 앉아 회포를 나눌 생각에 벌써 기분이 흐물씩하여 며느리에게 물었다.

“애들의 작은 할아버지도 별고 없이 지내겠지?”

시아버지가 온 것으로 하여 한껏 기분이 더 있던 며느리가 갑

11) 전세창, 「초불」, 『조선문학』 1993년 3월, 26면.

자기 말 못할 질문이라도 받은듯 주저주저 대답했다.

“그 아버님은 지금 병원에 있어요.”

“병원이라니?”

“전쟁 때 부상 입은 상처 자리가 도졌나봐요.”

“어엉?”

로인은 가슴이 철렁했다.

1953년 7월 전쟁 승리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 습격 전투에 나갔다가 부상당한 갑석이를 업고 오던 일을 지금도 어제런듯 기억하고 있었다.

로인은 몸에 감겨드는 응석받이 막둥손녀를 데리고 병원을 향해 집을 나서려다가 고등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손자녀석이 갑자기 저금통장을 찾으려 하며 큰 변이 난 것같이 떠드는 바람에 의아히 텔레비존 화면에 눈길을 던졌다.

텔레비존에서 추첨제 저금 추첨을 한다는 것이었다.

어느결에 손녀애도 언제 할아버지를 따라가겠다고 했더니싶게 뽀르르 방안으로 달려 들어가 저금통장을 찾아 들고 나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만나 보세요.”

로인은 손주애들이 펼쳐보이는 여러장의 저금 통장들을 바라보며 대견함을 금치 못해했다. 그 저금통장들이 생활이 유족해 갈수록 살림살이를 더욱 관지게 꾸려가는 셋째 며느리의 알뜰함을 말해주는듯 싶어서였다.

“허허허... 저금통장이 많기도 하구나...” 하고 로인은 며느리를 돌아보며 치하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손자녀석은 뭐가 못마당해서인지 “다섯장이 뭐 많나요?” 하고 볼부은 소리를 했다. 돈이 불어나자면 등수에 많이 들 수 있게 저금통장이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손녀애까지 어리광을 부리며 맞장구를 쳤다.

“할아버지, 오빠는 정말 재수 없어요. 나두, 언니두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것두 모두 한두번씩 등수에 들어 돈이 불어났는

데 오빠 것만 한번도 맞지 않았어요. 해해해…”

“그래 허어, 거 정말 안됐구나…”

노인은 일부러스럽게 눈을 크게 떠보이면서도 마음은 별스럽게 불안해졌다. 애들의 눈빛에서 돈에 대한 탐욕과도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아서라 내 무슨 생각을…)

이윽고 텔레비존에서 당첨번호를 알려주기 시작했다. 애들은 물론 며느리도 온몸이 눈과 귀가 되어 번호를 맞춰보기에 여념이 없었다.<sup>12)</sup>

할아버지도, 병원에 누워 있는 왕년의 전사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첨당첨되어 돈이 늘기를 바라는 탐욕으로 가득찬 가족의 모습이 역연하다. 그리고 이들이 공장 지배인 경수의 가족인 것이다. 노인의 눈에 이들의 가장인 경수의 행태는 더 불안하고 불만스럽다. 지배인의 아버지가 왔다고 공장 사람들이 동해 특산물을 한바구니 선사를 하는가 하면 병원에서 만난 김갑석이 들려주는 경수의 일본새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경수는 기업관리에서 수자에 밝은 수완 있는 일군으로 과단성 있는 사람으로 인기 있었다.

그런데 그 인기가 도를 넘어 월계획을 미달한 경우에조차도 전문계획일꾼마저 무색할 정도로 생산수자를 모리 있게 둘러맞춰 종업원들한테 계획수행 상금이 차례지게 했고 매달 금액상 계획을 못해본 일 없는 주견 있는 ‘일군’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김갑석은 그 ‘일본새’가 마음에 걸려 한두번만 걱정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경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거나 한듯 책임은 내가 질테니 걱정말라는 자세였다.

12) 위의 책, 29면.

김갑석이 친지의 눈먼 사랑으로 하여 경수에게 자기로서 줄수 있는 것은 다 주면서도 그를 바로잡아 주지 못한 자신을 사무치게 깨달은 것은 부업선들을 수출입상사에 동원시키는 문제가 상정되었을 때였다.

공장에 있는 '4.15기술혁신돌격대'가 생산설비들에 최신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고심 분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인은 이른바 수입설비에 현혹되어 부업선들까지도 그 어느 수출입상사에 동원시켜 계획지표에도 없는 '설비갱신'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의 주장은 완고했다.<sup>13)</sup>

그리고 이런 태도를 초급당 확대위원회에서 신랄하게 비판한 김갑석이더러 경수는 정중하게 “원료기지장에 책임적인 사람을 보내야겠는데 …”하고 공기 좋고 물 좋은 그곳에 가서 건강을 돌보면서 일을 봐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곳은 공장에서 이백여리 떨어진 외진 산골이고 경수는 김갑석을 귀찮은 존재로 생각해서 그럴듯한 명분을 붙여 멀리 보낸 것이었다.

이런 아들의 행태를 알고 '홍판사'는 자녀교양을 철저히 하기 위해 아들 곁으로 이사를 한다는 데서 소설은 끝나고 있는데 과연 홍로인의 교양이 아들에게 먹혀들지는 의문이다. 늙은 세대의 우려와 의지는 있지만 그 현실적 가능성에 관해서는 더이상 작가는 말하지 않는다. 홍로인의 자기 몸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겠다는 의지의 찬양으로 낙관적 결말을 맺는 수준인 것이다.

이상의 세 작품에서는 3,4세대와의 긴장관계 속에서 2세대들의 가르침과 지향이 드러나 있는 반면 다음에 다루게 될 작품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2세대들이 먼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 투쟁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역설한다.

현재 나이가 예순을 전후한 사람들은 일제하에서의 생활을 경험하고 그후 토지개혁의 환희나 전쟁의 참화를 겪은 세대이다. 이들은

13)위의 책, 30면.

이전에 비해 몰라보게 달라진 현재의 삶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으며, 현재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었다고 믿고 있는 당의 부름에 언제든지 나아가 충성할 것을 다짐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과거의 시련기와는 달리 어느 정도 갖추어진 현재의 환경에 만족함으로써 자신의 현재 생활을 유지하고 조분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쓰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하여 과거를 잊고 현재의 자신의 처지에 안주한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은 적지 않는데 그중 백남룡의 『60년후』(1985)를 살펴보자.

이 소설의 주인공 최현필은 이 나이까지 한 공장의 지배인으로 일해온 일군으로서 이제는 나이 때문에 더이상 이 공장에서 일할 수 없다는 해임통지를 당으로부터 받는다. 해임통지를 받고서는 자신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명령으로 일하지 못함으로 슬퍼하면서 자신의 해임을 공장 안의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못다한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계속 일한다. 자기 아들이 보일러의 폭발로 화상을 입고 병원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도 자신의 일을 돌보기 보다는 남은 공장 안의 일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나중에 이러한 최현필의 숨은 영웅적 노력이 알려지면서 해임 통지는 취소되고 그는 계속하여 일하게 되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된다.

이상의 간략한 줄거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다시피 늙은 세대의 일군들이 자신의 현재의 처지에 만족하거나 안이하게 생활하지 않고 계속하여 일하고 싸운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 물론 이 작품에는 최현필과 같은 인물에 대조되는, 현재의 처지에 만족하여 해이해진 인물이 비슷한 정도로 중요하게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작품이 어디까지나 내면에 그런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하여 젊은 사람들이 이 나이든 숨은 영웅을 따라 배우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소설의 한 대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최현필 지배인의 모습에 감탄한 한 노동자의 내면의 목소리는 바로 작가가 독자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송훈은 가슴이 찡해나서 지배인의 팔을 짊 끼고 걸음을 옮겼다. 늙은 지배인의 인생관이 그의 마음을 후덥게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살이 넘기 바쁘게 서둘러 공로보장, 년로보장을 수속하고 자식들의 그늘 밑에서 여생을 편안히 지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최현필은 여섯해를 더 일하고도 물러나는 날까지 후대들, 공장의 뒤세대와의 혈맥관계를 놓고 피타는 노력을 기울인다. 그는 단순히 인간본능의 후대를 남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송훈은 일꾼들이 최현필처럼 말년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에 충실한 한 인간의 생이 후대의 심장 속에서 살게 될 때 그것은 진실로 참된 계승으로 될 것이다. 14)

이상에서 거론된 작품의 경우 나이든 세대가 후대들에게 가지는 기본적인 불만은 자기들이 살아온 세상은 지금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였고 지금은 대단히 좋아졌기 때문에 하등 불만을 토로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이들 2세대들의 머리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 어려운 시절'은 바로 일제하, 혹은 전쟁 시절을 가리킨다. 항상 그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기준은 비로 이 무렵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 나은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의 삶에 대해 고마워하기는 커녕 오히려 새로운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지 할 태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 나이든 세대에게는 불만인 것이다.

그런데 2세대의 입장 표명이 두드러지는 이런 소설들에서는 늙은 세대가 일방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모래불')이거나 양쪽의 목소리를 함께 들려주기 위해 젊은 세대의 편지 같은 기

14) 백남룡, 『60년후』, 한웅출판, 1992, 210-211면.

법을 동원(인간의 수업)했지만 그 편지 내용을 뒷받침할 생활의 묘사가 없으므로 해서 필연성을 가지지 못하는 등의 소설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이는 이들 소설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그만큼 사실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즉 늙은 세대의 주관적 바람과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를 작가가 그대로 옮겨 놓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3. 갈등에서 제2세대와 제3,4세대의 입장이 대등한 경우

1985년에 나온 중편소설 「세대」는 이동플베기 작업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를 중심으로 늙은 세대와 후대들 사이의 갈등을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노세대의 주인공인 최명서 아버지는 현재 56세로서 전쟁 때 받은 상처로 고된 노동을 하고나면 고통을 받는 인물이다. 전쟁 때 죽은 전우의 여동생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그는 길남이라는 고아를 외아들로 삼아 키워왔다. 그런데 그의 길남이는 힘든 농촌을 떠나 도시에 나가서 살려고 고향마을과 이 농장을 떠나갔다. 최명서 아버지는 자신의 뜻이 자기 아들에게도 먹히지 않는 상황을 맞으면서 온갖 생각을 다하게 된다. 이 농장에 소속된 젊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제멋대로 규율없이 생활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걸어온 시련과 그 극복의 의미를 오늘날에도 이어져야 하는 이유를 몸소 실천적으로 보여주려고 애쓴다. 이에 반해 젊은 세대들은 이런 야외에서의 이동 플베기 작업에서까지 엄한 규율을 강요하는 최명서 아버지에게 불만을 표시한다. 오후 플베기 시각에 맞추지 못한 젊은 이들에게 최명서 아버지가 일장 연설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젊은 주인공은 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하지만 ... 이순간 내 머리 속에서는 그 어떤 반발심이 머리를 드는 것이었다. 오후 플베기에 좀 늦은 것이 무슨 그리 큰 일이

란 말인가? 그것이 무슨 큰 문제거리여서 이동플베기에까지 와서 전투임무요 뭐요 하며 바짝 죄여대는 것인가. 그리고 어쩌서 택만 아저씨랑 떠들썩거리는가

늙은이들은 언제 봐야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게 탓이지?

아바이의 말은 오랜 당원들이 어린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생해본 사람들이 고생해보지 못한 새 세대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제강과도 같은 말이다. 그 말들은 다 옳은 말들이다. 제강이 틀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지만 어떻게 사람이 제강처럼 살겠는가 우리가 반드시 그 어려웠던 시절처럼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은가

전쟁과 같은 어려운 시절을 겪은 최명서 아바이는 플베기 작업도 일종의 전투행위라고 강조하는 반면, 젊은 세대는 모든 것을 이렇게 전투나 전쟁에 연결시키거나 혹은 과거 어려운 시절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것을 재단하는 태도에 대해서 수궁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갈등의 핵심은 전쟁을 겪은 것과 겪지 않는 것, 고생했던 과거시절과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되는 현재의 생활과의 차이이다. 이러한 점은 다른 작품에서도 발견된다.

한웅빈의 「령길 - 위훈에 대한 이야기」 역시 세대간의 갈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전쟁을 겪은 학선영감은 모든 생활을 항상 전쟁 때 처럼 하는 인물이기에 젊은 사람들이 규정된 모자를 쓰지 않고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 항상 정문에서 잔소리를 하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간섭이 귀찮아 모자를 쓰지 않고 다니다가도 정문을 들어설 때면 학선 영감의 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일부러 모자를 쓰고 다닐 정도이다. 다음에 인용한 부분은 어쩌다가 모자 쓰는 것을 잊은 젊은 운전수가 대거리하는 장면이다. 소설은 젊은 운전수의 입장에서 늙은이를 잔소리장이라고 귀찮게 여기고 때로는 늙

은이라고 동정을 하기도 하다가 우연히 그가 전쟁 때 굉장한 위훈을 세운 병사임을 알게 되어 그를 공경하게 된다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즉 결론은 3,4 세대가 2세대의 쌓아온 공적을 알고 그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만 결론에 가기 전까지 묘사되는 2세대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불만은 매우 설득력 있고 생동감 있는 묘사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이란 나이와 함께 잔소리도 많아지는 모양이다. 학선 영감을 볼 때마다 정걸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 정걸에게는 류달리 잔소리가 심했다. (...) 한번은 참다 못해서 검차를 받고 나왔는데 뭘 자꾸 그러냐고 했다가 보기 좋게 면박을 당했다.

“난 그럼 차단봉인가, 자네들 요구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

지어는 모자를 주머니에 구겨넣은 것을 두고까지 잔소리를 했다.

“그게 뭐가? 모자야 머리 위에 올려놓고 다녀야지. 난 전쟁 때 모자 안쓴 걸 생각못하구 부대장 앞에 나섰다가 어쨌는지 아나?”

“아 우리가 지금 뭐 군대가요”

“군대야 아니지, 그렇지만 로동안전규정에는 일할 때 모자를 써야 한다구...”

“됐어요, 됐어요.”

정걸은 모자를 주머니에서 뽑아내어 머리에 푹 눌러 썼다.

학선 영감의 눈은 촌촌한 그물 같아서 단 한 번도 무사히 지날 수 없었다. 이제는 마주 서기만 해도 불만이 끓어 올랐다.

과거 전쟁 시절에 겪었던 삶의 질서와 규율을 염두에 두고 현재에도 그것을 강요하려고 하는 2세대와 그것을 귀찮게 여기면서 싫

어하는 젊은 세대 사이의 감각 차이가 아주 작은 디테일에서 명료하게 그려져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 이 두세대가 느끼는 전쟁에 대한 이해 차이는 이것이 단지 한두 사람에게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북한의 현실에서 일반화된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위의 두 작품이 생산 현장 등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엮어진 데 반해 다음에 다루게 될 작품은 훨씬 개인적인 삶이 스며들어 있는 가족과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앞선 작품에 비해 개개인의 은밀한 의식에 까지 침투해 있는 갈등의 양상을 엿볼 수 있어 한층 더 흥미롭다.

방정강의 「어머니의 마음」(조선문학, 1990. 4)은 얼핏보면 단순한 고부간의 갈등 정도로 보일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세대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일제하 소작인 처지에서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와 남편을 한국전쟁에서 잃고 오랫동안 농촌에서 살다가 도시의 아파트에 살러온 시어머니와 도시에서 태어나 현재 기업소 지배인의 아내로서 천연색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를 갖추어 놓은 세칸짜리 고층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며느리 사이에는 단순한 고부간의 갈등 이상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시어머니는 항상 과거의 어려웠던 생활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생활에 대해서 매우 만족스럽고 감사하게 지내는 반면, 며느리는 과거의 비참했던 모습을 알 수 없기에 현재의 생활을 어느정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세대간의 갈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디테일이 펌프 고장으로 물이 나오지 않게된 사건이다. 다음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시각의 차이는 이 두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세대간의 차이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이게 웬일이야. 펌프 운전공은 일어나서 뭘하고 있나? 아이 속상해.”

안해는 연송 토달거리며 물바께뜨를 들고 나섰다. (...) 처음엔 무슨 영문인가 해서 의아해 있던 어머니가 꾀하고 몸을 일으켰다. 어지간히 노여움이 실린 얼굴로 안해를 멈춰 세웠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찌다 물한번 안나오는 걸 가지고 그렇게 불평을 부리면 되겠느냐. 무슨 사연이 있겠지”

“아이 어머니두 난 또”

“내딸을 듣거라, 난 흥이 아비가 어렸을 적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랑 열두식구 때식을 오리 밖에 있는 우물집에 가서 동이로 물을 이여다 짓군했단다. 이 좋은 집에서 갖은 혜택을 받고 살면서 그러면 못쓴다.”

안해의 눈이 별안간 둥그래지었다. 그는 의혹이 실린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 보았다.

“어머니, 그때와 지금이 어디”

“아니란다. 사람은 근심걱정을 모르고 잘 살수록 제 근본을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 바께뜨 하나를 나를 다오. 함께 긴자꾸나”

팔을 거두고 나서는 어머니를 안해는 겨우 말리었다. 그리고는 바께뜨를 들고 물 길러 나가는게 어쩐지 문닫는 소리가 여느 때 없이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15)

아파트의 펌프가 고장나서 물이 나오지 않자 며느리는 이런 부실한 아파트를 만든 건설 일군들을 비난하기에 이르는데 시어머니는 고마움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따지는 부분이다. 이 고부간은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맷돌을 끌고 올 때부터 약간 삐걱거리기 시작해서 손녀의 생일에 시어머니는 맷돌을 돌려 가루를 빵아 떡이고 과자고 만들겠다고 하는데 며느리는 방아간에서 빵아오는 바람에 갈등이 절정에 이른다. 그런데 역시 복한 소설답게 맷돌에 얽힌 사연 - 해방 후 토지개혁으로 처음으로 자기 땅에 농사를 짓고 손

15) 『쇠찌르레기』(살림터, 1994), 46-47면

수 멧들을 쪼아 만들던 시할아버지와 시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며느리가 알고서는 시어머니를 이해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에서 단순한 고부간의 갈등을 넘어 뚜렷한 세대 간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백남룡의 「퇴근길」 역시 세대간의 갈등을 다루되 3,4세대의 입장이 2세대의 그것과 같이 드러나다가 결국 2세대의 입장에 동참하는 것으로 끝나는 작품이다.

이제 막 선반공으로 취직하여 계획을 초과하여 속보판에도 이름이 오르게 되어 우쭐함마저 느끼는 젊은세대인 정철우에게 축하할 일이 생긴다. 그것은 그가 공민증을 받음으로써 이제 의젓하게 헌법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젊은 세대가 나이든 세대에 대해 대하는 방식은 대단히 '평등'하다. 이 소설에는 젊은이가 술집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떠들다가 나이든 사진사가 주의를 주자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오늘날 북한의 젊은이들의 의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넌 국가가 공민에게 준 권리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모를거야. 자 그렇지, 개괄적으로 본다면 공민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져. 내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그말이지. 휴양, 료양,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지. 너도 보이라가 싫으면 그만 둘 수 있어. 그 뿐인줄 알아? 공민은 언론표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철우의 열기 띤 말은 그만 맥주 꼬뿌 밀급으로 식탁을 두드리는 소리에 끊어졌다.

“젊은 동무, 조용조용 말하오. 어디 동무네들 뿐이요”

건너편 식탁에 앉은 얼굴에 병색이 도는 중늙은이가 우렁우렁한 성대로 주의를 준다.

(중략)

“내 입을 가지고 내 말을 하는데 참견하지 마시오”

사진사는 맥주꼬뿌를 들던 손을 멈추고 까딱 앉고 있더니 꼬뿌를 천천히 내려 놓았다. 당황, 비웃음, 분노, 아량의 복잡한 감정이 주름살처럼 그의 얼굴에 뒤엉켰다. 한참만에 느릿느릿 말하는 그의 음성에는 어쩐지 쓸쓸한 회오가 서렸다.

“어린 사람이 말버릇이 곱지 못하군. 그러문 어데가서 사랑을 받지 못하네”

“미안하지만 난 사랑을 받을 나이가 지났습니다. 어린 사람이 아니라 공민권을 가진 어른이니까요”

사진사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식탁을 짚고 조용히 일어섰다. 철우는 태연히 담배를 빨았다. 철우와 손님 사이에 전압이 위태롭게 오르는 것을 본 병민이가 재빨리 저항소자를 달았다. 그는 식탁 너머로 손을 뻗쳐 친구의 어깨를 다치며 속삭였다.

“돌아앉아 . 그 손님이 우리 아버지벌은 되겠어”

철우는 병민의 손을 비켜치우며 곁을 내었다.

“그럼 어쨌단 말이냐.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하는데도 가만 있으라니?”<sup>16)</sup>

술집에서의 한 장면이지만 오늘날 북한의 젊은 세대 갖 스물된 젊은이들의 행태와 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실제로 언론의 자유와 시위의 자유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또 이런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이들 세대들이 할 수 있는 일일런지 모른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과거의 관행 보다는 새로운 자기 권리의 주장에 예민한 것이다. 나이든 세대들은 과거의 어려웠던 시절에 비해 현저하게 나아진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따져볼 만큼 의식이 열려있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도 결국 마지막 부분에서는 늙은 사진사가 과거 한국전쟁 때 대전 전투에서 소대를 지휘하다가 미국의 포탄 파편에

16) 백남룡, 앞의 책, 271-274면



척추를 상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알게되면서 이 젊은 세대가 자기를 반성하고 이 2세대들의 겸허함을 배운다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이것은 「세대」에서 젊은 세대들이 나이든 세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버지 몸 속에 들어있는 파편 때문인 것과 비슷한 모티브를 취하고 있다.

이상에서 다른 작품들에서 3,4세대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로 막연하게 나와 있을 뿐이지 그들 중에서 다시 이른바 3세대와 4세대 사이의 미묘한 차이가 드러난 경우는 없다. 그런 점에서 2세대와 대비되는 3세대 4세대의 현실을 다루면서도 그들 사이에 개재하는 차이를 묘사하고 있는 백보흠의 『우리의 벗』은 주목을 요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4세대와 3세대에 해당하는 20대와 40대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4세대의 인물이 2세대의 인물의 위업을 본받고 배우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앞서 언급했던 일련의 작품들과 비슷한 양상을 드러낸다. 이 작품이 다른 단편 소설에 비해 다른 점은 중편소설인 만큼 취급하는 화폭이 넓다는 점이다. 우선 이 소설에는 20대 이외에 40대의 인물이 등장한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에는 1세대를 뺀 모든 세대들이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앞서 오늘날 북한에서 실제 나누고 있는 기준으로 세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세대로는 문정훈 위원장을 들 수 있다. 그는 현재 60대로서 일제 하에서 힘들게 살아오다가 해방 후에 교양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가 전쟁 중에 이 마을 동굴에 들어와 있던 국군을 무찌르는데 공을 세운 인물이다. 현재 군 행정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인물이다.

3세대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여러 명이 나온다. 한상철 지배인은 발전소 건설 지배인으로 보신주의와 공명주의로 팍차 있는 인물이다. 덕흥 발전소의 실패로 도로 소환되지 못하고 계속 발전소 건설에 좌충우돌하면서 뛰어다니는데 나중에는 교양받고 그러한 태도

를 버리게 되고 새로운 인물로 탄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이다. 이와같은 세대에 속하는 인물로 또 박명옥 기사장을 들 수 있다. 그는 덕흥 발전소 설계 실패로 실의한 나머지 병까지 얻어 의기소침하게 지내다가 문정훈 위원장의 도움으로 새로운 기중기를 설계하여 새로운 녹각산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수문장을 새로 설계하여 성공으로 이끄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성격화되어 있다. 이외에도 강선화라는 박명옥 기사장 부인도 나온다. 그녀는 화학 실험실에 근무하다가 압력계 폭발로 사고를 당하지만 근실하게 살아 나가는 인물이다.

4세대에 해당하는 20대의 인물에는 이 작품의 화자이자 주인공인 원준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원준은 지질 탐사 기사로서 나중에 위원장의 주선으로 박사원에 들어간다. 처음에는 세상을 알지 못하는 고지식한 인물로 성격화되지만 차츰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장한다. 이 세대에 속하는 인물로는 여관 봉사원으로 일하는 한선옥도 들 수 있다. 처음에 원준과 심한 말다툼을 하기도 했던 인물이지만 이 군에 문정훈 위원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 새롭게 바뀌어 나중에는 원준을 이해하는 인물로 된다.

이 작품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부분은 바로 40대 인물의 성격화이다. 이들은 북한 사회에서 지배인과 기사장을 맡을 만큼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들은 앞서 인물의 성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사했듯이 보신주의와 공명주의자이거나 혹은 조그만한 시련에도 좌절하고 꺾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오늘날 북한 사회의 본질적인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들이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1990년대에 세대간의 갈등 문제가 이처럼 증폭되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1세대들은 이 작품에 나오는 3세대의 인물들을 믿고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끊임없이 비판과 교양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40대의 인물들이 자신들의 문제점을 깨닫고 새로운 인물로 바뀌려고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그

동안 해오던 버릇과 관행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벗』에서는 마지막에 이들이 어느정도 바뀌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이들이 4세대에 비해 얼마나 변화하기 힘든가 하는 것이 중간중간에 작가가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드러나고 있다.

이에 비해 이 소설에 등장하는 20대의 인물들은 다르다. 이들은 발랄하고 가능성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주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그 모습이 정해질 수 있는 것으로 이 작품에서 드러난다. 여관 봉사원 한선옥은 같은 경우에 잘못된 관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주위의 교양으로 금방 고치는 인물로 나타나며, 이 작품의 주인공인 원준의 경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해야 할지도 모르고 오로지 과학 기술에 대한 일념 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인물이었다가 2세대인 위원장의 말을 지침과 교양으로 삼아 자신의 무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인물로 변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의 인물 성격화가 얼마나 현실에 근거한 것인가는 더 따져보아야 할 일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과는 관계없이 오늘날 세대간의 갈등 문제를 복한 사회의 진로 문제와 더불어 생각할 때 2세대들은 이들 4세대에게 무한한 기대를 걸고 있고 그들의 향방에 따라 사회 전체의 체제 운명이 달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 4. 갈등에서 제3,4세대의 입장이 주도적인 경우

지금까지 다룬 것과 달리 3,4세대의 지향이 오히려 긍정적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그려지는 소설도 있다. 앞선 작품에서는 3,4세대들이 교양받아야 할 대상으로 비추어진 데 비해 다음 작품에서는 오히려 2세대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젊은 세대가 지양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현철의 「삶의 향기」(조선문학, 1991. 11)에서는 앞선 작품에서

거의 고정화되어 있던 전쟁을 겪었으며 가난한 시절을 경험한 세대와 전쟁을 겪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전후건설과 공업화 속에서 과거에 비해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영위해온 젊은 세대 사이의 갈등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갈등이 작품의 내용으로 되고 있다.

이 작품은 여성관을 둘러싼 세대간의 갈등을 다룬 작품이다. 북한에서는 해방직후부터 남녀평등법 등을 만들어 실제적으로 남녀간의 차별을 없애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제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머리 속에 남아있는 가부장적 질서는 쉽게 바뀌지 않아 여전히 지속되고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그러한 것은 세대간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과거의 삶의 방식에 익숙한 나이든 세대들은 젊은 세대에 비해 남성중심적 사고가 훨씬 강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해 젊은 세대들은 여성을 삶의 동반자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보려는 경향이 나이든 세대에 비해 강하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을 다룬 작품이 「삶의 향기」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안천주는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자의 생활은 아이들을 훌륭히 키우는 것과 가정을 화목하게 그리고 알뜰하게 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것을 자기 아내에게 뿐만 아니라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까지 요구하려고 한다.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남편을 잘 도와주고 자식을 잘 키울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며느리감을 마다하는 아들이 마음에 차지 않는다.

이에 반해 아들은 남편의 지위와 명예 그리고 성과 속에 자신의 인격도 뒤편까지도 있는듯이 생각하면서 사회적 자기 실현을 생각하지 않는 여성들, 시집을 가면 남편에게 자기의 희망이며 신념까지도 다 용해되고 맡겨버리고 마는 그런 여성들을 시대에 뒤쳐진 구시대의 유물로 간주하고 남녀의 만남은 마땅히 '동등한 자격과 의무로서 서로 돕고 이끄는 동지적 관계'로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은 상반된 여성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늘날 북한에서의 세대에 따른 여성문제 인식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

다. 이것은 이 작품에 나오는 아들의 일기 한 대목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나는 나의 모범으로 부모들에게 가정에 대한 관점을 우리 시대의 높이에서 검토할 기회를 주고 싶다. 여성들이 시집을 가는 것은 남편의 뒷받침 하나 때문도 아니며 자식을 잘 키우는 한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서도 아니다. 사회의 세포를 풍부히 하고 튼튼히 다지며 사랑의 더 큰 힘으로 더 많은 일을 하자는 데 기본이 있는 것이다. 요컨대 가정이 창조적 삶의 터전으로 되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며 부부는 종속이 아니라 동등한 자격과 의무로서 서로 돕고 이끄는 동지적 관계로 되어야 할 이유도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평등은 사랑의 가장 견고한 기초이다. 과연 지금 어느 누가 “안혜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할 의무를 진다”는 나블레옹 법전과 남편은 안혜를 지배해야 한다는 3강5륜의 봉건유교 사상이 오래 전에 벌써 휴지 쪼박이 되어 시대 밖으로 내버려졌다는 것을 모르겠는가, 하지만 아직도 아직까지도. 17)

이 부분은 젊은 세대의 일기로 설정된 만큼 오늘날 북한 젊은 세대들의 여성관이 잘 나타나 있으며 동시에 그 이전 부모 세대 즉 2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관과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앞선 작품들에서는 젊은 세대가 결국 나이든 세대들의 지향을 이해하게 되는 것으로 된 반면, 이 작품에서는 나이 든 세대가 젊은 세대들의 뜻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점은 이 소설에서 본질적으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세대간의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는

17) 『쇠씨르레기』(살림터, 1994), 165-166면

것이겠지만, 세대간의 갈등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매우 특이한 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약간 다른 경향의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4세대들의 입장이 강하게 배어있는 작품으로 박동철의 「세월의 년륜 속에」(조선문학, 1992. 3)을 들 수 있다. 이 소설은 매사를 하나의 틀에 넣어 그 틀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오던 성실한 늙은 세대가 그 틀을 뛰어넘어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젊은 세대의 열성과 창조성에 감명 받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소설을 통해 북한 사회가 젊은 세대에게 바라는 바 요구하는 바 즉 젊은 세대의 이상형을 짐작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이상형은 곧바로 김정일의 이미지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중심 인물은 금동 탄광의 홍화갱 갱장 윤파순과 해병에서 제대하고 이 탄광에 배치되어 온 남룡이다. 윤파순은 석탄 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신참이 오면 누구든지 막장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네 저갱을 떠받들고선 동발이 보이냐? 아무리 무거운 짐이 내리 눌러도 끄떡없이 서서 제 자리를 지키거든. 자네도 그렇게 되라는 거야, 알아들었나?”라고 훈계하는 고지식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그런데 남룡이는 탄광에 배치받아 오는 첫날부터 엉뚱해 보인다. 이들의 첫 만남을 보자.

바다의 갈매기를 그대로 안고온듯이 하얀 줄이 멋지게 흘러간 해병복을 산뜻하게 차려 입고 탄광에 배치되어온 남룡은 처음부터 갱장의 눈길을 끌었다. 탄광이 공업의 선행부분이다보니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홀퉁하고 멋진 청년들은 모두 모여든다는 긍지를 다시 한번 더 느끼었다. 그는 갱입구에 주련이 나붙은 속보들을 차례로 훑어보고 있는 남룡이 곁으로 슬그머니 다가서며 어깨를 툭 건드렸다.

“여보게 갈매기! 뭘 그렇게 정신없이 들여다 보고 있냐? 내가 이 홍화갱의 갱장이야. 왜 홍화갱이라고 부르는지 아냐? 석탄은

시꺼멓지만 일단 불이 붙으면 시뻘겋게 되거든... 갯에 왔으면 갯장부터 찾아보아야지 남의 자랑거리를 써놓은 속보만 들여다보면 석탄이 저절로 나온대?”

남룡은 참 미안하게 되었다는듯이 군대식으로 절도 있게 인사를 했다. 인사를 받는 갯장도 만족하다는듯이 “허허허”하고 호방한 웃음소리를 냈다.

“이보라구 남룡이! 석탄을 한 번 본때 있게 캐보라구. 피가 동이로 끓는 젊은 시절을 이 탄광에서 빛내보라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젊은 시절은 단 한번 밖에 차례지지 않네. 날 보게나 이렇게 늙어진걸...”

이미 인생의 석양길을 걷고 있는 갯장은 사람이란 누구나 지나간 청춘 시절이 잘 닦아놓은 보석덩이처럼 되어야 한다는걸 생활을 통해 뼈속까지 터득하고 있는지라 남룡이도 그렇게 되기를 기원한 당부이자 바람이었다. 그런데 남룡이는 그렇듯 귀중한 갯장의 말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듯싶었다.

그는 탄소리를 꺼냈다.

“갯장동지는 탄광에서 일하시는지 오래 됩니까?” 물론 이런 것도 알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갯장은 한 30년 갯길을 걸었다고 자랑삼아 대답해주었다.

“헌데 이젠 틀렸어. 마음 뿐이거든...”

“그러기에 우리 제대 군인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남룡은 갯장에게 귀맛 좋게 한 마디 하고 나서 또다시 속보에 눈길을 주는 것이었다. 어느 한 탄부가 하루에 석탄 생산계획을 200프로로 넘쳐 수행했다는 글자를 한동안이나 들여다보고 나서 말했다.

“갯장동지! 저 동무처럼매일 석탄 생산계획을 200프로씩 해제 낀다고 칩시다. 15년이면 갯장동지가 일생동안 캐놓은 석탄생산량만큼 캐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갱장이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일생동안 석탄을 캐온 그는 자기의 일생과 석탄량을 놓고 계산해본 적은 없었다. 갱장은 남룡이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

“사람이 일생동안 30년은 실히 석탄을 캐 수 있다는 전제를 세워놓고 볼 때… 하루에 200프로씩 캐면 15년이 걸리고 300프로씩 캐면 7년 반입니다. 그 이상 수행하면 더 줄어 들지요… (…)”

이런 계산을 한 남룡이는 몇년 동안에 자신 앞에 차례진 석탄 생산량을 맡끔하게 끝내고 나서는 자기 아버지가 일하는 수산사업소로 가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고지식하게 일해온 갱장은 자기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가에만 관심이 있는 데 반해 신참인 남룡이는 책임량을 얼른 달성하고 또 다른,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것이 늙은 세대에게는 의외롭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갱장은 남룡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도 한 때는 아버지가 하던 단야공의 일을 해보고 싶었으나 단야불을 피울래도 석탄이 있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자리를 뜰 염을 하지 않았고 늘 무엇인가 해야할 일을 놓쳐버린 듯한 향수를 느껴왔음을 깨닫는다. 그때부터 갱장은 남룡이를 특별히 지켜보는데 남룡이는 200프로 300프로까지는 아니지만 늘 초과달성을 이루고, 갱장이 경험과 주먹구구로 해온 일을 과학적으로 처리하여 능률적으로 수행한다. 심지어 갱장이 안을 내었다가 포기했던 ‘보안잔주탄’(갱도를 유지하기 위해 남겨 놓은 탄층) 채굴건에 대해서도 그 안전성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채굴을 성사시킨다. 이런 남룡이를 보며 윤파순 갱장은 그가 탄광 사람 같기도 하고 바다 사람 같기도 하여 갈피를 잡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남룡이는 뭔가 큰 일을 할 사람이라 생각하고 남룡이더러 바다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 받으라



는 이야기를 꺼내었다.

“사람이란 누구나 다 자기 갈 길이 따로 있는 법이네. 자네 경우에도 그렇구 … 하지만 그걸 다 물어놓구 탄광에다 한 생을 다 바치려는 자네의 그 마음 역시 훌륭하다고 생각하네. 그렇지만 누구든지 사람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인생 말년에 후회가 생기는 법이네. 그건 자네에 비해 훨씬 오래 산 내가 아네 … 그러니 여기 일은 걱정 말고 어서 돌아가게나. 이젠 머지 않아 제대되어올 우리 아들녀석도 있으니 내가 못다한 일은 그에게 맡기면 되네… 년로한 자네 아버지 생각을 해서도 그렇구 또 자넨 아무래도 바다에 가야 더 큰 일을 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네…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전해주게. 이 늙은 탄부가 제 생각만 하다보니 다른 사람 생각은 영 할 줄 몰랐다고 말이야… 대신 그동안 정도 폭 들었으니 네 자네의 잔치날에는 집에서 기르는 돼지를 잡아서 걸머지고 찾아가겠네. 자네의 얼굴도 한 번 더 볼겸…”

그러나 남룡이는 펄쩍 뛰며 자기도 한 때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배를 타야한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윤파순 갱장을 보며 ‘만약 자기와 같은 청년 제대군인들이 제 생각만 하면서 탄광에 오지 않고 제 가고 싶은 곳으로 뿔뿔히 헤어졌더라면 그들이 하던 일은 누가 인계 받으며 또 나라의 경제 분야에 석탄은 어떻게 보장하겠느냐’고 생각하게 되어 자기의 생각을 아버지에게 알렸고, 아버지도 그에게 ‘어데 가서 무슨 일을 하던지 제 뉘를 찾아할 줄 아는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남룡이의 결정에 찬성했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 이야기에 갱장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 시대 인간들이 큰일을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철리도 새겨졌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하던 일을 실무적으

로 인계받거나 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요구하고 조국이 맡겨준 초소를 성실하게 지켜가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고 ...

그걸 새 세대 청년인 남룡이에게 받아 안았다고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 울렁거렸다.

이처럼 늙은 세대가 젊은 세대를 새롭게 본다고 하는 소설은 실상 중요한 젊은 세대의 목소리와 내면은 묘사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늙은 세대의 시선에 의해 포착됨으로서 소설적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북한 사회가 이들에게 부여하는 이상적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짐작하는 데 이들 작품은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늙은 세대가 지닌 보수주의적 측면과 달리 이 젊은 세대들의 진취적 성격은 매사의 사물을 대하는 데 있어 매우 과감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여성 문제와 관련된 가부장적 질서의 해체는 향후 통일한국의 사회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오늘날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이 과거와는 달리 북한 사회에서 혜택받고 자라 별 불만이 없을 것 같은 상층이나 해외 유학생 출신의 젊은 층이 많은 것은 단지 우연한 일은 아니다. 이것도 오늘날 북한 사회에서 3세대 4세대들이 지닌 일정한 지향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향후 북한 사회의 진로와 변화 중에서 바로 이들 젊은 층들이 어찌면 중요한 관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전쟁과 가난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살아왔기에 어떤 규율을 거부하고, 금욕을 미덕으로 생각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개인의 더 편리하고 풍족한 삶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과거 1세대 2세대와는 달리 대중적 동원을 통한 역사체험이 없기에 다른 새로운 동기부여가 따라야만 움직일 수 있는 층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사상교양이나 정신운동 만으로 그들이 그것을 내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오늘날 과거와 다른 방법으로 현실에 근접하는 방

법과 또한 사상의식교양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일정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향후 북한 사회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세대들을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젊은 세대들은 또한 어떤 지향과 태도를 가지고 이에 대응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을 것이다.

### Ⅲ. 다른 사회 문제와 중첩된 세대 간의 갈등의 유형

북한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대간의 갈등 문제는 그 자체로 드러나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그외 다른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로는 여성문제, 농촌문제, 관료주의 문제 등과 연결되어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간의 갈등을 북한 사회의 전반적 현실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할 때 다른 문제와 연관된 세대간의 갈등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북한 작품에 드러난 북한 사회의 모습을 좀더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1. 가부장제의 약화와 세대 간의 갈등

통일독일에서 생활하는 구 동독 출신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예전과 다른 삶을 누리면서 많은 면에서 나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평등 문제는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나빠진 것으로 느끼고 있다는 보고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여성들의 취업을 비롯하여 산휴 등이 예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나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현존 사회주의 일반이 그러한 것처럼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을 비롯한 여성 권리의 향상은 자본주의의 그것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왔다. 그

법과 또한 사상의식교양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일정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향후 북한 사회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세대들을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젊은 세대들은 또한 어떤 지향과 태도를 가지고 이에 대응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을 것이다.

### Ⅲ. 다른 사회 문제와 중첩된 세대 간의 갈등의 유형

북한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대간의 갈등 문제는 그 자체로 드러나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그외 다른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로는 여성문제, 농촌문제, 관료주의 문제 등과 연결되어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간의 갈등을 북한 사회의 전반적 현실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할 때 다른 문제와 연관된 세대간의 갈등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북한 작품에 드러난 북한 사회의 모습을 좀더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1. 가부장제의 약화와 세대 간의 갈등

통일독일에서 생활하는 구 동독 출신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예전과 다른 삶을 누리면서 많은 면에서 나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평등 문제는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나빠진 것으로 느끼고 있다는 보고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여성들의 취업을 비롯하여 산휴 등이 예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나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현존 사회주의 일반이 그러한 것처럼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을 비롯한 여성 권리의 향상은 자본주의의 그것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왔다. 그

런 점에서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은 일찍이 남녀평등권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해 왔고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탁아소와 같은 것을 초기부터 설치 운영하여왔다. 아무리 여성들더러 사회적 활동을 하라고 주문하더라도 육아의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 정권의 초기부터 탁아소를 설치하여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아이들을 여기에 맡기고 일을 하게 여건을 마련한 것은 제도적으로라도 여성들의 해방을 위해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육아사업의 사회화 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기 않고서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가사노동을 사회화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의 혁명을 통한 가사노동의 절감이라든가 밥공장이나 공동식당, 가족식당 등의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북한이 이 대목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의 성패가 얼마나 여성들의 해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잘 이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점은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여성들의 가정일을 덜어주며 아동들을 보호하고 더 잘 육성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탁아소, 유치원, 세탁소 및 재봉소 등을 잘 운영하며 농번기에는 공동식당도 설치하여야 하겠습니까. 18)

육아와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는 북한의 이러한 여성정책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중의 하나는 그러한 지속된 정책이 진정 여성의 해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노동을 단순히 동원하기

18) 김일성, 「사회주의적 농업협동화의 승리와 농촌경리의 금후발전에 대하여」, (1959년 1월 5일)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인가의 문제다. 실제로 북한 사회에서 여성들의 인력이 요구되기 시작한 것은 전후복구건설 시기이다. 이 무렵에는 제대군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여 어느정도 노동력이 충원되기 시작할 무렵이지만 파괴된 생산시설의 재건과 운영을 위해서는 여성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무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전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 특히 유희노동의 활용이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이후 북한 사회에서는 사회주의의 건설과 더불어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본격적으로 사회주의적 공업화가 진행되었던 1950년대 중반 이후의 북한 사회에서 여성노동력이 한층 더 요구되었다. 특히 중공업과 더불어 경공업의 발전이 요구되기 시작하면서 경공업 분야에서의 여성인력이 긴요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농촌 출신의 여성들을 이 분야에 투입하였다가 농촌에서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사회적 문제로 되기까지 할 정도였다. 김일성의 다음 글은 북한 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여성노동력의 동원과 활용이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실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지난 몇해 동안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기 위하여 이르는 곳마다에 현대적인 경공업 공장들을 건설하였으며 전자관 공장, 반도체공장, 소형전동기공장, 계전기공장 같은 약전공장들과 기계공장들을 수많이 건설하였습니다. 이 공장들을 돌리기 위하여서는 많은 로력이 필요하였으며 특히 녀성로력이 많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군들은 기술혁명을 하여 새로 건설한 공장들을 돌리는데 필요한 로력을 얻어낼 생각을 하지 않고 농촌에서 녀성노력을 뽑아 왔습니다. 농촌에는 남성로력이 얼마 없고 주로 녀성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촌에서 녀성로력까지 뽑아오니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게 되었습니다. 19)

19) 김일성,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 (1973. 3. 14)

중공업 육성에 이어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경공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 이후의 상황에서 여성 노동력이 절실하게 요청되면서 농촌에 있는 여성들을 이 분야에 취업시키자 농촌은 농촌대로 문제가 야기되는 이러한 연쇄적 반응은 북한 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유희노동의 활용이란 측면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을 단순히 유희노동의 활용이란 측면에서만 보게되면 해방이후 그렇게 일찍부터 남녀평등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거기에 상당한 배려를 했던 역사적 측면과 같은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북한에서의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분명히 유희노동의 활용과 관련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한 여성해방의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은 김일성의 다른 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성들을 사회적 노동에 참가시키는 것은 유희로동력을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을 노동에 참가시키는 목적은 또한 그들을 온갖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평등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자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참가시키는 것은 단순한 행정실무적 조치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정치사업으로 여겨야 합니다. 20)

북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은, 이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중적이다. 한편으로는 여성들에게 사회적으로 실질적 평등을 줌으로써 여성해방을 꾀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생산력을 높이는데 필

20) 『조선중앙년감 1971』, 469면

요한 노동력을 끌어들이는데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중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게 될 때 북한 여성의 실제적 면모와 사회적 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대목은 여성들의 실질적 평등을 쟁취하는데 있어서 관건을 이루는 것이 북한의 남성들의 가부장적 의식의 해체 문제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주제인 세대간의 갈등 문제와 이 가부장적 의식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즉 젊은 세대로 내려오면서 가부장적 의식이 점차 약화되어가고 나이든 세대일수록 가부장적 의식이 강하다는 점이다. 그렇게 볼 때 향후 젊은 세대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북한의 남성들의 의식 속에서 가부장적 사고는 점차 약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앞서 다룬 바 있는 정현철의 『삶의 향기』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작품을 보면 최고의 아내는 남편을 잘 보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가부장적 사고에 젖은 아버지와 아내를 '동등한 자격과 의무로서 서로 돕고 이끄는 동지적 관계'로 보고 앞 세대의 여성관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삶의 질서를 찾고자하는 결혼을 앞둔 아들 사이의 갈등이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 우리가 흥미있게 보는 것은 오늘날 북한의 많은 나이든 세대들은 여전히 가부장적 사고에 젖어있는데 비해 젊은 세대들은 그러한 사고로부터 차츰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벗어나는 과정이 과거처럼 단순한 생산력주의라는 현실적 요구로부터 제기된 것이 아니라 여성의 진정한 해방과 실질적 평등의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북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의 두 측면 중에서 생산력주의 보다는 여성의 실질적 평등의 문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 이농 현상과 세대 간의 갈등

80년대 후반을 전후하여 북한에서 널리 보급된 가요 중의 하나인



「도시처녀 시집와요」는 오늘날 북한의 농촌 현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도시처녀들 더러 농촌으로 시집오라고 하는 권유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는 이 노래말은 오늘날 북한의 농촌에서 총각들이 얼마나 장가를 가기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남한에서도 농촌 총각의 결혼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그러하다. 많은 숫자의 농촌 처녀들이 살기 힘든 농촌을 떠나 평양을 비롯한 도소재지로 나가고 그곳에서 결혼하기 때문에 농촌에 남아있는 총각들은 결혼하기 어렵다. 이처럼 북한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생각 밖으로 크다.

북한은 1958년 농촌의 협동화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로 접어들었다고 공표하였다. 공산주의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국가의 공식적인 전망 하에서 농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거기로 돌입해야 한다는 기대감으로 생산에 임하였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으로 농촌사회를 끌어올리자고 했던, 1964년에 발표되어 지금까지도 북한의 공식적인 농촌정책의 근간으로 되고 있는, 김일성의 농촌테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을 뿐이고 오히려 현실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더 벌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작년 말에는 공식적으로 농업제일주의를 내세우게 되었는데 이는 그동안의 북한의 농촌이 그 공식적인 발표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비해 낙후되어가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심각한 농촌 문제가 문학 속에 다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다. 그리하여 북한 소설은 농촌과 도시 사이의 격차에서 빚어지는 다양한 갈등을 다룬 작품을 많이 발표하였다.

농촌의 문제를 다룬 작품들은 거의 농촌을 떠나 도시로 진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중에서 전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 사회에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되는 것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농촌의 젊은 농장원들이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북한 사회의 두통거리 중의 하

나인가는 이 문제에 대해 김정일이 걱정하고 있는 대목을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지금 농촌청년들 가운데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갈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몇해 동안에만도 전국적으로 농장원수가 몇만명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협동농장에서 일하던 청년들이 이리저러한 구실로 도시로 많이 빠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일부 농촌 처녀들은 농촌 총각에게 시집갈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 도시총각에게 시집을 가서 농촌에서 빠져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농사철에 도시에서 지원노력이 나오면 그 기회에 지원나온 총각과 약속하였다가 후에 결혼하고 도시로 간다고 합니다. 21)

공식적으로 몇만명으로 이야기될 정도이니가 실제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이 간다. 이렇게 북한 사회에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이 문제에 대해 작가들이 그냥 있을 리가 만무한 것이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갈려고 하는 데 있어서도 세대문제와 일정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농촌을 떠나 도시로 올라가려고 하는 층은 주로 젊은 층이다. 물론 개중에서 나이든 사람도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젊은 층들이다. 특히 사회적 역할이 아직 결정되지 않고 유동적인 층인 4세대들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새롭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4세대들의 지향과 이들의 도시 진출은 서로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나이든 세대는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기 때문에 좀처럼 떠나지 못한다. 이들은 젊은 사람과 달리 강한 향토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익숙한 삶의 조건을 버리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은

21) 김정일, 「농촌에서 농사를 자체로 짓는 운동을 벌일데 대하여」, (1986, 11. 25)

한윤의 『씨앗』(문예출판사, 1992)에서 잘 엿볼 수 있다.

### 3. 관료주의 문제와 세대 간의 갈등

관료제는 북한 정권의 성립 이후 줄곧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특정한 시기에 이르러서 새롭게 문제된 것이라기 보다는 항상 북한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로 자리잡고 있었다. 특히 북한 사회가 경직성을 벗어나면서 어느정도 내부의 비판이 가능해지는 시기에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고 부각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면 어느 시기에나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제기되던 이 문제와 세대문제는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 현재의 북한 사회에서 이 관료제 문제는 3세대 즉 40대를 전후한 북한의 세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소설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이들이 오늘날 북한의 핵심적인 중추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어려웠던 기억 속에서 현재의 생활에 만족해나가기 보다는 어느정도 생활이 보장된 상태에서 생을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러서는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욕망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3세대는 이러한 양 측면의 상승작용으로 2세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부패하고 관료주의적이고 가족이기주의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북한의 소설 작품 중에서 관료주의 문제를 중요한 주제로 삼은 작품들이 주로 대상으로 삼는 것이 40대를 전후한 혁명 3세대들이라는 점은 그런 점에서 우연이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초블」이라는 작품에서도 흥판사 노인의 세째 아들 경수에게서 그런 측면이 심각하게 묘사되고 있다. 나아가 앞에서 보았던 백보흙의 『우리의 벗』에는 제2세대인 위원장이 제3세대인 지배인을 힐책하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있다.

“지배인 동무! 내 한 가지 묻겠소. 동무는 지휘부 사무실에 ‘생산도 학습도 항일 유격대 식으로!’라는 당의 구호를 붙였는데 그걸 왜 붙였소? 장식품이오? 그 구호는 당 중앙에서 지난 날의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우리 모두가 수령님께 충실하고 인민에게 충실하기를 바라는 내놓은 구호가 아니오? 그 구호에 자기를 비쳐본 적이 있소?”

위원장은 수북한 눈썹을 구뫓거리며 지배인을 노려보았다. 지배인은 잠바주머니에서 담배곽을 꺼내어 옮겨줘더니 천막바닥에 주저앉았다. 언제나 흥분할 때면 그리하듯이 지배인의 뽀족한 턱이 떨리기 시작했다.

“위원장 동지가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그 구호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혁명군의 지휘관답게 피와 땀을 흘렸수다. 종업원들에게 물어보시오. (…)”

……

“지배인 동무! 그러지 말고 양심적으로 반성하오. 강선화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오. 그래야 그 여자의 병도 낫고 동무의 병도 고칠 것 같소. 지금 우리 혁명의 전진을 가로 막고 인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는 가장 유해로운 사상이 공명주의와 보신주의인데 그런 측면에서 동무는 아주 전영적이오. 동무의 그 병집이 더 자라기만 하면 정말 무서운 짓을 하게 되오.”

“그러니 내가 공명주의자이며 보신주의자란 말인가요? 허허허… 내 마흔일곱살까지 먹으면서 그런 말을 들어보긴 처음이외다. 글썄 공명주의는 다소 있을까? 보신주의자라? 허허허…”<sup>22)</sup>

진정한 항일유격대 정신을 들먹이는 것은 제2세대이고,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의 출세를 위해 형식적으로 수치와 목표를 맞추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여념이 없는 것은 제3

22) 백보흠, 『우리의 벗』( 기획출판 한 번인, 1993), 211-213면.

세대인 것이다.

#### IV. 맺음말

이상 198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북한 소설작품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의 갈등의 여러 양상을 살펴보았다. 현재 북한 사회의 세대구성은 크게 80대 60대 40대 20대의 4세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해방과 전쟁을 겪고 전후 북한 사회의 건설을 이끌어온 2세대와 그들에 비하면 좀더 나은 조건에서 성장한 3,4세대의 갈등이 소설의 뼈대를 이루는 작품들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북한의 젊은 세대(3세대와 4세대)의 특징은 다음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젊은 세대는 전쟁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전쟁을 경험한 늙은 세대는 지금도 전시 상태에 준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고 언제 미국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한다고 믿는 반면, 젊은 세대는 전쟁은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 북한의 젊은 세대는 보다 나은 미래 사회에 대해 진취적이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현재에 대해 고마워하는 감정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일제시대라든가 전쟁을 겪은 늙은 세대들은 과거의 못살았던 처지에 비해 현저하게 나아진 현재의 조건에 대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반면, 젊은 세대들은 현재의 조건을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보다 나은 물질적 조건과 제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욕망 추구에 대해 굉장히 솔직하다.

셋째 북한의 젊은 세대는 규범과 규율에 대해 비판적이다. 나이든 세대들은 비교적 규율이라든가 규칙에 익숙해 있는 반면, 젊은

세대인 것이다.

#### IV. 맺음말

이상 198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북한 소설작품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의 갈등의 여러 양상을 살펴보았다. 현재 북한 사회의 세대구성은 크게 80대 60대 40대 20대의 4세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해방과 전쟁을 겪고 전후 북한 사회의 건설을 이끌어온 2세대와 그들에 비하면 좀더 나은 조건에서 성장한 3,4세대의 갈등이 소설의 뼈대를 이루는 작품들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북한의 젊은 세대(3세대와 4세대)의 특징은 다음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젊은 세대는 전쟁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전쟁을 경험한 늙은 세대는 지금도 전시 상태에 준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고 언제 미국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한다고 믿는 반면, 젊은 세대는 전쟁은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 북한의 젊은 세대는 보다 나은 미래 사회에 대해 진취적이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현재에 대해 고마워하는 감정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일제시대라든가 전쟁을 겪은 늙은 세대들은 과거의 못살았던 처지에 비해 현저하게 나아진 현재의 조건에 대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반면, 젊은 세대들은 현재의 조건을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보다 나은 물질적 조건과 제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욕망 추구에 대해 굉장히 솔직하다.

셋째 북한의 젊은 세대는 규범과 규율에 대해 비판적이다. 나이든 세대들은 비교적 규율이라든가 규칙에 익숙해 있는 반면, 젊은

세대들은 활달하고 격식이라든가 규범에 별로 얽매이지 않고 살아간다. 그것이 늙은 세대에게는 버릇 없음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젊은 세대의 열망의 표현이기도 할 것이다.

네째, 북한의 젊은 세대에게는 비교적 가부장제적 사고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늙은 세대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적 환경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가부장적 의식을 농후하게 가지고 있는 반면,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러한 의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단순히 생산력주의로부터 빚어진 국가동원 체제에서의 여성인력의 활용이란 측면 보다는 실제적으로 여성들의 평등이 향상되는 방식으로 의식이 바뀌어져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북한의 젊은 세대는 농촌 보다는 도시를 선호한다. 농촌의 젊은 세대는 환경이 바뀐다는 부담을 안으면서도 과감하게 도시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 기본 동기는 도시와 농촌 간의 생활 문화 수준의 격차 때문이다. 늙은 세대는 '자기들이 자라고 피땀흘려 구어온 고향 혹은 향토에의 애착이 강하지만 젊은 세대는 더 편리하고 더 화려해보이며 출세의 기회도 많아 보이는 보다 나은 삶의 조건을 쫓기 위해 도시를 향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펴본 소설에서 젊은 세대들의 위와 같은 지향은 계속 나이든 세대와 갈등을 빚어냈다. 그 갈등은 소설 작품 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늙은 세대의 당위론적 지향의 강조나 승리도 귀결되지만 이런 류의 소설들이 계속 요구되고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그 갈등이 여전히 중요한 현안 문제임을 드러내는 반증인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작품

- 강복래, 『다시 전선에서』(문예출판사, 1989)  
 김동렬, 『한 연구사에 대한 추억』(문예출판사, 1987)  
 김삼복, 『향토』(문예출판사, 1988)  
 김석범, 『작별』(금성청년출판사, 1987)  
 김용한, 『청춘의 시작과 끝은 언제』(금성청년출판사, 1990)  
 려춘동, 『상봉』(금성청년출판사, 1990)  
 리기형, 『언제나 마음 속에』(문예출판사, 1988)  
 백남룡, 『60년후』(한웅출판, 1992)  
 백보흠, 『우리의 벗』(기획출판 한, 1993)  
 백철수, 『넘원』(문예출판사, 1987)  
 최봉무, 『은인들』(금성청년출판사, 1990)  
 한응빈, 『령길 - 위훈에 대한 이야기』(문예출판사, 1993)  
 한운, 『씨앗』(문예출판사, 1992)  
 허춘식, 『혈맥』(문예출판사, 1988)  
 현희균, 『새땅』(문예출판사, 1991)  
 작품집, 『쇠찌르레기』(살림터, 1993)  
 작품집, 『뼈국새가 노래하는 곳』(살림터, 1994)

- 조선문학 1980년도분  
 조선문학 1981년도분  
 조선문학 1982년도분  
 조선문학 1983년도분  
 조선문학 1984년도분



조선문학 1985년도분  
 조선문학 1986년도분  
 조선문학 1987년도분  
 조선문학 1988년도분  
 조선문학 1989년도분  
 조선문학 1990년도분  
 조선문학 1991년도분  
 조선문학 1992년도분  
 조선문학 1993년도분

## 2. 연구 논문

- 구상, 「북한문학: 북한주민의 정서생활에 관한 연구」, 국토통일원, 1978
- 구중서, 「이데올로기와 문학」, 북한, 1978. 9
- 국토통일원, 「북한의 문예정책과 문예이론 연구」, 1979
- 권영민, 「북한의 문예이론과 문예정책」, 예술과 비평, 1988. 가을
- 권영민 편, 『북한의 문학』, 을유문화사, 1989
- 김문환, 『북한의 예술』, 을유문화사, 1989
- 김병걸, 「북한문학 작품에 나타난 갈등 유형과 북한 사회 내부의 모순」, 통일정책, 평화통일연구소, 1980. 7
- 김성원, 「북한문예작품의 창작과 조건」, 북한, 1978. 4
- 김용범, 「북한의 문학예술」, 『민주통일론』, 통일연수원, 1993
- 김윤식, 「북한문학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문학과 사회, 1989. 봄
-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4
- 김태철, 「북한문예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학과 석사, 1993
- 문학사상 편집위, 「북한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 문학사상, 1986. 9
- 민족문학사 연구소, 「북한문학 이해의 올바른 방향」, 민족문학사연구

5호, 1994. 여름

송민호, 「북한문학의 초기형성과정연구」, 북한, 1978. 4

신영철, 「문화 예술인들의 생활은 이렇다」, 자유공론, 자유공론사,  
1984. 3.

임헌영, 「분단시대의 문학」, 태학사, 1992

정석홍, 「북한문학의 사례적 연구」, 통일정책, 평화통일연구소, 1978. 7

한길문학 편집위원회, 『남북한 문학사 연표』, 한길사, 1990

# 北韓說話集의 體制·性格 및 說話의 變移樣相

-南韓說話와의 比較를 통한 空時的 考察-

研究責任者：金 文 泰 (成均館大)

## 목 차

<요 약 문> .....	149
I. 머리말 .....	155
II. 김일성전설집의 체재와 성격 .....	156
1. 「백두산전설」 .....	157
2. 「백두산전설집 1」 .....	173
3. 「백두산전설집 2 - 날개돋친 흰말」 .....	179
III. 일반전설집의 체제와 성격 .....	190
IV. 남·북한 설화집의 상동성과 변이성 .....	201
1. 혁명성 .....	201
2. 비극성 .....	205
3. 의도성 .....	207
V. 맺음말 .....	211
※참고문헌 .....	219

## <요 약 문>

북한 설화집은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중심으로 제작된 『백두산전설』·『백두산전설집 1』·『백두산전설집 2 - 날개돋친 흰말』 등의 김일성전설집과 민간전승의 일반설화집으로 대별된다.

『백두산전설』은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었으나, 실제의 역사적 사건을 부합시킴으로써 구체적인 시간을 밝히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장소 역시 실제의 역사적 사건을 부합시킴으로써 구체성을 띠고 있으나, 활동무대를 백두산으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백두산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은 60편중 9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전승자가 모든 전설을 실제의 역사적 사건과 결부시킴으로써, 즉 모든 전설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생겨난 것임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등장인물에 있어서 이 책 전편의 주체자는 실상 모두 김일성이고, 휘방자로는 일제군경이 거의 대부분이며, 요청자는 조선인민 전체로 설정되어 있으며, 협력자는 대부분 그가 이끄는 조선인민혁명군이나 그 기여도가 미미하며, 증여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 구조는 주체자의 위대함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승자의 의도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당면한 문제의 대부분은 일제식민통치에 따른 일제군경과의 싸움이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주체자인 김일성의 조화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주제는 전승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제군경과의 싸움이 당면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데에서 연유한 것이다. 전승자는 주체자가 백두산 성인이자 선비이고, 이러한 주체자가 세운 인민정권이 노동자·농민이 주인인 지상천국이며, 인민들이 주체자에 대한 희망과 기대, 신뢰와 존경, 흠모와 칭송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전승자가 이들 전설이 역사적 사건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설 부분이 구체성을 띠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 구조를 갖추지 못한 소략하고도 단편적인 풍문 정도의 내용에 불과한 반면, 이에 부합하는 역사적인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은 전승자의 의도와는 달리 전설집으로서는 대단히 미흡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승자가 지나치게 역사성을 강조하려 한 데에서 발생한 것이다.

『백두산전설집 1』과 『백두산전설집 2』는 공히 『백두산전설』과 달리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있다. 장소는 두 설화집에서 공히 백두산을 주무대로 삼고 있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활동무대를 설정한 것은 김일성의 우월성과 김일성 출현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등장인물에 있어서 주체자는 김일성을 비롯한 여러 부류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어 『백두산전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이 주체자로 등장하는 편에서 김일성은 협력자이자 증여자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김일성이 주체자인 경우 요청자는 사실상 조선인민 전체로 설정되어 있고, 협력자는 대부분 그가 이끄는 유격대원이며, 증여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주체자에 맞서는 궤방자로는 일제군경이 거의 대부분이다. 특이한 것은 『백두산전설』과 달리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역사적인 사실을 생략한 대신 이를 통해 전설의 핵심이 되는 사실성을 보장받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다. 당면한 문제의 대부분은 『백두산전설』과 마찬가지로 일제군경과의 싸움이지만, 평범한 인물들이 주체자로 등장하면서 『백두산전설』과 달리 하층민의 암울한 생활이 보다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인물들의 문제는 김일성이 주체자로 등장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협력자이자 증여자인 김일성의 조화에 의해 모두 해결되고 있다. 주제 역시 『백두산전설』과 마찬가지로 전승이나 전승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전승자는 전설의 역사성과 환상성을 동시에 인정함으로써 역사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전설과 역사적 사실을 분리해 수록함으로써 전설이 구체성을 띠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 구조도 갖추지 못해 전설집으로서 대단히 미흡하게 구성되어 있는 『백두산전설』과 달리, 역사적 사실을 전적으로 생략하는 대신 전설 안에서의 시간·공간·등장인물·증거물 등을 구체화 함으로써 역사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환상수법’을 통해 온전한 이야기 구조를 갖춘 전설을 내 보일 수 있었다.

북한의 일반전설집 중 지역적 특색을 잘 드러내고 있는 『평양의 금란화』와 『평양전설』의 장소는 평양 근방이다. 시기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평양전설』의 경우 동명왕릉에 관련된 전설을 맨 앞에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전설집에서 공통적으로 고구려 시기의 이야기를 많이 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고구려의 정기를 이어 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등장인물에 있어서 주체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협력자는 동물이 주로 등장하고 있으며, 요청자는 동물들과 천상의 인물 등이 등장하고 있고, 증여자는 요청자가 주체자의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신비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궤방자로는 대외적인 적과 봉건통치배가 등장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대외적인 적을 제외한 나머지의 궤방자를 모두 봉건통치배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궤방자가 이처럼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은 이 전설들이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일정한 의도에 의해 선택·수록된 사정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당면한 문제로는 외적의 침입으로 인한 위기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봉건통치배의 폭정·착취로 인한 고통, 가뭄이나 홍수로 인한 곤란, 병든 가족 구완 등 대·내외적인 문제가 골고루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중 대외적인 문제는 주체자 자신의 적극적인 대응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대내적인 문제는 주체자 자신의 힘 보다는 증여자나 협력자의 도움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제에 있어서 반침략애국투쟁 전설과 반봉건투쟁 전설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생활은 곧 투쟁이라는 사회주의 문학관을 지닌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이 이러한 문학관에 입각해 전설들을 선택·수록하였기 때문이다. 전승자의 인식에 있어서는 천상의 세계 내지 신선의 세계 보다는 지상의 세계 내지 인간의 세계가 보다 보람있고 즐거운 세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태도는 곧 신 보다는 인간이 우월하며, 종교의 세계는 허망하다는 인식으로 직결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은 사람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이라는 그들의 주체사상적 인간관 내지 세계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김일성전설집의 가장 큰 특징은 항일무장투쟁을 통한 혁명성 강조에 있다. 북한에서의 참다운 문학이란 노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에 기초한 혁명적 문학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은 노동계급의 당과 수령의 영도를 받을 때에만 새롭고 다양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대한 혁명가의 귀감이자 위대한 인간의 최고전형인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것이 북한의 문학예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다. 혁명적 문예전통을 항일혁명투쟁으로부터 잡고 있으므로 이 시기의 김일성을 형상화하는 것은 북한 문학에 있어서 절대절명의 과제였던 것이다. 김일성 전설집은 바로 이러한 북한의 혁명적 문학관에서 등장한 것이다. 일반전설집에서도 김일성전설집과 마찬가지로 혁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항일무장투쟁을 위주로 한 김일성전설집과 달리 외적 및 봉건통치배에 대한 투쟁이 위주가 되고 있다. 투쟁에 있어서 김일성전설집의 경우에는 김일성의 초월적인 힘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일반전설집의 경우에는 백성의 힘이 강조되고 있다. 혁명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김일성전설집과 일반전설집이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백성의 힘이 강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두 설화집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김일성전설집이 김일성 개인을 부각시키기 위해 단기간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반면, 일반전설집은 주제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의도가 개입하기는 하였으나 민간에 전승되는 전설이 비교적

온전히 수록되었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북한의 일반전설집 소재의 전설들은 남한의 전설들과 상동성을 보이지만, 김일성전설집 소재의 전설들은 남한의 전설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일반전설집 소재의 전설들과도 변이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일반전설집에서 백성들의 힘이 강조되는 것은 표층적으로는 혁명의 주체가 인민들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에 있으나, 심층적으로는 이러한 혁명의 주체를 선도하는 것은 당과 수령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당과 수령의 영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김일성전설집과 일반전설집은 심층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맥락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혀 다른 구조를 지닌 김일성전설집과 일반전설집이 현재의 북한이라는 동일한 시공에서 공존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김일성전설집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비극성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설은 주인공의 능력에 있어서 비극성을 지니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김일성전설집의 전설들에서는 주체자이자 협력자이며 중역자로서의 기능을 지닌 김일성이 한결같이 초월적인 힘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비극성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비극성의 배제는 직접적으로는 김일성 전설집이 김일성의 위대성 내지 유일사상을 체득시키기 위해 편찬되었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김일성전설집의 비극성 배제는 그 자체로 큰 문제가 있다. 김일성전설집은 비극성을 배제함으로써 전설성을 상실하고 신화성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신화집으로서의 김일성전설집은 사실주의에 입각한 북한의 사회주의 문학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의 하나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구체성과 진실성인데, 신성성이 강조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역사성이 약화될 수 밖에 없었던 김일성 전설집은 구체성과 진실성의 측면에서 회의적이라는 모순을 내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주체자가 다양하게 등장하는 일반전설집에서는 비극성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비극성은 주체자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혹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죽는 것으로 표출되는데, 일반전설집 소재의 전설 역시 이러한 면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민간에 자연스럽게 전승되던 상기의 전설들은 전설이 지니고 있는 특성들을 제대로 지니고 있기에 북한의 비극성 배제라는 문학적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극성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남한의 전설과 북한의 일반전설집 소재 전설은 상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백년, 수천년 동안 민간에 전승되어 오는 전설은 특정한 편찬자나 편찬



기관의 의도에 따라 어느정도 변모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구조나 특성은 변모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전설을 포함한 모든 구비문학 장르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무의도성인데, 이러한 무의도성이 구비문학 장르에 공유하는 진솔성을 창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일반전설집 소재의 전설들은 구비문학이 지니는 순수성을 어느정도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일반전설집에 의도성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전설 한편 한편마다에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전설집에는 이들의 문학관과 사상에 합치되는 전설들이 선택되어 수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편집의도에 따라 남한의 전설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인정세태 전설 보다는 반침략애국투쟁 전설 내지 반봉건투쟁 전설이 다수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결국 북한의 일반전설집 소재의 전설 각편은 남한의 전설들과 상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편찬과정에서의 의도성 개입으로 인한 주제의 편중이라는 변이성을 보이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해 김일성전설집 소재의 전설들은 사람들에게 인민과 노동계급과 당을 영도하는 수령의 위대함을 체득시키기 위한 목적의식을 지닌 특정한 개인 내지 기관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김일성전설집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의도성에 있다. 김일성전설의 원래 모습은 『백두산전설』 소재의 단편적인 전설 부분이다. 따라서 불과 6년 후에 발간된 『백두산전설집 1』과 그로부터 5년 후에 발간된 『백두산전설집 2』 소재의 온전한 이야기 구조를 지닌 전설들은 전승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변모된 것이 아니라, 편찬자의 목적의식에 따라 단기간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의도성은 수령형상창조에 대한 이론의 대두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보여진다. 결국 수령형상문학 이론에 따라 특정한 개인 내지 기관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든 김일성전설집은 전설이 지닌 고유의 진솔성, 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에서 중시하는 진실성이 결여됨으로써 서실주의문학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I. 머리말

설화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승될 뿐만 아니라, 계급과 계층을 초월하여 대다수의 민족성원이 향유하는 문학장르라는 점에서 명실공히 민족문학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한 설화는 우리 민족의 삶과 직결되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단결심을 고양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설화의 위상에 대한 인식은 남한과 북한의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노정되고 있다. 기록문학에 있어서는 남·북한 학자들간에 해석의 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설화를 포함한 구비문학에 있어서는 남·북한 학자들간에 대체로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물론 북한의 경우처럼 특정한 정치·사회 체제안에서 수집·정리된 문헌설화의 경우에는 특정한 설화와 특정한 의미가 부각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결국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의 발로라는 점에서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한에서 공히 전승되고 있으며, 남·북한 학계에서 공히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설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갈등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견해의 차가 있는 분야 보다는 우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즉 남·북한의 공통분모인 설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남·북한의 실정을 상호 파악하고, 나아가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남·북한의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장기적으로는 평화통일을 위한 초석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설화는 기록문학의 기틀을 형성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의 변천에 따라 끊임없이 생성·변화·발전하면서 전승된다는 유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남·북 분단은 우리의 민족 문화 유산인 설화의 변이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각기 다른 상황에서 50여년간 각기 전승되어 온 남·북한의 설화는 모티프로부터 구조, 그리고 전승자의 인식양상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이 상이하게 변모되었을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화의 상동성과 변이성에 대한 고찰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설화를 전공하는 국문학자들간의 세미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국문학자들이 남·북한을 상호 방문하여 설화를 직접 채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는 지금 당장으로서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단이후 북한에서 발간된 설화집을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설화의 변이양상을 추출할 것이다. 구전

되는 설화와는 달리, 채록되어 설화집에 정착된 설화에는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 설화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중심으로 제작된 김일성전설집이며, 또 다른 하나는 민간에 전승되는 것을 채록한 일반설화집이다. 이러한 두 부류의 설화집은 같은 차원에서 비교·검토될 수 없다. 민간전승의 일반설화집 소재 설화들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변화·발전한 것임에 반해, 김일성전설집 소재 설화들은 일제식민통치 이후의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의도적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II장에서는 김일성전설집의 체제와 성격을, III장에서는 북한의 일반설화집의 체제와 성격을 고찰하도록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각 설화집에 수록된 설화를 하나 하나 분석함으로써 그 구조와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의도 및 특정설화의 편중양상과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IV장에서는 II·III장에서 도출된 북한설화집의 특성을 중심으로 이를 상호 비교하는 한편, 남한의 전설들과 관련지어 고찰함으로써 남·북한 설화의 상동성과 변이성의 양상과 원인 및 그 전망에 대해 고찰하도록 할 것이다.

분석 대상 자료는 북한의 경우 필자가 구해 볼 수 있었던 분단이후 최근까지 북한에서 발간된 설화집 전체와 남한의 경우 최근까지 무작위로 채록되어 방대한 설화를 수록하고 있는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간행)와 필자의 답사기록을 주자료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설화, 즉 신화·전설·민담 가운데서 민담은 보편성을 위주로 하고 있어 역사적·사회적·지역적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고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 II. 김일성전설집의 체제와 성격

김일성전설집은 최근에 사망한 김일성이 일제 식민지 시기에 일제에 맞서 투쟁한 내용을 전설화하여 수록한 것이다. 필자가 볼 수 있었던 김일성전설집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백두산전설』 (근로단체출판사 편, 근로단체출판사, 1981)
2. 『백두산전설집 1』 (김우경 편, 문예출판사, 1987)

### 3. 『백두산전설집 2 - 날개돋친 흰말』 (김우경 편, 문예출판사, 1992)

이상의 전설집은 전적으로 김일성과 관련된 전설을 모아 놓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체재와 성격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이들은 모두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칭송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편찬된 시기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체재와 성격을 살피기 위해 각 전설집의 모든 설화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다만 성격이 유사한 『백두산전설집 1』과 『백두산전설집 2』는 같은 자리에서 살피기로 한다. 배경이 되는 시간과 공간, 등장인물의 성격, 당면한 문제와 문제해결 방법, 주제, 전승자(여기에서는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의식 등을 위주로 하여 분석할 것이다.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각 편의 제목은 물론 내용상의 용어도 있는 그대로 옮기기로 하겠다. 이러한 작업은 다소 번거로운 것일 수도 있으나, 선입관이나 당위성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 1. 『백두산전설』

##### (1) 장군별이 솟았다

백두산에 장군별이 솟아 2천만 겨레의 살길이 열렸으며, 장군별이 솟아 적을 전멸시킨다는 해방서광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傳承者)는 이를 일제 식민지 시기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직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영도한 김일성장군이 등장했다는 사실적 자료에 기초하여 생겨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2) 백두산의 전설

일제 식민지 시기 백두산에 왜놈들이 무적황군이라 떠드는 가운데 나라에 국운이 다시 일어나려고 하늘의 별들이 의론하여 장군별 하나를 띄웠는데, 이 때 태백산 고목에 꽃이 피고 지리산 목련꽃에 새들이 날아들고 북악산이 향기를 뿜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부사산에도 광채가 비쳤다는 해방서광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김일성장군에 대한 인민의 기대와 믿음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3) 영광으로 빛나는 전설

2천만 동포를 구원해줄 김일성장군이 조선군사를 일으켜 구름을 타고 백두산에 내렸다는 해방서광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1932년 4월 25일 안도현성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혁명적 무장세력도 없는 가운데 김일성장군이 조선인민혁명군(반일인민유격대)을 창건한 사실에 대한 인민의 긍지와 환희가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4) 별세상, 별천지

김일성장군이 있는 백두산은 별천지의 세세상이며 지상천국으로 밤에는 별무리들이 내려와 장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는 해방서광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항일 무장투쟁 첫시기 두만강연안에서 장군이 유격근거지와 인민정권(인민혁명정부)을 창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인민들의 기대가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5) 백두산의 장수

홍남비료공장 건설시 왜놈들이 법석을 떨자 김일성장군이 축지법을 이용해 현장에 나타나 노동자들과 합숙하면서 밤마다 일본수비대와 주재소를 습격하여 승리한 후 사라졌다는 응징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이 전설이 소왕청 유격근거지 방어전 투시 적극적인 방어전과 기동적인 적후방 교란작전을 벌여 적에게 군사정치적 패배를 안긴 역사적 사실로부터 생겨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6) 바위가 총탄이 되어

일본 토벌대가 조선인민혁명군을 토벌하려고 밀림에 들어와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김일성장군이 손을 들어 신호를 하자 가랑잎과 나무와 바위들이 군사가 되고 총탄이 되어 승리를 거두었다는 전승(戰勝)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1933년 3월 자피거우 전투시 장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이 일본 수송대의 무기를 탈취할 때 매복전술로써 승리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7) 땅에서 솟아오른다

어느 여름 백두산 수림지역에서 김일성장군이 토벌대의 포위를 받자 적을 유인하여 집안으로 들어가자 집은 바위로 변하고,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 왜놈들을 전멸시켰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1937년 6월 간삼봉 전투에서 장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이 토벌대의 작전에 맞서 매복전술을 통해 승리한 역사적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8) 하늘이 울고 지동이 인다

장군이 습법을 쓰면 하늘이 울고 지동이 일고 구름이 덮히고 태풍이 일며 소박비가 퍼부어 일제가 몰살한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1936년 무송근처 임강에서 장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이 수비대의 토벌에 맞서 지형지물에 맞는 전술을 통해 승리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9) 총 한방 쏘지 않고

김일성장군이 백두산에서 왜놈 토벌대에 포위당하자 바위를 날려보내는 천지조화를 일으키고, 구름을 타고 소낙비를 내리게 하여 승리하였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겨울날 소왕청 방어전투시 토벌대에 포위되자 적을 유인하여 불무지작탄 전으로 승리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10) 솔방울로 폭탄을 만드신다

김일성장군은 조화무궁한 슬법을 쓰는데, 솔방울로 폭탄을 만들고 모래로 쌀을 만들어 적을 물리친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이 토벌대에 포위되었을 때 연길폭탄으로 적을 물리친 자력갱생의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11) 하늘로 날아오른 대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이 부락에서 선전사업을 하던 중 경찰의 추격을 받자 하늘로 날아올라갔다는 혁명선도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인민들이 장군의 탁월한 전법을 둔갑장신술로 소박하게 생각한 것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12) 단풍잎을 띄우시고 두만강을 건너지다

왜놈들이 기습을 부리고 있던 시기에 두만강에 큰 바람이 불어 넘실대는데 김일성장군이 백두산 단풍잎 석장을 강위에 띄우고 군사들과 함께 두만강을 건넜다는 혁명선도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1933년 3월 11일 일제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두만강을 건너 온성지구 지하혁명조직 책임자 및 정치공작원 회의를 연 사실에 경탄과 상상이 합쳐져 만들어진 전설이라 인식하고 있다.

## (13) 날개 돋친 흰말

만주에서 일제침략에 반대하여 우군부대들이 일어나 왜놈이 있는 성시의 현성을 공격하였으나 난공불락이어서 백두산의 해동국 대장수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장수가 순식간에 나타나 하늘의 용마를 불러내려 타고 단신으로 난공불락의 성을 부수고 왜놈을 전멸시켰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1933년 9월 장군이 동녕현성전투에서 반일인민유격대와 중국인반일부대와의 연합작전을 조직지휘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14)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치시다

김일성장군은 천문지리에 도통한 하늘이 낸 용장이므로 한번에 동서에 동시에 나타나 왜놈을 전멸시킨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조선인민혁명군

과 반일부대와 더불어 1936년 8월 16일 무송현성전투에서 동성서격전술을 통해 일제침략군과 위만군 수백명을 살상포로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15) 분신술 전설

동만에 있던 김일성장군이 분신술로 북만에 나타나 왜놈들을 격퇴하였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북만 영안지구 유격부대가 곤경에 처하자 장군이 조선인민혁명군과 더불어 1934년 10월 북만원정에 나서 장군이 조선북부지대, 두만강연안 일대에 있는줄만 알고 있던 일제수비대를 격퇴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16) 조화를 마음대로 부리신다

김일성장군이 부하 두 명과 더불어 북만의 왜놈 헌병대본부를 습격할 때 담장이 높아 두 대원이 망설이자 담위에 오른 장군이 위로부터 벽돌을 내려고여 두 대원을 오르게 하여 헌병대본부를 쳤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1937년 2월 장백현 도천리전투시 적을 매복장소로 유인하여 토막내 소탕하는 토막전술로 승리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17) 입원이야기

김일성장군이 용정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밀정을 통해 이를 안 왜놈 경찰이 체포하려 올 때 장군이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종이에 써서 출입문에 붙이자 모두 공포에 질리고 장군은 호박잎만한 가랑잎을 타고 왜놈수비대 위로 날아갔다는 피신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제1차 북만원정후 돌아오는 길에 축한을 만나 로야령 귀틀집에서 치료를 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 (18) 단매에 요정내시다

김일성장군은 백두산에서 백성을 못살게 구는 놈을 환히 꿰뚫어보고 있으며, 구름을 타고 내려와 그들을 요정내고 백성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응징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이 1935년 여름 로혹산부근 왕보만에서 정안군이 인민들을 집단학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매복·유인하여 이를 격퇴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19) 적들을 쥐락 피락

김일성장군은 위풍과 명성이 높아 적들을 쥐락피락 하는데, 적들에게 식량과 군복을 가져오라고 하면 적 대장이 고분고분 시행한다는 풍모 및 혁명선동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이 1936년초 액목부근의 지주집에서 쉬고 있을

때 위만군연대장의 처를 우연히 만나 호의를 베풀고 일제의 주구노릇하는 잘못을 깨우쳐 보내자 위만군연대장이 감복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적극 도운 역사적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20) 장군바위 전설

김일성장군이 술법을 쓰니 장군바위가 요새가 되어 총알이 소낙비처럼 쏟아져 나와 왜놈들이 전멸하였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1936년 9월 1일 대덕수 전투시 장군이 위만군과 일제군경에 맞서 선바위를 요새로 삼아 싸웠는데, 선바위가 화점이 되어 장군의 명령에 따라 불벼락을 퍼붓는 것 같은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21) 왜놈만 골라 치신다

김일성장군은 천리안·만리안을 가지고 있으므로 난투가 벌어져도 위만군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전승 및 혁명선동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일제침략군이 1936년 겨울 백두산근거지에 침입해 맨 밖에는 억지로 끌고온 인민을, 그 안쪽에는 위만군을, 북판에는 자기들이 거처하는 방식으로 방어진을 치고 있었는데, 장군이 야간습격조를 보내 맨 안쪽에 있던 왜놈만 치고 돌아왔다는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22) 대장수이야기

백두산밑 곰자리마을에 왜놈이 침습하여 집이 불타고 사람들이 생매장되어 원한의 곡성이 퍼지자 지나가던 도사가 백두산에 내린 성인에게 도움을 청하라 일러주어 마을 사람들이 백두산에 찾아가니 성인이 도술을 써 단숨에 마을에 내려와 왜놈앞에 나타나자 왜놈들이 공포에 떨었다는 응징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이 전설에 백두산의 성인인 장군이 하루빨리 조국으로 나와 원수들을 징벌해 줄 것을 기다리는 인민들의 염원과 신념, 그리고 신뢰와 흠모의 정이 담겨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 (23) 가랑잎으로 군사를 나르신다

일본 토벌대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있다는 것을 알고 눈덮인 되골령에 들어왔으나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던 때에 지동과 더불어 장군이 나타나 손을 흔들자 떠오른 무수한 가랑잎에 군사들이 타고 되골령을 넘어갔다는 피신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이 1937년 3월초 되골령에서 토벌대의 추격을 피해 눈밑으로 굴을 뚫고 되골령을 넘은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24) 보천보에 날아오시다



김일성장군은 하늘로 날아다시면서 왜놈을 죽치는데, 백두산에서 조선을 굽어보다가 보천보에 날아와 왜놈을 요정냈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일제침략자들의 촘촘한 경계망을 뚫고 국경을 감쪽같이 건너 보천보전투에서 승리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며, 이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환상적인 옛말속에 등장하는 날개가 돌친 장수이야기와는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다.

(25) 종이 한장으로 강을 건느신다

김일성장군은 종이 한장으로 강을 건너고, 버선을 신은채 두만강을 건넌다는 피신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이 1937년 6월 4일 보천보전투에서 승리한 후 미리 대기시켰던 때목을 타고 압록강을 감쪽같이 건너 사실과 1939년 5월 무산지구전투에서 승리한 후 국경경비진을 쥐도 새도 모르게 뚫고 유유히 두만강을 건너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26) 시체산이 된 구시산

보천보에서 녹아난 왜놈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을 추격해 구시산앞 물동에 이르렀으나 물이 한방울도 없자 조상인 곰이 추격을 돕는 것이라 여기고 강북판에 들어서자 김일성장군의 슬법으로 소낙비가 내려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이 전설이 역사적인 보천보전투와 구시산전투의 매복전법을 바탕으로 해서 생겨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27) 간삼봉과 더불어 영원할 전설

김일성장군은 백마를 타고 날아다니며 구령을 내리면 바위가 부서져 적을 내리치고, 손을 들어 올리면 가랑잎과 자갈이 군사와 작탄이 되어 적을 물리치는데 지금도 산위에 백마의 발자국과 장군 부대의 장수들이 마시던 샘물이 있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이 전설이 1937년 6월 30일 있었던 간삼봉전투에서 승리한 사실로부터 생겨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28) 하늘로 올랐나, 땅으로 잤나?

일제침략군에게 포위되어 한 밤중에 적의 공격을 받던 김일성장군 부대는 장군의 지시로 산아래로 내려가다 적을 만나면 일본말로 '빨리 올라가라'고 다그치고 내려가는 전설로 포위망을 돌파하였으며, 고지에 오른 적들은 공산군이 하늘로 오르고 땅으로 잤다는 말을 실감하고 공포에 떨었다는 피신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1938년 4월 27일 쌍산자전투에서 적에게 포위된 장군이 밤에 부대원 모두를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게 하여 포위망을 뚫었다는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29) 신출귀몰

일제의 천황으로부터 김일성장군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은 육군대신은 장군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고 평양으로 달려가면 신경에서 보고가 오고, 신경으로 달려가면 할빈에서 보고가 들어오고 해서 술법을 쓰는 장군을 체포하지 못하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다는 피신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조직지휘한 대부대 선회작전의 승리가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30) 축지법 전설

김일성장군은 축지법을 써서 하루밤에도 천만리를 내달리며, 걸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눈위에도 발자국이 나지 않는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1937년 2월 26일 리명수전투에서 장군이 일제침략자들의 동기토벌공세에 맞서 지방혁명조직으로부터 적의 기동상태를 통보받고 적보다 먼저 앞에 나아가 기다리다가 쳐서 승리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31) 산을 주름잡아 다니신다

김일성장군은 축지법을 쓰기 때문에 하루에도 조선땅을 몇번씩이라도 다니는데, 조선의 보물을 훔쳐 달아나는 왜놈대장을 백두산에서 발견한 장군이 땅을 늘구어놓아 왜놈대장은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발버둥치다 죽고말았다는 응징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독창적으로 창조하고 널리 적용해 왜놈을 혼낸 일행천리전술과 임기응변 기동전술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32) 사흘천기를 내다보신다

김일성장군은 폭풍과 폭우를 일으키며, 사흘천기를 내다보고 군사를 쓰기 때문에 백전백승한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1939년 5월 3일 반절구전투에서 장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이 월식을 이용해 왜놈경찰과 무장자위단을 포위·격퇴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33) 한달음에 천리

김일성장군은 한달음에 천리길을 달리고 산을 주름잡아 다닌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국내로 진공하여 1939년 5월 배개봉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원회의를 마친후 적의 허를 찔러 대낮에 갑무경비도로를 행군해서 지나간 일행천리전술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34) 날개 돋친 장군

김일성장군이 무산에 나와 연설한 후 그 집에서 자는데 일제가 그 사실을 알고 포위

했으나 장군은 이미 날개로 날라 몸을 감추었다는 피신 및 혁명선도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이 1939년 5월 22일 신사동에 나와 일제침략자들의 식민지적 약탈과 전쟁정책을 폭로하고 조선인민의 투쟁과업과 전망에 대해 연설하고 떠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35) 총알에 눈알을 달아주시다

김일성장군이 이끄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이 쏘는 총알에는 눈알이 있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이 1939년 5월 23일 신사동 연설 후 추격하는 적에 맞서 강제로 짐꾼으로 끌려나온 노동자들은 놔두고 철갑모를 쓴 왜놈군대만 쏘아 격퇴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36) 피 많은놈을 잡은 이야기

김일성장군은 적대장의 속을 들여다 보아 우둔한 놈은 피로 잡고 피 많은 놈은 제피에 넘어가게 해서 잡는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1936년 봄 무송에 조선인민혁명군이면 돌아가고 산림부대라면 추격하는 피 많은 위만군 대대장을 속여 소탕한 사실이 이러한 전설을 낳았다고 인식하고 있다.

(37) 십산유곡의 호랑이도 머리숙이다

김일성장군이 올기강에서 단신으로 낚시를 하고 있는데 호랑이 한마리가 옆에 웅크리고 앉아 호위했다는 풍모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1939년 여름 올기강에서 위급한 상황속에서도 작전계획을 짜며 대담하게 낚시한 역사적 사실이 전설화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38) 바람타고 다니는 대군

김일성장군이 거느리는 군사들은 바람을 타고 다닌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일제가 1939년 하반기 백두산 동북부에 20만명을 집중시켜 조선인민혁명군을 포위하였으나 장군의 대부대 선회작전으로 적을 공격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39) 신기한 발자국

김일성장군의 발자국만 따라가면 구름위에 솟은 산밭도 쉽게 날아 넘을 수 있고 먼길도 순식간에 주름잡아 갈 수 있기에 대원들은 그 발자국을 따라 걸어 부대가 지나간 곳에는 하나의 발자국만 남게되는데, 왜놈이 따라서면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된다는 피신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이 전설이 1940년 3월 대마록구 전투에서 노획물자를 운반을 하던 도중 적의 추격을 반자 눈위에 발자국을 조작하여 적을 속인 사실에서

나온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40) 거꾸로 난 발자국

장군이 출동시 대원을 일렬로 세우고 자신의 발자국을 밟도록 하면 산이 접혀 한번에 몇십리를 가게 되는데, 한 신입대원이 장군의 발자국을 잘못밟아 앞산마루가 물러가 심산유곡에 혼자 남게 되어 울고 있는데 어느새 장군이 왜놈대군을 멸살시키고 나타나 대원의 손을 잡아주었다는 피신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눈위에 발자국을 조작하여 추격하는 토벌대끼리 싸우게 하여 승리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41) 그림속의 말을 태우시다

김일성장군이 거느린 소부대가 일본의 대부대와 마주치게 되자 장군이 백지장을 꺼내 말을 그리자 그림속의 말이 뛰어나와 모두 그 말들을 타고 사라졌다는 피신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1940년 가을 할바령에서 20여명의 호위병만을 거느린 장군이 앞뒤에서 물려드는 적들의 추격을 반자 적들이 서로 싸우도록 하고 피신한 임기응변의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42) 관희극이야기

조선인민혁명군이 청구자 일대에서 전투를 벌이자 혼이 난 일본수비대의 통역관이 농가로 숨어 들어 숨을 곳을 찾다 관속에 들어갔는데, 이어 나타난 일본군 졸병도 관속에 들어가려고 서로 싸움을 했다는 일제의 말로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1935년 초가을 북만 액목땅 청구자 일대에서 일제침략군 토벌대와 위만군부대 소탕전을 벌인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43) 활극이야기

조선인민혁명군의 습격에 혼이 난 기관총수가 정신착란을 일으켜 일제수비대 병실에서 공산군이 나타났다는 소리를 지르며 기관총을 쏘아대 자기편이 전멸하였다는 일제의 말로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친솔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이 1935년 초가을부터 낙달동안 북만 액목땅에서 활동할 때 적들이 공포에 떨었다는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44) 요-씨가 망했다

‘요-씨’(옴지)하며 허장성세하던 일본 토벌대가 조선인민혁명군에 의해 망하자 생겨난 말의 유래로 일제의 말로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1936년 9월 1일 장백현 대덕수에서 장군이 올창한 수림속으로 포위망을 좁혀오던 일본군들끼리 싸우게 하고

맞은편 산등으로 빠져 나온 망원전투가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45) 호박풍년

일제는 간삼봉전투에서 죽은 시체를 인민들에게 속여 반출하기 위해 목반을 떼어 마대에 포장하여 싣고 나오며 동원한 달구지군들에게 호박마대라 하자 달구지군들이 호박풍년이 들었다고 조소하였다는 일제의 말로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1937년 6월 30일 간삼봉전투에서 김일성장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이 일제에 무리죽음을 안긴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46) 말꼬리토벌대장

장군의 지시로 습격대원들이 1938년 겨울 7도구목재소 입구에 매복해 있다가 적을 치고 말 몇마리를 7도구목재소쪽으로 몰아 넣자 이 소식을 들은 토벌대장이 눈위에 난 말발자국을 따라 추격한 결과 말만 있었어 그를 말꼬리 토벌대장이라 조소하였다는 일제의 말로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이 전설이 장군의 영활한 전법으로 일제침략군에게 무리죽음을 안긴 사실로부터 생겨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47) 누데기토벌대장

장군의 지시로 습격대원들이 1936년 겨울 제일 밖에는 짐을 지고 온 인민을, 가운데는 위만군을, 그 북판에는 일제침략군이 자리잡고 있는 숙소를 습격하여 일제침략군만을 치자 인민을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일제 토벌대장이 누더기를 걸치고 달아나다 위만군부대장과 누데기옷을 가지고 싸워 그를 누데기 토벌대장이라 조소하였다는 일제의 말로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의 탁월한 전법에 일제침략군이 녹아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48) 3원짜리 모가지

장군이 이끄는 조선인민혁명군이 1938년 4월 12도구를 습격한 후 습격시 도망갔다 돌아온 일본경찰 2명이 죄를 모면하기 위해 시체 하나에서 목을 베어 거리에 매달고 자기들이 죽인 적이라고 하였는데, 경찰서장이 와서 보니 바로 경찰분서장의 목이어서 구두쟁이에게 3원을 주고 다시 붙여놓아 일제군경을 3원짜리 모가지라 조소하였다는 일제의 말로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이끄는 조선인민혁명군에게 일제군경이 녹아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49) 놀림받는 순사놈들

조선인민혁명군이 1937년 6월 4일 보천보를 습격한 후 왜놈순사가 살 곳을 찾아 돼지우리 속에 숨어 돼지소리까지 냈으며, 다른 왜놈순사는 당황하여 갓난애 대신 베개

를 안고 나왔으며, 또 다른 순사들은 산림보호구창고에서 난 다이내마이트 폭발음을 조선인민혁명군의 총소리로 오인하여 달아나기 바빠 이들을 북대기순사, 배개통순사, 다이내마이트순사라 조소하였다는 일제의 말로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이러한 전설이 역사적인 보천보전투로부터 생겨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50) 함흥에 나오시었다

김일성장군이 어느해 여름 함흥 주재소앞에 나타나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달려드는 일제군경 앞에서 안개를 피우고 사라졌고, 적들의 추격에 한방의 총을 쏘자 수백발로 날아갔으며, 눈을 감았다 뜨자 돌들이 날아다니며 적을 격퇴하였으며, 용마가 나타나 장군을 태우고 사라졌다는 전승 및 해방기대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일제말기에 국내에 나와 왜놈을 몰살시켜 인민에게 해방의 기대를 심어준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51) 북청에 나오신 장군님

김일성장군이 어느 일요일날 북청군 예배당근처에 나타났다 사라진 후 신창파출소를 습격하자 함경도 경찰들이 추격하였으나 결국 놓치고 말았다는 경찰 및 해방기대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일제말기인 1941년 초 군중에 의거하여 국내정찰을 하여 인민에게 해방의 기대를 심어준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52) 평양에서 왜놈군대를 족치다

김일성장군의 부대원은 모두 축지법과 술법을 쓰는데 어느날 평양에 나타나 여러 곳을 정찰하고 난 후 모란봉에 올라 하늘로 날아갔다는 경찰 및 해방기대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1945년 초여름 조선인민혁명군 정찰소조가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앞두고 평양의 적정을 정찰하고, 산세와 인민들의 동향을 알아내기 위하여 국내정찰을 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53) 백두산마루에서 천하를 굽어보시다

군중공작을 마치고 옹기다 일제경찰의 추격을 받던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들을 백두산에서 보고있던 김일성장군은 공작원들을 목화따는 아낙네로 변신시켰다는 피신 및 혁명선도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국내에 파견한 정치공작원들의 사업을 영도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54) 길어서 3년!

강원도 산간마을에서 철도선로공으로 일하던 노동자가 일제의 만행에 분노를 터트리 고 있을 때 한 선비가 제자들을 이끌고 철로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철로를 뺏아 내

동댕이치는 제자에게 길어서 3년이라 말하는 것을 듣고 기뻐했다는 해방기대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1940년 8월 소할바령회의에서 일제의 패망을 예언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며, 장군은 곧 선비이자 성인이라 인식하고 있다.

(55) 소 스무마리와 세쌍의 새

김일성장군이 개성 고려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일제경찰이 들어닥치자 개성 남대문에 소 스무마리와 세 쌍의 새그림을 붙이고 사라졌다는 해방기대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1940년 8월 소할바령회의에서 일제의 패망을 예언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며, 그 내용은 소화 20년에 세세상이 온다는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56) 리발이야기

고급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금시계까지 찬 젊은 사람이 리발소에 들러 리발을 한 후 자신이 김일성이라 밝히고 세찬 돌개바람과 함께 사라졌다는 피신 및 풍모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왜놈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도 태연하게 리발을 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57) 철도공사장에서 피진 이야기

신성천-승호간 철도공사장에 파견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왜놈헌병들에게 추격을 받던 중 갑자기 사라졌다가 인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나타나 적의 중원 부대를 격퇴하였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곳곳에 보내 왜놈을 격퇴하고 있으리라는 사람들의 신심과 기대 속에서 피진 전설이라 인식하고 있다.

(58) 인민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낳은 전설

김일성장군이 딸이 팔려갈 위기에 처한 집에 날아와 돈을 놓고 갔으며, 병에 걸린 농민에게 신비한 약을 보내주어 낫게 하였다는 인민사랑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1936년 가을 부식물 조달을 나갔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백두산지구에서 농민의 지성에 못이겨 황소 한마리를 끌고오자 장군이 인민의 생활이 달려있는 소를 다시 돌려주도록 하였다는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59) 행군도상의 조발씨불임

김일성장군이 하늘에서 내려와 백성들의 조발 씨불임을 도와주었다는 인민사랑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1938년 봄 장군과 대원들이 립강현쪽으로 행군하던 도중 인민의 일손 부족을 보고 대원들과 더불어 일손을 도운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며, 김일성부대는 곧 인민의 군대라 인식하고 있다.

## (60) 만경대의 버드나무

1938년 일제는 김일성장군이 조직영도하는 조선인민혁명군에게 타격을 받은 분풀이로 장군의 생가에 있는 버드나무를 잘라버려 마을사람들이 가슴아파 했으나, 1945년 봄 다시 새싹이 돌아났다는 해방기대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이 전설에 장군을 흠모하는 인민들의 마음과 조선독립을 바라는 소원과 기대가 담겨져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총 60편으로 이루어진 『백두산전설』은 김일성이 천하명장임을 알리는 (1)-(41) 부분, 일제군경을 조소하는 (42)-(49) 부분, 해방을 기대하는 (50)-(60) 부분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시기는 (1)-(4)가 조선인민혁명군(반일인민유격대)가 조직되어 인민혁명정부(인민정권)가 창건된 1932년 무렵이고, (5)-(49)가 1933년부터 1940년까지이며, (50)-(60)이 소할바령회의가 개최된 1940년부터 해방까지이다. 이 전설집은 항일무장투쟁의 준비단계인 서두 부분과 본격적인 항일투쟁을 하던 중심 부분, 그리고 해방직전의 말미 부분으로 이루어져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편년체적 구성은 이 전설집의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혁명적 변혁과 창조와 건설의 역사인 수령의 혁명적 활동노정’을 알기 쉽게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다. 특이한 것은 전설이라 칭하는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시간이 명기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 거의 대부분 실제의 역사적 사건을 부합시킴으로써 구체적인 시간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면은 이 전설집 소개의 전설 모두가 실제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전승자의 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장소는 강원도와 개성 이북지역과 백두산부근,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중국 동북지역이 주된 지역이다. 이 전설집의 뒷부분으로 올수록 주요활동무대가 국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52)에서도 보이듯이 해방이 가까왔다고 믿던 시기에 국내정찰을 통해 사람들의 동향을 알아내 혁명선도사업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함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특이한 것은 활동무대를 백두산으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백두산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은 60편중 9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전승자가 모든 전설을 실제의 역사적 사건과 결부시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즉 전승자의 본래 의도는 성산(聖山)으로서의 백두산과 대장군으로서의 김일성을 합치시킴으로써 그 위대함을 드러내려 하였지만, 모든 전설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생겨난 것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전설이라 칭하는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장소가 명기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 거의 대부분 실제의 역사적 사건을 부합시킴으로써 구체적인 장소를 밝히고 있다는 점 역시 특이하다. 이러한 면은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 전설집 소재의 전설 모두가 실제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전승자의 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등장인물에 있어서 47편의 주체자는 김일성이고, 12편의 주체자는 조선인민혁명군이며, 1편의 주체자는 철도노동자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주체자로 등장하는 것은 ‘문학 예술 방면의 중요과제인 인민군대의 영웅성과 완강성을 보이기 위함’<sup>1)</sup>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일성이 조화를 부리는 도구인 가랑잎과 나무와 바위들이 조선인민혁명군으로 상징화되어 있는 (6)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선인민혁명군은 ‘김일성장군이 이끄는’ 부대이며, ‘김일성장군의 지시로’ 활동하고 있어 실제의 주체자는 김일성이라 보아 무방하다. 물론 여기에는 항일투쟁은 김일성 혼자의 힘으로가 아니라 (59)에서 보이듯이 ‘김일성 부대, 즉 인민의 군대인 조선인민혁명군’과 함께 하는 것임을 보여 주고자 하는 전승자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혁명의 주체는 인민이지만, 이러한 인민들을 조직영도하는 것은 김일성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민성과 노동계급성을 선도하는 것은 당성이며, 이러한 당성은 김일성의 영도에 달려있는 것’<sup>2)</sup>이기 때문이다. 결국 표층구조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주체자로 등장하지만, 심층구조에서는 김일성이 주체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유일한 여타의 주체자로 등장하는 (54)의 철도노동자 역시 김일성과 그 부대원의 이야기를 엮고 기뻐하였다는 소극적인 주체자로 등장하고 있어 이 전설집 전편의 주체자는 실상 모두 김일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체자에 맞서는 궤방자로는 일제군경이 거의 대부분이나, 위만군·정안군·지주·자본가 등도 가끔 등장하고 있다. 내용 전체가 일제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주나 자본가는 간헐적으로 등장하고, 일제군경이 대부분의 궤방자로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주체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요청자는 사실상 일제를 증오하고 해방을 갈구하는 조선인민 전체로 설정되어 있다. 주체자를 돕는 협력자는 대부분 그가

1) 김일성, 『우리 혁명에서의 문학 예술의 임무』,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65. p.3.

2)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 72-95. 참조.

이끄는 조선인민혁명군이나, 단편적으로 노동자·농민·간호원·환자·이발사·마을주민 등의 평범한 인물과 용마·호랑이 등의 동물도 등장한다. 그러나 조선인민혁명군을 제외한 나머지 협력자들은 그 기여도가 미미하며, 동물의 등장은 주체자의 위용을 보다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체자에게 신비한 도움을 주는 증여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 구조는 주체자의 위대함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승자의 의도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당면한 문제의 대부분은 일제식민통치에 따른 일제의 만행과 사람들의 암울한 처지, 이러한 현실을 야기시킨 일제군경을 비롯한 궤방자들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일제군경을 비롯한 궤방자들의 공격 등이다. 일제 식민지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당면문제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이 주체자인 김일성의 조화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둔갑술·장신술·분신술·축지법 등을 이용한 '신묘한 술법과 영활한 전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주체자는 이 외에도 가랑잎이나 종이를 타고 강을 건너고, 바람을 타고 사라지며, 바람과 소낙비를 불러 일으키며, 용마나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 뿐만 아니라, 가랑잎으로 군사를 만들고, 술방울과 자갈로 폭탄을 만들며, 모래로 쌀을 만들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자의 문제해결에는 어떠한 증여자나 협력자도 개입하지 않고 있다. 결국 모든 문제를 초월적인 힘을 지닌 주체자 혼자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해결 방식은 신화주인공의 경우와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신화주인공의 경우에도 문제해결에 있어 하늘이나 신 내지 신격의 존재로부터 종종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백두산전설』의 문제해결 방식은 신화를 초월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김일성의 위대함을 드러내 그를 절대적인 존재, 유일무이한 존재로 부각시킴으로써 '당의 모든 모든 로선과 정책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철저히 기초하고 있으며, 당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의 현명한 명도를 받아야만 승리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sup>3)</sup>는 것을 보이기 위한 전승자의 의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주제에 있어서 두 주제가 공유되어 있는 편들이 있어 실제의 60편보다는 많은데, 전승 22편, 피신 11편, 일제의 말로 7편, 혁명선도 6편, 해방기대 6편, 웅징 4편, 해방서광 4편, 풍모 3편, 인민사랑 2편, 경찰 2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승이 대다수

3)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암울한 현실을 야기시킨 일제군경을 비롯한 궤방자들에 대한 공격 및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일제군경을 비롯한 궤방자들의 공격이 당면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데에서 연유한 것이다. 피신은 일제군경을 비롯한 궤방자들의 공격에 정면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적에게 신비함과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전승과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일제의 말로와 해방기대, 그리고 웅장은 주체자와 협력자의 궤방자에 대한 공격이 성공한 데에서 야기된 것으로서 전승과 동일맥락에 놓여있다. 해방서광과 정찰은 주체자와 협력자가 궤방자를 공격하여 승리하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라는 점에서 전승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혁명선도와 풍모와 인민사랑은 이 전설집 전반에 걸쳐 강조되고 있는 '인민들의 흠모와 칭송의 정'을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인, 다시말해 궤방자에 맞서 싸우는 주체자와 그 활동에 대한 당위성과 신뢰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승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때 주제는 전부 전승이나 전승에 관련된 것들이다. 이러한 양상은 이 전설집의 편찬목적이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강도 일제에 무장투쟁의 가치를 들고 선전포고를 하여 제국주의 식민체계를 허물어버리는 돌파구를 마련한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에 있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영이다. 이러한 양상은 '혁명정신을 고취하는 데에 예술의 의의가 있다'4) 는 사회주의 문학관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전승자, 즉 이 전설집의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은 주체자가 (22)·(54)에서 처럼 백두산 성인이자 선비이고, 이러한 주체자가 세운 인민정권이 (4)에서 처럼 용궁이나 하늘의 왕궁이 아닌 노동자·농민이 주인인 지상천국이며, 전반에 나타나는 것 처럼 인민들이 주체자에 대한 희망과 기대, 신뢰와 존경, 흠모와 칭송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어떠한 도움없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주체자의 성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이러한 주체자에 관련된 모든 전설이 실제의 역사적 사건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전설이 신화나 민담(북한의 용어로는 민화)과 변별될 수 있는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역사성에 있다. 전승자들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 믿는 데에서 전설로서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설에서는 시간과 공간, 등장인물 등이 구체적으로 명기될

4) 김일성, 『우리 혁명에서의 문학예술의 임무』,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65, p.38, 48.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p. 6

뿐만 아니라, 주체자의 행위나 사건에 대한 증거물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이다. 이 전설집의 전승자 역시 이러한 전설의 특성을 충분히 견지하고는 있었으나, 전설의 역사성은 전설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승자는 각 편을 공히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하여 전설의 내용과 이러한 전설이 생성된 역사적 배경, 그리고 역사의 전설화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본론 부분인 전설은 대부분 시간·공간·등장인물·증거물 등의 측면에서 구체성을 띠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 구조를 갖추지 못한 소략하고도 단편적인 풍문 정도의 내용에 불과한 반면, 이에 부합하는 역사적인 사건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적으로 말해 이 전설집은 전승자의 의도와는 달리 전설집 으로서는 대단히 미흡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앞서 시기와 장소의 측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승자가 지나치게 역사성을 강조하려 한 데에서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수령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하고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령의 혁명활동력사에 실재한 역사적 사건과 생활적 사실에 철저히 기초하여 수령의 숭고한 혁명적 품모를 진실하게 그려내야 한다’<sup>5)</sup> 는 것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 2. 가. 『백두산전설집 1』

### (1) 백두산의 장군벌

『백두산전설』(2)와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해방서광이다.

### (2) 경박호 이야기

옛날 백두산 북쪽 55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경박호 근처의 해동성국에 마귀가 나타나 왕국의 보물인 보경을 탈취해가고 어부인 설씨의 아내마저 강탈해갔는데, 장수가 나타나 마귀를 격퇴하여 보경과 어부의 아내를 되찾아 주고 죽자 북호두 사람들이 그를 위해 사당을 짓고 매년 제사를 지냈다. 유구한 세월이 흐른 어느날 북호두에 왜놈 수비대가 들어와 마을에 불을 지르고 사당을 허물자 백두산장수가 나타나 조화를 부려 왜놈수비대를 격퇴하였다는 응징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백두산장수가 없어졌던 경박호의 보경을 지니고 있기에 조화를 부릴 수 있는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3) 다시 솟은 칠성별

5)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이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3, p. 84.

백두산에서 사냥하던 광포수가 밤에 포수막으로 돌아오던 중 칠성별이 떨어져 방향을 못잡고 있는데, 칠곱명의 장수는 자신들이 없으면 땅위의 사람들이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후로는 사람들이 다 잠든 새벽녘에 땅에 내려와 힘을 키웠다는 인민사랑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칠성별이 사람들의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가늠자이며, 이러한 칠성별은 장군별의 명령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4) 관희극

『백두산전설』(42)와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일제의 말로이다.

(5) 바위굴

백두산 기슭 마을의 화전민 덕보는 바위에 나있는 문을 통해 바위굴로 들어가 무술을 연마하고 있는 젊은이들과 날개돋친 흰 용마를 탄 백두산 대장수 김일성장군을 보고, 한 젊은이에게 왜놈들에 대한 원한을 풀 길을 호소하자 장군이 쓴 책을 주어 기쁘게 받아들고 마을로 돌아왔다는 해방기대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굴속이 낮만 있는 세상이며, 장수들이 축지법을 다 배우면 달려나가 왜놈들을 격퇴할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6) 미친 병졸

『백두산전설』(43)과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일제의 말로이다.

(7) 이상한 별찌

백두산 근방에 아들을 유격대에 보낸 할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백두산쪽 하늘에서 별찌가 떨어지고 이어 날개돋친 용마를 탄 김일성장군을 포함한 세 장수가 나타나 할머니를 위로하고 돈과 종곡을 주고 떠나자 봄에 종곡을 심으니 대풍이 들었다는 인민사랑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주고 간 종곡을 심자 강냉이알은 사과알만하고, 수수알은 밤알만하며, 조알은 당콩알만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다.

(8) 백두산에 대장수 났다

『백두산전설』(22)와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웅장이다.

(9) 특군대신이 받은 보고서

『백두산전설』(29)와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피신이다.

(10) 장군바위

『백두산전설』(20)과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전승이다.

(11) 효녀 은심이

백두산 기슭 마을에 사는 은심이는 병든 아버지를 낫게 할 수 있는 백두산에서만 나

는 약을 사기 위해 경찰서장의 환심을 사려는 목재소주임의 꼬임에 넘어가 식모살이를 떠나려 하는데, 흰 수염이 있는 장수가 용마를 타고 백두산쪽에서 날아와 백두산 약과 산삼, 녹용을 주어 아버지의 병을 고쳤다는 인민사랑 및 해방기대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은심이 고된 노동속에서도 백두산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힘을 얻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12) 신기한 종이장

『백두산전설』 (25)와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피신이다.

(13) 하늘로 날아오른 힘장수

량강도 삼지연군의 목재소 처서군인 쇠돌이와 동료들은 힘이 없음을 한탄하던 도중 같은 일을 하고 있던 백두산장수의 부하인 힘장수로부터 천지물을 마시고 장수가 되었다는 말과 왜놈경찰의 추격을 피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보고 이들도 백두산에 들어가 천지물을 마시고 장수가 되었다는 피신 및 혁명선도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백두산이 산지조종 천하명산이므로 천지물에 신비로운 조화가 깃들여 있는 것은 응당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14) 오를 수 없는 봉우리

1937년 겨울 금빛날개를 지닌 용마를 탄 허연 수염발의 김일성장군은 백두산 남서쪽 300리 떨어진 홍두산에 기어오르는 토벌대의 토벌에 맞서 조화로써 적들을 격퇴하였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백두산이 우리나라의 성산이자 조종의 산이며 조선땅 지맥의 뿌리인데, 홍두산은 성산의 신성한 정기를 더 많이 받았을 것이기에 신비로운 홍두산전투의 승리가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15) 가랑잎 타고다니는 군사

『백두산전설』 (12)·(23)과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피신이다.

(16) 백두산에서 날아온 불돌

백두산 기슭 면소재지에서 일제는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새로 짓기 위해 조선사람들을 강제로 내몰아 원한을 사고 있었는데, 백두산쪽에서 불돌이 날아와 그 건물들을 전소시켰다는 응징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불난 곳의 돌이 백두산천지의 돌과 같은 것이며,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백두산장수가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17) 눈이 있는 총알

『백두산전설』 (35)와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전승이다.

(18) 놀림받는 순사놈들

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북한에서 이와는 다른 문학개론 책이 출판되었다는 사실이 없고 또, 문학예술에 대한 북한 내부의 특수한 범주규정으로 봐서는 75년판 자료가 이전의 문학개론이 맡고 있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①②번과 같이 다루기로 하였다.

한편 80년대 문예이론의 변모를 알려주는 90년대 문예이론서를 비교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료를 찾기 어려워, 아쉬운대로 김정본의 『미학개론』을 부차적인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최근 1990년대의 북한 문예동향이 김일성주의의 고착화가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조금씩 유연화(완화)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도 있겠다.

앞으로 본론에서는 이들 역대 문예이론서들을 ‘문예의 개념, 기능, 창작방법, 담당층, 문학예술사’ 등 이론 항목별로 비교 분석하여, 그 역사적 변모의 과정과 의미를 천착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 II. 각 문예이론서의 서론부분 비교

### 1. 서론 체제의 변화양상

먼저 박종식·현종호·리상태, 『문학개론』을 살펴보면 발행연도(1961)가 말해 주듯이 주체사상이 체계화되기 이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고 하겠다. 그때까지 북한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이론에 의거하여 여타의 문학논의가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서론의 목차를 보더라도 그것은 명백하게 드러난다.

1. 우리 문학 건설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문학리론의 임무
2. 우리나라의 고전적인 문학리론 사상의 문학전통
3. 우리 당의 문예정책과 김일성 원수에 의한 맑스레닌주의 문학리론의 창조적 발전
  - 1) 맑스레닌주의 문학리론의 형성
  - 2) 해방 전 우리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문학리론사상의 발생과 발전

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북한에서 이와는 다른 문학개론 책이 출판되었다는 사실이 없고 또, 문학예술에 대한 북한 내부의 특수한 범주규정으로 봐서는 75년판 자료가 이전의 문학개론이 맡고 있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①②번과 같이 다루기로 하였다.

한편 80년대 문예이론의 변모를 알려주는 90년대 문예이론서를 비교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료를 찾기 어려워, 아쉬운대로 김정본의 『미학개론』을 부차적인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최근 1990년대의 북한 문예동향이 김일성주의의 고착화가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조금씩 유연화(완화)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도 있겠다.

앞으로 본론에서는 이들 역대 문예이론서들을 ‘문예의 개념, 기능, 창작방법, 담당층, 문학예술사’ 등 이론 항목별로 비교 분석하여, 그 역사적 변모의 과정과 의미를 천착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 II. 각 문예이론서의 서론부분 비교

### 1. 서론 체제의 변화양상

먼저 박종식·현종호·리상태, 『문학개론』을 살펴보면 발행연도(1961)가 말해 주듯이 주체사상이 체계화되기 이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고 하겠다. 그때까지 북한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이론에 의거하여 여타의 문학논의가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서론의 목차를 보더라도 그것은 명백하게 드러난다.

1. 우리 문학 건설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문학리론의 임무
2. 우리나라의 고전적인 문학리론 사상의 문학전통
3. 우리 당의 문예정책과 김일성 원수에 의한 맑스레닌주의 문학리론의 창조적 발전
  - 1) 맑스레닌주의 문학리론의 형성
  - 2) 해방 전 우리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문학리론사상의 발생과 발전



『백두산전설』 (7)·(28)과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피신이다.

(27) 3원짜리 모가지

『백두산전설』 (48)과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일제의 말로이다.

(28) 백두산호랑이

『백두산전설』 (7)과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전승이다.

(29) 신비로운 전투

50년전 왜놈의 토벌요충지인 장백현 반절구의 경찰대와 무장자위대를 치기 위해 잠입한 장군의 유격대원들이 달빛 때문에 성문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을 때, 따오기 여덟마리가 나타나 달을 물고 가 그 사이에 적을 격퇴하자 따오기가 다시 달을 제자리에 물어다 놓고 사라졌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달을 없애기도 하고 새로 띄우기도 하는 천지조화를 부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30) 기자의 명함장

반절구전투 직후 장백현 경찰서장은 장군의 신출귀몰한 전법에 공포를 느끼고 있었는데, ‘김일선’이라는 기자가 내미는 명함장을 보고 ‘김일성’으로 오인해 기절초풍하였다는 일제의 말로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대일본제국도 장군앞에서는 가련한 종이범이라 인식하고 있다.

(31) 올기강의 호랑이

『백두산전설』 (37)과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품모이다.

(32) 아흔아홉가지 축지법

『백두산전설』 (30)·(31)과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피신 및 웅장이다.

(33) 파면된 경찰부장

『백두산전설』 (50)과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전승 및 해방기대이다.

(34) 그림속의 룡마

『백두산전설』 (41)과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피신 및 전승이다.

(35) 백두산에 갔다온 사람

김일성장군의 부대가 왜놈목재소를 친 후 철수할 때 문국이를 비롯한 목재소노동자들이 노획물자운반을 자원했는데, 백두산 골짜기에서 키를 넘는 마늘밭과 서까래 굽기의 파밭과 썩밭을 지나자 힘이 났고 그것으로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였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의 유격대가 마늘·파·썩을 주식으로 하고 천지의 샘물을 마시며, 백두산에 가서 장군을 만나고 온 사람들은 모두 장수가 되었다고 인식

하고 있다.

(36) 발자국이야기

『백두산전설』(39)와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피신이다.

(37) 말꼬리토벌대장

『백두산전설』(46)과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일제의 말로이다.

(38) 암만 고아대야 헛공사다

도술을 부리는 일본군장교가 천황의 어명으로 김일성장군과 맞서 보려고 부산에 내리자 흰 수염이 난 노인 둘이 나타났다 두루미로 변해 날아가고, 빨래하는 아낙네들이 버드나무로 변하며, 장군의 부하인 소년을 만나 돌미륵처럼 굳어지는 것을 보고 장군에 맞서기를 포기하고 일본으로 가던 도중 물에 몸을 던졌다는 일제의 말로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이러한 것이 장군의 도술로 이루어진 것이며, 장군에게 맞서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 인식하고 있다.

(39) 바람 타고 다니는 장군

『백두산전설』(29)와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피신이다.

(40) 철길공사장에서 있는 일

『백두산전설』(57)과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전승이다.

(41) 소 스무마리와 새·세쌍

『백두산전설』(55)와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해방기대이다.

(42) 길어서 3년

『백두산전설』(54)와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해방기대이다.

(43) 새 장수 이야기

『백두산전설』(51)·(52)와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정찰과 해방기대이다.

(44) 고안마루는 어떻게 되어 무사할수 있었는가

관부연락선 고안마루가 현해탄 여울에 접어들어 전복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3등선실 천정에 '조선독립대장 김일성'이라는 구호가 나붙고 사람들이 이를 한입처럼 받아 외자 태풍이 멎고 파도가 잦아져 예정보다 일찍 일본에 닿았다는 풍모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사경에 처했을 때 장군의 존함을 세 번이상 외우면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45) 어린 장수

겨드랑이에 쌍날개가 돋치고 어깨에 칠곱개의 별이 돋친 어린 장수가 어려운 사람들

을 도와주고, 모여든 젊은이들에게 무술과 도술을 가르쳐주며, 토벌하러온 왜놈들을 몰살하였다는 인민사랑·전승·해방기대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우리나라에 성인이 내렸으며, 어린 장수가 백두산에 올라 진을 치면 조선이 독립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46) 만경대 버드나무

『백두산전설』(60)과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해방기대이다.

나. 『백두산전설집 2 - 날개돋친 흰말』

(1) 백두산 대장수

백두산에 하늘이 낸 큰장수가 날개달린 용마를 타고 내려왔다는 소문이 파다할 무렵 품팔이하고 다니던 박오득이 백두산에 들어가 술법을 배운 후 장군의 명령으로 왜놈들을 치다 역부족이었는데, 백두산 장군봉에 용마를 탄 대장수가 나타나 조화로써 적을 격퇴하였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동방의 영지인 백두산이 모든 산의 조종이자 근본뿌리이며, 대장수인 김일성장군은 나라를 구할 위인이라 인식하고 있다.

(2) 길들여진 호랑이

농민출신으로 장군의 부하가 된 룡걸은 백두산 호랑이가 김일성장군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순하게 길들여지는 것을 보고 놀랐으며, 이러한 호랑이는 왜놈과 정안군만을 물어갔다는 풍모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백두산이 조물주가 앉았던 용좌이며, 산의 신령인 호랑이가 용좌에 앉아있는 장군을 보고 양처럼 길들여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3) 날개돋친 흰말

『백두산전설』(13)과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전승이다.

(4) 장군님의 고향

천둥이 친후 무지개가 비끼고 커다란 태양이 솟으며 만경대의 한 초가집에서 옥동자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고 말을 하였으며, 세상이 어둡다는 말을 하며 조화를 부리자 나타난 용마와 군사를 이끌고 백두산 쪽으로 사라졌다는 해방서광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김일성장군이 만민의 태양이며, 백두산에 들어간 장수가 군사조련을 마치고 나오면 나라가 독립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 (5) 느티나무에 박힌 화살

평양 서쪽에 위치한 룡악산 법운암 느티나무에 편지가 매달린 금화살이 날라와 꽃혀 주지가 편지를 보았으나 그 내용을 몰라 전전궁궁하고 있을 때, 노승으로 변신한 장군의 부하가 나타나 3년 후에 나라가 독립된다는 내용임을 알려주고 사라졌다는 해방기대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대장수가 어린시절 신심을 키운 룡악산 고향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한 애심에서 나온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6) 열차칸에서 만난 장군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가는 열차의 일등칸에 타고 있던 일본고급관리인 스미야가 옆에 앉아있던 사람으로부터 '항일유격대장 김일성, 집주소는 백두산'이라 쓰여있는 명함장을 받고 놀라 이후 시름시름 앓다 죽었다는 일제의 말로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조선의 주인은 조선사람이며, 일본은 강도라 인식하고 있다.

## (7) 신기한 옷

만석이라는 대원이 장군의 명령으로 장군이 준 무명바지저고리를 입고 백두산 기슭의 성시로 적정 정찰을 나가기에 앞서 어느 중대장으로부터 장군이 준 군복을 입었더니 총알이 튀어나가더라는 말을 들었는데, 과연 왜놈들이 바로 곁에 있는 만석이를 보지못하였다는 정찰 및 피신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준 옷이 둔갑술을 쓰는 신기한 옷이라 인식하고 있다.

## (8) 백가지 도술

장군은 도술 뿐만 아니라 신술도 쓰는데,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고, 최면술을 쓰고, 안개를 일으키고, 땅속에서 집을 솟아오르게 하고, 적들을 얼어붙게도 하며, 구름을 타고 다니기도 한다는 피신 및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김일성장군이 조선의 하늘님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 (9) 백두산 장수와 수들이

『백두산전설』 (5)와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웅장이다.

## (10)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 비가 온다

몹시 가물이 든 서간도에 허연 수염을 지닌 노인이 나타나 아리랑 노래를 부르자 비가 왔다는 전설이 있는데, 이 전설은 왜놈에게 포위된 장군이 대원들과 함께 아리랑 노래를 부르자 소낙비가 내려 적을 모두 격퇴한 일에서 나온 것이라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가물든 지역을 지나가던 백발노인이 저도 모르게 아리랑 노래를 부른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11) 구름우의 지휘처

김일성장군은 세 장수에게 명령을 내려 각각 평양·함흥·원산의 왜놈병영을 치게 하였는데, 구름을 타고 부대를 지휘하여 적을 격퇴하였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의 이야기가 죽지못해 살아가는 화전민들의 궁핍한 생활에 밝은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 (12) 백두산 장수와 두 제자

『백두산전설』(16)과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전승이다.

## (13) 남석리 장수바위

1930년대 중엽 청진시 송평구역 남석리에서 태어난 장수는 왜놈들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악독한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왜놈들을 격퇴하여 나라를 되찾고자 할 무렵, 백두산에 대장수가 내렸으니 때를 기다리라는 계시를 받고 남석리 바위속으로 들어갔는데 얼마후 주라소리가 들려 바위속에 있던 장수들이 나와 백두산으로 가 대장수의 부하가 되었으며, 이때 장수가 나오다 만 바위를 장수바위라 했다는 해방서광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수가 백두산 주라소리를 듣고 힘을 합쳐 왜놈들과 싸우려 간 것이 노동계급력과 힘을 합쳐 전민항쟁을 하자는 사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 (14) 세계의 호수와 밀림속에 난 큰길

백두산의 포수인 박만덕은 메돼지를 만나 위기에 처했을 때 장수들이 나타나 눈길만으로 메돼지를 잡고, 백두산대장수가 가리키자 밀림속에 신작로가 생기고 지팡이로 치자 호수가 세계나 생겼으며, 얼마후 팡 소리와 함께 왜놈들이 전멸한 것을 보고 독립이 멀지 않았음을 기뻐했다는 해방기대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사실이 어떻든지간에 이 전설이 김일성장군의 무산지구전투 승리이후에 전해진 것이며, 대장수가 만든 세계의 호수는 삼지연이고 숲속에 난 길은 갑무경비도로라 인식하고 있다.

## (15) 조롱박골 이야기

룡정 서남쪽 들국시 부근의 진풍동 조롱박골에 이주해서 사는 노총각 개필이가 구차한 살림과 할아버지의 고집으로 장가를 못들고 있었는데 외삼촌의 덕으로 고향의 처녀와 결혼하여 유람하다 돌아오던중 백두산대장수에 의해 죽은 왜놈시체가 산이 되어 지형이 바뀌어 길을 잃었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단발을 반대하는 개필이의 할아버지가 봉건유습을 지닌 고루한 민족주의자라 인식하고 있다.

## (16) 신출귀몰하는 청년

달래산 기슭 월양촌에 사는 힘이 장사인 춘배는 꿈속에서 따오기의 인도로 굴안에서

무술을 조련시키고 있던 대장수를 만나 술법책을 받아가지고 와 그 책으로 술법을 익혀 왜놈들의 추격을 피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구름을 타고 백두산쪽으로 사라졌다는 피신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이 전설이 확증된 자료는 없으나 당시 이 지방에 파견된 항일유격대의 정치공작원들에 대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17) 만경대의 신동

장군이 어렸을 때 술래잡이를 하던중 아무도 찾을 수 없자 하늘에서 흰구름을 타고 내려왔고, 김보현선생이 가지고 있는 보물뒤옹박으로 신기한 조화를 부렸고, 행패를 부리는 왜놈학생을 돌미륵으로 만들었고, 산에 갔다가 뒤에 처진 장군이 먼저 내려와 있어 바람을 타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으며, 닭을 채가는 독수리를 활을 쏘아 떨어뜨렸고, 두 바위를 건너 떨 때 바위가 붙었다 떨어져 땅도 바위도 쪼라켜라한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풍모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보물뒤옹박은 아무나 운용하는 것이 아니며, 장군을 명궁·신궁이라 인식하고 있다.

#### (18) 백두산에 내린 영장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왜놈군대가 장군의 본거지로 쳐들어와 백마를 탄 영장이 군사들과 함께 적을 격퇴한 후 무지개다리로 말을 달려 백두산쪽으로 사라졌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영장은 하늘이 낸 대장수이며, 군사는 천군이라 인식하고 있다.

#### (19) 오랑캐령의 샘물

1930년대 중엽 김일성장군의 명으로 국내 정치공작원으로 파견된 한 대원이 오랑캐령을 넘다가 지주에 쫓겨 이주하는 가족의 어린아이가 갈증으로 숨을 거두는 것을 보고 장군에게 그 말을 하자, 장군이 일러준 곳을 파 샘이 생겨 사람들이 물을 마실수 있게 되었다는 혁명선도 및 인민사랑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대장수가 백두산정기를 타고났기에 이곳 지형을 손금보듯하는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20) 류다른 방문객

보천보전투후 풍수실력을 지닌 도청관리와 보통학교 교장으로 있는 두 일본인이 장군의 고향인 만경대를 확인하기 위해 갔는데, 실제로 위인이 탄생할 지역이라는데 공감하고 만경대를 다녀온 많은 일본인들과 마찬가지로 서둘러 본토로 돌아가 얼마후 일제가 망했다는 일제의 말로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만경대가 혁명의 요람이며, 수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경대로 달리는 인민들과 세계의 마음이 만경대를 사적지로 꾸미게 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21) 사진에 나타나지 않는 장군

일본군 소대장인 아끼모도는 김일성장군이 자기와 육군사관학교 동창이므로 자기 소대원들을 치지 않을 것이라 공언하면서 같이 찍은 사진을 증거로 내보였으나 사진에 장군은 없었는데, 이후 항일유격대를 토벌하러 나가 그 소대만이 무사히 돌아오자 장군에 두려움을 느끼던 그 상관들로부터 대우를 받았다는 일제의 말로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하늘이 낸 위인에 대한 두려움이 이러한 일을 만든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22) 높이 생겨난 이야기

평양시 련못동의 련못들은 장군이 정찰나갔던 부하장수들로부터 왜놈들의 행패에 시다리는 조선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을 듣고 노하여 주먹으로 땅을 쳐 생긴 것이라는 정찰 및 용정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많은 늪중 장군이 만든 늪이 분명히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 (23) 거울이야기

머슴살이하던 길동은 장군의 부대에 입대하여 잠시도 자리를 뜬 일이 없는 장군이 왜놈토벌대 300명이 부엉이골에 있으니 격퇴하라는 명령을 하자, 그곳에 가보니 과연 장군의 말과 같이 왜놈토벌대가 있어 격퇴하고 돌아왔는데, 장군이 가지고 있는 거울이 100리를 내다보는 것이었음을 알고 놀랐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왜놈의 동태를 손금보듯하며, 장군앞의 대일본제국은 가랑잎 신세라 인식하고 있다.

## (24) 밀림속의 염지밭

장군으로부터 종곡과 남새종자를 구해오라는 과업을 받고 떠난 유격대원이 돌아오지 않아 수색끝에 과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산속에서 죽은 대원의 시체와 그의 배낭속에 들어있는 염지씨 한봉지를 발견하여 장군이 요영구 마반산 수림속에 손수 씨를 뿌렸는데, 그 염지는 조금만 먹어도 힘이 났고 왜놈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풍모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이 염지밭이 아직도 있으며, 장군이 손수 씨를 뿌리고 가꾸었기에 염지가 조화를 부린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25) 수리개바위

50년전 들국시 양무정자의 청년들은 독립군 출신의 범령감이 수리개바위밑에 보물을 숨겨두고 있다고 믿고 파보았으나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범령감은 세 아들에게 땅속에서 꺼낸 세계의 장검을 보이면서 칠성별이 뜰 때 백두산대장수에게 '칼을 주

시오'라 세번 외쳐 얻은 것이라 하였으며, 세 아들은 유언에 따라 그 칼을 가지고 백두산으로 장군을 찾아갔다는 해방서광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날개를 퍼면 그 밑에 칠성별이 뜬다고 인식하고 있다.

#### (26) 범바위

백두산 동남쪽 장백현에 기무라라는 겁많은 토벌대 오장이 있었는데, 유격대를 공격하던 도중 다른 토벌대들은 바위를 호랑이로 착각하고 모두 도망갔지만 혼자 기절했다 일어나 이 사실을 안 기무라는 기세등등하게 산을 내려와 용감하게 싸웠다고 거짓말을 하여 장교로 승진하였다는 일제의 말로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백두산호랑이 앞에서는 황군이 모두 겁쟁이·머저리가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 (27) 송풍라월

할바령 부근에 조선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만든 조선인부락이 있었는데, 이곳 역시 살기 힘들자 수동이 백두산 북쪽 기슭에 있다는 송풍라월이라는 별천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발견하여 마을사람 모두가 그곳으로 이주했다는 해방서광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송풍라월이 사람이 사람대접을 받는 지상천국이며, 이는 김일성장군이 창설한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 대한 인민들의 동경이 전설화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28) 장군님을 찾아가는 청년들

1930년대 초 연길시에 이주한 광산노동자인 허 아무개는 일제와 지주의 등쌀에 시달리다 김일성장군이 항일유격대를 창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다 중국인 반일부대에 체포되어 죽게되었을 때, 장군이 나타나 반일부대를 돌미륵으로 만들어놓고 구해주어 용감한 유격대원이 되었다는 해방서광 및 인민사랑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사경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늘이 낸 위인이라 인식하고 있다.

#### (29) 땅속에서 나온 무기

항일유격대가 창건된 직후 백두산 동북부 왕천현에 있던 왜놈수비대가 독립군들이 땅에 묻은 무기와 탄알을 찾으려 하였으나 실패했는데, 얼마후 장군이 나타나 지시한 곳을 파니 곳곳에서 무기가 나와 수비대가 보는 앞에서 구름에 무기를 싣고 날아갔다는 해방서광과 피신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항일유격대가 창건된 직후 무기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질 때 있었던 일이라 인식하고 있다.

#### (30) 5리장검

두만강 기슭에 솟구이를 하는 강씨는 장수를 낳았으나 이를 알고 죽이려는 왜놈순사



에 격분해하는 장수에게 때를 기다리라고 만류하였는데, 백두산쪽에서 처서군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백두산 바위에 장검이 꽂혀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간 장수가 장검을 뽑지못하고 있던 차에 날개돋친 용마를 탄 장수가 가볍게 뽑는 것을 보고 백두산대장수의 부하가 되어 왜놈을 격퇴했다는 해방서광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출중한 장수가 나면 보검도 같이 생기는데, 5리장검은 장군의 칼이라 인식하고 있다.

#### (31) 이상한 노을

남호두회의 이후 무송일대에 있던 장군이 지휘원들에게 각곳의 유격대원을 소집하도록 명령하였는데, 한 대원이 방향을 잃고 헤매던 중 노을이 비쳐 그 방향으로 가자 마침 노을을 보고 장군이 있는 곳으로 오던 유격대원을 만나 무송으로 되돌아와 그 노을을 보고 모여든 다른 모든 유격대원들과 큰 부대를 이루어 왜놈을 격퇴하였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이 전설이 무송현성진공전투를 두고 창조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32) 꽃이 핀 느티나무

『백두산전설』(60), 『백두산전설집 1』(46)과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해방기대이다.

#### (33) 남석마을에 찾아온 녀인

1941년 가을 직두천 기슭 남석리에 온 녀인이 사람들에게 두만강 건너 화룡현에 살 때 김일성장군과 유격대원들이 왜놈을 격퇴하고 구름타고 사라졌다는 말을 하고, 라남에 장군이 왔다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말을 퍼뜨리자 왜놈경찰이 녀인을 가두고 협박과 회유를 했으나 끝내 굽히지 않았다는 해방기대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이 녀인이 장군을 구세주로 믿는 평범한 백성중의 한사람이며, 이 고장 사람들이 이를 사실이라 믿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 (34) 어둠은 깨질것이다

1944년 겨울 금강산에 천둥소리와 함께 바위에 암파(暗破)라는 글자가 새겨져 그 의미를 안 주민들이 모두 기뻐했다는 해방기대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용마를 타고 와 손수 바위에 새겨 놓은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35) 피현독

1930년대 중엽 피현군 상고리에서 독을 빚는 박노인은 언젠가부터 만든 독이 나빠져 고심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길손 최순이가 일을 도와주어 좋은 독만을 만들던 중 어느날 가마에서 어느 누구도 새기지 않은 김일성장군의 이름이 쓰인 독이 나와 기뻐하

었다는 해방기대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최순이가 백두산대장수의 부하일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백두산전설집 1』은 총 46편, 『백두산전설집 2』는 총 35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백두산전설집 1』은 이미 나왔던 『백두산전설』과 29편이 중첩되고 있으며, 『백두산전설집 2』는 『백두산전설』과 4편, 『백두산전설집 1』과 1편이 중첩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백두산전설집 1』은 『백두산전설』을 토대로 하여 편찬되었으며, 『백두산전설집 2』는 『백두산전설집 1』 이후에 새로이 수집·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면은 편찬자인 김우경이 『백두산전설집 1』에서는 정리자로, 『백두산전설집 2』에서는 수집·정리자로 명기되고 있는 것에서도 입증된다. 이 두 전설집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백두산전설집 1』과 『백두산전설집 2』는 『백두산전설』과 달리 동일한 인물에 의해 편찬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북한설화집에 있는 머리말 부분이 『백두산전설집 2』에서는 생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권의 책을 동일 맥락에서 고찰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시기는 『백두산전설집 1』과 『백두산전설집 2』가 공히 서두의 편을 해방의 준비단계인 백두산장군벌의 등장으로, 발미의 편을 해방을 알리는 조짐 등으로 구성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편년체적 구성방식으로 이루어진 『백두산전설』과 달리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있다. 또한 상기의 내용에서 보듯이 구체적인 시기가 명시된 편 역시 대단히 적다. 그 원인은 우선 이 책들이 전설에 실제의 역사적 사건을 부합시킴으로써 구체적인 시간을 밝히고 있는 『백두산전설』과 다른 체재로 구성되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편찬자는 이 책들을 편찬함에 있어서 『백두산전설』과는 달리 실제의 역사적 사건을 모두 생략하고 전설만을 수록함으로써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책들에 수록되어 있는 전설들에서는 실제적 사실 보다는 전설적인 요소가 보다 중시되고 있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즉 편찬자는 『백두산전설집 1』의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전설의 창작배경이 ‘일제의 삼엄한 감시와 언론탄압조치로 말미암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소식들이 대부분 실재한 사실 그대로 구체적으로 서사화되지 못한채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과정에 내용이 가공윤색되어 전설적 요소를 띠게 된’ 데에 있다고 인식함으로써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다.

장소는 『백두산전설집 1』과 『백두산전설집 2』가 『백두산전설』과 마찬가지로 압록강

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조선 북부지역과 중국 동북지역이 주된 지역이다. 그러나 많은 편에서 활동무대가 백두산 근처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타지역이라 할지라도 중국에는 백두산쪽으로 사라진다는지 백두산에 들어가 장수의 부하가 된다는지 하여 백두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활동무대를 백두산으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백두산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은 60편중 9편에 지나지 않는 『백두산전설』과는 확연히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이는 편찬자가 실제의 역사적 사건을 모두 생략함으로써 『백두산전설』에서 드러난 문제점, 즉 모든 전설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생겨난 것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나타난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시정 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백두산전설집 1』에서의 백두산은 우리나라의 성산이자 조종의 산으로 조선땅 지맥의 뿌리이고(13, 14, 21, 28), 낮만 있는 별천지이며(5), 힘이 나고 병을 낫게 하는 산삼·녹용·마늘·파·속 등이 지천으로 있는 곳(11, 14, 35)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백두산전설집 2』에서의 백두산은 동방의 영지로 모든 산의 조종이자 근본뿌리이고(1, 12), 지상천국이며(27), 조물주가 앉았던 용좌(2)로 묘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백두산을 중심으로 활동무대를 설정한 것은 김일성의 우월성과 김일성 출현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등장인물에 있어서 김일성이 주체자로 등장하는 것은 『백두산전설』과 중첩되는 편을 제외하면 『백두산전설집 1』이 17편 중 3편이며, 『백두산전설집 2』이 31편 중 9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머지 편은 주체자는 유격대원과 그의 가족, 화전민, 어부, 처서군, 포수, 농민, 머슴, 노동자, 장수, 솟장이, 가마장이, 마을주민 등 여러 부류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어 철도노동자가 유일한 주체자로 등장하는 『백두산전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목할만한 것은 이러한 인물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장군의 부하가 되기 위해 백두산으로 간다는 것이다(『백두산전설집 1』의 7, 13, 17, 21, 23과 『백두산전설집 2』의 1, 4, 13, 25, 27, 28, 30). 일제에 의해 고통을 받고, 그 만행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하층민이 주체자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백두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백두산전설집 2』의 (13)에서 보이듯이 ‘노동계급력과 힘을 합쳐 전민항쟁을 하자는 사상’이 반영된 결과이다. 물론 이들이 주체자로 등장하는 편에서 김일성은 협력자이자 중여자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김일성이 주체자인 경우 도움을 청하는 요청자는 사실상 조선인민 전체로 설정되어 있고, 주체자를 돕는 협력자는 대부분 그가 이끄는 유격대원이며, 주체자에게 신비한 도움을 주는 중여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주체자에 맞서는 궤방자로는 일제군경이 거의 대부분이나, 위만군·정안군·지주·목재소

주임·마을구장 등도 가끔 등장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백두산전설』과 달리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역사적인 사실을 생략한 대신 이를 통해 전설의 핵심이 되는 사실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다.

당면한 문제의 대부분은 『백두산전설』과 마찬가지로 일제식민통치에 따른 일제의 만행과 사람들의 암울한 처지, 이러한 현실을 야기시킨 일제군경을 비롯한 궤방자들에게 대한 공격, 그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일제군경을 비롯한 궤방자들의 공격 등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제군경과의 싸움이 주요 문제로 부각되었던 『백두산전설』과 달리 하층민의 암울한 생활이 보다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평범한 인물들이 주체자로 등장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인물들의 문제는 김일성이 주체자로 등장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협력자이자 증여자인 김일성의 조화에 의해 모두 해결되고 있다. 김일성이 주체자로서, 협력자 내지 증여자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해결능력은 김일성을 『백두산전설집 1』에서 찬란한 태양으로서(24), 생명이자(44) 천지조화자(29)로서, 백두산 산신령인 호랑이의 호위를 받는(31) 성인으로서(45), 『백두산전설집 2』에서 하늘이 낸 위인이자(18, 21, 28) 나라를 구할 위인으로서(1), 만민의 태양으로서(4), 조선의 하늘님(8)이자 구세주로서(33) 형상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문제해결은 오직 김일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백두산전설집 1』의 (20)에서와 같이 중이나 무당이나 전도부인도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면은 어떠한 물건이든 원하는대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보물뒤옹박이나 100리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신비한 거울이 아무나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김일성만이 운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백두산전설집 2』의 (17)과 (23)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는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그것은 오직 혁명의 뇌수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창조적 지향의 최고체현자인 수령만이 할 수 있다’<sup>6)</sup>는 것을 보이기 위한 전승자의 의도로부터 나온 것이라 할 것이다.

주제에 있어서 여러 주제가 공유되어 있는 편들이 있어 두 권의 총편수인 80편보다는 많은데, 전승 20편, 피신 15편, 해방기대 14편, 일제의 말로 13편, 응징 9편, 해방서광 8편, 인민사랑 6편, 풍모 5편, 정찰 3편, 혁명선도 2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승 22편, 피신 11편, 일제의 말로 7편, 혁명선도 6편, 해방기대 6편, 응징 4편, 해

6) 김정웅, 『주체적 문예이론의 기본 2』, 문예출판사, 1992, p.113.

방서광 4편, 풍모 3편, 인민사랑 2편, 정찰 2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백두산전설』과 대동소이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주제는 전부 전승이나 전승에 관련된 것들이다. 이러한 양상은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책이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항일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고귀한 혁명적 재부이며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집대성된 혁명적인 구전문학유산’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는 편찬자의 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전승자, 즉 이 책의 편찬자는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전설이 실제적 기초를 가지고 일련의 환상수법으로 가공윤색되는 것인데, 백두산 전설은 항일혁명투쟁 사적을 깔고 당시 항간에 널리 알려져 있던 장군의 천변만화의 유격전술들을 환상적으로 반영한 것이며, 여기에는 온 민족이 탁월한 수령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을 때 위대한 영웅이 출현하여 일제의 백만대군을 휩쓸어버린 사실 자체가 전설적 형상을 낳을 수 밖에 없게 하는 역사적 합법칙성이 내재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전설에는 역사성과 아울러 환상, 다시말해 허구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전설과 역사적 사실을 분리해 수록함으로써 전설이 시간·공간·등장인물·증거물 등의 측면에서 구체성을 띠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 구조도 갖추지 못해 전설집으로서 대단히 미흡하게 구성되어 있는 『백두산전설』과 달리, 『백두산전설집 1』·『백두산전설집 2』의 편찬자는 역사적 사실을 전적으로 생략하는 대신 전설 안에서의 시간·공간·등장인물·증거물 등을 구체화 함으로써 역사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환상수법’을 통해 온전한 이야기 구조를 갖춘 전설을 내 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역사성과 아울러 허구성을 중시했다는 것은 편찬자가 『백두산전설집 2』에서 사실의 전설화를 시사하면서도 ‘사실이 어떻든지간에’(14), ‘확증된 자료는 없다’(16),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누가 과장하여 한 말인지는 모른다’(28), ‘아마도 --- 창조된 것 같다’(31), ‘아마도 --- 아닐까’(33) 등으로 역사적 사실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는 ‘수령형상작품을 역사적사실에 의거하여 창작한다고 하여 예술적 환상과 허구를 배제하여서는 안되며’<sup>7)</sup>, ‘예술창조의 합법칙적요구로서의 예술적 허구는 수령형상작품창작에도 작용하면서 역사적사실에 내재하는 그의 본질적의의를 예술적으로 강조하고 돋구어준다’<sup>8)</sup>는 최근의 이론과 부합하는 것이다.

7) 김정웅, 『주체적 문예이론의 기본 2』, 문예출판사, 1992, p.118.

8) 윤기덕, 『수령형상문학』, 문예출판사, 1991, p.235.

### III. 일반전설집의 체재와 성격

북한의 설화집 중 필자가 볼 수 있었던 것은 22종이었다. 이를 시기순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구전문학자료집 - 설화편』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구전문학연구실, 사회 과학원 출판사, 1964)
2. 『우리나라 옛이야기 1 - 피동이의 지혜』 (학우서방, 1980)
3. 『우리나라 옛이야기 3 - 옥란봉이야기』 (학우서방, 1981)
4. 『우리나라 옛이야기 4 - 호동과 락랑공주』 (학우서방, 1982)
5. 『우리나라 옛이야기 6 - 선바위이야기』 (학우서방, 1984)
6. 『우리나라전설 1 - 평양의 금란화』 (송봉렬 편, 금성청년출판사, 1985)
7. 『재미나는 옛이야기 1』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문학사실, 근로단체출판사, 1986)
8. 『재미나는 옛이야기 2』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문학사실, 근로단체출판사, 1986)
9. 『재미나는 옛이야기 3』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문학사실, 근로단체출판사, 1986)
10. 『우리나라 옛이야기 - 겨울딸기』 (리도현 편, 금성청년출판사, 1986)
11. 『조선민화집 1 - 고주몽』 (김원필 편, 금성청년출판사, 1986)
12. 『조선민화집 2 - 콩쥐팥쥐』 (김형운 편, 금성청년출판사, 1986)
13. 『조선민화집 4 - 의좋은 형제』 (김청일 편, 금성청년출판사, 1987)
14. 『조선민화집 10 - 금강선녀』 (한기연·전승화, 금성청년출판사, 1987)
15. 『조선민화집 12 - 달미바람』 (최낙서 편, 금성청년출판사, 1987)
16. 『조선민화집 16 - 을지문덕의 장검』 (림왕성 편, 금성청년출판사, 1987)
17. 『조선민화집 5 - 해와 달』 (김박문 편, 금성청년출판사, 1988)
18. 『조선민화집 3 - 토끼와 자라』 (전종섭 편, 금성청년출판사, 1989)
19. 『조선민화집 15 - 금산포의 도라지』 (로효식 편, 금성청년출판사, 1991)
20. 『조선민화집 17 - 도미와 그의 안해』 (리송필 편, 금성청년출판사, 1991)
21. 『조선민화집 2 - 범 잡은 이야기』 (김영길 편, 학우서방, 1990)

## 22. 『조선구전문학자료집 - 평양전설』 (김정설 편, 사회과학출판사, 1990)

이상 22종의 설화집 중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온 1은 전설·민담·동화·우화가 동시에 실려 있고, 2-5와 7-10, 그리고 11-21은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민담집이며, 6과 22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전설집이다. 이들 설화집은 시기별로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다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동일 편찬기관에 의해 동일한 분야의 이야기들이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편찬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 기관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이들 설화집을 편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면은 11-21의 『조선민화집』의 순서가 편찬 연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특히 이들 설화집은 1980년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편찬되는데, 이는 김일성전설집이 1980년대부터 발간되고 있으며, 주체사상에 입각한 문예이론이 1975년 이후부터 대두되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북한에서의 구비문학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 설화집에는 대부분 머리말이 붙어 있는데, 그 내용은 수록한 설화들의 내용·의의·편찬목적, 그리고 읽으면서 유의해야 할 점 등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져 있다.

내용에 있어서 이들 설화집은 착취계급의 부패무능·탐욕성·착취성·인색성에 대한 폭로와 항거, 외적에 대한 증오와 항거를 통한 애국심, 조국산천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긍지, 부모에 대한 효성과 형제간의 우애, 권선징악의 사상, 노동에 근면하고 재물보다 인간의 깨끗한 양심과 의리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성품, 근로인민의 지혜·창조적 재능·아름다운 도덕 품성, 착취없고 억압없는 새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염원 등의 설화들로 구성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설화의 의의 및 편찬목적에 있어서 이들 설화집은 청소년 학생들을 비롯한 독자들이 생활의 교훈을 습득하고, 조국과 인민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 긍지를 가지게 함으로써 자신을 참다운 애국자·혁명가로 키워나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편찬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유의점에 있어서 이들 설화집은 자연과 사회현상의 변화발전을 용왕·부처·하느님과 같은 신의 조화로 묘사하는 것, 자기의 투쟁이나 노력으로써가 아니라 선량한 양반이나 임금 내지 도깨비나 신적인 인물에 의해 잘살게 되는 것, 인민의 주체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신적인 인물에 의해 구원받는 것, 인민들의 염원이 투쟁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도술이나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항거의 정신을 투쟁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보여주는 것, 인간

의 행복을 환상의 세계에서 찾는 것, 착하기만 하면 저절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 등이 모두 사상적 내용에 있어서 시대적 제한성, 즉 비과학적 세계관으로부터 온 결함이라 지적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다시말해 『토끼와 자라』의 머리말에서 보이듯이 이러한 부정적인 면들은 ‘행복이나 희망은 그 누가 가져다 주지 않으며 오직 자신들이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는 진리를 모르던 당시 사람들의 계급적 제한성에서 온 것’이므로 이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설화집은 『구전문학자료집 - 설화편』의 머리말에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이 계급교양과 애국주의 교양에 도움이 되고,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설화들만을 추려 편집하였으며, 전승과정에서 과학적으로 잘못 전달되었거나 문맥상·표현상 잘못된 것은 그들의 긍정적인 세계관에 의거하여 나름대로 가필을 하였다는 특징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다시말해 북한설화집에는 설화의 비중면에서 뿐만 아니라, 설화 자체의 내용면에까지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의도가 상당히 깊숙히 개입되어 있다는 특색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한의 설화집들이 현재 전승되는 설화를 무작위로 채록하여 특정 지역별로 묶어 발간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면은 문학을 단순한 정서나 교양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혁명의 무기로 인식하는 북한의 사회주의 문학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설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며, 그러한 설화들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물론 이는 그들이 머리말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내세우는 과학적인 세계관, 즉 계급적인 세계관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입관이나 당위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분석에 임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칭하는 민화, 즉 민담의 가장 큰 특징은 보편성에 있다. 전승지역의 측면에서 신화나 전설은 국가나 민족, 혹은 마을공동체에 국한되는 반면, 전설은 어느 한 정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역성은 신화의 경우 신성성이 보장되는 지역이 국가나 민족에 국한되며, 전설의 경우 역사성이 보장되는 지역, 즉 증거물이 확보되는 지역이 마을공동체에 국한된다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나 민담은 신성성이나 역사성이 아닌 흥미성을 위주로 하기에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전승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담은 대체적으로 보편성을 띠 수 밖에 없으며, 지역적 특색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말해 남한과 북한에 전승되는



설화중 민담은 상동성을 위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태여 비교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보다는 변이성을 위주로 한 전설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민족분단이 문학에, 특히 구비문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고찰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지역적 특색이 드러나지 않는 민담집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북한의 지역적 특색이 잘 드러나고 있는 전설집인 『우리나라전설 1 - 평양의 금란화』와 『조선구전문학자료집 - 평양전설』을 분석하기로 하겠다. 특히 이 두 권의 전설집은 공히 평양 부근의 전설을 수록하고 있는데, 유사한 내용의 이야기가 두 책에 공히 수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이는 곧 이러한 중복된 설화가 그들이 말하는 과학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긍정적인 전설의 대표적인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전설집 소재의 전설 모두를 각기 분석할 필요없이 중복하여 수록한 전설들만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이들 전설집과 그 전설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평양의 금란화』와 『평양전설』에 중복하여 수록된 전설은 모두 23편이다. 최근에 발간된 『평양전설』을 위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백은탄 (대동강에 잠긴 은종)<sup>9)</sup>

멀고 먼 옛날 모란봉꼭대기에 은종이 있어 외적들이 이를 탐내 평양성으로 쳐들어오자 평양성 사람들이 이를 대동강물 속에 숨겨두었는데, 검은 룡이 물고 달아나 사람들이 통곡을 하던 중 붉은 룡이 달려와 힘을 합쳐 싸운 끝에 은종을 되찾게 되어 이 곳을 백은탄이라 했다는 내용이다.

#### (2) 왕성탄 여울 (왕성탄의 유래)

고구려 때 외적이 평양성을 공격하여 곤경에 처했을 때 비가 내려 대동강이 범람하게 되었는데, 왕손이라는 군사가 대동강에 몸을 던지자 강바닥이 드러나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적을 격퇴하여 이 곳을 왕손탄, 왕성탄이라 하였다는 내용이다.

#### (3) 온달장군 (온달장군)

고구려 온달은 궁궐에서 쫓겨난 공주와 결혼하여 그녀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고 무술을 닦아 사냥경기에서 장원을 하였는데, 외적이 침략하자 그들을 격퇴하고 후에 전쟁터에서 죽었으나 관이 움직이지 않아 공주가 친히 말하여 관이 움직였다는 내용이다.

#### (4) 룡족부인과 그의 아들들 (룡족부인과 두 아들)

9) 앞의 것은 『평양전설』의 제목이며, 괄호안의 것은 『평양의 금란화』의 제목임.

고구려 때 대성산 기슭에 사는 록족부인의 두 아들이 지주의 아들을 실수로 죽여 그 마을을 떠나다 록족부인과 헤어졌는데, 후일 외적이 쳐들어오자 록족부인은 을지문덕을 찾아가 함께 싸울 것을 간청하여 을지문덕을 돕던 중 적장 두 명이 자신의 아들임을 알고 그들을 만나 고구려진영으로 넘어 온 뒤 이들과 함께 외적을 물리쳤다는 내용이다.

(5) 오탄 (오탄 까마귀 여울의 유래)

임진전쟁 때 왜놈들이 평양성을 쳐들어왔으나 대동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는데, 썰물 때인 낮에 까마귀가 걸어다니는 곳을 발견한 소서행장이 밀물 때라 그 곳이 깊어진 줄 모르고 밤에 공격을 하며 건너다 모두 몰살해 이 곳을 오탄이라 했다는 내용이다.

(6) 계월향과 의렬사 (계월향의 연, 대들보에 박혀서 운 칼)

임진전쟁 때 평양성이 왜놈에게 유린되자 기생인 계월향이 연을 띄워 적의 내부동태를 김웅서에게 보내 적장 소섭을 베고, 이들을 추격하는 적을 따돌린 후 자결하여 평양사람들이 의렬사라는 사당을 지어주었다는 내용이다.

(7) 형제못 (형제못이야기)

리조 초기 대성산을 근거지로 봉건통치배에 항쟁한 농민폭동군 중 태갑과 태을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옥에 갇혀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동료들을 구하다 죽자 폭동군들이 두 못가에 앉아 이들을 기려 이 못을 형제못이라 하였다는 내용이다.

(8) 룡라도 (떠내려온 룡라도)

몇백년전 성천의 비류강에 있던 룡라도에 사는 사람들이 봉건통치배들의 착취로 고생을 하고 있던 중 장마철에 큰비가 내려 섬이 떠내려가 대동강 북판에 멈추자 성천의 부사가 조세를 성천에 갖다 바치라 하여 고생이 혹심하였는데, 평양 감사가 성천부사에게 룡라도를 다시 가져가든지 평양성에 넘기든지 하라 하여 결국 룡라도가 평양성의 땅이 되어 사람들이 조세를 날라가는 고역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9) 금란화 (평양의 금란화)

고려 성종 때 외적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봉건통치배들은 대동강에서 뱃놀이만 하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 끌려간 금란화는 술판에서 그들을 꾸짖으며 대동강에 몸을 던지자 다른 처녀들도 모두 몸을 던졌는데 후에 대동강에 성하게 된 계는 이 처녀들의 혼백이라는 내용이다.

(10) 구룡못 (구룡못의 오누이)

오랜 옛날 대동강과 잇닿아 있는 대성산의 구룡못에 심술궂은 룡들이 비를 내려주지

않아 가뭄이 들었다고 생각한 관리들과 지주는 기우제를 지내기 위한 제물로 차돌이와 버들아기네 소를 끌어갔는데, 그래도 비가 오지않아 화가난 차돌이가 술놀이를 하고 있던 관리들과 지주를 죽이고 구룡못에 가서 룡들과 담판을 지려고 하였으나 그 곳에는 룡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구룡못에 빠져 죽자 동생도 따라죽어 그 후 이 곳에는 이들의 녀인 차돌과 버드나무가 무성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11) 청녀못 (청녀지이야기)

옛날 련광정 근처의 부자집에서 종으로 있던 청녀는 아이를 대동강에 빠져죽게 했다는 누명을 쓰고 주인너편네의 손에 밀려 련못에 빠져 죽었는데, 다음날 련못에서 청녀가 불쑥 솟아올라 자기의 무죄를 항변하듯 아이의 신발을 들고 나타나 점점 커지자 주인과 너편네가 기절초풍하여 죽어 그 련못을 청녀못, 청녀지라 했다는 내용이다.

(12) 병 속의 극락세계 (병 속의 즐거운 세상)

몇백년전 평양성의 북문앞에 사는 정직하고 근면한 노인이 한 늙은이에게 호의를 베풀고 보답으로 병을 받았는데, 그 속에서 활활한 전경이 펼쳐지고 있음을 들여다 보고 있자 한 녀인이 나와 데리고 들어가 그 곳 생활을 즐기던 중 고향이 그리워 다시 나왔다는 내용이다.

(13) 궁노 이사달 (안학궁의 산호벽돌)

고구려 때 대성산에 안학궁을 지을 무렵 산호벽돌을 만들라는 명을 받은 궁노 이사달은 10년만에 적자색벽돌을 만들었으나 감독관이 산호벽돌이 아니라 하여 사형명령을 내려 죽기직전 품에 있던 그 벽들로 칼을 막자 칼이 부러져 죽음에서 면했다는 내용이다.

(14) 설암리 (청류벽에 깃든 전설)

몇백년전 대동강 건너편 설암리에 사는 가난한 설씨가 눈물을 흘리는 잉어를 사서 대동강물에 놓아주었는데, 꿈속에서 어린아이의 인도로 룡궁에 가 룡왕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고 사례하려 하자 개인의 청을 한 것이 아니라 홍수방지를 위해 대동강물을 모란봉쪽으로 돌려달라는 부탁을 하고 잠에서 깨었는데 후에 정말 그렇게 되어 사람들이 사당을 지어주고 이 곳을 설암리라 하였다는 내용이다.

(15) 주암산 (주암산이야기)

먼 옛날 대동강 기슭에서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총각이 나무를 하고 오다 샘터에서 술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아버지에게 떠다드리자 마을사람들이 이를 의심하였는데, 후에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마을사람들은 효성이 지극하여 하늘이 한 것이

라 기뻐하며 그 바위를 주암, 그 산을 주암산이라 하였다는 내용이다.

(16) 의암리 (대동강의 선녀옷)

먼 옛날 대동강 기슭에서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충각이 목욕하는 선녀들을 보고있던 중 선녀옷 하나가 충각의 집근처에 떨어졌는데, 옷이 없어 하늘에 돌아가지 못하는 선녀에게 옷을 돌려주자 사례로 하늘에 있는 복숭아를 주어서 아버지께 드리자 병이 나았다는 내용이다.

(17) 어린 사슴을 구원해준 만옥이 (아기사슴과 처녀 머슴)

먼 옛날 창관산 기슭에 욕심많은 지주집 종살이를 하는 만옥이가 살고 있었는데, 단 오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하고 있던 중 사냥군에게 쫓기는 사슴을 구해준 보답으로 산 삼밭을 발견하여 마을사람들과 나누어 가지는 한편 자신은 종신세를 면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18) 은혜를 갚은 까치 (은혜갚은 련광정 까치들)

옛날 대동강가에 마음 착하고 어진 어부가 뱀에게 쫓기는 련광정 까치들을 구해주었는데, 며칠뒤 배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까치가 내는 종소리를 듣고 깨어나자 뱀이 배 위로 기어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노로 쳐서 목숨을 구했다는 내용이다.

(19) 대성산의 산삼 (열두뿌리의 산삼)

오랜 옛날 대성산 기슭에 사는 효성 지극한 젊은이가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산삼을 캐러 친구들과 함께 갔는데, 산삼을 발견하자 친구들이 벼랑에 서있는 젊은이를 내버려둔 채 산삼을 가지고 도망을 갔으나 뱀이 나타나 그를 구해주고 녀인이 나타나 산삼을 돌려주어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였으며 그 친구들은 벼락을 맞아 죽었다는 내용이다.

(20) 수전노의 환갑잔치 (다섯마리의 꼬마황소)

옛날 동평양 영제교 입구에서 련인숙을 하는 한 수전노가 장사속으로 자신의 환갑잔치를 하여 사람들의 원성을 샀는데, 이 곳에 머물던 중이 이를 괘씸하게 여겨 허리춤에서 동으로 만든 소 다섯마리를 꺼내놓자 점점 커진 소들이 나가서 집안의 모든 것을 삼키고 돌아와 다시 작아져 수전노가 망했다는 내용이다.

(21) 평양에 내린 신선 (모란봉의 젊은 신선)

예로부터 평양의 산천이 아름다워 신선이 자주 내려왔는데, 한 선남이 신선의 약을 써서 농부의 병든 딸을 구해주고 인간세상에 자주 내려오자 옥황상제가 이를 금지하였지만 단조로운 신선생활보다 로동으로 즐기고 보람을 느끼는 인간생활이 더욱 재미있

게 느껴지는 선남은 몰래 내려와 농부의 딸과 결혼해 잘살았으며, 이 때부터 이 곳을 강선이라 하였다는 내용이다.

(22) 달맞이꽃 (달맞이꽃)

고구려 때 안학궁의 동북쪽 입구인 시족원에 외교에 능한 김괴라는 관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수완을 배우고자 하는 젊은 관리가 보니 김괴는 외국 사신으로 나가 외교 보다는 꽃을 구하는데 힘써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중 평양성이 꽃 하나라도 다른 나라에 뒤지게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새겨 후일 능숙한 외교관이 되었으며, 이 때부터 시족원에는 평양성의 명예와 존엄을 일깨워주는 달맞이꽃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23) 려옥과 매화꽃 (살아남은 매화꽃)

수백년전 평양성에서 아버지와 살던 려옥은 매화꽃이 왕실의 꽃무늬와 비슷하여 임금과 천민의 구별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매화나무를 전부 베어 버리라는 명에도 불구하고 애지중지하는 매화나무를 베지 않았는데, 이를 안 관속들이 베려 하자 살구나무로 속여 꽃이 피는 계절에 다시 확인하기로 하여 위기를 일단 모면하였으나 봄이 되어 죽을 날만을 기다리던 모녀는 매화나무에 흰꽃이 아닌 분홍꽃이 피어나 목숨을 구했으며 이때부터 연분홍빛 매화가 퍼지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장소에 있어서 이들 전설은 그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평양 근방을 주 무대로 삼고 있다. 이는 『평양전설』에서 대동강과 관련하여 봉이 김선달 전설을 무려 34편이나 별도로 실고 있다는 것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시기에 있어서 막연한 옛날이 10편, 몇 백년전이 4편, 고구려 때가 5편, 임진전쟁 때가 2편, 고려와 이조 때가 각 1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이한 것은 『평양전설』의 경우 동명왕릉에 관련된 전설을 맨 앞에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상의 공편되는 전설 이외에도 두 전설집에서 공통적으로 고구려 시기의 이야기를 많이 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고구려의 정기를 이어 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근래에 북한이 단군왕릉과 동명왕릉을 발굴·복원하였음을 대대적으로 대외에 표명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민족 정체성 계승이라는 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등장인물에 있어서 주체자는 일반적인 평양사람들·기생·머슴·종·농민폭동군·군사로부터 장수·외교관·신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을 돕는 협력자로는 용·까치·뱀 등과 같은 동물이 주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에게 도움을 청

하는 요청자로는 잉어·사슴과 같은 동물들과 신선·선녀와 같은 천상의 인물 등이 등장하고 있으며, 주체자에게 신비한 도움을 주는 중여자는 요청자로 등장하는 동물이나 인물들이 주체자의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주체자에게 신비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요청자와 같은 용왕·사슴·신선·선녀 등이다. 주체자에 맞서는 훼방자로는 외적·왜놈 등과 같은 대외적인 적과 봉건통치배로 지칭되는 임금·관리·지주·부자 등이 등장하고 있다. 특정계층이 아닌 일반적인 인물들이 주체자로 등장하고 있고, 동물들이 협조자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요청자가 곧 중여자의 기능을 동시에 행하고 있으며, 외적 및 봉건통치배가 훼방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등장인물의 관계는 북한의 전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전설에서도 공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물론 대외적인 적을 제외한 나머지의 훼방자를 모두 봉건통치배로 설정함으로써 북한의 전설이 어느 정도의 편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훼방자의 범주는 남한의 전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어서 남·북한 전설의 상동성이 확인된다. 그러나 수많은 훼방자의 부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훼방자가 이처럼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은 이 전설들이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일정한 의도에 의해 선택·수록된 사정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이 이러한 훼방자가 등장하는 전설만을 선택·수록한 것은 ‘인류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며, 이는 사회적 예속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본질에 있어서 사람에게 의한 사람의 착취와 압박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sup>10)</sup>이라는 북한의 갈등관으로부터 야기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은 문헌에 이미 정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배계층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온달이 두 전설집에 공히 주체자로 등장하는 것이 ‘온달의 형상을 통하여 근로하는 인민이야말로 그 힘과 지혜에 있어서 지배계급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sup>11)</sup> 위함에 있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당면한 문제로는 외적의 침입으로 인한 위기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봉건통치배의 폭정·착취로 인한 고통, 가뭄이나 홍수로 인한 곤란, 병든 가족 구완 등 대내·외적인 문제가 골고루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중 대외적인 문제는 주체자 자신의 적극적인 대응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대내적인 문제는 주체자 자신의 힘 보다는 중여자나 협력자의 도움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주체자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6)에서 처럼

10) 김정웅, 『주체적 문예이론의 기본 2』, 문예출판사, 1992, p. 230.

11) 장권표, 『조선구전문학개요 - 고대중세편』, 사회과학출판사, 1990, p. 59.

왜적과 더 이상 항쟁하지 못하고 자결하는 계월향, (7)에서 처럼 봉건통치배에 의해 죽는 태갑과 태을, (9)에서 처럼 외적의 만행에 직접 항쟁하지 못하고 대동강에 몸을 던지는 금란화, (10)에서 처럼 관리들과 지주의 만행에 못이겨 구룡못에 빠져 죽는 차돌이, (11)에서 처럼 누명을 쓰고 주인여자의 손에 밀려 연못에 빠져 죽는 청녀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이 나타나는 원인은 전설의 특성이 비극성에 있다는 것, 다시말해 전설의 일반적인 특징이 평범하거나 비범한 주체자가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데에 있다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전설집에서 비극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일반전설집에서 처럼 다양하면서도 일반적인 인물이 주체자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힘을 지닌 김일성에 의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에 있어서 북한의 『조선구전문학개요』<sup>12)</sup>의 구분에 따르자면, 반침략애국투쟁 전설이 8편, 반봉건투쟁 전설이 8편, 인정세태 전설이 6편, 명승 전설이 1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침략애국투쟁 전설은 애국주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며, 반봉건투쟁 전설은 봉건통치배의 학정·약탈·전횡, 중세기 부역의 가혹성, 봉건지주의 착취상, 그리고 이에 대한 부정적 대응인 이상향 동경 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인정세태 전설은 효성·보은·남녀사랑을 그린 것이며, 명승전설은 아름다운 경치와 불교의 선전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 중에서 반침략애국투쟁 전설과 반봉건투쟁 전설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생활은 곧 투쟁이며, 이러한 혁명투쟁을 벌이는 목적은 온갖 사회적 예측과 불평등을 없애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데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생활을 묘사해야 한다’<sup>13)</sup>는 사회주의 문학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즉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은 이러한 문학관에 입각해 이러한 전설들을 선택·수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은 『평양전설』의 <우릉과 소미>에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평양을 위해 금수산의 절경과 명승을 노래하는 것보다도 언제든지 외적을 막아낼수 있는 무술을 익히는 것이 더 절실’하며, <칠성문>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젊은이들은 무술을 배우며 행복의 문인 칠성문을 통과해야 한다’ 하여 문(文) 보다는 무(武)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명승 전설이 많지 않은 것은 『평양전설』의 <탈의우>와

12) 장권표, 『조선구전문학개요 - 고대중세편』, 사회과학출판사, 1990, pp.53-97. 참조.

13) 김정웅, 『주체적 문예이론의 기본 2』, 문예출판사, 1992, pp.125-132. 참조.

<우릉과 소미>에서 나타나듯이 '평양성이 우리나라에서 태양이 제일 가까이 비치는 나라의 중심지'로서 '오랑캐의 침략이 밋은 적이 없었던 곳'이므로 투쟁에 관련한 전설이 주류를 이룬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투쟁의 역사가 없는 금강산전설의 대부분이 명승전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이에 대한 방증이 될 것이다. 또한 인정세태 전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세태풍속이 민족적 색채를 진하게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사람들의 계급적 지향과 리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태풍속적인 생활을 그리는데 치우치는 경향을 없애고 전형적인 민족생활을 풍부하고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sup>14)</sup>는 북한의 문학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은 북한에서 말하는 효성·보은·남녀사랑을 그린 세태풍속적인 전설, 즉 인정세태 전설이 남한의 설화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전승자 인식은 김일성전설집 만큼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천상의 세계 내지 신선의 세계 보다는 지상의 세계 내지 인간의 세계가 보다 보람있고 즐거운 세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상기의 전설 (21)에서 전승자는 '놀고먹기만 하는 단조로운 신선생활보다 로동으로 즐기고 보람을 느끼는 인간생활이 더욱 재미'있으며, (12)에서 '비록 험한 세상에서 자기가 굶주리고 헐벗으며 외롭게는 살지만 금수강산 모란봉은 여기보다(이상향) 더 아름답지 않은가'라고 인식함으로써 천상의 신선세계 보다는 지상의 인간세계가 가치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식태도는 상기의 민담집 『금강선녀』 중 <금강선녀>·<토끼바위>·<금강산으로 시집온 반달이>·<너도밤나무>, 『고주몽』 중 <하늘에서 내려온 첫 임금>, 『재미나는 옛이야기 3』 중 <금강선녀와 나무꾼총각>, 『금산포의 도라지』 중 <금산포의 도라지> 등에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식태도는 곧 신(神) 보다는 인간이 우월하며, 종교의 세계는 허망하다는 인식으로 직결되어 나타난다. 『을지문덕의 장검』 중 <을지문덕의 장검>에서 무예를 닦던 을지문덕이 정성이 지극하여 하늘에서 내려준 장검을 받아들였으나 사실 이 장검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 아니라 애국심에 불타는 대장간 노인이 만들어준 것이었고, 『범잡은 이야기』 중 <부처가 준 사위>에서 외동딸의 배필을 접지해 줄 것을 부처에게 간절히 비는 것을 본 가난한 나무꾼 총각이 부처에게 비는 행위를 가소롭게 생각하여 부처 행세를 하여 그 부모를 속였으나 결국 그 부모는 마음이 착하고 일을 억척같이 잘하는 그 총각에게 딸을 시집보냈으며, 『평양전설』 중 <잉어고기를 먹은 처녀>에서 용궁에서

14) 김정웅, 『주체적 문예이론의 기본 2』, 문예출판사, 1992, p.149.



보내온 잉어를 혼자 먹어치운 여인이 늙도록 시집도 못가고 오래도록 혼자 살아야 하는 데에 대한 괴로움과 죄책감을 씻으려 몇년동안이나 부처에게 불공을 드렸으나 허사였다는 것이 그 예이다. 또한 『금강선녀』 중 <달호와 늙은 중>·<부처의 덕망>에서는 불교의 허황함이, <무지개다리>·<거울바위>·<금강산의 소년목수>·<울소>에서는 승려의 음흉함과 포악함에 대한 반감이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종교세계에 대한 적대감 및 인간우위의 사고는 ‘사람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이며, 근로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력사의 창조자’<sup>15)</sup> 라는 그들의 주체사상적 인간관 내지 세계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 IV. 남·북한 설화집의 상동성과 변이성

이제 이상의 김일성전설집과 일반전설집의 내용 분석을 통해 추출된 북한설화집 및 그 설화의 특성이 어디에 있으며, 이는 남한의 설화집 및 설화와 어떠한 관련을 지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시말해 남·북한 설화집 및 설화는 어떠한 상동적 요소와 변이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지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남북분단이 문학, 특히 민간에 전승되는 구비문학에 미친 영향과 그 전망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 1. 혁명성

김일성전설집의 가장 큰 특징은 항일무장투쟁을 통한 혁명성 강조에 있다. 이러한 특징은 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관에 입각한 것이다. 북한에서의 문학은 사상적 무기이자 혁명투쟁의 무기로서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옹기 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참다운 문학이란 근로대중을 위한, 노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에 기초한 혁명적 문학을 말한다.<sup>16)</sup> 그러나 이러한 문학은 노동계급의 당과 수령의 영도를 받을

15)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p. 13.

16) 한중모·김정웅·김준규, 『주체적 문예리론의 기본 3』, 문예출판사, 1992, p. 32.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3, p. 10. 참조.

보내온 잉어를 혼자 먹어치운 여인이 늙도록 시집도 못가고 오래도록 혼자 살아야 하는 데에 대한 괴로움과 죄책감을 씻으려 몇년동안이나 부처에게 불공을 드렸으나 허사였다는 것이 그 예이다. 또한 『금강선녀』 중 <달호와 늙은 중>·<부처의 덕망>에서는 불교의 허황함이, <무지개다리>·<거울바위>·<금강산의 소년목수>·<울소>에서는 승려의 음흉함과 포악함에 대한 반감이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종교세계에 대한 적대감 및 인간우위의 사고는 ‘사람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이며, 근로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력사의 창조자’<sup>15)</sup> 라는 그들의 주체사상적 인간관 내지 세계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 IV. 남·북한 설화집의 상동성과 변이성

이제 이상의 김일성전설집과 일반전설집의 내용 분석을 통해 추출된 북한설화집 및 그 설화의 특성이 어디에 있으며, 이는 남한의 설화집 및 설화와 어떠한 관련을 지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시말해 남·북한 설화집 및 설화는 어떠한 상동적 요소와 변이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지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남북분단이 문학, 특히 민간에 전승되는 구비문학에 미친 영향과 그 전망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 1. 혁명성

김일성전설집의 가장 큰 특징은 항일무장투쟁을 통한 혁명성 강조에 있다. 이러한 특징은 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관에 입각한 것이다. 북한에서의 문학은 사상적 무기이자 혁명투쟁의 무기로서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옹기 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참다운 문학이란 근로대중을 위한, 노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에 기초한 혁명적 문학을 말한다.<sup>16)</sup> 그러나 이러한 문학은 노동계급의 당과 수령의 영도를 받을

15)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p. 13.

16) 한중모·김정웅·김준규, 『주체적 문예리론의 기본 3』, 문예출판사, 1992, p. 32.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3, p. 10. 참조.

때에만 새롭게 다양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며,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제한성을 지니게 될 뿐만 아니라 문학예술의 혁명적 전통이 될 수 없다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sup>17)</sup> 이는 '수령은 당과 혁명의 심장이자 인민대중의 뇌수이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곧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의 최고표현'<sup>18)</sup> 이라는 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즉 수령은 역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사람들을 혁명투쟁의 길로 이끄는 존재이므로<sup>19)</sup> 오직 그의 영도하에서만 혁명투쟁이 성공할 수 있고, 혁명문학이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대한 혁명가의 귀감이자 위대한 인간의 최고전형인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것이 사회주의·공산주의 문학예술, 즉 혁명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다.<sup>20)</sup>

'혁명적 문예전통은 수령의 항일혁명투쟁에서 이룩되었다'<sup>21)</sup> 는 견지에서 이 시기의 김일성을 형상화하는 것은 북한 문학에 있어서 절대절명의 과제였던 것이다. 김일성전설집은 바로 이러한 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관 내지 혁명적 문학관에서 등장한 것이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수령을 창조하는 목적자체가 사람들에게 수령의 위대성을 철저히 체득시키려는데 있는'<sup>22)</sup> 만큼 세 권의 김일성전설집에서의 김일성은 전지전능한 혁명적 존재로 부각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면은 『백두산전설집 1』의 (3)에서 포수는 칠성별을 보고 방향을 잡고, 칠성별은 장군별의 부하로 묘사(『백두산전설집 2』의 (25)에서는 장군의 날개밑에 칠성별이 있다고 묘사)되는 데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포수는 인민, 칠성별은 당, 장군별은 수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비유체계는 인민은 당으로부터, 당은 수령으로부터 영도를 받는다는 그들의 주체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반전설집에서도 역시 김일성전설집과 마찬가지로 혁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항일무장투쟁을 위주로 한 김일성전설집과 달리 외적 및 봉건통치배에 대한 투쟁이 위주가 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든 투쟁에 있어서 김일성전설집의 경우에는 주체자인 김일성의 초월적인 힘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일반전설집의 경우에는 백성의

17) 한중모·김정웅·김준규, 『주체적 문예리론의 기본 3』, 문예출판사, 1992, p. 33.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3, p. 11. 참조.

18)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3, p. 79.

19) 김정웅, 『주체적 문예리론의 기본 2』, 문예출판사, 1992, p. 107. 참조.

20) 윤기덕, 『수령형상문학』, 문예출판사, 1991, pp. 10-11. 참조.

21)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3, p. 12.

22) 김정웅, 『주체적 문예리론의 기본 2』, 문예출판사, 1992, p. 110.

힘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면은 임진왜란 때 관리와 부자들이 평양성을 빠져나가고 있던 중에도 김진이라는 군사가 임금과 중앙관리들에게 백성의 힘을 보여주 고자 무과에 응시하였다는 『평양전설』 <평양성의 명군 김진>, 임진왜란 때 왜놈에게 밀려 좌방어사까지 도망치고 있던 중 농부는 물론 마을 남녀노소들이 힘을 합해 적과 싸워 평양을 지켰다는 『평양전설』 <강동백성들의 애국충성>, 평양의 은종을 외적이 탐 내 물속에 숨겨두자 두 용이 이를 두고 싸움을 하여 주암소 용이 이겼으나 평양사람들 의 뜨거운 마음이 굳어져 뿌리내리고 있었기에 그 용도 이 종을 가져가지 못했다는 『평양의 금란화』 <대동강에 잠긴 은종> 등의 전설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즉 투쟁 의 주체는 지배계층이 아닌 피지배계층인 백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투쟁주체로서의 백성의 힘은 애국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평양전설』 중 효도의 근본은 부모공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향과 나라를 사수하는 데에 있다는 <양 효자>, 세상에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개인의 명예 보다는 국가와 백성의 이익을 위해 꾸준히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객산교>, 군사의 본분은 재물이나 개인의 명예를 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 외적을 막고 생명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는 <임금의 사위 가 된 군사>, 예의지국이란 옛성인들처럼 글귀나 일고 외우는 데에 달려있는 것이 아 니라 고결한 성품과 뜨거운 의리를 지니고 있는 백성들의 됴됨이에 달려있다는 <평양 의 농부와 외국사신>, 외교적 수완은 풍격이나 언변술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 랑하는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달맞이꽃> 등의 전설에서 애국심의 본질이 잘 나타 나고 있다. 즉 나라의 운명은 한 개인의 능력이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의 합심에 달려있는 것이며, 애국심은 모든 윤리·규범·제도·정책 등에 우선하며 이 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혁명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김일성전설집과 일반전설집이 공통점을 지니고 있 지만,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백성의 힘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두 설화집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일성전설집에 있어서의 백성은 일제의 만행에 시달리며 단지 장군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나약한 계층에 불과하나, 일반전설집에 있어서의 백성은 외적과 봉건통치배에 직접적으로 맞서 싸우는 힘있는 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김일성전설집이 김일성 개인을 부각시키기 위해 단기간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반면, 일반전설집은 주제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는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의도가 개 입하기는 하였으나 민간에 전승되는 전설의 모습이 비교적 온전히 수록되었다는 데에 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은 지배계층 보다는 피지배계층이 주체자로 등장하며,

한 개인의 초월적인 능력 보다는 백성들의 합심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유형의 전설이 남한에도 폭넓게 전승되어 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즉 북한의 일반전설집 소재의 전설들은 남한의 전설들과 상동성을 보이지만, 김일성전설집 소재의 전설들은 남한의 전설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일반전설집 소재의 전설들과도 변이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백성의 힘을 강조하는 북한의 일반전설집 소재의 전설들이 남한 전설들과 상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의도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의 일반전설집에서 혁명성이 강조되고, 그 소재의 전설들에서 백성들의 힘이 강조되는 것은 표층적으로는 혁명의 주체가 인민들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에 있으나, 심층적으로는 이러한 혁명의 주체를 선도하는 것은 당과 수령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일반전설집 소재의 전설들에서 인민이 혁명의 주체인 것은 사실이나, 김일성전설집 소재의 전설들에서 처럼 이를 영도하는 당과 수령이 없다면 이들은 허약한 백성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당과 수령의 영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김일성전설집과 일반전설집은 심층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맥락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혀 다른 구조를 지닌 김일성전설집과 일반전설집이 현재의 북한이라는 동일한 시공에서 공존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의 주체사상과 주체사상에 입각한 문학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체사상에 따르면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이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본질적 속성이며, 이러한 사람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으로서 근로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역사의 창조자이다.<sup>23)</sup> 즉 사람, 특히 근로인민이 세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적인 인간은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의 원칙하에서 행동하고 사고하며, 문학에서의 인간 역시 철저히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묘사되어야 한다는 데에<sup>24)</sup> 문제가 있는 것이

23)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 1-19.

김정웅, 『주체적 문예리론의 기본 2』, 문예출판사, 1992, pp. 58-60. 참조.

24)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3, pp. 75-113.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 71-95. 참조.

다.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선두에는 노동계급이 있고, 이러한 노동계급의 선봉에는 당과 수령이 있음으로 해서 주체가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모순에 빠져들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주체인 인민대중이 노동계급 및 당과 수령에 예속됨으로써 그들의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이 발휘될 수 있는 계기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주체사상에 있어서의 실제의 주체는 인민대중이 아닌 수령이다. 따라서 인민대중은 수령의 영도하에서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인민대중이 지닌 모든 능력은 오직 수령을 받드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은 『백두산전설집 1』의 (23)에서 주체자인 북남이가 장군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휘방자인 토벌대와 주재소의 군경을 몰살시키려 하였으나 술법이 통하지 않아 곤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장군이 나타나 도와주었다는 이야기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수령의 영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주적·창조적·의식적인 사고와 행동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주체사상과 이에 입각한 문학에 있어서의 인민은 세계의 전면에서 주체가 아니라, 수령에 예속된 김일성 숭배계층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 2. 비극성

김일성전설집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비극성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설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전승자의 태도에 있어서 역사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능력에 있어서 비극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말해 전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평범하거나 비범한데, 이들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인간이 지닌 한계로 인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대부분 좌절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은 주인공이 자신의 초월적인 힘이나 하늘의 도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비극성이 원천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는 신화와 대비될 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대체로 평범하기는 하나 우연이나 재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골계성이 보장되고 있는 민담과도 대비되는 전설만이 지닌 특성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전설집의 전설들에서는 주체자이자 협력자이며 중역자로서의 기능을 지닌 김일성이 한결같이 초월적인 힘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비극성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비극성의 배제는 직접적으로는 김일성전설집이 김일성의 위대성 내지 유일사상을 체득시키기 위해 편찬되었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인민이 주인인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문학예술작품은 밝고 명랑한 정서적 색깔·양상을 가지고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그려야 한다' 25) 는 북한의 문학관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김일성전설집의 비극성 배제는 그 자체로 큰 문제가 있다. 김일성전설집은 비극성을 배제함으로써 전설성을 상실하고 신화성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즉 김일성전설집에서는 전승자의 태도에 있어서 변별점이 되는 전설의 역사성 보다는 신화의 신성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김일성전설집이 전설집이 아닌 신화집으로 전이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화집으로서의 김일성전설집은 사실주의에 입각한 북한의 사회주의 문학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의 하나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구체성과 진실성이다. 역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구체성과 진실성은 역사성을 기반으로 해서 도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성성이 강조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역사성이 약화될 수 밖에 없었던 김일성전설집은 구체성과 진실성의 측면에서 회의적이라는 모순을 내포하게 된 것이다. 물론 『백두산전설』의 경우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이 전설의 역사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설이 지닌 고유의 역사성을 확보할 수는 없었다. 전설내에서 이미 약화된 역사성은 실제의 역사적 기록을 첨부한다고 해서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주체자가 다양하게 등장하는 일반전설집에서는 어느정도의 비극성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비극성은 주체자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혹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죽는 것으로 표출되는데, 일반전설집 소재의 전설에서는 이러한 면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평양전설』의 <계월향과 의렬사>·<형제뫼>·<금란화>·<구룡뫼>·<청녀뫼> 등이 그 예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일성전설집 소재의 전설들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는 초월적인 힘을 지닌 주체자가 협력자나 증여자의 도움없이 거의 혼자서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설에 있어서는 신화와 마찬가지로 비극성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김일성전설집 소재의 전설들은 자연스러운 민간전승에 의해 생성된 것이 아니라,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이 일정한 문학관, 즉 수령형상 창조에 대한 문학적 지침을 견지하면서 의도적으로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민간에 자연스럽게 전승되던 상기의 전설들은 전설이 지니고 있는 특성들을 제대로 지니고 있기에 북한의 비극성 배제라는 문학적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극성이 그대로

25) 김정웅, 『주체적 문예이론의 기본 2』, 문예출판사, 1992, p.183.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남한의 전설과 북한의 일반전설집 소재 전설은 상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당면한 문제들이 인민의 주체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신적인 인물에 의해 해결되고, 그들의 염원이 투쟁의 방법이 아니라 도술이나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이루어지며, 항거의 정신을 투쟁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보여주는 것 등이 비과학적 세계관으로부터 온 결합이라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전설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 방식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백년, 수천년 동안 민간에 전승되어 오는 전설은 특정한 편찬자나 편찬기관의 의도에 따라 어느정도 변모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구조나 특성은 변모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주체적 인간으로서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못했다는 주체사상적인 결합이나 밝고 명랑한 정서적 색깔·양상을 가지고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그려야 한다는 사회주의 문학관과의 불합치에도 불구하고 비극적 결말을 맞는 전설들이 상기의 일반전설집에 공히 등장하는 것은 일정한 측면, 즉 외적과 봉건통치배에 대한 증오심을 함양한다는 면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에서의 작가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는 '문학작품을 통해 적에 대한 증오심을 고취하는 것'<sup>26)</sup>이라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 3. 의도성

전설을 포함한 모든 구비문학 장르의 가장 큰 특징은 창작의 측면에서 기록문학 장르 처럼 개인작이 아니라 공동작이라는 데에 있다. 기록문학 장르는 특정한 개인에 의해 문자로 기록되어 그 내용이 불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반해, 구비문학 장르는 한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 말로 전달하여 그 내용이 유동적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설을 비롯한 구비문학 장르 역시 근원에 있어서는 기록문학 장르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개인에 의해 창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다양한 개성을 지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승되는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구비문학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기에는 기록문학 장르에서 보이는 특정한 개인의 의도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무의도성이 구비문학 장르에 공유하는 진솔성을 창출한다. 이처럼 대다수의 민족 성원이 오랜 기간에

26) 김일성, 『우리 혁명에서의 문학예술의 임무』, 조선로동당출판사, 1965, p.5.



결쳐 향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삶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데에 민족문학으로서의 구비문학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일반전설집 소재의 전설들은 구비문학이 지니는 순수성을 어느정도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다. 모든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이 설화집의 서두에서 독자들이 설화안에 용해되어 있는 시대적 제한성과 비과학적 세계관으로부터 온 결함을 옳게 보고 이를 주의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말을 한결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일단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이들 일반전설집 소재의 전설들에는 특정인물 내지 특정기관의 의도성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일반전설집 소재의 전설들은 남한의 전설들과 상동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일반전설집에 의도성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전설 한편 한편마다에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전편에는, 다시말해 이들 전설집에는 이들의 문학관과 이들의 사상에 합치되는 전설들이 선택되어 수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편집의도에 따라 남한의 전설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인정세태 전설' 보다는 특정한 전설, 즉 외적에 대한 투쟁과 봉건통치배에 대한 투쟁에 관련된 '반침략애국투쟁 전설' 내지 '반봉건투쟁 전설'이 다수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결국 북한의 일반전설집 소재의 전설 각편은 남한의 전설들과 상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편찬과정에서의 의도성 개입으로 인한 주제의 편중이라는 상이점을 보이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해 구비문학의 무의도성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전설집 소재의 전설들은 특정한 개인 내지 특정한 기관의 의도성이 철저히 개입되어 있다. 이러한 면은 김일성전설집이 수령을 형상화 하는 문학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들에게 인민과 노동계급과 당을 영도하는 수령의 위대함을 체득시키기 위한 목적의식을 지니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김일성전설집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목적의식을 지닌 특정한 개인 내지 기관의 의도성에 있다. 앞선 시기에 나온 『백두산전설』은 전설 부분과 이에 상응하는 역사적 사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실려있는 전설들은 이야기 구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풍문이나 소문 정도의 단편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뒷 시기에 나온 『백두산전설집 1』과 『백두산전설집 2』는 역사적인 사실 부분이 생략된 대신 전설들이 한결같이 온전한 이야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곧 전 시기에 나온 『백두산전설』 소재의 전설이 원형이며, 뒷 시기에 나온 『백두산전설집 1』과 『백두산전설집 2』 소재

의 전설은 이러한 원형을 바탕으로 재창작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백두산전설』이 1981년에 발간될 무렵, 온전한 이야기 구조를 갖춘 김일성의 항일투쟁에 관련한 전설들이 전승되고 있었다면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이 이를 축약해서 실었을리 없었을 것이다. 다시말해 『백두산전설』 소재의 단편적인 전설 부분이 김일성 전설의 원래 모습이며, 그것이 김일성전설의 모두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불과 6년 후인 1987에 발간된 『백두산전설집 1』과 그로부터 5년 후인 1992년에 발간된 『백두산전설집 2』 소재의 전설들은 전승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변모된 것이 아니라, 편찬자의 목적의식에 따라 단기간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야기 구조도 갖추지 못해 전설로 보기 어려운 『백두산전설』 소재의 전설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백두산전설집 1』과 『백두산전설집 2』 소재의 전설들은 편찬자가 머리말에서 '누가 의식적으로 조직화함이 없이 자연군중들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전설들이 수없이 창조되었다'고 강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성의 차원에서 회의적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성은 수령형상창조에 대한 이론의 대두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보여진다. 1975년에 발간된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에서는 수령형상창조에 대한 서술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나, 1983년에 발간된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에서는 수령형상창조의 의의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급기야 1991년에 발간된 500여 페이지 분량의 『수령형상문학』에서는 전체 내용이 수령형상창조에 대한 이론으로 일관되고 있다. 즉 수령형상창조에 대한 이론이 정립되기 이전인 1981년에 발간된 『백두산전설』에서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관에 입각해 전설 부분은 소략한대로 놔두면서 역사적 사실 부분에 치중했던 반면, 수령형상창조에 대한 이론이 구체적으로 정립된 이후인 1987·1992년에 발간된 『백두산전설집 1』과 『백두산전설집 2』에서는 수령형상창조 이론에 입각해 역사성 보다는 수령의 위대함을 보이기 위한 목적의식에 따라 신성성에 치중했던 것이다. 결국 수령형상문학 이론에 따라 특정한 개인 내지 기관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든 김일성전설집은 전설이 지닌 고유의 진술성, 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에서 중시하는 진실성이 결여됨으로써 사실주의문학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일성전설집의 주인공이자 수령형상문학의 직접적인 대상자였던 김일성이 최근 사망했다. 따라서 김일성전설집 의의와 가치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에게 수령의 혁명적 위업과 그를 통한 위대성을 체득시키

기 위해 편찬되었던 김일성전설집은 현실을 살아가는 북한주민들에게 하나의 지침서 내지 교과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전설집에서 보이는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지닌 김일성 역시 한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 불과했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주민들에게는 크나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전지전능한 존재, 영생불멸의 존재로 인식되던 김일성의 죽음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편찬되던 김일성전설집의 단절을 의미한다. 김일성전설집은 북한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위안과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인민과 노동계급과 당을 영도하는 수령으로서의 위상을 지니지 못하는 김일성이 북한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현실적인 정책이나 노선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일성전설집은 그야말로 전설 그 자체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북한에서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며, 그에 따른 수령계승자에 대한 형상창조이다. 수령후계자의 역할과 수령후계자 형상창조 이론이 대두된 것은 김정일이 수령의 후계자로 지목된 이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공산주의혁명가의 빛나는 귀감이며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이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당과 혁명의 탁월한 지도자로서 수령이 이룩한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sup>27)</sup> 는 것이다. 따라서 수령의 혁명위업 계승문제가 옹계 해결되고 있다는 견지에서 볼 때, 수령계승자를 형상한 문학은 곧 수령형상문학이라는 동식이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sup>28)</sup> 실제로 1970년에 김정일을 노래한 헌시가 처음으로 창작된 이래 1973년에 20여편의 송가가 창작되고, 1974년에 첫 송가집 『2월의 송가』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sup>29)</sup> 1988년에는 70년대 철광소를 배경으로 한 첫 장편소설 『아침해』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sup>30)</sup>

그러나 문제는 수령의 위대함을 극대화 한 김일성전설집과 같은 문학작품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는 데에 있다. 김일성전설집에 나타나고 있는 바, 김일성은 항일무장투쟁을 통한 승리라는 구체적인 혁명성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김정일은 이러한 혁명성과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형상화한 ‘김정일 전설집’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면은 김정일을 대상으로 한 송가의 내용이 ‘위대한 영도를 칭송한 것, 지도자 동지를 모신 민족적 긍지, 빛나는 사상리론활동, 공산주의적덕성, 충성의 결의’<sup>31)</sup> 에

27)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3, pp.20-21.

28) 윤기덕, 『수령형상문학』, 문예출판사, 1991, p.425. 참조.

29) 윤기덕, 『수령형상문학』, 문예출판사, 1991, pp.438-439. 참조.

30) 윤기덕, 『수령형상문학』, 문예출판사, 1991, pp.452-461. 참조.

불과하며, 장편소설의 내용이 철광석 생산에 대한 김정일의 독려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다시말해 구체적인 혁명위업이 없는 김정일은 김일성과 같은 막강한 권능과 힘이 원천적으로 보장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단지 수령계승자로서의 김정일의 역할은 김일성이 주도해온 노선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만 의의가 있는 것이다. 물론 김일성전설집이 새로이 편찬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김일성전설집은 이미 사망한 김일성의 혁명성과 위대성을 드러내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수령인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 혁명적 자질과 위대성을 물려받았다는 김정일 체제의 정통성과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일성 전설집은 북한의 현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당분간, 그러나 대단히 한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현실적인 수령은 김정일이므로 김일성 전설집이 김정일의 혁명성과 위대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줄 수는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V. 맺음말

본 연구는 남·북한에서 공히 전승되고 있으며, 남·북한 학계에서 공히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설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 설화집은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중심으로 제작된 『백두산전설』·『백두산전설집 1』·『백두산전설집 2 - 날개돋친 흰말』 등의 김일성전설집과 민간전승의 일반설화집으로 대별된다.

『백두산전설』은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었으나, 실제의 역사적 사건을 부합시킴으로써 구체적인 시간을 밝히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장소 역시 실제의 역사적 사건을 부합시킴으로써 구체성을 띠고 있으나, 특이한 것은 활동무대를 백두산으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백두산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은 60편중 9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전승자가 모든 전설을 실제의 역사적 사건과 결부시킴으로써, 즉 모든 전설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생겨난 것임을 지나치게 강

31) 윤기덕, 『수령형상문학』, 문예출판사, 1991, p. 439.

불과하며, 장편소설의 내용이 철광석 생산에 대한 김정일의 독려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다시말해 구체적인 혁명위업이 없는 김정일은 김일성과 같은 막강한 권능과 힘이 원천적으로 보장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단지 수령계승자로서의 김정일의 역할은 김일성이 주도해온 노선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만 의의가 있는 것이다. 물론 김일성전설집이 새로이 편찬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김일성전설집은 이미 사망한 김일성의 혁명성과 위대성을 드러내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수령인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 혁명적 자질과 위대성을 물려받았다는 김정일 체제의 정통성과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일성 전설집은 북한의 현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당분간, 그러나 대단히 한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현실적인 수령은 김정일이므로 김일성 전설집이 김정일의 혁명성과 위대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줄 수는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V. 맺음말

본 연구는 남·북한에서 공히 전승되고 있으며, 남·북한 학계에서 공히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설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 설화집은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중심으로 제작된 『백두산전설』·『백두산전설집 1』·『백두산전설집 2 - 날개돋친 흰말』 등의 김일성전설집과 민간전승의 일반설화집으로 대별된다.

『백두산전설』은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었으나, 실제의 역사적 사건을 부합시킴으로써 구체적인 시간을 밝히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장소 역시 실제의 역사적 사건을 부합시킴으로써 구체성을 띠고 있으나, 특이한 것은 활동무대를 백두산으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백두산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은 60편중 9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전승자가 모든 전설을 실제의 역사적 사건과 결부시킴으로써, 즉 모든 전설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생겨난 것임을 지나치게 강

31) 윤기덕, 『수령형상문학』, 문예출판사, 1991, p. 439.

조합으로써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등장인물에 있어서 이 책 전편의 주체자는 실상 모두 김일성이고, 궤방자로는 일제군경이 거의 대부분이며, 요청자는 조선인민 전체로 설정되어 있으며, 협력자는 대부분 그가 이끄는 조선인민혁명군이나 그 기여도가 미미하며, 중여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 구조는 주체자의 위대함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승자의 의도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당면한 문제의 대부분은 일제식민통치에 따른 일제의 만행과 사람들의 암울한 처지, 이러한 현실을 야기시킨 일제군경을 비롯한 궤방자들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일제군경을 비롯한 궤방자들의 공격 등이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주체자인 김일성의 조화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이러한 주체자의 문제해결에는 어떠한 중여자나 협력자도 개입하지 않고 있다. 결국 모든 문제를 초월적인 힘을 지닌 주체자 혼자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는 전승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제군경과의 싸움이 당면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데에서 연유한 것이다. 전승자는 주체자가 백두산 성인이자 선비이고, 이러한 주체자가 세운 인민정권이 노동자·농민이 주인인 지상천국이며, 인민들이 주체자에 대한 희망과 기대, 신뢰와 존경, 흠모와 칭송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전승자가 이들 전설이 역사적 사건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설 부분이 구체성을 띠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 구조를 갖추지 못한 소략하고도 단편적인 풍문 정도의 내용에 불과한 반면, 이에 부합하는 역사적인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말해 이 책은 전승자의 의도와는 달리 전설집으로서는 대단히 미흡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승자가 지나치게 역사성을 강조하려 한 데에서 발생한 것이다.

『백두산전설집 1』과 『백두산전설집 2』는 공히 『백두산전설』과 달리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있다. 장소는 두 설화집에서 공히 백두산을 주무대로 삼고 있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활동무대를 설정한 것은 김일성의 우월성과 김일성 출현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등장인물에 있어서 주체자는 김일성을 비롯한 여러 부류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어 『백두산전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이 주체자로 등장하는 편에서 김일성은 협력자이자 중여자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김일성이 주체자인 경우 요청자는 사실상 조선인민 전체로 설정되어 있고, 협력자는 대부분 그가 이끄는 유격대원이며, 중여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주체자에 맞서는 궤방자로는 일제군경이 거의 대부분이다. 특이한 것은 『백두산전설』과 달

리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역사적인 사실을 생략한 대신 이를 통해 전설의 핵심이 되는 사실성을 보장받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다. 당면한 문제의 대부분은 『백두산전설』과 마찬가지로 일제군경과의 싸움이지만, 평범한 인물들이 주체자로 등장하면서 『백두산전설』과 달리 하층민의 암울한 생활이 보다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인물들의 문제는 김일성이 주체자로 등장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협력자이자 증여자인 김일성의 조화에 의해 모두 해결되고 있다. 주제 역시 『백두산전설』과 마찬가지로 전승이나 전승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전승자는 전설의 역사성과 환상성을 동시에 인정함으로써 역사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전설과 역사적 사실을 분리해 수록함으로써 전설이 구체성을 띠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 구조도 갖추지 못해 전설집으로서 대단히 미흡하게 구성되어 있는 『백두산전설』과 달리, 역사적 사실을 전적으로 생략하는 대신 전설 안에서의 시간·공간·등장인물·증거물 등을 구체화 함으로써 역사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환상수법’을 통해 온전한 이야기 구조를 갖춘 전설을 내 보일 수 있었다.

북한의 일반전설집 중 지역적 특색을 잘 드러내고 있는 『평양의 금란화』와 『평양전설』의 장소는 평양 근방이다. 시기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평양전설』의 경우 동명왕릉에 관련된 전설을 맨 앞에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전설집에서 공통적으로 고구려 시기의 이야기를 많이 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고구려의 정기를 이어 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등장인물에 있어서 주체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협력자는 동물이 주로 등장하고 있으며, 요청자는 동물들과 천상의 인물 등이 등장하고 있고, 증여자는 요청자가 주체자의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신비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훼방자로는 대외적인 적과 봉건통치배가 등장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대외적인 적을 제외한 나머지의 훼방자를 모두 봉건통치배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훼방자가 이처럼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은 이 전설들이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일정한 의도에 의해 선택·수록된 사정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당면한 문제로는 외적의 침입으로 인한 위기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봉건통치배의 폭정·착취로 인한 고통, 가뭄이나 홍수로 인한 곤란, 병든 가족 구완 등 대·내외적인 문제가 골고루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중 대외적인 문제는 주체자 자신의 적극적인 대응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대내적인 문제는 주체자 자신의 힘 보다는 증여자나 협력자의 도움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제에 있어서 반침략애국투쟁 전설과 반봉건투쟁 전설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생활은 곧 투쟁이라는 사회주의 문학관을 지닌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이 이러한 문학관에 입각해 전설들을 선택·수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은 북한에서 말하는 효성·보은·남녀사랑을 그린 인정세태 전설이 남한의 설화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전승자의 인식에 있어서는 천상의 세계 내지 신선의 세계 보다는 지상의 세계 내지 인간의 세계가 보다 보람있고 즐거운 세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태도는 곧 신(神) 보다는 인간이 우월하며, 종교의 세계는 허망하다는 인식으로 직결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은 사람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이라는 그들의 주체사상적 인간관 내지 세계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김일성전설집의 가장 큰 특징은 항일무장투쟁을 통한 혁명성 강조에 있다. 이러한 특징은 북한에서의 문학이 사상적 무기이자 혁명투쟁의 무기로 인식되고 있다는 데에서 야기되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참다운 문학이란 노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에 기초한 혁명적 문학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은 노동계급의 당과 수령의 영도를 받을 때에만 새롭고 다양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대한 혁명가의 귀감이자 위대한 인간의 최고전형인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것이 북한의 문학예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다. 혁명적 문예전통을 항일혁명투쟁으로부터 잡고 있으므로 이 시기의 김일성을 형상화하는 것은 북한 문학에 있어서 절대절명의 과제였던 것이다. 김일성 전설집은 바로 이러한 북한의 혁명적 문학관에서 등장한 것이다. 일반전설집에서도 김일성전설집과 마찬가지로 혁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항일무장투쟁을 위주로 한 김일성전설집과 달리 외적 및 봉건통치배에 대한 투쟁이 위주가 되고 있다. 투쟁에 있어서 김일성전설집의 경우에는 김일성의 초월적인 힘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일반전설집의 경우에는 백성의 힘이 강조되고 있다. 혁명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김일성전설집과 일반전설집이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백성의 힘이 강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두 설화집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일성전설집에 있어서의 백성은 일제의 만행에 시달리며 단지 장군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나약한 계층에 불과하나, 일반전설집에 있어서의 백성은 외적과 봉건통치배에 직접적으로 맞서 싸우는 힘있는 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김일성전설집이 김일성 개인을 부각시키기 위해 단기간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반면, 일반전설집은 주제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의도가 개입하기는 하였으나 민간에 전승되는 전설이 비교적 온전히 수록되었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일반전설집 소



재의 전설들은 남한의 전설들과 상동성을 보이지만, 김일성전설집 소재의 전설들은 남한의 전설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일반전설집 소재의 전설들과도 변이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일반전설집에서 백성들의 힘이 강조되는 것은 표층적으로는 혁명의 주체가 인민들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에 있으나, 심층적으로는 이러한 혁명의 주체를 선도하는 것은 당과 수령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당과 수령의 영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김일성전설집과 일반전설집은 심층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맥락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혀 다른 구조를 지닌 김일성전설집과 일반전설집이 현재의 북한이라는 동일한 시공에서 공존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북한문학의 문제가 있다. 주체사상에 따르면 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역사의 창조자이나, 이러한 주체적인 인간은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의 원칙하에서 행동하고 사고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주체인 인민대중이 노동계급 및 당과 수령에 예속됨으로써 그들의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이 발휘될 수 있는 계기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주체사상에 있어서의 실제의 주체는 인민대중이 아닌 수령이다. 따라서 인민은 세계의 전면에 나서는 주체가 아니라, 수령에 예속된 김일성 숭배계층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김일성전설집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비극성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설은 주인공의 능력에 있어서 비극성을 지니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김일성전설집의 전설들에서는 주체자이자 협력자이며 증여자로서의 기능을 지닌 김일성이 한결같이 초월적인 힘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비극성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비극성의 배제는 직접적으로는 김일성 전설집이 김일성의 위대성 내지 유일사상을 체득시키기 위해 편찬되었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김일성전설집의 비극성 배제는 그 자체로 큰 문제가 있다. 김일성전설집은 비극성을 배제함으로써 전설성을 상실하고 신화성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신화집으로서의 김일성전설집은 사실주의에 입각한 북한의 사회주의 문학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의 하나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구체성과 진실성인데, 신성성이 강조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역사성이 약화될 수 밖에 없었던 김일성 전설집은 구체성과 진실성의 측면에서 회의적이라는 모순을 내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주체자가 다양하게 등장하는 일반전설집에서는 비극성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비극성은

주체자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혹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죽는 것으로 표출되는데, 일반 전설집 소재의 전설 역시 이러한 면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민간에 자연스럽게 전승되던 상기의 전설들은 전설이 지니고 있는 특성들을 제대로 지니고 있기에 북한의 비극성 배제라는 문학적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극성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남한의 전설과 북한의 일반전설집 소재 전설은 상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백년, 수천년 동안 민간에 전승되어 오는 전설은 특정한 편찬자나 편찬기관의 의도에 따라 어느정도 변모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구조나 특성은 변모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주체적 인간으로서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못했다는 주체사상적인 결함이나 밝고 명랑한 정서적 색깔·양상을 가지고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그려야 한다는 사회주의 문학관과의 불합치에도 불구하고 비극적 결말을 맞는 전설들이 상기의 일반전설집에 공히 등장하는 것은 일정한 측면, 즉 외적과 봉건 통치배에 대한 중요심을 함양한다는 면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전설을 포함한 모든 구비문학 장르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무의도성인데, 이러한 무의도성이 구비문학 장르에 공유하는 진솔성을 창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일반전설집 소재의 전설들은 구비문학이 지니는 순수성을 어느정도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일반전설집에 의도성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전설 한편 한편마다에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전설집에는 이들의 문학관과 사상에 합치되는 전설들이 선택되어 수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편집의도에 따라 남한의 전설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인정세태 전설 보다는 반침략애국투쟁 전설 내지 반봉건투쟁 전설이 다수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결국 북한의 일반전설집 소재의 전설 각편은 남한의 전설들과 상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편찬과정에서의 의도성 개입으로 인한 주제의 편중이라는 변이성을 보이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해 김일성전설집 소재의 전설들은 사람들에게 인민과 노동계급과 당을 영도하는 수령의 위대함을 체득시키기 위한 목적의식을 지닌 특정한 개인 내지 기관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김일성전설집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의도성에 있다. 김일성전설의 원래 모습은 『백두산전설』 소재의 단편적인 전설 부분이다. 따라서 불과 6년 후에 발간된 『백두산전설집 1』과 그로부터 5년 후에 발간된 『백두산전설집 2』 소재의 온전한 이야기 구조를 지닌 전설들은 전승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변모된 것이 아니라, 편찬자의 목

적의식에 따라 단기간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의도성은 수령형상창조에 대한 이론의 대두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보여진다. 결국 수령형상문학 이론에 따라 특정한 개인 내지 기관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든 김일성전설집은 전설이 지닌 고유의 진술성, 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에서 중시하는 진실성이 결여됨으로써 사실주의문학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김일성의 죽음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편찬되던 김일성전설집의 단절을 의미한다. 김일성은 이미 인민과 노동계급과 당을 영도하는 수령이 아니기에 북한주민들에게 현실적인 정책이나 노선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일성전설집은 그야말로 전설 그 자체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북한에서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며, 그에 따른 수령계승자에 대한 형상창조이다. 그러나 문제는 수령의 위대함을 극대화 한 김일성전설집과 같은 문학작품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는 데에 있다. 김일성은 항일무장투쟁을 통한 승리라는 구체적인 혁명성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김정일은 이러한 혁명성과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형상화한 '김정일전설집'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단지 수령계승자로서의 김정일의 역할은 김일성이 주도해온 노선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만 의의가 있는 것이다. 물론 김일성전설집이 새로이 편찬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김일성전설집은 이미 사망한 김일성의 혁명성과 위대성을 드러내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수령인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 혁명적 자질과 위대성을 물려받았다는 김정일 체제의 정통성과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현실적인 수령은 김정일이므로 김일성전설집이 김정일의 혁명성과 위대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줄 수는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러나 일반전설집의 경우에는 김일성전설집과 달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간될 것이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일반전설집들과 문학의 각 방면에 대한 이론서들이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북한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김일성전설집의 단절로 인한 공백을 또 다른 설화집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보상심리도 이러한 일반전설집의 발간에 가일층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북한의 문학일반, 특히 설화문학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설화문학은 민족적 정서를 풍부하게 구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 정통성 계승이라는 기능적인 면까지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북한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에서도 설화문학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하며, 현장답사를 통한 자료의 수집·정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구비문학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뉠 수 없는 것이며, 우리 민족이 공유하는 것이라는 인식하에서 남한과 북한이 정기적으로 이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동으로 현지답사를 함으로써 현재 남·북한에 전승되고 있는 자료들을 수집·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의도적인 목적을 지니고 수집·정리한 자료는 우리 민족의 온전한 모습이 아닌, 특정 부분이 과장되거나 축소된 모습으로 왜곡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곧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을 왜곡하여 후대에 물려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솔성을 생명으로 하는 설화를 포함한 구비문학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남·북한이 민족의 삶에 대해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자료

- 『백두산전설』 (근로단체출판사 편, 근로단체출판사, 1981)
- 『백두산전설집 1』 (김우경 편, 문예출판사, 1987)
- 『백두산전설집 2 - 날개돋친 흰말』 (김우경 편, 문예출판사, 1992)
- 『구전문학자료집 - 설화편』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구전문학연구실 편, 사회 과학원 출판사, 1964)
- 『우리나라 옛이야기 1 - 피동이의 지혜』 (학우서방, 1980)
- 『우리나라 옛이야기 3 - 옥란봉이야기』 (학우서방, 1981)
- 『우리나라 옛이야기 4 - 호동과 락랑공주』 (학우서방, 1982)
- 『우리나라 옛이야기 6 - 선바위이야기』 (학우서방, 1984)
- 『우리나라전설 1 - 평양의 금란화』 (송봉렬 편, 금성청년출판사, 1985)
- 『재미나는 옛이야기 1』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문학사실, 근로단체출판사, 1986)
- 『재미나는 옛이야기 2』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문학사실, 근로단체출판사, 1986)
- 『재미나는 옛이야기 3』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문학사실, 근로단체출판사, 1986)
- 『우리나라 옛이야기 - 겨울딸기』 (리도현 편, 금성청년출판사, 1986)
- 『조선민화집 1 - 고주몽』 (김원필 편, 금성청년출판사, 1986)
- 『조선민화집 2 - 콩쥐팥쥐』 (김형운 편, 금성청년출판사, 1986)
- 『조선민화집 4 - 의종은 형제』 (김청일 편, 금성청년출판사, 1987)
- 『조선민화집 10 - 금강선녀』 (한기언·전승화, 금성청년출판사, 1987)
- 『조선민화집 12 - 달미바람』 (최낙서 편, 금성청년출판사, 1987)
- 『조선민화집 16 - 을지문덕의 장검』 (림왕성 편, 금성청년출판사, 1987)
- 『조선민화집 5 - 해와 달』 (김박문 편, 금성청년출판사, 1988)
- 『조선민화집 3 - 토끼와 자라』 (전종섭 편, 금성청년출판사, 1989)
- 『조선민화집 15 - 금산포의 도라지』 (로효식 편, 금성청년출판사, 1991)
- 『조선민화집 17 - 도미와 그의 안해』 (리송필 편, 금성청년출판사, 1991)
- 『조선민화집 2 - 범 잡은 이야기』 (김영길 편, 학우서방, 1990)
- 『조선구전문학자료집 - 평양전설』 (김정설 편, 사회과학출판사, 1990)

## 2. 논저

- 김일성. 『우리 혁명에서의 문학 예술의 임무』.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65.
- 김정웅. 『주체적 문예리론의 기본 2』. 문예출판사. 1992.
- 김정일. 김정일 선집 1.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리수림. 혁명송가문학. 문예출판사. 1989.
-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 윤기덕. 『수령형상문학』. 문예출판사. 1991.
- 장권표. 『조선구전문학개요 - 고대중세편』. 사회과학출판사. 1990.
-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3.
- 한중모·김정웅·김준규. 『주체적 문예리론의 기본 3』. 문예출판사. 1992.

# 南北文學史 記述의 統一方案研究

-近代를 中心으로-

研究責任者：金 垠 哲 (尙 知 大)

## 목 차

<요 약 문> .....	225
I. 서론 .....	227
II. 남북문학사기술의 현황 .....	230
1. 남북문학사의 개관 .....	230
2. 시기구분문제 .....	234
3. 근대의 기점문제 .....	239
4. 대상작가 및 작품의 선정문제 .....	245
III. 각 작가의 평가의 양상 .....	262
1. 김소월에 대한 평가 .....	264
2. 이상화에 대한 평가 .....	269
IV. 남북문학사 기술의 원리 .....	274
V. 문학사기술의 새로운 방안 .....	279
VI. 결론 .....	285
※참고문헌 .....	289



## <요 약 문>

본 논문은 분단 이후 각각 독자적으로 진행되어 온 남북문학사를 장차의 통일에 대비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기술할 방안을 찾고자 한 것이다. 남과 북은 각자의 정부를 수립한 후 양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의해 정치, 사회적으로 적대적으로 대해왔으며 그것은 문학과 문화 전반에 걸쳐 이질감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민족의 동질성 회복은 시급한 과제이며 따라서 남북문학사를 보는 시각을 재검토하고 상호 접근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남북문학사를 비교한 결과 북한의 문학사는 반영론과 목적론, 주체사상에 의해 점철되어 있어서 획일적이었던데 비해서 남한의 문학사는 기술자에 따라 다양한 가치평가가 내려지고 있었고 전대의 문학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북한의 문학사 중에서는 최근에 나온 『조선문학개관』이 어느 정도 변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북한의 문학사가 지나치게 현실적인데 치우쳐 있었다고 한다면 남한의 문학사는 작품의 문학과 더불어 당대 현실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 이 점 남북한의 문학사가 접근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남한의 문학사도 현실을 중시하고 있는 점, 『조선문학개관』도 작품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던 점은 앞으로의 상호 접근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근대문학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는데 그것은 그 시기가 현대와 비교하여 시기적으로 가깝고 또 자료가 개방되어 있음으로 해서 작가나 작품의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뚜렷한 변별점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질적인 환경 하에 있었던 일제 식민지 시대의 시인 중 남북한에서 동시에 높게 평가받고 있는 김소월과 이상화에 대한 평가를 검토하여 그 동질성과 이질성을 비교함으로써 상호 접근가능성을 타진하였다.

한국시사에 있어서 김소월은 개인적 정한의 세계와 비극적 현실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공동체의식의 내면화로 형상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상화는 전기의 관념지향과 후기의 현실지향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외면화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사실상 이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하고 열등하다고 확립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작가자신의 세계관에 의한 것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 되었는가 하

는 점이기에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이러한 양면성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문학적 형상화를 거쳤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해서 작품의 우열과 가치판단이 선행되고 난 이후에 문학의 내적 흐름과 사회변동을 고려한 시기구분도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문학사의 기술자가 작품성에 기초해서 관념주의적 경향을 더 높게 평가하는가, 현실주의적인 경향을 더 높게 평가하는가는 전적으로 기술자 자신의 세계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 형상화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분단 이후 재통일까지의 문학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필자는 신라와 발해의 문학을 기술하는 방식, 이를테면 남북한으로 이원화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개진하였지만 거기에서도 여전히 가치판단의 문제는 남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문학사는 사실의 단순한 집적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북문학사를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지만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북한의 문학적 실체를 인정하고 개별 작가나 작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작가와 작품의 진. 위를 먼저 검토하고 문학인 것과 문학이 아닌 것,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을 판별한 연후에 나아가 정치, 사회적인 변동보다는 문학의 내적 변모에 따라 시기구분과 가치평가를 내려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남한의 각각의 문학사들이 보여준 다양성이 곧 열린체계로서 문학을 문학으로 존재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 남북문학사 기술의 통일방안 연구

-근대를 중심으로-

김 은 철

## I 서 론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지도 어언 반세기에 이르고 있다. 유사 이래로 동일한 문화권에서 동일운명체로 존재해 온 국토와 민족의 인위적 분단은 이 시대 한 민족만이 안고 있는 지극한 불행이라 할 것이다. 그 인위적 국토분단은 양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해 적대적인 감정 속에서 언어, 문화, 역사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개별적인 전개양상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양 이데올로기에 의한 국토분단이라는 외압적 상황에서 우리는 남북이 동일 민족이거나 동일 운명체라는 인식보다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적대적인 것으로 인식해 왔으며 남북의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어떤 노력도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금지되어 왔다. 오히려 이질성을 극복하려는 노력보다는 이질성을 강조하고 어느 일면으로는 그것을 조장하여 왔다는 사실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이질성을 비교하여 그것을 체제의 우열과 결부시키거나 또 다른 목적의식 하에 어느 일면을 강조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동구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분단되었던 민족들이 통일의 길로 가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남북의 통일 또한 역사적 순리에 의해 당연하고도 시급히 이루어야 할 민족의 지상과제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간 우리는 문학이나 문화 외적인 영향 하에서 적어도 북한의 문학과 문화에 대해 애써 외면해 왔고 그것이 미덕인양 여겨 왔으며 순수한 학술적인 접근조차도 소수의 특정인에게만 허용되었을 뿐 다수의 일반인에게는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반세기에 걸친 문학 외적인 상황 하에서도 남과 북은 각각 문학작품을 생산하고 자체적으로 평가하며 역사적으로 기술해 왔고 지금도 그 작업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남과 북은 서로에 대한 가치평가는 커녕 관심조차 기울일

수 없는 정치적 상황 하에 있어 왔다.

이러한 반세기에 걸쳐 생산된 남과 북의 문학작품은 양적으로도 엄청난 것이며 그 질적 차이 또한 엄청난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 두 체제에서 생산되고 평가되어온 문학적 업적이 영구히 따로 존재할 수 없고 장차의 통일조국을 염두에 둘 때 분명히 종합적인 가치평가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당위성이 인정된다면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그 작업은 어떤 단일한 가치평가의 기준에 의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인 개별적 가치평가가 이루어진 토대 위에서 다양한 기준이 제시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평가의 기준이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치적이거나 또는 다른 문화외적인 상황하에서 우열이 판가름나서는 안 되며 적어도 상호간의 문학적 업적을 인정한다는 바탕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문학이 인간과 관계되는 한, 인간의 의식과 정신을 반영하는 한에 있어서 문학은 당대인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그간의 삶이 부정될 수 없는 것처럼 그 소산인 문학도 부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청되는 전제조건은 북한 주민들의 삶과 그 소산인 문학 예술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남과 북의 어느 쪽이 성공하고 실패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동질성을 확립하고 바람직한 민족문화의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서 그 실체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러한 태도 위에서만이 비로소 우리는 한민족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간에 노정했던 남북한의 문화적 현상들은 극히 이질성을 보이고 있고 갈수록 그것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그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이질화 되어온 반세기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시간은 곧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단축될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한적이거나 북한의 실상이 공개되고 그 문화적 실체가 공개되어 온 것은 그야말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즉 1988년 7월 19일에 북한문학에 대한 해금조치가 취해지고 이어서 북한의 문학작품과 북한에서 나온 수종의 문학사를 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방면의 연구자들에게는 미흡하나마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아직도 전면해금이 이

투여되지 않고 일부 정치성이 강한 작가들의 작품은 해금이 보류되어 있는 실정이라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수종의 북한 문학사를 대할 수 있어서 대체적인 윤곽이나 마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장차의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서는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장차 남북한의 문학사를 기술하는데 있어서의 기술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개개의 작품에 대한 가치평가나 작가에 대한 평가가 궁극적으로는 문학사에 귀결된다고 할 때 남북한의 문학사를 비교하는 것은 그간의 문학적 업적을 개괄하고 그 가치 평가의 기준과 문학사를 기술하는 태도, 즉 세계관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문학적 업적 중에서 특히 근대문학사에 치중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고전문학사의 경우 작품에 대해 각기 해석상의 차이는 보이고 있으나 자료가 제한되어 있어서 선별의 기준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는 반면 근대문학사의 경우는 이후 현대문학사까지를 염두에 둘 때 자료가 개방되어 있는 관계로 작가나 작품의 선별에서부터 해석상에 이르기까지 편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한 편으로는 근대문학의 기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도 편차를 보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근대문학사를 대상으로 삼는 이유 중의 하나는 남북이 분단되고 이질화의 현상을 보인 것이 바로 반세기 전의 일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특히 관심 가지는 것은 일제시대의 작가와 작품에 대한 것이다. 비교적 현대와 시점이 가깝고 또 동일한 환경 하에서 일제 식민지의 질곡을 남북이 동시에 겪어 왔다고 할 때 그 시대에 대한 평가는 그야말로 이데올로기의 개입보다는 민족의식의 차원에서 쓰여졌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제시대의 작가와 작품의 선정 및 해석상의 태도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심화되고 그것이 문학적으로 반영되어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해방이후의 문학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동질성을 확인하기가 그만큼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현재 진행되어 있는 남북한의 문학사를 개괄해 본다면 그 편차가 너무 심각하여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통합되어 재기술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가 앞서지 않고는 문학적 내지는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문학사는 넓게는 역사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정치나 경제사와는 다른 독자적인 영역을 엄연히 가진다. 물론 문학이 당대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현실 그 자체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문학사 기술의 1차적인 인식은 문학사가 역사이면서 또 또한 문학 자체의 흐름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단순히 문학작품의 생산과 소비라는 측면에서의 나열이 아니라 문학사를 기술하는 독자적인 가치평가 체계가 요구되는 것이다.

문학작품의 단순한 나열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남북문학사를 통합하여 기술하는 어떤 방법도 필요없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작품의 존재 그 자체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름대로의 가치는 부여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작품의 존재 그 자체의 연대기적 기술이 아니라 작품이 가지는 가치평가까지 염두에 둔다고 할 때 문제는 사뭇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작품을 평가하는 가치기준은 결코 동일할 수 없고 기술자의 세계관, 나아가서는 동시대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유일무이한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다양한 가치기준이 오히려 문학이 가지는 원래의 속성, 즉 자유분방한 정신의 소산이라는 측면에서 더 바람직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간행되어 온 남한에 있어서의 몇몇 문학사는 그 시각을 각각 달리 하고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인정하면서 필자는 나름대로 기존의 남북 문학사를 점검하고 그 통일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차의 남북 통일문학사를 기술하는 하나의 시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II 남북문학사 기술의 현황

### II-1 남북문학사의 개관

지금까지 우리가 접할 수 있었던 북한의 문학사는 대략 다음과 같다.

문학사는 넓게는 역사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정치나 경제사와는 다른 독자적인 영역을 엄연히 가진다. 물론 문학이 당대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현실 그 자체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문학사 기술의 1차적인 인식은 문학사가 역사이면서 또 또한 문학 자체의 흐름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단순히 문학작품의 생산과 소비라는 측면에서의 나열이 아니라 문학사를 기술하는 독자적인 가치평가 체계가 요구되는 것이다.

문학작품의 단순한 나열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남북문학사를 통합하여 기술하는 어떤 방법도 필요없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작품의 존재 그 자체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름대로의 가치는 부여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작품의 존재 그 자체의 연대기적 기술이 아니라 작품이 가지는 가치평가까지 염두에 둔다고 할 때 문제는 사뭇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작품을 평가하는 가치기준은 결코 동일할 수 없고 기술자의 세계관, 나아가서는 동시대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유일무이한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다양한 가치기준이 오히려 문학이 가지는 원래의 속성, 즉 자유분방한 정신의 소산이라는 측면에서 더 바람직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간행되어 온 남한에 있어서의 몇몇 문학사는 그 시각을 각각 달리 하고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인정하면서 필자는 나름대로 기존의 남북 문학사를 점검하고 그 통일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차의 남북 통일문학사를 기술하는 하나의 시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II 남북문학사 기술의 현황

### II-1 남북문학사의 개관

지금까지 우리가 접할 수 있었던 북한의 문학사는 대략 다음과 같다.

- 안함광, 『조선문학사(1900-)』, 교육도서출판사, 1956, 6.
- 김하명, 『조선문학사(15-19세기)』, 조선문학출판사, 1968.
- 『조선문학통사』(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편, 과학원출판사, 평양, 1959, 5, 20.
- 『조선문학통사』(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과학연구소 문학연구실편, 과학원출판사, 평양, 1959, 11, 30.
- 『조선문학사』, 교육도서출판사, 1964.
-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저, 어문도서편집부 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1977, 12.
- 『조선문학사』(19세기 말-1925), 박종원. 최탁호. 류만 공저,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1978.
- 『조선문학사』(1926-1945),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집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1978.
- 『조선문학사』(1945-1958),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집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1978.
- 『조선문학사』(1959-1975),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집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1978.
- 『조선문학사』 1, 김춘택 저, 조선어문학부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평양, 1982.
- 정홍교. 박종원, 『조선문학개관 1 (원시고대-1920년대 전반기)』, 사회과학출판사, 1986, 11.
- 박종원. 류 만, 『조선문학개관 2 (1920년대 후반기-1980년대 전반기)』, 사회과학출판사, 1986, 11.
- 위에서 전 시기를 다루고 있는 것은 『조선문학통사』(상. 하) 1959. 와 교육도서출판사의 『조선문학사』, 1964.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에서 집필한 『조선문학사』 전6권, 1977-1978. 등이다.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여러번에 걸쳐 문학사를 출판하였는데 70년대 말에 나온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의 『조선문학사』가 그간 북한에서의 문학사 연구성과를 집대성하고 있다. 이 책은 특히 그 이전의 문학사가 주체사상이 확립되기 이전의 것인데 비해 주체사상이 전면에 부상한 시기의 것이어서 북한문학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문학통사』 상, 하는 상대적으로 앞선 시기에 출판되었으므로 전쟁시기와 그 후의 복구시기에만 한정되어 있다.

가장 최근의 것으로 보이는 정홍교, 박종원, 류 만의 『조선문학개관』 1과 2는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의 『조선문학사』 전6권을 집약하여 압축한 것으로서 시대구분이나 작품의 선정 및 서술태도 등에 있어서 별반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두 권을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나머지 책들을 참고로 활용하기로 한다.

한 편 남한에서 간행된 문학사는 그 숫적인 면에서 일단 월등히 많으며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적들이 있다.

- (1) 안 화, 『조선문학사』, 1922.
- (2) 김사엽, 『국문학사』, 1957.
- (3) 조운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78. (초판:1963)
- (4) 김준영, 『한국고전문학사』, 1971.
- (5) 김석하, 『한국문학사』, 1975.
- (6) 장덕순, 『한국문학사』, 1975.
- (7) 김동욱, 『국문학사』, 1976.
- (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5』, 지식산업사, 1982-1988.
- (9) 백 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82.
- (10)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73.
- (11)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 (12) 김용직, 『한국근대시사』, 새문사, 1983.

물론 이외에도 다수 있을 것이고 특히 문학사란 이름만 붙이지 않았을 뿐 문

학사 형태의 저서와 개별 작가나 작품의 연구까지 합한다면 그 수는 엄청날 것이다. 이 중 (1)-(8)은 한국문학사를 고대부터 통시적으로 개괄하고 있는 것들이고 (9)-(11)은 근대 또는 현대문학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12)는 특히 근대 시문학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조윤제의 한국문학사는 문학의 흐름을 생물체에 비유하여 기술하고 있다. 한국문학의 흐름을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하여 일체성을 부여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나 문학이 생물체처럼 성장하고 성장하여 소멸하는 일회성의 과정을 밟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또한 과연 그것이 이후의 문학에까지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으로 남는다.

한 편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는 지금까지 5권이 출간되었는데 그 대상이 고대로부터 1945년 해방기 까지이고 1919-1945년의 시기를 근대문학 제1기로 설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앞으로 몇 시기가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이며 현대문학까지 모두 기술할 경우 그 분량은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는 그 분량에 있어서도 단연 압권이지만 한 편으로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문학 전반을 포괄하고 있어서 한국문학의 전체적 양상을 입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장점을 지닌다.

특히 그는 국문학의 시기구분문제에 있어서 종래의 역사구분법에서 탈피하여 한국문학자체의 전개양상을 중심으로 하여 첫째 시대, 둘째 시대... 여섯째 시대로 칭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백철의 『신문학사조사』는 한국근대문학을 서구의 시각으로만 평가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그는 한국 근대문학의 작품을 논하면서 서구의 문예사조적인 시각으로 각각의 작품과 작가를 논하였으며 따라서 결론적으로 한국근대문학은 문예사조상의 혼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평가는 이미 누누이 지적된 것처럼 한국문학을 보는 시각을 일방적으로 서구의 시각에 고착시킴으로써 해서 전혀 한국문학 자체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김윤식, 김현의 『한국문학사』는 특히 기존의 문학사에 대한 방법론을 극복하고자 하여 문학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측면, 즉 언어적이고 철학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조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를 발표기관의 우열이라는 문헌적 태도를 강조하였다고 비판하면서 결국 조연현도 백철과 같은 현상에 도달했다는 것이

다.1) 그러나 이들의 문학사는 물론 외제적 상황을 배제하고 작품 자체를 중시한, 문학본래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작가나 작품을 소홀히 취급함으로써 일면 문학엘리트주의에 빠진 것 같은 아쉬움을 남긴다.

김용직의 저서는 시문학에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한국근대시사의 전모를 파악하고자 기술하고 있으며 본고에서 문제삼는 것과 많은 연관을 가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시사가 가지는 근대의 기점문제와 특히 작가의 평가양상을 필요에 따라 논하고자 한다.

## II-2 시기구분문제

문학사기술에 있어서 시기구분문제는 단순히 시대를 나열하여 구분하는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시대구분은 서술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만이 아니고, 문학사의 실상을 가장 분명하게 요약해서 나타내는 것이며 시대구분은 문학을 보는 기본적 관점인 동시에 한 시기 문학이념의 본질을 추출해내는 작업이고 따라서 모든 역사 서술의 출발이자 결론'<sup>2)</sup>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남한에서 제기되어 있는 시대구분법을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시 기	안 확	김사엽	조운제	김준영	김석하	장덕순	김동욱
삼국건국 이전	상고 시대	상고문학	태동시대	상고의 문학	원시종합 예술기	구비문학 고대가요	상고문학
신라통일 이전	중고 시대	삼국시대 문학		삼국시대 의문학	고대 문학기	향가문학	
고려건국			형성시대	통일신라	중세		

1) 김윤식, 김 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2) 조동일, 『문학연구방법』, 지식산업사, 1980, 239면.

이전				의문학 문학기				
고려인종 이전	근고 시대	고려문학	위축시대	고려의 문학		고려문학	중세문학	
조선건국 이전			잠동시대					
조선성종 이전	근세 시대	조선문학	소생시대	이조전반 기문학	근세문학 기 전기	조선문학	근세문학	
조선임란 이전			육생시대					
조선병란 이전			이조후반 기문학	발전시대	근세문학 기 중기			
조선경종 이전								근세문학 기 후기
갑오경장 이전								
삼일운동 이전	현 대	현대문학	운동시대		개화기 문학기	근대문학	근대문학	
해방이전			유신시대					현대 문학기
해방이후			재건시대					

위의 도표에 의하면 한국문학에 있어서 각각의 논자에 따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획은 조선의 전국과 갑오경장임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윤제의 경우가 특이하고 다른 논자들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왕조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편 조동일은 다음과 같이 시대구분을 하고 있다.

- 첫째 시대 : 원시문학(구, 신석기 시대)
- 둘째 시대 : 고대문학(고조선-삼국이전)
- 셋째 시대 : 중세전기문학
  - └ 제1기 (삼국, 남북국시대)
  - └ 제2기 (고려 전기)
- 넷째 시대 : 중세후기문학
  - └ 제1기 (고려 후기)
  - └ 제2기 (조선 전기)
- 다섯째 시대 : 중세문학에서 근대문학으로의 이행기
  - └ 제1기 (조선후기)
  - └ 제2기 (1860년 - 1918년)
- 여섯째 시대 : 근대문학 제1기 (1919년 - 1945년)

위에서 특이한 것은 앞의 도표에서 대개의 논자들이 주로 보인 것이 왕조 중심의 시대구분이었던데 반해 조동일의 경우는 문학자체의 흐름을 중시했다는 점이다. 가령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의 문학, 그리고 고려전기의 문학을 같은 시대로 구분했다든가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를 같은 시대로 구분하고 조선 후기와 삼일운동 이전의 문학을 같은 시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정치적인 흐름 및 시대구분법과 문학의 흐름이 꼭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조동일의 문학사는 보여주고 있다. 앞서 조윤제의 문학사는 정치적인 흐름을 따라 각 시대를 세분화하면서 문학의 성쇠에 따라 각각 특이한 이름으로 지칭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조동일의 문학사는 문학 자체를 더욱 중요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비추어 북한의 문학사는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가. 조금 장황해질지 모르겠으나 일단 북한문학사의 시대구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자.

북한의 문학사 시대구분은 『조선문학사』에서 대체로 정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문학사』와 『조선문학개관』을 참고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시문학

고대문학

1-7세기 전반기 (삼국시기) 문학

7세기 후반기-9세기 (발해 및 후기신라 시기) 문학

10-12세기 전반기 문학 (고려전기)

12세기 후반기-14세기 문학 (고려후기)

15-16세기 문학 (조선전기)

17세기 문학 (임진조국전쟁이후 사회변동기)

18-19세기 중엽의 문학 (봉건사회 분해기)

19세기 후반기-20세기초의 문학 (반일의병투쟁기)

1910-1920년대 전반기의 문학 (식민통치기)

1926-1945년의 문학 (항일혁명투쟁기)

1945. 8-1950. 6 문학 (평화적 건설시기)

1950. 6-1953. 7 문학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1953. 7-1960 문학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투쟁시기)

1961-1966 문학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시기)

1967 - 문학 (당의유일사상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 온 사회의주체사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시기)

한 편 1959년에 발간된 『조선문학통사』와 1981년에 발간된 『조선문학사』의 근. 현대의 구분에는 차이가 있다.

먼저 『조선문학통사』에서 19세기 말부터 1945년까지의 시대구분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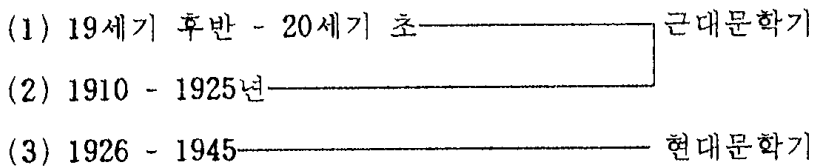
(1) 1900 - 1919년의 문학

(2) 1919 - 1930년의 문학

## (3) 1930 - 1945년의 문학

이 책은 표에서와 같이 3기로 구분하고 이에따라 각 시기의 문학적 양상을 장르별로 항목화하여 서술하고 있다. (1)에 해당하는 기간이 20년으로서 가장 길고 (2)에 해당하는 것이 12년, (3)에 해당하는 것이 16년이다. 그러나 (1)에 서술된 내용은 19세기 말도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상 26년 정도가 된다. 그리고 1919년과 1930년이 각각 겹치고 있어서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sup>3)</sup>

한 편 1981년의 『조선문학사』는 세 시기로 나누고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구분 시점과 연한도 변모되었다.



따라서 『조선문학사』에 오면 구분의 시점이 개화기, 1910년, 1926년으로 되었고 각 시기별 연한도 (1)과(2)가 약 15년, (3)이 약 20년이 되어 현대가 가장 길게 잡혀져 있다.

『조선문학통사』에서 1919년과 1930년을 구분의 시점으로 잡고 있는 것은 소련의 정치, 사회적 변화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며 『조선문학사』의 시기구분은 소위 주체 사상의 서술관점에 입각한 것이다.<sup>4)</sup>

북한문학사의 시대구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19세기 말에서 1910년까지는 개화기로 그 구분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1910년에서 1925년을 구획한 것은 전혀 다른 의미에서 추출되어 있다.

1920년대 중반기는 물론 한국문학사에서 중요한 시점으로 인식되어 있기는 하다. 예를 들면 <백조>가 해체되고 소위 카프문학이 대두되는 시기가 1920년대 중반이며 그 이후로 문학상의 변모는 기왕의 문학적 태도에 반성을 촉구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더욱 치중한 소위 현실주의 문학이 등장한 때이기 때문이다. 즉 <백조>가 해체되는 1923년까지를 우리는 근대전기라고 칭하고 있고 이후 20년대 중반

3) 이형기, 이상호 공저, 『북한의 현대문학1』, 고려원, 1990. 48면.

4) 이형기, 이상호 공저, 앞의 책, 50면.

에 이르면 '3.1운동 이후 상당한 동요를 보여 온 국내 사정의 누적과 아울러 때마침 팽배하기 시작한 사회주의의 자극이 1920년대 초기의 우리문학이 지니고 있던 내부적 해체요인을 촉발하면서 새로운 변모의 국면을 열게'<sup>5)</sup>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문학사에 있어서 1925년이 가지는 의미는 김일성이 열네살의 어린 나이로 혁명의 길에 나선 것을 경계로 한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한 편으로는, 1953년 7월에서 1958년까지는 전후복구사업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시기이고 1959년에서 1966년까지는 7개년 계획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전환은 김일성의 교시나 연설을 통해서 구체화 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sup>6)</sup>

따라서 북한의 문학사는 특히 근대로 넘어 올수록 정치, 사회사와 동일한 시대 구분을 따르고 있으며 그것도 김일성의 개인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북한의 문학사는 문학적인 전개양상보다는 사회적 제반 여건에 따른 구분이 1차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근대 이후에 오면 사회주의 건설과 김일성의 행적에 따른 개인사에 따라 구분되고 있는 것이다.

### II-3 근대의 기점문제

다음으로 근대의 기점문제에 대해 남북 문학사를 비교해 보자. 왜냐하면 한국 문학에 있어서의 근대의 기점문제는 그 자체로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남북 문학사의 근대를 주로 다루고자 하는 본고에 있어서는 근대의 기점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한국문학에 있어서 근대라는 개념이 그 자체가 큰 논란거리로 제기된다는 것은 곧 그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역사라는 측면과 다른 한 편 역사와 동일시 될 수 없는 문학 자체의 흐름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즉 역사에서의 근대와 문학에서의 근대는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당연한 논리에 의해서 문학에서의 근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문학사도 결국은 역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역사와 전혀 별개의 것일 수는 없지만, 한 편으로는 고대나 중세, 근대라는 개념 자체가 서구의 역사에서 나온 구분법이기 때문에 동양

5) 김홍규, 『문학과 역사적 인간』, 창작과 비평사, 1980. 217-218면

김은철, 『한국 근대 관념주의의 연구』, 형설출판사, 1993. 참조.

6) 김대행, 『북한의 시가문학』, 문학과 비평사, 1990. 220면



권, 특히 한국역사의 시대구분과 그대로 일치할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대상이다.

근대시라고 할 때의 근대의 개념이 단지 역사상에 있어서의 시대구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개념까지 포함할 때 그 논의는 자못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곧 근대의 정신은 어떤 것이며 그 정신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문학은 자체 내의 내적 질서를 가지면서도 사회상황과 전혀 별개의 것일 수는 없다. 문학을 개인 감정의 표출이라고 할 때 그것은 마치 문학이 사회적 현실의 반영이라는 측면과 대조적인 것으로 운위되지만, 사실상 어느 시대 어느 시인이거나 사회 또는 역사와 절연되어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예술가는 그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간에 이미 역사에 승선하고 있다는 까뮈의 말처럼 시인은 역사 속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물론 시인 개인의 개성에 따라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문학사가 역사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역사 그 자체와 전혀 무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근대문학의 기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관점 중 논자가 어느 것에 더 중하였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기되어 있는 근대의 기점은 대략 다음과 같다.

개화기 기점설 : 임 화는 '신문학사란 이식문화의 역사이다.'라고 규정하고 소위 이식문학론을 주장했다.<sup>7)</sup> 그에 의하면 '우리의 경우에는 역사 발전의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선행 봉건 사회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 했으므로 근대사회를 스스로 이룩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근대사회는 서구 근대 사회의 이식과 모방을 통해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였다.

임 화의 이식문학론은 백 철에 이르러서 더욱 확고하게 표명된다.<sup>8)</sup> 그는 신문학의 사조를 서구 문예사조의 이식으로 다루는 작업을 하면서 서론에서는 임 화의 견해를 거의 되풀이하고 있고 19세기의 서구문예사조를 도입했으면 근대문학이고 20세기 서구문예사조를 도입했으면 현대문학이라는 논리 위에 섰다. '유럽의 근대문학과 같이 자기 전통에 대한 반동과 자기 힘에 의하여 출발된 것이 아니고, 때

7) 임 화, 『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

8) 백 철, 앞의 책.

마침 흘러들어오는 외국의 근대문학의 영향을 일방적으로 받으면서 전혀 거기 대한 기계적 모양으로서 시작되었다.'9)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의 시각으로 본 결과 우리문학은 비정상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주장은 이후 박영희에게도 거의 그대로 답습된다.10)

이러한 이식문학론에 대해 안자산은 조선조를 근세로 파악하고 임진왜란 이후의 하층계급의 성장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11) 그 후 조운제도 그와 같은 논리에 동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1970년대 이후부터이다. 정병욱은 영.정조 이후의 많은 변화, 즉 각종 예술에 서민들의 의식과 감정이 반영되고, 서민예술들이 양반계층을 풍자하고 회화화하려는 현상을 중시하여 근대문학의 성격을 구명하려 했다.12) 특히 김윤식과 김 현은 영.정조 근대문학기점설을 더욱 심화시켜 나갔는데13) 이러한 영향에 힘입어 근대문학을 서구문학의 이식으로서가 아니라 한국문학 자체 내의 변모과정이라는 인식 하에서, 특히 개화기문학을 집중적으로 탐구함으로써 고대문학과 근대문학을 접맥시키려고 하였다.

한 편 조동일은 1592(임진왜란 이후) - 1860(동학창건 이전)을 중세문학에서 근대문학으로의 이행기 제1기로 설정하고 1860(동학창건) - 1918(삼일운동 이전)을 중세문학에서 근대문학으로의 이행기 제2기로 설정하고 있다.14) 이외에도 많은 논자들이 근대문학의 기점에 대해 나름대로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15)

근대문학의 기점은 이와같이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근대문학을 서구문학의 영향에서 가능했다는 것으로서 대략 갑오경장을 전후한 시기에서 찾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한국의 자체적 변동에 따라 영.정조 시대까지 소급하는 한 편 그 두 양상을 종합해보자는 노력도 있었다.

이러한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본고의 범주를 벗어나므로 필자로서는 장황한 논란을 피하고자 한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문학은 사회적 변동과 일치하는

9) 이병기, 백철,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76. 225면.

10) 박영희, 『현대 한국 문학사』, 사상계 1958.4-1959.4.

11) 안 환, 『조선문학사』, 한일서점, 1922.

12) 정병욱, 『이조후기시가의 변이과정고』, <창작과 비평> 31호, 1974, 봄.

13) 김윤식, 김 현, 앞의 책.

1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4권.

15) 예를들면 이재선, 백낙청, 엄두웅, 김홍규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고전문학연구회 편저, 『근대문학의 형성과정』, 문학과 지성사, 1983. 참조.

것이 아니며 자체내의 변모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 따라서 영.정조시대 기점설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학적 변모에 있어서 영.정조 전후의 변모양상보다는 개화기를 전후한 문학적 변모가 더 크다는 의미에서 개화기를 기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점만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이것이 이식문학론에 의한 것이 아니며 전적으로 문학적 제반 변화에 따른 것임을 부연하고자 한다.

한 편 북한문학사의 실상은 어떠한가. 우선 북한 문학사에서 근대에 해당하는 문학시기에서 가장 큰 획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1926년이다. 『조선문학사』의 1권인 고대 중세편은 원시문학예술에서 실학과 문학까지이며 19세기 말에서 1925년까지를 2권에서 다루고 있고 3권에서는 1926년에서 1945년까지를 다루고 있다. 박종원, 최탁호, 류 만의 『조선문학사』도 제1편에서 19세기 후반기에서 20세기 초까지를, 제2편에서 1910-1925년의 문학을 다루고 있다. 정홍교, 박종원이 지은 『조선문학개관 1』에서도 원시고대-1920년대 전반기를 다루고 『조선문학개관 2』에서 1920년대 후반기-1980년대 전반기를 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보건대 북한의 문학사는 한국문학의 전시기를 통시적으로 볼 때 1926년을 그 기점으로 전.후로 구분하고 있음이 판명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는 곧 1926년부터 김일성이 역사발전의 전면에 등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1926년 10월 17일 공산주의적 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면서 민족해방투쟁은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게 되었고 이후 민족해방투쟁의 중심이 만주를 근거지로 한 항일무장투쟁에 놓여짐에 따라 그 이전시기와 이후시기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조선문학사』(1926-1945)는 제1편의 제목을 '김일성의 지도 밑에 항일혁명투쟁 과정에서 창조된 혁명적 문학예술'로, 그 제 1장이 '김일성에 의한 항일혁명투쟁의 조직전개, 그가 제시한 항일혁명문학예술 발전에 관한 지침'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문학사에서 근대의 시점이라는 것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문학의 변모동인을 문학자체에서 찾거나 적어도 사회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서의 문학이라는 의식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문학사에서는 역사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시기구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근대나 현대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보다는 '김일성의...'라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 그것은 곧 그들에게 있어서 보다 소중한 것이 사회주의혁명과 김일성이라는 일개인의 행적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북한문학사에 있어서 근대라는 개념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대라는 용어가 쓰이는 곳을 보면

19세기 후반기로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 봉건제도의 점차적인 붕괴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급격한 장성, 제국주의 특히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영웅적인 투쟁은 우리나라에서 근대문학이 발생발전할 수 있게 한 사회정치적 환경으로, 생활적 토양으로 되었다. 16)

이처럼 이 시기의 국문운동은 조선어문을 광범한 인민대중 속에 보급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한문을 숭상하던 낡은 폐습을 반대하고 우리의 말과 글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그것을 널리 쓰도록 작용하였으며 조선어의 과학적인 발전을 추동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문운동과정에 인민들 속에서 반침략 반봉건 애국사상이 더욱 높아졌으며 우리문학의 근대적 발전이 다그쳐지게 되었다. 17)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북한의 문학사에서 19세기 후반-20세기초는 근대문학이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 것으로서 그 원인을 문학자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환경, 반침략반봉건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근대문학의 토양이 성숙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후, 근대문학에 해당하는 1910-1925년의 문학을 기술하는 데에서는 그 토양 위에서 근대문학이 어떻게 형성되고 꽃피웠는가 하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그 논리의 전개상으로 볼 때 1910년대 이후의 문학이 근대성을 확보한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데 예를들면 그 전 시기, 그러니까 19세기 후반-20세기 초의 문학에 대해

선행시기의 문학, 19세기 말-20세기 초 애국문화운동 시기의 문학은 일제와 봉건을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과 문명개화를 지향함을써 인민들의 민족적 각성을 촉진시키고 애국사상을 고취하는 데서 긍정적인 역할을 놀았다.

그러나 이 문학은 그것이 반제반봉건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독립과 자본주의적 문명개화를 주장하는 데 머물고 근로대중의 계급적 이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 하였다....그것은 이 문학이 반일 애국문학이면서도 그 본

16) 박종원, 최탁호, 류 만, 『조선문학사』

17) 앞의 책.

질에 있어서 부르조아민족주의사상에 기초한 문학이었기 때문이다...1910년대에 비판적 사실주의와 진보적 낭만주의 경향의 문학이 발전하게 된 것은 이 시기 우리 문학 앞에 나선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관련된다.<sup>18)</sup>

라고 비판하면서 1910년대의 비판적 사실주의와 1920년대의 무산계급문학 등 진보적 문학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1920년대의 문학에서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 김형직과 강반석의 문학이다. '이 시기 문학 발전에서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루는 것은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지도자인 김형직과 탁월한 여성정치활동가인 강반석의 문학이다. 김형직과 강반석의 항일혁명문학은 그 사상적 기초에 있어서 그에 반영된 생활내용과 작품의 사상예술적 심오성에 있어서 이 시기 진보적 문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애국주의적인 새로운 높이를 보여주었다.'라는 진술은 곧 이 시기에 있어서 최고 정점을 김형직과 강반석으로 삼는 증거이다.

따라서 북한문학사에 있어서 근대라는 개념은 역사적 일반원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체의 내부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으며 특히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에 할애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문학개관 2』에서 1926.10-1945.8 까지를 '항일혁명투쟁시기문학'으로, 1945.8-1950.6 까지를 '평화적건설시기문학'으로, 1950.6-1953.7 까지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문학'으로, 1953.7-1960 까지를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투쟁시기문학'으로, 1961년 이후를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시기문학'으로 규정짓는 것은 그 시기 구분이나 그 시기를 설명하는 용어에 있어서 전적으로 정치 상황에 따른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의 문학사는 사회변동에 종속되어 있고 문학 자체의 흐름 등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남한에서의 초기 문학사가 왕조중심의 기술형태를 취하다가 문학자체의 변모양상으로, 다시 사회변동과 문학적 양상을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양상으로 반성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18) 앞의 책.

## II-4 대상작가 및 작품의 선정문제

문학사 기술에 있어서 대상작가와 작품의 선정은 큰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곧 작가를 선정하고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기술자의 태도, 즉 기술자의 사관과 문예관, 세계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작가와 작품의 선정은 단순한 기술의 대상은 아닌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대문학사에 있어서는 작가와 작품의 선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작가와 작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 경우에는 기술자의 사관에 따른 가치평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근대문학의 경우 그 양상은 달라지는데 왜냐하면 우선 작가와 작품의 수가 월등히 많고 그 경향도 다양해서 기술자의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작가나 작품의 선별에서부터 가치평가에 이르기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현대로 오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남북의 문학이 이데올로기에 따라 양분된 근대 이후의 양상은 엄청나게 다르리라는 것을 우선 예상할 수 있다. 한 편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작가나 작품이 다른 한 편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고 하겠다.

우선 시기구분에서도 근대의 문학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었는데 예를 들면 남한 쪽에서는 논자에 따라 작품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근대를 구획하기도 하고 시대적 환경을 중요시하게 다루었는가 하면 그 둘을 조화있게 균형지으려는 노력도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근대의 시점이나 개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았으며 단지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1926년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문학사에서는 근대의 기점문제로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의 문학적 성과가 근대로 가는 일종의 과도기로 엮어지고 있는데 비해서 북한문학사에서는 대체로 1925년까지를 고대와 함께 다루고 1926년 이후부터를 큰 분수령으로 삼고 있다. 그것은 곧 김일성의 행적과 관련시켜 항일혁명문학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항은 접어두고 편의상으로 『조선문학개관』을 중심으로 19세기 후반기부터 대상작가와 작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조선문학개관1』의 후반(제 8장)부터가 그 조사대상이 된다. 『조선문학개관』에 각 장

마다 언급되어 있는 수식은 가급적 피하고 단지 연대만을 중시하기로 한다. 단, 연대만으로 기술이 불가능할 때는 수식을 첨가한다. 그리고 두음법칙을 존중하여 이름은 다시 쓴다.(예: 류린석을 유인석으로 표기)

### <19세기 후반기- 20세기 초>

#### (1)시가

유인석:「양포」,「강화도양요」,「세상을 걱정하여」,「국내인민들에게」,「의병들에게」,「망국노를 저주한다」,「5적과 7적을 저주한다」,「노래웁기를 그만두리라」,「애국 열사를 추모하여」,「진사 황현의 절명시 네 수를 차운하여 그를 추도한다」,「앞마을 가난한 집」

최익현:「이몸을 일으켜」

전해산:「옥중에서 읊노라」

안중근:「만세가」

김택영:「의병장 안중근이 나라의 원수를 갚았다는 소식을 듣고」,「의기의 노래」,「농사집의 노래」,「매천이 나라 위해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고」

황 현:「무장땅의 의병장 정시해의 죽음을 슬퍼하여」,「나라망한 소식을 듣고」,「목숨을 끊으면서」,「거북선의 노래」

#### (2)역사전기소설, 우화소설, 정론

안국선:「금수회의록」,「여우와 고양이의 문답」,「교활한 원숭이」,「호랑이를 등에 업은 여우」,「가담」

박은식:「교육이 불흥이면 생존이 부득」,「구습개량론」

신체호:「애국자」,「역사와 애국심의 관계」,「무능수론」

장지연:「시일야방성대곡」

박성흠:「애국론」

주시경:「국어와 국문의 필요」

#### (3)가사체 정론시가

작가미기재:「개꼬리 3년」,「동창만록」,「특의천지」,「송병준아」,「응전대」,「필하

단평], 「통상신약」, 「병문수작」, 「장하고도 슬프도다」, 「또다시 한번 권고하노라」, 「고금춘훈」, 「영웅기념제」

#### (4) 신소설과 창가

이인직: 「혈의 누」, 「모란봉」, 「귀의성」, 「치악산」, 「은세계」

이해조: 「자유종」, 「빈상설」, 「구마검」, 「모란병」, 「화세계」, 「화의 혈」, 「옥중화」, 「강상련」, 「연의각」, 「토의간」, 「철세계」

안국선: 「공제회」

최찬식: 「추월색」, 「안의 성」, 「금강문」, 「춘몽」, 「설중매」

김교재: 「현미경」, 「비행선」, 「목단화」, 「몽조」

#### (5) 창가

이용우: 「애국가」

이중원: 「독립가」, 「동심가」

김교익: 「신문가」

최병현: 「독립가」

작가미기재: 「상봉유사」, 「개교가」, 「학도가」, 「권면가」, 「소년남자가」, 「한반도」

### <1910-1920년대 전반기>

#### (1) 부르주아계몽문학으로서의 신문학

최남선: 「해에게서 소년에게」

김 역: 번역시집-『오뇌의 무도』, 『기탄자리』, 『원정』, 『신일』

창작시집-『해파리의 노래』, 『금모래』, 『봄의 노래』, 『안서시집』, 『지새는 밤』, 『먼동이 틀 때』

이광수: 「젊은 꿈」, 「방황」, 「무정」, 「개척자」, 「민족개조론」(논설), 「단종애사」, 「혁명가의 안해」, 「흙」

#### (2) 반일애국문학의 창조발전



한용운:『불교대전』,『님의 침묵』,『혹풍』(장편소설),

방정환:『사랑의 선물』(동화집),『소파전집』,『형제별』,『귀뚜라미』,『가을밤』,  
(이상 동시),『이상한 샘물』,『귀먹은 집오리』(이상 동화)

기타:『3.1운동가』,『독립운동가』,『광복가』,『3.1만세가』,『압록강의 노래』,『망향  
가』,『조국사상가』,『인산인해가』

신채호:소설-『꿈하늘』,『용과 용의 대격전』,『백세노승의 미인담』,

시-『새벽의 별』,『너의것』

정론-『무능수론』,『역사와 애국심의 관계』

역사저작-『조선사연구초』,『조선상고사』,『조선상고문화사』,『조선사』

### (3)비판적 사실주의 문학

현상운:『한의 일생』

걱정없을 이:『절교의 서』

양건식:『슬픈 모순』

현진건:『희생화』,『빈 처』,『술권하는 사회』,『타락자』,『할머니의 죽음』,『운수  
좋은 날』,『B사감과 러브레터』,『사립정신병원장』,『적도』,『혹치상지』,『무영탑』

나도향:『젊은 시절』,『별을 안거든 울지나말걸』,『옛날의 꿈은 창백하더이다』,  
『환희』,『행랑자식』,『자기를 찾기전』,『물레방아』,『지형근』,『병어리 삼룡이』,

김소월:시집-『진달래꽃』,『소월시초』,『김소월시선집』,

시론-『시혼』

시-『긴 숙시』,『먼 후일』,『밭고랑우에서』,『상쾌한 아침』,『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대일 땅이 있었다면』,『진달래꽃』,『금잔디』,『삭주구성』,『산유  
화』,『예이야기』,『버리운 몸』,『가는 길』,『접동새』,『초혼』

이익상:『광란』,『흙의 세례』,『쫓겨가는이들』,『키없는 범선』,『짓밟힌 진주』

송순일:『서기생활』

강영균:『나의애원』

이병옥:『봄의 예포』

조 운:『사향』

진우촌: 「구가정의 끝날」

김수산: 「산돼지」(회곡)

(4)무산계급의 이익을 반영한 프로레타리아문학

최서해: 「탈출기」, 「혈혼」(수필), 「고국」, 「탈출기」, 「기아와 살육」, 「홍염」, 「박돌의 죽음」, 「큰물진 뒤」, 「매월」, 「13원」, 「전아사」

조명희: 「농촌사람들」

이기영: 「민촌」

유완희: 「영오의 죽음」

김창술: 「대도행」

김영팔: 「부음」(회곡)

이상화: 「나의 침실로」, 「가을의 풍경」, 「단조」, 「금강예찬」, 「원시적 읍울」, 「가장 비통한 기욕」, 「가상」, 「시인에게」, 「극단」, 「통곡」, 「폭풍우를 기다리는 마음」, 「선구자의 노래」, 「바다의 노래」, 「오늘의 노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1926.10-1945.8>(항일혁명투쟁시기문학)

<1>항일혁명문학

(1)항일혁명문학의 역사적 터전

김형직: 「전진가」, 「정신가」, 「명신학교교가」, 「남산의 푸른 소나무」, 「짓밟힌 동포야 일어나거라」, 「자장가」, 「국어독본」

강반석: 「하늘은야 높고」, 「만경대에 봄은 와도」

(2)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 혁명적 문학

<시가>

「혁명가」, 「사향가」, 「무산청년가」, 「여자투사가」, 「여성해방가」, 「소년군가」, 「아동단가」, 「혁명군은 왔고나」, 「어데까지 왔니」, 「혁명군놀이」, 「소년애국가」, 「응원가」

김일성: 「조선의 노래」, 「조선의 별」,

<극문학>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혈분만국회」, 「3인1당」, 「지주와 머슴군」, 「흡혈귀」,  
「복수」, 「아버지의 뜻을 이어」, 「성황당」, 「딸에게서 온 편지」, 「꽃파는 처녀」

(3)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적 문학

<시가>

김일성: 「조선인민혁명군」, 「반일전가」, 「조국광복회 10대강령가」,  
「토벌가」, 「피바다가」, 「요일가」, 「유격대행진곡」, 「빨치산추도가」, 「유격대추도가」,  
「추도가」, 「인민주권가」, 「즐거운 무도곡」, 「유회곡」, 「총동원가」, 「결사전가」, 「노동  
자가」, 「농민혁명가」, 「여성의 노래」, 「아동단가」, 「통일전선가」, 「민족해방가」, 「병사의  
무예」

<극문학>

김일성: 「아버지는 이겼다」,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유언을 받들고」, 「길남이」, 「10월의 결의」, 「한 고학생의 가정」, 「한 지식인의  
각성」, 「기민탄식」, 「자위단」, 「민며느리」, 「무당과 의원」, 「경축대회」, 「게다짜이 운  
다」, 「웃는 집에 복이 온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다」, 「아버지와 남편을 찾는  
사람들」,

<2> 항일혁명투쟁의 영향밑에 발전한 진보적문학

<평론>

윤기정: 「무산문예가의 창작적 태도」  
조명희: 「〈힘〉의 예술을, 〈힘〉의 예술가를」  
이기영: 「집단의식을 강조하는 문학」

<소설>

조명희: 「아들의 마음」, 「낙동강」, 「김영일의 죽음」(회곡), 「파사」(회곡), 「봄잔  
디밭우에」(시집), 「땅속으로」, 「농촌사람들」, 「저기압」, 「새거지」, 「동지」, 「R군에게」, 「  
춘선이」, 「짓밟힌 고려」(산문시), 「10월의 노래」(시), 「여자들격대」(시), 「맹세하고 나

서자」(시), 「블쵸비크의 봄」(시)

이기영: 「민며느리」, 「원보」, 「제지공장촌」, 「적막」, 「돈」, 「오빠의 비밀편지」, 「가난한 사람들」, 「쥐이야기」, 「민촌」, 「농부 정도룡」, 「농부의 집」, 「쥐불」(서화), 「고향」, 「인간수업」, 「유한부인」, 「비」, 「어머니」, 「소부」, 「왜가리촌」, 「양캐」, 「봄」

강경애: 「간도야 잘 있거라」, 「채전」, 「해고」, 「소금」, 「인간문제」

채만식: 「새 길로」, 「화물자동차」, 「레디메이드인생」, 「인테리와 빈대떡」, 「소망」, 「예수나 믿었더라면」, 「치숙」, 「천하태평춘」, 「탁류」

심 훈: 「탈춤」, 「먼동이 틀 때」, 「동방의 여인」, 「영원의 미소」, 「직녀성」, 「상륙수」

이효석: 「도시와 유령」, 「노령근해」, 「상륙」, 「북극사신」, 「행진곡」, 「돈」, 「성수부」, 「성화」, 「메밀꽃 필무렵」, 「낙엽기」, 「장미병들다」, 「인간산문」

엄홍섭: 「안개속의 춘삼이」, 「흘러간 마을」, 「아버지의 소식」, 「정열기」

이복명: 「민보의 생활표」, 「질소비료공장」

이동규: 「여름」, 「우박」

윤기정: 「양회굴뚝」

박승극: 「평범한 이야기」

한설야: 「황혼」

한인택: 「선풍시대」, 「월급날」

송 영: 「새로 들어온 야학생」

안준식: 「아버지와 딸」

현경준: 「별」

현진건: 「무영탑」, 「흑치상지」

홍명희: 「임걱정」

박승극: 「술」

<시>

유완희: 「민중의 행렬」, 「어둠에 흐르는 소리」, 「나의 행진곡」, 「아우의 무덤」, 「여직공」, 「희생자」, 「향락시장」, 「자라나는 힘」

김창술: 「지형을 뜨는 무리」, 「무덤을 파는 소리」, 「전개」, 「앗을대로 앓으라」,

「반항」, 「김 밤이 지새여지다」, 「대도행」, 「새벽」, 「5월의 훈기」, 「가신 뒤」,

박아지: 「나의 노래여!」, 「갈 땅도 없는 봄은 오지나 말지」, 「봄을 그리는 마음」, 「이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소」, 「나의 하루」, 「숙아」

권 환: 「가라거든 가거라」, 「정지한 기계」, 「머리를 땅까지 숙일 때까지」 「왜 어른이 안 되여요」(소년시), 「치녀장미꽃」(동화), 「언법」(소년소설), 「팔」, 「아버지 김첨지 어서 갑시다! 쇠돌아 갓난아 어서 가자!」

박세영: 「야습」, 「누나」, 「산골의 공장」, 「그립구나 내 고향」, 「산제비」, 「우리들의 40년」

송순일: 「가을을 등진 무리」, 「불행아」, 「여공」

김소엽: 「흙 한줌 쥐고」

김조규: 「삼춘읍혈」

강경애: 「이 땅의 봄」

민병균: 「해빙기의 재령강반」

이용악: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이원우: 「5월의 해안선」, 「태모」

이 찬: 「어화」, 「그대들을 보내고」, 「만기」, 「면회」, 「부음」, 「국경의 밤」, 「눈내리는 보성의 밤」

양운한: 「구두」

김우철: 「북극의 봄」

안용만: 「살구 딸 6월」

#### <극문학>

김영팔: 「싸움」, 「불이야」, 「여성」, 「부음」, 「어떤 무대감독의 이야기」, 「아버지와 딸」, 「곶장칼」, 「세식구」,

송 영: 「일체 면회를 거절하라」, 「신임이사장」, 「황금산」, 「윤씨일가」, 「김삿갓」, 「석공조합대표」, 「군중정류」, 「백양화」, 「모기가 없어지는 까닭」, 「호신술」

이기영: 「월회」, 「인신교주」

채만식: 「제향날」, 「김삿갓」

이상에서 우리는 북한문학사의 기술태도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먼저 문학사 기술에 있어서 가장 큰 획을 설정하는 것이 1926년이라는 사실과 그 이유가 '김일성이 역사발전의 전면에 등장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이미 지적하였거니와 그 때로부터 항일무장투쟁에 의해 역사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다는 것이다. 즉 역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학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추어 변화된다는 가설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정은 문학을 사회변동에 종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문학자체의 내적 변동은 오히려 소홀히 취급되거나 무시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의병장들의 작품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과 정론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음이 눈에 띄인다. 기타 창가와 신소설의 경우는 작가와 작품선정에 있어서 남한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 1910-1920년대 전반기까지의 작가선정이나 작품의 선정도 그 가치평가에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나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인다. 남한에서 근대문학의 성립이라는 측면에서 이 시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중요작가들이 거명되어 있다 하더라도 큰 비중이 두어지지 않고 있다.

이 시기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작가로는 최남선, 김 익, 이광수, 한용운, 방정환, 신채호, 현진건, 나도향, 김소월, 이익상, 최서해, 조명희, 이상화 등이 있는데 이들 시인, 소설가들은 몇 명을 제외하면 남한문학사에서도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작가들이다. 따라서 사실상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의 북한문학사는 현저하게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남북문학사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26년을 기점으로 하여 북한문학사는 현저한 변화를 보이는데 먼저 김형직과 강반석의 문학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항일혁명문학의 역사적 터전을 이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용된 작품들을 일별하면 그것이 문학적인 가치보다는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쉽사리 판별할 수 있다. 김형직이 지었다는 「자장가」나 「명신학교교가」, 강반석이 지었다는 「하늘은야 높고」 등은 문학적인 성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단지 김일성이라는 '민족의 영웅'이 관계되었기 때문에 평가받는 것이다.

다음 '항일혁명투쟁의 혁명문학'에서는 주로 혁명과 관계된 시가나 김일성의 작품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 특히 김일성의 작품 앞에는 대개가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라는 수식어가 꼭 등장한다. 이 시기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극문학이 많다는 점과 김일성 이외의 작가는 이름이 소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극문학이 많다는 것은 그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혁명투쟁의 와중에서 단체관람이나 선동적인 효과가 강하기 때문일 수 있겠고 한 편 김일성 이외의 작가가 잘 등장하지 않는 것은 김일성과 다른 작가들을 같은 위치에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김일성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남한문학사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들로서 남북문학사에서 가장 이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더욱 논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작가의 진위문제, 작품성에 대해 남한쪽에서도 진지한 검토가 있는 연후에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한 편 이 시기의 문학에서 '항일혁명문학의 역사적 터전'이라는 김형직과 강반석의 문학과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적 문학'이라는 항목을 제외한 '항일혁명투쟁의 영향밑에 발전한 진보적 문학'란에서는 남한문학사에서도 흔히 거론되는 작가들이 등장한다. 윤기정, 조명희, 이기영, 강경애, 채만식, 심 훈, 이효석, 엄홍섭, 이북명, 현진건, 유완희, 김창술, 박아지, 권 환, 박세영, 이 찬, 송 영 등이 주요작가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도 몇 명을 제외하고는 남한문학사에서 자주 거명되는 작가들인 것이다. 그러나 문학사의 전면에 등장했던 이들이 '항일혁명투쟁의 영향 밑'에 위치함으로써 곧 김형직과 강반석, 김일성으로 이어지는 혁명문학의 영향권내에 들게 되어있고 작가나 작품의 선정에서 카프계열을 위주로 하고 있음을 제외한다면 구체적으로 작품 내면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말하자면 문학적 성과보다는 카프계열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그들의 영향권내에 있음을 피력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문학사에서 다루어진 작가들을 작가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는 다루어진 작가, -는 다루어지지 않은 작가이다)

〈표 2〉

장르	작가	조선문학통사	조선문학사	조선문학개관
소설	강경애	+	+	+
	걱정없을이	-	+	+
	관물생	+	+	-
	국여생	+	+	+
	김교제	-	+	+
	김동인	-	+	-
	나도향	+	+	+
	박승극	-	+	+
	반 아	-	+	-
	송순일	-	+	+
	신채호	-	+	+
	심 훈	-	-	+
	안국선	-	+	+
	안준식	-	+	+
	양건식	+	+	+
	엄홍섭	+	+	+
	윤기정	+	+	+
	이광수	-	+	+
	이기영	+	+	+
	이동규	-	+	+
	이복명	+	+	+
	이익상	-	+	+
	이인직	-	-	+
	이장자	-	+	-



	이해조	+	+	+
	이효석	-	-	+
	채만식	-	+	+
	최서해	+	+	+
	최찬식	-	+	-
	한설야	+	-	+
	한인택	-	+	+
	현경준	-	+	+
	현상윤	-	-	+
	현진건	+	+	+
	홍명희	+	-	+
시	강영균	-	+	+
	권 환	+	+	+
	김석송	-	+	-
	김소엽	-	-	+
	김소월	+	-	+
	김 익	-	-	+
	김우철	+	-	+
	김조규	-	-	+
	김창술	+	+	+
	김택영	-	+	+
	민병균	-	-	+
	박세영	+	+	+
	박아지	-	+	+
	박팔양	+	-	-

안용만	-	-	+
안종근	-	+	+
양운환	-	-	+
유완희	+	+	+
유인석	-	+	+
이병욱	-	+	+
이상화	+	+	+
이용악	-	-	+
이원우	+	-	+
이 찬	-	+	+
정해산	-	+	+
조명희	+	+	+
조 운	-	+	+
천청송	-	+	-
최남선	-	-	+
최익현	-	+	+
한용운	-	-	+
황 현	-	+	+
평론 권구현	+	-	-
김남천	+	-	-
김복진	-	+	-
김화산	+	-	-
박영희	+	+	-
이성태	+	+	-
이원조	+	-	-

임정재	-	+	-
임 화	+	-	-
한 식	-	+	-
회곡 김수산	-	+	+
김영팔	-	+	+
송 영	+	+	+
진우촌	-	+	+
아동문학			
김복원	+	-	-
남궁만	+	-	-
방정환	+	-	+
홍 구	+	-	-
창가 김교익	-	+	+
이중원	-	+	+
최병현	-	+	+

위 도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조선문학통사』에서보다 『조선문학사』나 특히 최근에 나온 『조선문학개관』에 실린 작가의 수가 월등히 많은데 물론 가치평가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이기는 해도 더 많은 작가가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조선문학개관』에 비로소 등장하는 이인직, 현상운, 심 훈, 이효석과 시에 있어서의 최남선, 김 억, 한용운의 경우는 특기할만한 것이다. 그것은 곧 기존의 북한문학사보다는 시각의 유연성을 보이는 조짐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편 남북문학사에서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작가별 양상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이 되는 것은 북한의 문학사 중 자료를 그나마 확대한 것으로 평가

되는 『조선문학개관』과 남한에서의 대표적인 문학사인 조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 김윤식, 김현의 『한국문학사』이다. 백철의 『신문학사조사』는 백과사전식이어서 대부분의 작가가 등장하므로 생략했고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는 거의 모든 작가를 다 대상으로 삼은 방대한 작업이어서 여기에서는 변별력이 떨어지므로 생략했다. 대상으로 삼은 시기는 191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로 하였다. 편의상 작가명은 가나다 순에 의하였고 『조선문학개관』은 책명을 그대로, 나머지는 저자의 이름을 따서 분류한다. 단편적으로 언급된 것은 피하고 중요하게 언급된 작가만 취하였으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3>

대상작가	조선문학개관	조연현	김윤식
강경애	+	-	-
권 환	+	-	-
김광균	-	-	+
김기진	-	+	-
김동명	-	+	-
김동인	-	+	+
김동환	-	+	-
김석송	-	+	-
김소월	+	+	+
김억	+	+	-
김영랑	-	-	+
김영팔	+	-	-

김유정	-	-	+
김창술	+	-	-
김환태	-	-	+
나도향	+	+	-
박세영	+	-	-
박아지	+	-	-
박영희	-	+	-
박종화	-	+	-
박태원	-	-	+
방정환	+	-	-
변영로	-	+	-
송영	+	-	-
신채호	+	-	-
심훈	+	-	-
양주동	-	+	-
엄홍섭	+	-	-
염상섭	-	+	+
오상순	-	+	-
유완희	+	-	-
윤기정	+	-	-

윤동주	-	-	+
이광수	+	+	+
이기영	+	+	-
이병기	-	-	+
이복명	+	-	-
이 상	-	-	+
이상화	+	+	+
이은상	-	-	-
이익상	+	+	-
이 찬	+	-	-
이태준	-	-	+
이효석	+	-	-
임 화	-	-	+
전영택	-	+	-
정지용	-	-	+
조명희	+	+	-
주요섭	-	+	-
주요한	-	+	+
채만식	+	-	+
최남선	+	+	+

최서해	+	+	+
한용운	+	+	+
현진건	+	+	+
황석우	-	+	-

---

〈표3〉에서 보면 북한의 『조선문학개관』에 등장하는 작가로 남한의 문학사 중 어느 한 곳에 등장하는 작가는 김억, 나도향, 이기영, 이익상, 조명희, 채만식 등이며 세 군데 다 등장하는 작가는 시인으로는 최남선, 김소월, 이상화, 한용운, 소설가로는 이광수, 최서해, 현진건 등이다.

남북한 문학사에서 이들의 평가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문학사기술의 통일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급적이면 세 문학사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작가를 모두 선택해서 비교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본고에서는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대표적 시인으로 평가받는 김소월과 이상화를 선택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 III 각 작가의 평가의 양상

남북한의 문학사를 점검하면서 각각의 시각 차이가 너무나 현저하기 때문에 실상 그 시각의 차이를 좁힌다는 것이 가능할지가 의문이기도 하다. 그것은 단지 문학사를 기술하는 데서 오는 차이가 아니라 문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차이는 근, 현대로 넘어올수록 더욱 심각해지는데 특히 북한에서 현대로 취급하는 1926년 이후의 문학은 편차가 너무 큰 것이 사실이다. 남한과 북한이 각각 독립된 정권을 수립하고 나서부터는<sup>19)</sup> 이데올로기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동일한 환경 밑에 있었던 식민지 시대 20년대와 30

19) 남한의 정권 수립은 1948년 8월 15일이고 북한의 정권수립은 1948년 9월 9일로 되어 있다. 하성수, 『남로당사』, 세계, 1986. 216면.

최서해	+	+	+
한용운	+	+	+
현진건	+	+	+
황석우	-	+	-

<표3>에서 보면 북한의 『조선문학개관』에 등장하는 작가로 남한의 문학사 중 어느 한 곳에 등장하는 작가는 김억, 나도향, 이기영, 이익상, 조명희, 채만식 등이며 세 군데 다 등장하는 작가는 시인으로는 최남선, 김소월, 이상화, 한용운, 소설가로는 이광수, 최서해, 현진건 등이다.

남북한 문학사에서 이들의 평가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문학사기술의 통일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급적이면 세 문학사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작가를 모두 선택해서 비교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본고에서는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대표적 시인으로 평가받는 김소월과 이상화를 선택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 III 각 작가의 평가의 양상

남북한의 문학사를 점검하면서 각각의 시각 차이가 너무나 현저하기 때문에 실상 그 시각의 차이를 좁힌다는 것이 가능할지가 의문이기도 하다. 그것은 단지 문학사를 기술하는 데서 오는 차이가 아니라 문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차이는 근, 현대로 넘어올수록 더욱 심각해지는데 특히 북한에서 현대로 취급하는 1926년 이후의 문학은 편차가 너무 큰 것이 사실이다. 남한과 북한이 각각 독립된 정권을 수립하고 나서부터는<sup>19)</sup> 이데올로기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동일한 환경 밑에 있었던 식민지 시대 20년대와 30

19) 남한의 정권 수립은 1948년 8월 15일이고 북한의 정권수립은 1948년 9월 9일로 되어 있다. 하성수, 『남로당사』, 세계, 1986. 216면.



년대의 문학을 보는 시각 차이 또한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말하자면 동일한 환경 밑에 존재하는 동일한 문학작품이 그 시대를 대표할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평가는 어떻든 동일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유사성까지는 가지고 있을 법 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평가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남한의 근대문학에서 항상 운위되는 작가들, 주요한, 한용운, 이육사, 윤동주의 이름이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는 실정이고 이 상은 소설가로도 시인으로도 등장하지 않으며 박영희나 김기진, 이태준, 임 화, 김남천 등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소설에 있어서 이해조, 현진건, 나도향, 최서해, 이기영, 조명희, 강경애, 양건식, 국여생, 윤기정, 이복명, 엄홍섭, 시에 있어서 이상화와 김창술, 유완희, 박세영, 권 환은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 말하자면 북한에서 주요 작가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남한의 문학사에서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아예 등장하지 않거나 대체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거나 최근에 와서야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정도인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문학개관』에서 어느 정도 대상이 확대된 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크게 만족스런 정도는 아니다.

특히 항일시인인 이육사와 윤동주가 북한 문학사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도 이상한 일이고 항일 독립운동과 투철한 독립정신을 담고 있는 한용운이 『조선문학개관』에 와서야 겨우 등장하는 것이다. 『조선문학개관』에서는 한용운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나라잃은 민족의 설움과 빼앗긴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깊은 정서와 사색을 담아 절절하게 노래한 것이 특징이다. 한용운의 작품들은 애상적인 색조와 불교적인 요소를 가진 제한성이 있기는 하나 1919년 3.1인민봉기를 전후한 시기 일제식민지통치하의 우리 인민들의 민족적 비애와 아라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진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하여 긍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비록 긍정적이라고는 하나 한용운이 가지는 남한 문학사에서의 비중을 생각한다면 지극히 소략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도 『조선문학개관』에 와서야 비로소 등장한다는 의미에서 소홀히 취급된 예가 된다.

### III-1 김소월에 대한 평가

남한의 문학사에서 한국근대시를 논하는 자리에서는 김소월만큼 그 위상이 높게 평가된 경우는 드물다. 김소월과 그의 작품에 대한 작가론이나 작품론이 다른 시인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sup>20)</sup>과 아직도 그의 시가 널리 회자되고 있다는 것이 곧 소월시의 우수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소월시의 특질을 해명하기 위한 연구결과들은 1)민족의 보편적 정서인 恨에 접맥되어 있다는 것, 2)운율에 있어서 전통적 율격인 3음보격을 위주로 하면서도 음수율에 얽매이지 않고 이를 발전적으로 해체하면서 의미에 따라 운율의 합당한 변화를 고려하였다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소월시의 미학적 특질을 밝히는데 연구자들이 노력을 경주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소월에 대하여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우선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의 대표적인 문학사 중에서 김소월이 언급되고 있는 문학사는 『조선문학통사』와 『조선문학개관』이고 『조선문학사』에는 김소월이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음이 특이하다. 『조선문학사』에서는 <창조> <폐허> <백조>를 다루면서 '3.1인민봉기를 계기로 역사무대에서 밀려나간 민족부르조아지들의 정신적 파산과 그에 충격을 받은 소부르조아인테리들의 패배주의와 염세주의적 기분을 반영하고 나선' 것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동물적인 관능세계에 쏠리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상의식을 마비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하고 '한결같이 현실사회의 계급적 모순과 투쟁을 외면하고 생활에 대한 허무와 절망, 비애와 죽음을 예찬하면서 사람들을 동물적인 본능과 방탕으로 이끌어가려는 목적을 추구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sup>21)</sup> 그런가 하면 이 시기에 해당하는 시인을 개별적으로는 한 사람도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문학사』에서의 기술태도는 1920년대 전반기의 문학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다. 그것은 남한의 문학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20년대 전반기의 문학이 현실인식이 미비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사상의식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의식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다.

20) 김소월에 대한 연구목록은 김종육에 의하면 1981년까지의 연구결과가 170편이고 윤주은에 의하면 1982년 까지의 연구결과가 188편이다. 그 이후에 발표된 것과 단편적인 언급까지를 포함한다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김종육, 『원본 소월전집』, 흥성사, 1982. 윤주은, 『김소월시 원본연구』, 학문사, 1983. 참조.

21) 박종원, 최탁호, 류 만, 『조선문학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열사람 재간행), 190-191면.

한 편 『조선문학통사』(현대편)에서도 김소월에 대한 평가는 본격적이지 않다. 즉 1919년에서 1930년까지의 문학을 다루면서 첫째항목으로서 ‘프롤레타리아 문학’으로 산문과 시, 평론을 다루고 기타항목으로서 ‘프롤레타리아 문학 이외의 진보적 문학’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나도향과 김소월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된 김소월에 대한 평가는 대략 다음과 같다.

김소월은 3.1운동 이후 양양되는 조선 인민의 민족해방투쟁과 결부되어 있는 못 하였으며 당대 사회에 있어서의 혁명적 파도를 자기 시의 맥박으로 하지는 못 하였다. 물론 김소월의 시는 당대 현실에 있어서의 조선 인민의 진실한 생활 감정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그 진실은 3.1운동 이후 양양되는 새로운 사회현실의 진실의 전면성에는 미치지 못한 제한적인 것이었으며 불완전한 것이었다.<sup>22)</sup>

김소월의 시문학의 사회적 기초는 농민의 생활이다. 그는 3.1운동 이후 조선 인민의 민족적 계급적 해방의 담당자로서의 새로운 역량은 무엇이며 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일제의 기반으로부터 조선 인민을 해방시켜줄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알지 못하였다.<sup>23)</sup>

진술된 바와 같이 김소월에 대한 『조선문학통사』의 평가는 당대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긍정적인 반면에 현실의 진실의 전면성에는 미치지 못한, 새로운 국면은 제시하지 못한 제한적인 것,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문학사에 있어서 김소월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인민들의 근로문제를 다룬 시들에 한정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높게 평가받는 작품은 「밭고랑 우에서」와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대일 땅이 있었더면」이다.

우리 두 사람은  
 키높이 가득 자란 보리밭 밭도랑 우에 앉았어라  
 일을 하고 쉬는 동안의 기쁨이여  
 지금 두 사람의 이야기는 꽃이 필 때  
 오오, 빛나는 태양을 내려찍이여  
 새무리들도 즐거운 노래, 노래 불러라  
 오오 은혜여 살아있는 몸에 넘치는 은혜여  
 모든 은근스러움이 우리의 맘속을 차지하여라

22) 『조선문학통사』, 96면.

23) 『조선문학통사』, 97면.

세계의 끝은 어디? 자애의 하늘은 넓게도 덮었는데  
 우리 두 사람은 일하며 살아 있어서  
 하늘과 태양을 바라보아라 날마다 달마다도  
 새라 새로운 환희를 지어내며 늘 같은 땅 위에서  
 다시 한번 활기있게 웃고 나서 우리 두 사람은  
 바람에 밀리우는 보리밭 속으로  
 호미들고 들어갔어라 가지런히 가지런히  
 걸어나가는 기쁨이여 오오 생명의 향상이여  
 「밭고랑 위에서」 전문-

이 시에 대한 평가는 이 시를 쓴 시인이 '창조적인 로동 속에서 인간의 미와 힘을 보았으며 상쾌한 정성과 광활한 정신의 약동을 감득한다'<sup>24)</sup>는 것이다.

한 편, 「바라건대는...」은 부르조아적 사회조건 하에서 근로가 얼마나 보람없는 것으로 되고 있으며, 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런 노예적인 것으로 되고 있는나에 대하여 말한 것이며, 근로하는 농민들의 공포스러운 운명에 대하여 노래했다<sup>25)</sup>고 말한다. 따라서 김소월에 대한 『조선문학통사』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근로의 문제에 한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인민생활에서의 근로의 문제를 취급하며 근로를 모든 현실적 현상을 규정하는 종국적 요인으로 보는 자기의 미학적 견해를 형상하기도 했다.<sup>26)</sup>

『조선문학개관』에서의 김소월에 대한 평가도 사실상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1910-1920년대 전반기의 문학을 다루면서 '1. 부르조아계몽문학으로서의 신문학, 2. 반일애국문학의 창조발전, 3. 비판적사실주의문학, 4. 무산계급의 리의를 반영한 프로레타리아문학'으로 항목을 설정하고 2항목에서는 신채호를, 3항목에서는 나도항과 김소월을, 4항목에서는 최서해와 이상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말하자면 『조선문학통사』에서 '-이외의 진보적 문학'에서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으로 항목설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감은 있지만 그 기술상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조선문학개관』에서 언급하는 소월의 시는 「긴 숙시」, 「먼 후일」, 「밭고랑우에서」, 「상쾌한 아침」,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대일 땅이 있었다면」, 「진달

24) 『조선문학통사』 98면.

25) 『조선문학통사』, 99면.

26) 『조선문학통사』, 98면.

래꽃, 「금잔디, 「삭주구성, 「산유화, 「옛이야기, 「버리운 몸, 「가는 길, 「접동새, 「초혼」등이며 시론으로 「시혼」이 있다는 것과 시집으로 『진달래꽃』, 『소월시초』, 『김소월시선집』 등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한 편 작품이 인용되는 것은 「금잔디」와 「초혼」이다.

『조선문학개관』에서는 김소월을 비판적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시인이라고 평하고 「밭고랑우에서, 「상쾌한 아침, 「바라건대는...」은 농민들을 동정하는 인도주의적 정신이 구현되어 있고 「진달래꽃, 「금잔디, 「삭주국성, 「산유화」는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향토적 풍속을 노래하였으며 특히 「금잔디」는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이 민요풍의 운율로 짙은 서정 속에서 시각적으로 표현되었다고 하면서 전문을 인용하고 있다. 또 김소월시의 미학정서적 특징의 하나는 일제강점으로 말미암아 잃어진 지난 날의 것에 대한 그리움이 울분의 감정과 결합되어 노래되고 있는 것인데 「옛이야기, 「버리운 몸, 「가는 길, 「접동새」 등은 당시 우리 인민들의 민족적 비애와 울분을 비통한 심정으로 노래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sup>27)</sup>

특히 「초혼」에 대한 가치평가는 다음과 같이 비교적 상세히 내리고 있다.

특히 그의 대표적인 시 「초혼」에서는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슬픔을 떠나간 연인에 대한 그리움에 비유하여 가슴 아프게 노래하고 있다. 시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허공중에 깨어진 이름, 불러도 대답없는 이름을 부르며 몸부림치던 서정적 주인공은 설움에 겨워 통곡의 격정을 터뜨린다.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빗겨가지만  
 하늘과 땅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채로 이 자리에 들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시는 이처럼 그 속에 솟구치며 흘러넘치는 애국적 격정의 분류로 하여 사람들에게 뜨거운 시적 감흥과 사색을 안겨준다.<sup>28)</sup>

결론적으로 『조선문학개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김소월을 평가하고 있다.

27) 정홍교, 박종원, 『조선문학개관』 359-360면.

28) 『조선문학개관』, 360-361면.

김소월의 시들은 풍부하고 섬세한 서정과 음악적인 운율, 아름답고 간결한 시어와 정교하고 평이한 형식, 짙은 향토적 색채와 민족적 정서로 하여 당시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김소월은 세계관의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당대현실을 부정하며 민족적 비애와 울분을 토로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그것을 뚫고 나갈 방도와 전망을 제시하지 못 한 것과 같은 결함을 드러내 놓았다.

이러한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애국적인 감정과 민족적 정서를 민요풍의 아름다운 형식에 구현한 그의 서정시들은 1920년대 시문학에서 이채를 띠었으며 시형식 발전에 기여하였다.<sup>29)</sup>

결론에 이른 부분은 결국 세계관의 제한성으로 비애와 울분에만 그치고 전망을 제시하지 못 했다는 것으로서 『조선문학통사』에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문학개관』은 좀 더 긍정적인 평가에 도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조선문학통사』에서 인용을 하면서 높게 평가한 「밭고랑우에서」와 「바라건대는...」 대신에 「금잔디」와 「초혼」을 중요하게 취급하였다는 점과 1920년대 시형식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긍정적 가치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문학통사』에서 인용한 작품들, 「밭고랑우에서」와 「바라건대는...」은 소월의 후기시작품으로 사실상 남한의 문학사에서는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다. 소월은 시작 후기에 들어 소재상의 변화를 보이면서 「밭고랑우에서」와 「바라건대는...」, 「웃과 밥과 자유」, 「나무리벌노래」, 「돈타령」, 「생과 돈과 사」 등을 발표하였고 최근에 들어 문학사회학의 영향으로 그 작품들이 소개되고 평가가 내려지고 있긴 하지만 문학적 업적으로는 「진달래꽃」이나 「산유화」, 「가는 길」, 「초혼」에 미치지 못 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김소월은 ‘그러한 작품을 쓰는데 많은 힘을 기울이지 않았던’<sup>30)</sup> 것이다. 즉 『조선문학통사』에 인용된 작품들은 소월의 진면목을 보기에는 그야말로 제한적인 것이다.

그러나 『조선문학개관』에서 「금잔디」와 「초혼」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여러모로 시사적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조선문학통사』의 시각을 불식하지 못하고 그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지만 그 지적은 사실상 남한에서도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것은 ‘애국적인 감정과 민족적 정서를 민요풍의 아름다운 형식에 구현하였으며 당대에 많은 사랑을 받았고 시형식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데 있다. 이러한 평가는 남한의

29) 『조선문학개관』, 361면.

30)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178면.

문학사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는 유효한 것이다.

예를 들면 김윤식, 김 현은 김소월에 대해 '7.5조를 그대로 수락하지 않고 새로운 시형을 찾음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최초의 시인이라'<sup>31)</sup>고 평가하고 있고 김용직은 그것이 '언어의 탄력과 입체성에 이르고 있다'<sup>32)</sup>고 평가한다.

『조선문학개관』에서 인용된 「금잔디」와 「초혼」은 『조선문학통사』에서 김소월의 대표작으로 중요하게 취급한 「밭고랑우에서」와 「바라건대는...」보다는 문학적 성과면에서 앞서 있는 것이기에 앞으로 북한문학사 기술의 태도가 어느 정도 수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을 제공해 준다. 즉 그것은 『조선문학통사』에서 기준이 되던 근로의 문제만이 아니라 당대 민족의식에 입각한 서정주의 내지는 운율적인 면, 시어, 형식적인 면을 고려한 결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문학사에서 대체적으로 지적하는 세계관의 불명확, 비전을 제시하지 못 했다는 말은 남한의 문학사에서도 익히 지적되는 것이기에 앞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있어서 상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 III-2 이상화에 대한 평가

김소월의 경우 북한문학사에서 외면 당하거나 의외로 소홀히 취급받고 있음에 비추어 이상화의 경우는 문학사에서 위상이 극히 높게 자리매김되어 있다. 이상화는 북한문학사에서 뿐만 아니라 남한의 문학사에서 모두 높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 비교는 훨씬 더 흥미를 유발시킨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이상화가 모두 등장하고 있고 그 평가 또한 아주 긍정적이다. 일례로 『조선문학사』에서는 19세기 말-1925년까지를 다루면서 총 232면 중 이상화에게 12면을 할애하고 있고 『조선문학개관 1』은 원시고대-1920년대 전반기를 다루면서 3면을 할애하고 있으며 1900-전후시기까지의 『조선문학개관』에서는 391면 중 5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북한 문학사에서는 몇 면을 할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제목으로 엮여지는 그 자체가 대단한 평가이다. 왜냐하면 『조선문학개관 1』에서는 김소월과 현진건, 나도항이 같은 챕터에 위치하고 이상화와 최서해가 같은 챕터에 엮여져 있기 때문이

31) 김윤식, 김 현, 『한국문학사』, 143-149면 참조.

32) 김용직, 『한국근대시사』, 새문사, 371-383면.

다. 그 외 다른 작가들은 단편적이거나 소홀히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즉 이상화는 한 항목으로 다루어지는 몇 명에 이르지 않는 작가 중의 한 사람이며 또한 평가의 문제를 고려한다고 할 때 그 위상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화의 시 중에서 북한문학사에서 언급되는 작품들은 『조선문학통사』에 「어촌애경」, 「가상」, 「이 해를 보내는 노래」, 「시인에게」, 「극단」, 「선구자의 노래」, 「오늘의 노래」, 「바다의 노래」, 「저무는 놀 안에서」, 「폭풍우를 기다리는 마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등 11편이 등장하고 있고 『조선문학사』에서는 「가장 비통한 기욕」,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통곡」, 「거러지」, 「바다의 노래」, 「오늘의 노래」, 「선구자의 노래」, 「폭풍우를 기다리는 마음」, 「저무는 놀 안에서」 등 9편을, 『조선문학개관1』에서는 「나의 침실로」, 「가을의 풍경」, 「단조」, 「금강레찬」, 「원시적 읊음」, 「어촌애경」, 「가장 비통한 기욕」, 「가상」, 「시인에게」, 「극단」, 「통곡」, 「폭풍우를 기다리는 마음」, 「선구자의 노래」, 「바다의 노래」, 「오늘의 노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등 16편을 소개하고 있다. 이 중 작품이 인용되는 것은 「빼앗긴 들...」이 공통적으로 들어 있고 『조선문학사』에 「가장 비통한 기욕」, 「폭풍우를 기다리는 마음」, 「선구자의 노래」, 「바다의 노래」, 「오늘의 노래」, 등이 더 인용되고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조선문학사』와 『조선문학개관 1』에서 김소월과 이상화를 다루는 면도 흥미있는 비교대상이다. 즉 『조선문학사』에서는 김소월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이상화에 대해 길게 언급하고 있는 점, 『조선문학개관 1』에서는 김소월을 언급하면서도 이상화를 상대적으로 축소시킨 점이 그것이다. 이것은 최근에 나온 『조선문학개관』이 보여주는 의미있는 변화로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상화에 대한 평가를 비교해보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 진다.

먼저 『조선문학사』에서 언급된 이상화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가장 비통한 기욕」: 사람들을 불행과 고통 속에 몰아넣는 일제식민지사회에서는 살아서 학대와 치욕을 당하기보다 죽음을 바란다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항거의 사상감정을 노래하고 있다. 시인은 일제와 지주, 자본가들의 학정과 착취에 견디다 못 하여 이역땅으로 쫓겨가는 조선사람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뜨거운 동정과 그러한 불행을 들썩우는 당대 현실에 대한 증오와 반항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항거의 기백은 산설고 거치튼 간도땅에서 무서운 고역에 피명이 든 가슴을 부여안고 고향이 못내 그리워 잠 못 이루는 조선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결부됨으로써 그 시적 열정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그만큼 시는 커다란 정서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잃어진 조국땅에 대한 비통한 심정과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다... 개성적 특징을 가장 뚜렷이 보여주는 시인의 대표작이다... 그리하여 시에서는 일제침략자들에게 조국을 빼앗김으로써 생활의 봄조차 빼앗긴 우리 인민의 울분과 항거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울려나오고 있다. 이 시가 것처럼 커다란 감동을 주는 것은 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그러한 사랑을 불러일으킨 조국의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시인의 개성적인 체험을 통하여 노래하면서 이처럼 아름다운 조국을 잃은 우리 인민의 비통한 사상 감정과 지향을 진실하게 밝혀주었기 때문이다.

3) 「통곡」: 원수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빼앗긴 조국 땅... 초보적인 인간의 권리와 자유마저 무참히 짓밟고 억누르는 이 세상이 하도 저주로워 통곡하는 시인의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4) 「거러지」: 인민들을 거러지와도 같은 비참한 생활처지에 몰아넣은 간악한 세상에 항거해 나설 것을 호소하고 있다.

5) 「폭풍우를 기다리는 마음」: 착취사회가 강요하는 자족과 굴종을 반대하고 자유해방을 지향해 나선 인민대중의 항거의 정신을 노래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희망에서 시인은 인민들에게 그러한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일제통치 하의 착취제도를 청산해버릴 '폭풍우'를 열렬히 갈망하고 있다.

6) 「선구자의 노래」: 현실에 대한 울분과 폭풍우의 도래에 대한 열망의 세계에서 벗어나 항거와 투쟁의 세계에 들어서는 선구자의 열정과 결의를 노래하고 있다.

7) 「바다의 노래」: 심오한 생활탐구과정에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항거와 투쟁으로 나서는 서정적 주인공의 자부심과 드높은 기개를 노래하고 있다.

8) 「오늘의 노래」: 현실부정의 정신과 투쟁에 대한 결의를 안고 분연히 항거와 투쟁을 호소하는 서정적 주인공의 적극적인 체험세계가 노래되고 있다. 33)

한 편 『조선문학개관 1』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이상화의 시문학은 1925년경부터 새로운 질적 내용을 가지고 현저한 발전을 가져왔다.

이 시기에 그는 「가장 비통한 기록」, 「가상」, 「시인에게」, 「극단」 등과 같은 현실부정의 기백이 높은 시작품들을 많이 내놓았을 뿐 아니라 거기에 현실에 대한 심화된 시적 파악을 가지고 근로인민들에 대한 동정과 옹호, 착취사회에 대한 울분과 항거, 새 사회에 대한 지향과 염원을 진실하게 반영하였다.

그의 시문학에서는 특히 일제통치하에서 조선인민의 아픔과 분노의 감정을 반항의 목소리, 투쟁에로의 호소와 결부시켜 격동적으로 노래한 작품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리상화의 시문학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의 하나는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1926)이다. 이 시는 아름다운 언어와 풍부한 정서를 가지고 빼앗긴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33) 박종원, 최탁호, 류 만, 『조선문학사』, 215-224면 발췌.

서정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풍부한 예술적 형상수법과 세련된 시어, 아름다운 운율을 다양하고 적중하게 구사하여 땅을 빼앗겨 봄마저 빼앗긴 조선농민들의 비통한 심정과 애국적 지향을 시적으로 일반화한 우수한 작품의 하나이다.

이상화의 시문학은 비록 시대적 및 세계관적 제한성에서 오는 일련의 약점과 미숙성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당대사회현실에 대한 비판과 항거정신으로 일관된 주제사상적내용과 세련되고 완미한 형식이 조화롭게 결합된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조선시문학의 발전풍부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sup>34)</sup>

이와같은 평가의 양상으로 볼 때 북한의 문학사에서 이상화가 평가받는 것은 일제에 대한 항거정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 착취사회에 대한 항거, 근로인민들에 대한 옹호와 반항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작품의 선택은 그러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치평가 또한 그 기준에 적용되고 있다. 각 문학사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는 「빼앗긴 들...」도 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빼앗긴 들...」은 그 중에서도 풍부한 예술형상적 수법과 시어, 아름다운 운율에 의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이 눈에 뜨인다. 그러면서도 한 편으로는 시대적 및 세계관적 제한성에서 오는 일련의 약점과 미숙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1920년대의 대다수 시인과 소설가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비판적 사실주의는 벗어났지만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불충분하게 체현되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당대 문인들이 일제에 대한 저항,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프롤레타리아적 조직성을 갖추지 못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바, 김일성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1926년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또한 그러한 한계는 1926년 이후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적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1926년을 기점으로 명확한 시대구분을 하고 거기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는 북한문학사의 실상을 염두에 둔다면 사실상 북한문학사에서의 이상화에 대한 평가는 최고 정점에 위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북한의 문학사에서의 작품평가의 기준이 작품내적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작품외적인 데 연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운율조직과 형상기법에 있어서 장점을 말하긴 해도 그것이 어떻게 구체화되어 있는가라든지 의미적 맥락과 어떻게 조직화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즉 작품 내적인

34) 정홍교, 박종원, 『조선문학개관 1』, 369-371면 발췌.

문제는 다소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이 북한문학사의 실정인 것이다.

남한의 문학사에 있어서도 「빼앗긴 들...」은 높게 평가받고 있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남한의 문학사에서 「나의 침실로」가 언어의 조직적인 면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비하여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고 있음은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들에 의하면 「나의 침실로」 정도는 앞서 20년대 초반을 설명하면서 내세운 ‘패배주의와 염세주의적 기분을 반영하고 나선 것’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동물적인 관능세계에 쏠리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상의식을 마비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고, ‘한결같이 현실사회의 계급적 모순과 투쟁을 외면하고 생활에 대한 허무와 절망, 비애와 죽음을 예찬하면서 사람들을 동물적인 본능과 방탕으로 이끌어가려는 목적을 추구한’ 것이라는 평가만이 유일할 것이다.

그러나 「빼앗긴 들...」이 남북한의 문학사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평가받는다는 것은 어쨌든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가치가 높다는 것을 뜻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 평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을 느낀다.

북한에서의 평가는 위에서 예들들어 보았거니와 남한에서는 이상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먼저 김윤식, 김 현의 『한국문학사』에서는 식민지 초기의 시인들 중 김소월과 한용운, 이상화를 높게 평가하면서 이상화의 53편의 시 중 「빼앗긴 들...」과 「나의 침실로」, 「가을의 풍경」, 「이별」, 「역천」, 「가장 비통한 기록」이 시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고 특히 「빼앗긴...」과 「나의 침실로」를 2대 걸작일 뿐만 아니라 식민지 초기의 절정을 이룬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sup>35)</sup> 전반적으로 그의 시경향은 낭만주의적인 태도인데 즉 현실 밖에 이상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현실 밖이라면 어디든지 나가겠다는 태도를 뚜렷이 나타낸다는 것이다. 현실에의 환멸은 초기에는 가정제도, 애정생활에서 온다고 하였으며 후기에는 식민지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 낭만주의적 경향을 가장 격렬하게 보여준 것이 「빼앗긴 들...」이라는 것이다.

조동일은 『한국문학통사 5』에서 이상화를 ‘생활에 근거를 둔 시가 뛰어난 표

35) 김윤식, 김 현, 『한국문학사』, 149면.

현을 갖추어 절실한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훌륭하게 입증했다'고 평가하고 관념의 틀에서 현실을 인식하는 진통을 겪었다고 하였으며 「말세의 회탄」, 「나의 침실로」, 「선구자의 노래」, 「통곡」, 「조소」, 「구루마꾼」, 「옛장수」, 「거리지」, 「가장 비통한 기록」, 「빼앗긴 들...」, 「역천」 등을 거론했다.<sup>36)</sup> 특히 그는 「빼앗긴 들...」을 평하면서

내용과 형식의 통일을 아무런 차질없이 이루었으므로, 이 시는 자연스럽게 읽히면서 절실한 감동을 준다. 그래서 시를 가지런하게 다듬으려고 되도록 목소리를 낮추고 단조로운 애조나 회통하고 마는 태도가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을 훌륭하게 입증했다. 시로써 현실의 문제를 파헤쳐 부당한 억압과 맞서자면 말이 거칠어지고 짜임새가 산만해지게 마련이라는 주장도 이런 작품 때문에 견디어내지 못 한다.<sup>37)</sup>

라고 하여 내용과 형식을 완벽하게 통일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상화에 대한 평가는 많지만<sup>38)</sup> 주로 구조적으로 작품을 분석해서 미적 특질을 강조하거나 현실인식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들을 취하고 있다. 부정적인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느 쪽도 한국근대시의 정점에 이 작품을 두는데 인색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상화의 시, 특히 「빼앗긴 들...」의 우수성은 조동일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작품내적인 미학에 있어서 뿐 아니라 관념성에서 탈피하여 현실에 눈을 돌렸다는 데 있고 더구나 그것이 언어적 조직에 있어서도 훌륭하게 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북한의 문학사에서 주장하는 1926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은 세계관에서 한계를 보여준다는 점만 제외하면 적어도 우리는 남북문학사에서 이상화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 IV 남북문학사 기술의 원리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남북한의 문학사는 작가와 작품의 선정에서부터 이

36)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188-191면.

37) 조동일, 앞의 책, 190면.

38) 최동호, 「이상화시의 연구사」, 『현대시의 정신사』, 열음사, 1985. 참조.

현을 갖추어 절실한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훌륭하게 입증했다'고 평가하고 관념의 틀에서 현실을 인식하는 진통을 겪었다고 하였으며 「말세의 회탄」, 「나의 침실로」, 「선구자의 노래」, 「통곡」, 「조소」, 「구루마꾼」, 「옛장수」, 「거리지」, 「가장 비통한 기록」, 「빼앗긴 들...」, 「역천」 등을 거론했다.<sup>36)</sup> 특히 그는 「빼앗긴 들...」을 평하면서

내용과 형식의 통일을 아무런 차질없이 이루었으므로, 이 시는 자연스럽게 읽히면서 절실한 감동을 준다. 그래서 시를 가지런하게 다듬으려고 되도록 목소리를 낮추고 단조로운 애조나 회통하고 마는 태도가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을 훌륭하게 입증했다. 시로써 현실의 문제를 파헤쳐 부당한 억압과 맞서자면 말이 거칠어지고 짜임새가 산만해지게 마련이라는 주장도 이런 작품 때문에 견디어내지 못 한다.<sup>37)</sup>

라고 하여 내용과 형식을 완벽하게 통일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상화에 대한 평가는 많지만<sup>38)</sup> 주로 구조적으로 작품을 분석해서 미적 특질을 강조하거나 현실인식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들을 취하고 있다. 부정적인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느 쪽도 한국근대시의 정점에 이 작품을 두는데 인색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상화의 시, 특히 「빼앗긴 들...」의 우수성은 조동일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작품내적인 미학에 있어서 뿐 아니라 관념성에서 탈피하여 현실에 눈을 돌렸다는 데 있고 더구나 그것이 언어적 조직에 있어서도 훌륭하게 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북한의 문학사에서 주장하는 1926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은 세계관에서 한계를 보여준다는 점만 제외하면 적어도 우리는 남북문학사에서 이상화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 IV 남북문학사 기술의 원리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남북한의 문학사는 작가와 작품의 선정에서부터 이

36)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188-191면.

37) 조동일, 앞의 책, 190면.

38) 최동호, 「이상화시의 연구사」, 『현대시의 정신사』, 열음사, 1985. 참조.

질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동일한 역사적 환경하에 있었던 일제 식민지 시대의 평가에 있어서도 많은 시각의 편차가 있다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문학은 무엇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다. 문학사의 기술은 결국 문학을 어떻게 보는가와 직결되어 있으며 그것은 또한 삶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편차는 우선 문학을 보는 시각의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북한에서 문학을 보는 시각은 어떤가를 살펴보자. 먼저 과학, 백과사전출판사의 『문학예술사전』에서는 ‘문학’, ‘문학이론’, ‘문학사’ 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문학: ...문학은 사람들을 사상미학적으로 교양하는 사회적 의식의 한 형태로서 언어를 기본수단으로 하여 생활을 형상적으로 반영한다. 문학은 추상적인 논리로써가 아니라 구체적인 예술적 형상을 통하여 사회생활과 인간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문학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사람을 기본묘사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활과 사상감정을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문학발전의 역사는 인민대중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진보적 문학과 착취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반동적 문학과 투쟁의 역사였다. 착취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반동적 문학이 현실을 외면하고 생활의 진실을 외곡하면서 퇴폐적인 자연주의나 형식주의의 길로 떨어지는 것과는 달리 근로인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진보적 문학은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사실주의길로 나가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와서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른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은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함으로써 착취사회와 착취계급을 때려부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복무한다. 39)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학은 언어로써 인간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인간의 생활, 사상감정을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학은 크게 인민대중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진보적 문학’과 착취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반동적 문학’으로 양분되고 문학발전의 역사는 이들의 투쟁의 역사라는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이다. 그것은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여 착취사회와 착취계급을 타파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것이다.

즉 북한의 문학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문학을 실생활을 반영하는 반영의 이론으로만 파악한다는 것, 진보적 문학과 반동적 문학이라는 양분법에 기초하고 있

39) 『문학예술사전』,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364면.

다는 것, 가장 높은 단계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로서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복무하여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선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외곺으로만 치우치는 편협성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현실을 강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단점으로 지적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문학이란 작가의 정신현상의 소산으로서 작가는 결코 당대의 현실에서 유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몸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의 형상화는 언어적 형식을 빌어 재체험되는 것이지 그것이 곧 현실 그 자체는 아닌 것이다.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바, ‘노동계급의 혁명적 문학은 지구우에서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을 종국적으로 쓸어버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복무하며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세계관으로 무장시켜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sup>40)</sup>거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영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혁명적문학예술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가장 빛나는 모범으로서 우리 문학예술의 고귀한 혁명적 전통으로 된다.’<sup>41)</sup>거나 ‘오늘 우리 문학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 문예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학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에 이르면 더욱 편협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당적, 혁명적, 인민적인 문학, 사상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참다운 혁명적 문학’이 된다. 즉 북한의 문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1) 생활의 반영으로서의 문학 : 반영의 이론
- 2) 인간생활에 이바지하는 문학 : 목적문학
- 3) 진보적 문학과 반동적 문학 : 양분법
- 4)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 가장 높은 단계
- 5) 김일성의 혁명적 문학예술 : 가장 빛나는 모범
- 6) 당성, 계급성, 인민성의 문학 : 참다운 혁명적 문학

한편 ‘문학이론’의 항에서는 ‘문학의 본성과 사회적 기능, 당성, 계급성, 인민성 등 문학의 기초적이며 일반적인 원칙을 연구하며...문학작품의 분석원칙과 방법들을 밝히는 동시에 문학발전의 합법칙성도 연구한다.’<sup>42)</sup>고 하고 이러한 이론을 가장 명쾌하게 제시한 것이 맑스-레닌주의 문예이론을 가일층 풍부화시킨 김일성의

40) 앞의 책, 364면.

41) 같은 책, 같은 곳.

42) 같은 책, 365면.

주체문예이론이며 따라서 이들의 목표는 '오늘 우리의 문학이론은 수령님의 주체적인 혁명문예사상을 과학이론적으로 심오하게 해설선전하는 것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삼는다.'<sup>43)</sup>고 명쾌하게 제시되는 것이다.

또 '문학사' 항목에서는 '문학사가 문학발전의 합법칙성을 옳게 밝히려면 매개 문제들을 인민사와의 밀접한 연관속에서 당대의 사회제도, 계급투쟁, 경제관계, 정치 및 사회적 의식형태들 그리고 다른 예술종류들과의 호상관계속에서 고찰하여야 한다.'<sup>44)</sup>고 전제하고 '우리문학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함으로써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사로 되었으며 인민대중을 사상미학적으로 교양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건설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면을 살펴 볼 때 결국 북한의 문학이론이나 문학사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귀결되는 것이다. 북한의 문학사가 몇 종류가 되지만 사실상 내용상에 있어서 별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단선적인 이론전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학을 보는 시각이 획일적일 때 대상의 선정이나 해석에 있어서 다양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 편 남한 문학사의 기술태도는 어떤가 알아보자.

먼저 김윤식, 김 현은 『한국문학사』에서 백 철과 조연현의 문학사를 사조중심의 문학사, 잡지 중심의 문학사여서 작가나 작품을 사조의 추종자로 만들었거나, 사회적 여건과 정신적 배경을 경시했다고 비판하면서 '문학사는 역사와는 엄연히 다른 감정적 차원에서 서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역사는 감동의 세계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을 체계적으로 서술한다. 그러나 문학적 집적물은 반드시 감동과 享有라는 정서적 반응을 요구한다... 문학적 집적물이 정서적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진술은 동시에 그것이 개인적 산물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다. 문학작품에 개인의 서명이 붙게 된 이후의 문학과 그 이전의 문학의 차이는 그 개인성에 있다. 그러나 그 개인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한 시대의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내고 있는 대표자로서의 개인이다.'<sup>45)</sup>라고 하고 문학적 집적물은 상상력의 소산으로서 수정될 수 없다는 예술고유의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

43)같은 책, 같은 곳.

44)같은 책, 같은 곳.

45)김윤식, 김 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82, 9면.



그 집적물은 부분과 부분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지는 전체로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 부분과 부분과의 관계를 통해 의미망이 형성되고 그 의미망을 통해 문학사가와 문학사와 문학적 집적물은 삼위일체를 이룬다는 것이다.<sup>46)</sup> 이러한 전제 아래서 그들은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좋은 작가와 나쁜 작가를 선별하고 그 작가들의 삶에 대한 태도와 문학형식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들을 가르고 나누며, 참되고 아름다운 문학은 작가 자신이 그와 속한 사회와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밝히려는'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조동일은 『한국문학통사』에서 한국문학의 전반적인 집적물, 구비문학과 한문학, 국문문학을 총체적으로 다루면서 특히 국문학을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연속체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문학은 문학만인가 아니면 사회적 관련과 문화적 복합에서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은 문학과 역사, 철학이 별개일 수 없다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그런 한 편으로는 방법이나 이론을 앞세우지 않고 국문학의 자료와 사실을 깊이 다루고 다각도로 이해하는 경험의 축적을 하여 가급적 빠뜨리는 것이 없도록 하는데 힘쓰고 문제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에 힘쓴다고 하였다.<sup>47)</sup>

따라서 김윤식, 김 현의 『한국문학사』가 자신들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작가와 작품이 선별된다고 한다면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는 머리말에서 밝힌 것처럼 자료와 사실을 모두 취급하여 국문학의 전모를 드러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이 구별되는 점이다.

김용직은 『한국근대시사』에서 '문학사란 문학과 역사의 복합체다.'고 전제하고 본래 문학사의 두 개 받침대 중 하나는 역사이며 이 때 역사란 한 개인이나 집단사회와 시대가 처한 상황과 환경, 그것을 지키고 바라보는 마음의 눈길 등 여러 양상이 뒤엉킨 복합적 실체라고 하였다.<sup>48)</sup> 그는 로버트, 스피러의 견해 중 인과판단을 확대한 경우, 즉 '과거의 문학작품을 발견하고 한정하는 데 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인과 영향의 테두리를 문학의 제작, 전개에 관계되는 여러 배경, 여건 쪽으로 넓게 확대시킨다. 그리고 여기서 배경, 여건이란 제작자의 체험에서 독자와 그 집단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포괄한 공간을 뜻한다.'고 하여 역사를 능동태의 입장에

46) 같은 책, 10-11면.

4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1982, 머리말 참조.

48) 김용직, 『한국근대시사』, 새문사, 1983, 24-26면.

서 수용하고자 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남한의 문학사는 대체적으로

- 1) 집필자에 따라 시각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고
- 2) 문학과 역사는 동일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문학이 주이고 역사는 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 3) 작품의 문학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될 수 있다.

물론 논자에 따라서 이 중 어느 곳에 더 치중하느냐에 따라 문학사 기술의 태도와 내용이 달라지지만 중요한 것은 각각의 문학사가 특히 전시대의 문학사의 관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점이 주목된다. 이 가운데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며 바람직한 문학사의 기술이 재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은 북한 문학사의 기술태도와 큰 대조를 보인다. 즉 반영론과 목적론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획일성이 강조되고 다양한 기술태도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조선문학통사』와 『조선문학사』에서 김일성의 주체문예이론이 개입되는 1972년의 시기적인 차이로 인해 굴절을 보이기는 했지만 문학사를 보는 시각 자체가 큰 변모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남북한의 문학사에 있어서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훨씬 크지만 굳이 공통점을 지적하자면 남한에서도 사회의 변동 자체를 전혀 예외로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뿐이다.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사회변동이 곧 전체가 되고 있고 문학 외적인 상황이 문학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곧 북한에서의 문학은 인문과학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원 소속이라는 점에서 사회과학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목적론에 의해 문학은 종속되어 있는 점이 이를 잘 시사해주는 것이다.

## V 문학사기술의 새로운 방안

문학사의 기술은 북한의 경우 거의 획일적인 것이었지만 사실상 그것은 기술

서 수용하고자 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남한의 문학사는 대체적으로

- 1) 집필자에 따라 시각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고
- 2) 문학과 역사는 동일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문학이 주이고 역사는 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 3) 작품의 문학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될 수 있다.

물론 논자에 따라서 이 중 어느 곳에 더 치중하느냐에 따라 문학사 기술의 태도와 내용이 달라지지만 중요한 것은 각각의 문학사가 특히 전시대의 문학사의 관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점이 주목된다. 이 가운데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며 바람직한 문학사의 기술이 재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은 북한 문학사의 기술태도와 큰 대조를 보인다. 즉 반영론과 목적론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획일성이 강조되고 다양한 기술태도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조선문학통사』와 『조선문학사』에서 김일성의 주체문예이론이 개입되는 1972년의 시기적인 차이로 인해 굴절을 보이기는 했지만 문학사를 보는 시각 자체가 큰 변모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남북한의 문학사에 있어서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훨씬 크지만 굳이 공통점을 지적하자면 남한에서도 사회의 변동 자체를 전혀 예외로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뿐이다.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사회변동이 곧 전체가 되고 있고 문학 외적인 상황이 문학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곧 북한에서의 문학은 인문과학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원 소속이라는 점에서 사회과학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목적론에 의해 문학은 종속되어 있는 점이 이를 잘 시사해주는 것이다.

## V 문학사기술의 새로운 방안

문학사의 기술은 북한의 경우 거의 획일적인 것이었지만 사실상 그것은 기술

자의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또 달라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문학작품의 가치 평가는 닫힌 체계가 아니라 열린 체계이기 때문이다. 즉 수용자의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것이 문학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문학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남과 북을 동시에 염두에 둔다고 할 때 이 점이 먼저 전제되지 않고는 논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강요된 것은 더 이상 문학일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본다면 남북한의 문학사는 그 시각의 편차로 인하여 통합하여 기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비판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문학과 주민들의 삶이 결국은 우리의 민족과 그 문화유산임을 감안한다면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북한의 문학사가 반영론과 목적론, 그리고 주체사상에 의해 점철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지만 영토와 민족의 통일을 우리의 지상의 과제로 삼아 그 당위성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쨌든 그것을 통합할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분단에서 시작하여 재통일기까지를 단순한 사실의 나열로서 문학사를 기술한다고 가정하고 발해와 신라를 남북국시대로 기술하는 방안을 따라 남한의 문학적 실상이 이러저러하였고 북한의 문학적 실상이 이러저러하였다는 사실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왜냐하면 문학적 집적물 그 자체는 역사이지 문학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연히 제기되는 것은 역시 가치평가의 문제이다.

북한의 문학사가 현대로 내려올수록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것으로서 더욱 완고하고 편협된 것이었음을 인정한다면 그 가치평가는 남한의 그것과 비교한다면 실로 엄청난 편차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대문학사의 경우 동일한 역사적 환경에 있었던 일제시대의 작품평가에도 그것이 작용하고 있다고 할 때 사태는 더욱 심각한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북한의 문학사에 등장하는 각각의 작품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엄밀한 평가이다. 과연 그것들은 그야말로 문학적인 성과로 기록될 수는 없는가, 문학성은 전무한 것인가, 특히 북한사회에서 극문학이 성했던 까닭은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가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물론 김일성의 이상화에 의해 진행되어 있는 북한문학사에서의 평가도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그것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삭제할 것이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엄밀히 판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북한의 문학에 대한 재인식이 가능해질 것이고 문학사의 재기술도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북한의 문학사에 있어서도 원론적으로는 언어미학적인 면을 고려한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기술에 있어서는 그것은 부차적이거나 무시되고 있었다. 말하자면 현실의 문제만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현실, 그것도 피착취계급으로서의 현실을 얼마나 담고 있는가, 그것을 얼마나 절실히 인식하여 문학으로 형상하였는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수단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점은 『조선문학개관』이 보여준 일련의 변화의 조짐이다. 부정적이긴 하지만 최남선과 한용운이 등장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한 편으로 본고에서 거론하였던 김소월과 이상화의 경우에서 우리는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그것은 곧 이들 두 시인이 남한에서도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문학사에서 이들은 각각 제한적이긴 했지만 높게 평가받고 있는 셈이었고 그 이유가 당대의 식민지 현실에 밀착해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또 그러한 작품들이 높게 평가되어 있음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점은 사실 남한의 문학사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요소이다. 즉 남한의 문학사에 있어서도 당대현실을 결코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으며 그것이 문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중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곧 남북한의 문학사에 있어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문학사 기술의 실마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궁극적으로 작품의 가치평가와 문학사의 기술은 논자의 세계관에 연유하는 것이다. 문학을 개인감정의 표출로 보든 사회의 반영으로 보든 삶의 구체적 반응양식이라고 본다면 그 궁극적인 반응의 기저는 결국 각 개인의 삶의 양식에 좌우된다. 인간의 삶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그 하나는 관념지향(Idealism)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지향(Realism)이다. 삶의 현장에서 현실자체에 충실하면서 시선을 현실에 집중시키고 구체적인 반응을 보일 때 현실감각을 얻고 현실세계보다는 관념적 이상향을 추구할 때 이상향을 얻는 것이다. 문학은 삶의

구체적 반응양식으로서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작가의 현실인식 태도가 수반되는데 작가가 살고 있는 '객관적' 현실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현실을 극복하려는 현실중시의 경향, 즉 현실주의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한 편에는 당대적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면의 세계를 추구하는 '주관적'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작가정신, 즉 관념주의가 있게 된다.<sup>49)</sup>

인간은 본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중시하는 한편, 또한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현실로부터 초월하여 새로운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면성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작가의 결과물로서의 작품의 경향은 작가가 이 둘 중 어느 곳에 더 치중하였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년대의 대개의 시인들이 북한의 문학사에서 취급되지 않거나 동물적 본능만을 충동하고 있다는 평가나, 남한의 문학사에서 당대 시인들의 작품을 문학성에서 평가하면서도 현실인식이 미비하였고 따라서 관념주의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는 비판적 평가는 어느 시대의 작품이나 결국 그 당대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관념주의와 현실주의는 한국의 고대 시가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4구체 향가와 10구체 향가의 대비,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대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인간의 본래적 속성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시가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양상들은 20년대에 와서 극단적으로 분리된 양상을 보이는데 그 하나는 20년대 초기의 지극히 관념주의적인 양상을 띠고 나타나는가 하면 중반기 이후에는 소위 카프계열의 현실주의적인 작품들이 생산되면서 문단이 양분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중에서 김소월과 이상화가 높게 평가되는 것은 김소월의 경우 개인적 정한의 시세계라는 관념과 비극적 체험이라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민족 공동체의식을 확보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런 한 편 이상화는 전기의 관념지향의 세계에서 후기의 현실지향의 시세계로, 다시 그것을 「빼앗긴 들...」에서처럼 성공적으로 합일했기 때문이다.<sup>50)</sup> 이들은 둘 다 관념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경험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갔으나 그 차이는 김소월이 내면화의 길로 갔다는 점이며 이상

49) 김은철, 『한국 근대 관념주의시 연구』, 형설출판사, 1993, 참조.

50) 김은철, 앞의 책, 231-260면 참조.

화는 외면화의 길을 택했다는 점이다. 김소월과 이상화는 이러한 점에서 한국시가에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던 현실주의와 관념주의를 통합하는 데 기여했던 시인들이었으며 그들의 성공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작품들은 이 두 가지 속성의 통합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 결과가 내면화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외면화로 나타나느냐는 결국 작가 자신의 세계관에 의한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북한의 문학사에서 김소월보다는 이상화가 높게 평가받고 있는 점은 바로 내면화보다는 외면화를 더욱 중시한 그들의 세계관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작품이 높게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이 내면화나 외면화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양상이 문학적으로 훌륭하게 형상화되었다는 점 때문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결국 문학사에 있어서의 가치평가는 작품자체의 우수성에 있음을 우리는 재인식하게 된다. 이 점은 북한문학사에서는 거의 무시되고 있는 점이다. 현실주의와 관념주의에 의한 판단에서 유추해 볼 때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지나치게 현실주의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고 남한의 문학사에서는 현실주의적 측면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어디를 지향하든 작품자체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문학사의 기술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작품 자체의 가치평가에 의한 것으로서 그 가치평가는 김용직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분과 부분의 총화로 볼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문학사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관념지향과 현실지향이라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이원적인 본성을 전제하고 그것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 되었느냐에 의해 가치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물론 문학사의 기술에서 가장 선행되는 조건은 1차적으로 문학인 것과 문학이 아닌 것의 판별이, 2차적으로는 우수한 작품과 열등한 작품의 판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작업은 개별 작품과 개별 작가에 대한 엄밀하고도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북한 문학사에서 운위되는 작품과 작가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별적인 작업 이후에 3차적으로는 그 작품이나 작가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그것이 현실을 지향하고 있다고 해서 우수하다거나 관념을 지향하고 있다고 해서 우수하다는 것은 아니다. 즉 김소월과 이상화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럼 그 지향점에 따라서 가치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문학적으로 잘 형상화되었느냐에 따라 가치평가가 달라지는 것이다. 물론 그 가치판단은 궁극적으로는 문학사 기술자의 세계관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될 것이지만 적어도 그 두 지향점을 인정하는 자세는 필요한 것이며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가는 결국 기술자의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다양성 위에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은 부언이 필요치 않은 것이다. 남한의 문학사에서 시인의 당대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는것, 북한의 문학사에서 김소월의 「금잔디」나 「초혼」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변화의 조짐은 이 경우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선행된 이후에 한국문학사의 시기구분도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즉 문학사는 역사와 결코 절연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역사 자체는 아니며 문학이라는 '부분'과 역사적 사회변동이라는 '부분'의 총화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어느 쪽도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면이 있다. 그러나 어쨌든 문학사는 문학 자체의 내적 흐름을 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역사적 사회변동은 종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왕조가 교체되었거나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학이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문학사에서 극히 이질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분단 이후의 경우 북한의 문학사가 준거로 삼고 있는 사회변동에 의한 문학사의 시기구분은 일차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대상이며 그 기준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문학 자체의 내적인 변모를 우선으로 하고 사회변동을 참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의 논의를 벗어나긴 하지만 분단 이후의 남북은 각기 다른 체제 하에서 각기 서로 다른 정치적, 문화적 배경하에 있었고 그 이질성은 실로 엄청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 북이 동일한 환경을 경험한 것은 1950년의 6.25 동란이며 그 이후에 남북의 환경은 더 큰 이질성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앞서 필자는 분단이후의 문학을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 시대로 보는 관점을 취하여 남북한의 문학으로 이원화시켜 볼 것을 언급했지만 6.25 동란을 기점으로 하여 그 전후의 남북한의 문학이 어떻게 변모되었는가 하는 점도 고려할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문학사의 기술은 결정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곧 문학이 닫힌 체계가 아니라 열린 체계이기 때문이며 인간의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문학적 가치판



단도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사 기술에 대한 대안은 하나로 만족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모색되고 재시도되는 가운데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 VI 결 론

지금까지 필자는 남북한의 문학사를 비교하면서 장차의 통일에 대비하여 그것을 통일하여 기술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하여 왔다. 분단 이후 남북한은 정치적, 문화적으로 극도의 이질성을 보이면서 각각의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고 또 서로에 대해 애써 외면하면서 정치논리에 의한 체제의 우위성만을 강조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한은 어느 땐가는 동일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하고 그것이 이 민족이 안고 있는 최대의 지상과제임을 인식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민족적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북한에서 지금까지 간행된 수종의 문학사를 고찰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북한의 문학사의 경우 정치적 사회변동이 우선하고 있고 반영론과 목적론, 그리고 현대로 올수록 주체사상에 의해 점철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그만큼 북한의 문학사는 확일적이었고 문학자체의 논리보다는 정치, 사회적 논리에 의해 압도되어 있었다. 그와 반면에 남한의 문학사들은 각각 기술자의 태도에 따라 시기 구분이나 가치평가에 있어 다양함이 특징이었다.

본고에서는 특히 근대의 문학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것은 곧 고대문학의 경우 한정된 자료로 인하여 단지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는 성질이 강한 반면 근대문학의 경우 작가나 작품의 선정 자체부터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기 때문이고 또 특히 현대문학의 경우는 그 이질성이 실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양측의 문학사를 비교하는데 있어서 김소월과 이상화를 주요대상으로 삼았는데 그것은 이 두 시인이 한국근대시사에서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 북한에서도 이들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특히 이상화에 대해서는 북한의 문학사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은 좋은 연구대상이 되었다.

단도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사 기술에 대한 대안은 하나로 만족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모색되고 재시도되는 가운데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 VI 결 론

지금까지 필자는 남북한의 문학사를 비교하면서 장차의 통일에 대비하여 그것을 통일하여 기술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하여 왔다. 분단 이후 남북한은 정치적, 문화적으로 극도의 이질성을 보이면서 각각의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고 또 서로에 대해 애써 외면하면서 정치논리에 의한 체제의 우위성만을 강조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한은 어느 땐가는 동일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하고 그것이 이 민족이 안고 있는 최대의 지상과제임을 인식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민족적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북한에서 지금까지 간행된 수종의 문학사를 고찰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북한의 문학사의 경우 정치적 사회변동이 우선하고 있고 반영론과 목적론, 그리고 현대로 올수록 주체사상에 의해 점철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그만큼 북한의 문학사는 확일적이었고 문학자체의 논리보다는 정치, 사회적 논리에 의해 압도되어 있었다. 그와 반면에 남한의 문학사들은 각각 기술자의 태도에 따라 시기 구분이나 가치평가에 있어 다양함이 특징이었다.

본고에서는 특히 근대의 문학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것은 곧 고대문학의 경우 한정된 자료로 인하여 단지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는 성질이 강한 반면 근대문학의 경우 작가나 작품의 선정 자체부터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기 때문이고 또 특히 현대문학의 경우는 그 이질성이 실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양측의 문학사를 비교하는데 있어서 김소월과 이상화를 주요대상으로 삼았는데 그것은 이 두 시인이 한국근대시사에서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 북한에서도 이들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특히 이상화에 대해서는 북한의 문학사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은 좋은 연구대상이 되었다.

김소월과 이상화는 북한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상화가 더욱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것은 김소월의 경우 현실에 밀착한 작품이 적고 이상화가 그러한 작품에 있어서 더 많기 때문이며 이상화의 「빼앗긴 들...」은 작품성에 있어서나 그들이 주장하는 반일저항의 측면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최고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북한의 문학사에서 이들이 언급되는 작품은 주로 현실지향적인 면이 강한 작품들로서 이 점 남한문학사에서와는 상반된 면이 많았다. 즉 남한에서 높게 평가하는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산유화」 등이 소홀히 취급되거나 취급되지 않는 반면 후기의 「밭고랑 우에서」와 「바라건대는...」이 높게 평가되고 있었고 이상화의 경우 「나의 침실로」는 동물적 본능에 호소하는 것으로 매도되고 「가장 비통한 기록」과 「빼앗긴 들...」이 높게 평가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북한의 문학사가 그들의 목적의식에 부합되는 현실주의적인 작품만을 높게 평가하는 반면 남한의 문학사에서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문학성 자체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문학사 중 『조선문학개관』이 보여주는 변모의 조짐은 주목할 만한 대상인데 왜냐하면 최남선과 한용운이 부정적이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거명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김소월의 「금잔디」와 「초혼」이 운율이나 작품의미학적인 측면에서 평가되고 있는 점 때문이다. 이것은 앞으로 북한의 문학사도 목적의식에서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전망을 가지게 한다.

남한의 문학사에서 보이고 있는 시각 중에서 북한의 문학사와 공통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은 문학성을 중요시하면서도 현실적 측면을 아울러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이다. 아울러 북한의 문학사에서 극히 원론적이긴 하지만 문학성을 지적하고 있는 점도 주목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사는 문학작품의 집적물이 아니라 가치판단의 집적물이라는 점에서 닫힌 체계가 아니라 열린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그 가치판단에는 궁극적으로 독자나 기술자의 주관에 따라, 또 시대적인 가치관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따라서 문학사에 있어서 결정판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각 기술자의 시각과 세계관에 따라 다양한 문학사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다양한 평가에 의해 우리는 어느 정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문학사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먼저 서로의 문학적 유산을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학 내지 문화현상이란 어차피 당대인들의 삶의 결과물이고 그 삶은 결코 부정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1차적으로 북한의 문학사에서 기술되고 있는 작가나 작품에 대한 면밀한 고증과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거기에는 작가나 작품의 진. 위의 판단에서부터 문학인 것과 문학이 아닌 것, 우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판별을 하여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 문학 자체의 내적 질서를 찾아야 할 것이다. 문학사는 문학이면서도 역사적 상황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현실 자체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정치. 사회적 환경에 문학이 종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학의 내적 흐름을 주로, 사회변동은 종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 점 북한문학사에서 보이고 있는 역현상은 시정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작품의 가치판단은 획일적이거나 절대적일 수 없고 항상 열린 체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향유하는 독자나 기술자의 주관에 따르는 문제이지만 그 가치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점은 작품의 내적 통일성이라는 문학성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학작품이 인간의 구체적 삶의 표현이라고 할 때 그것은 현실주의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관념주의적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원성, 즉 현실에 몸담고 현실에 밀착하려는 현실지향적인 측면과 그러면서도 항상 보다 나은 이상을 꿈꾸는 관념주의적 경향을 동시에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소월은 개인적 정한의 세계와 비극적 현실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공동체의식의 내면화로 형상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상화는 전기의 관념지향과 후기의 현실지향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외면화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사실상 이 중 어느것이 더 우월하고 열등하다고 획일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작가자신의 세계관에 의한 것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 되었는가 하는 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이러한 양면성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문학적 형상화를 거쳤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문학사에서 보이는 공통

점은 문학적 형상화의 문제보다는 현실을 얼마나 담고 있는가 하는 반영론에만 충실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해서 작품의 우열과 가치판단이 선행되고 난 이후에 문학의 내적 흐름과 사회변동을 고려한 시기구분도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문학사의 기술자가 작품성에 기초해서 관념주의적 경향을 더 높게 평가하는가, 현실주의적인 경향을 더 높게 평가하는가는 전적으로 기술자 자신의 세계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것은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 형상화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분단 이후 재통일까지의 문학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필자는 신라와 발해의 문학을 기술하는 방식, 이를테면 남북한으로 이원화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개진하였지만 거기에서도 여전히 가치판단의 문제는 남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문학사는 사실의 단순한 집적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는 남한의 각각의 문학사들이 보여준 다양성이 곧 열린체계로서 문학을 문학으로 존재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필자가 주장하는 이러한 소견도 단지 하나의 견해로서 검토되고 비판받으며 거기에 입각한 또 다른 대안이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안함광, 『조선문학사(1900-)』, 교육도서출판사, 1956, 6.
- 김하명, 『조선문학사(15-19세기)』, 조선문학출판사, 1968.
- 『조선문학통사』(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편, 과학원출판사, 평양, 1959, 5, 20.
- 『조선문학통사』(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과학연구소  
문학연구실편, 과학원출판사, 평양, 1959, 11, 30.
- 『조선문학사』, 교육도서출판사, 1964.
- 『조선문학사』(고대. 중세편),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저, 어문도서  
편집부 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1977, 12.
- 『조선문학사』(19세기 말-1925), 박종원. 최탁호. 류만 공저,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1978.
- 『조선문학사』(1926-1945),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집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1978.
- 『조선문학사』(1945-1958),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집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1978.
- 『조선문학사』(1959-1975),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집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1978.
- 『조선문학사』 1, 김춘택 저, 조선어문학부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평양, 1982.
- 정홍교. 박종원, 『조선문학개관 1 (원시고대-1920년대 전반기)』,  
사회과학출판사, 1986, 11.
- 박종원. 류 만, 『조선문학개관 2 (1920년대 후반기-1980년대 전반기)』,  
사회과학출판사, 1986, 11.
- 『문학예술사전』,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북한문학심포지움』, <문학사상> 1989, 6.

- 『북한문학작품선』, <실천문학> 88봄호, 89봄호.
- 『김소월연구』, 새문사, 1982.
- 『남북문학사연표』, 한길사, 1990.
- 『북한의 문예이론』, 인동, 1989.
- 『이상화의 서정시와 그 아름다움』, 새문사, 1981.
- 강만길,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창작과 비평사, 1992.
- 구중서, 『한국문학과 역사의식』, 창작과 비평사, 1985.
- 권영민, 『월북문인연구』, 민음사, 1989.
- , 『한국민족문학론 연구』, 민음사, 1988.
- ,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 편, 『북한의 문학』, 을유문화사, 1989.
- 김대행, 『북한의 시가문학』, 문학과 비평사, 1990.
- 김동욱, 『국문학사』, 1976.
- 김사엽, 『국문학사』, 1957.
- 김석하, 『한국문학사』, 1975.
- 김용직, 『한국근대시사』, 새문사, 1983.
-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78.
-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 김은철, 『한국 근대 관념주의시 연구』, 형설출판사, 1993.
- , 『한국근대시의 이해』, 문창사, 1993.
- 김재홍, 『카프시인비평』, 서울대출판부, 1990.
- 김종욱 편, 『원본 소월 전집』, 홍성사, 1982.
- 김준영, 『한국고전문학사』, 1971.
- 김학동 편, 『이상화전집』, 새문사, 1987.
- 김홍규, 『문학과 역사적 인간』, 창작과 비평사, 1980.
- 민족문학사연구소,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 창작과 비평사, 1992.
- 박영희, 『현대한국문학사』, <사상계> 1958.4 - 1959.4.
- 백 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82.
- 설성경·유영대, 『북한의 고전문학』, 고려원, 1990.

- 성기조, 『북한문학연구』, 한국비평문학회, 비평문학 4호, 1990.
- 송현호, 『문학사기술방법론』, 새문사, 1985.
- 신동욱, 『우리시의 역사적 연구』, 새문사, 1981.
- 안 환, 『조선문학사』, 한일서점, 1922.
- 윤재근. 박상천, 『북한의 현대문학 2』, 고려원, 1990.
- 윤재근. 이상호. 박상천, 『북한의 문화정보 1』, 고려원, 1991.
- 윤재근. 이상호. 박상천, 『북한의 문화정보 2』, 고려원, 1991.
- 윤주은, 『김소월시 원본연구』, 학문사, 1983.
- 이기봉, 『북의 문학과 예술인』, 사사연, 1986.
- 이기철, 『분단기문학사의 시각』, 우리문학사, 1991.
- , 『작가연구의 실천』, 영남대출판부, 1986.
- 편, 『이상화전집』, 문장, 1982.
- 이병기. 백 철,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76.
- 이재선, 『우리시의 역사적 연구』, 새문사, 1981.
- 이형기. 이상호, 『북한의 현대문학 1』, 고려원, 1990.
- 임현영, 『민족의 상황과 문학사상』, 한길사, 1986.
- , 『창조와 변혁』, 형성사, 1985.
- 임 화, 『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
- 장덕순, 『한국문학사』, 1975.
- 장운익, 『열린문학과 닫힌 문학』, 인문당, 1992.
- 정병욱, 「이조후기시가의 변이과정고」, <창작과 비평>31호, 1974, 봄.
- 정한모, 『한국현대시문학사』, 일지사, 1974.
- 정호구, 「시를 통해본 북한사회」, 국토통일원, 1989.
- 조동일, 『문학연구방법』, 지식산업사, 1982.
- , 『우리문학과와의 만남』, 홍성사, 1978.
- , 『한국문학통사 1-5』, 지식산업사, 1982-1988.
-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73.
- 조윤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78. (초판:1963)
- 최동호, 『현대시의 정신사』, 열음사, 1985.



한국고전문학연구회, 『근대문학의 형성과정』, 문학과 지성사, 1983.

한국비평문학회 편, 『혁명전통의 부산물』, 신원, 1989.

홍기삼, 『문학사의 기술과 이해』, 평민사, 1979.

———, 『북한의 문예이론』, 평민사, 1981.

황정산, 「남북문학사 시대구분론」, 현대시학, 1989, 2.

# 北韓 文藝理論의 歷史的 變貌過程 考察

-最近의 文藝理論 動向을 中心으로-

研究責任者：金 成 洙 (成均館大)

## 목 차

<요 약 문> .....	297
I. 머리말 .....	299
II. 각 문예이론서의 서론부분 비교 .....	303
III. 문학의 본질과 기능의 변모 .....	308
IV. 내용과 형식론의 변화 .....	323
V. 장르론의 변화 .....	334
VI. 창작방법론과 문학사론 비교 .....	344
VII. 마무리 .....	355
※참고문헌 .....	360

## 북한문예이론의 역사적 변모과정 고찰

### <요 약 문>

본 연구는 북한 문예이론(文藝理論)의 역사적 변모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통일된 문학사를 서술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40여년간 이루어진 문예이론을 그 역사적 변모과정 속에서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각 시기를 대표하는 문예이론서의 분석 비교를 수행하였다. 북한 문학사의 초창기(1950-60년대)와 중기(1970-80년대), 그리고 80년대 후반 이후 최근의 변모를 역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예이론서를 세밀하게 비교 분석하였다. 본론에서는 이들 이론서들을 ‘문예의 개념, 기능, 창작방법, 담당층, 문학예술사’ 등 문예이론 항목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서술체제와 내용을 대비하였다. 그 결과 1950-60년대 체계화된 마르크스레닌주의문학이론이 1970년대의 과도기를 거쳐 1980년대 이래 지금까지 주체문예이론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의 문예이론의 변천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이론과 일맥 상통한 면모를 보이던 60년대의 문예이론이 70년대 이후 주체문예이론으로 정착과정이었다. 정치경제적 변화에 따라 그들 나름대로의 경험과 사회적 요구에 입각한 새로운 문예이론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가 주체문예이론으로 나타난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역사주의적인 원칙이나 과학적인 이론 수립과는 점차 멀어지면서 대단히 폐쇄적인 유일사상체제로 귀결되고 말았다.

현재 북한의 공식적인 문예이론인 주체문예이론은 마르크스레닌주의문예이론의 ‘북한적 구체화’를 거쳐 아예 별개의 사상체계에 기반을 둔 문예학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주체적인 사회주의 문학예술은,공산주의적 인간학”이라고 하는 주체문예이론의 핵심적인 명제는 문예를 인간학이라는 윤리적인 범주로 넓혔다는 점에서 일견 긍정적이다. 그러나 당성, 노동계급성 개념의 실용주의적 편의주의적 개념, 개인 숭배적인 정치주의 편향, 인민성 개념의 편의성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주의 원칙의 포기과 이론의 교조성 등 부정적인 평가의 여지가 많은 배타적인 이론체계라

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지 않나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에 이르기까지는 비교적 풍부한 비평논쟁과 문학사 서술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오히려 통일문학사의 견지에서 본다면, 지금은 잊혀진 북한의 1950-60년대 문예이론을 재조명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그동안 너무나 단순하게 알려져왔던 북한 문예이론의 역사적 변모를 어느정도 밝혔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분적으로 소개된 북한 문예이론이 가진 역기능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에 압도된 주체문예이론이 전부인 것으로 오해되어, 통일된 문학사의 기초를 세우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민족 공동체의 확립을 기하는 데 장애요소로까지 작용했던 이질감을 해소하는 데 한 계기가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문학에 대한 환상적 기대를 가진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제시된 이론의 실상을 학문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균형잡힌 비판적 안목을 가지게 하고 올바른 통일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주체문예이론의 고착화 전후에 나온 여러 자료를 비교 분석해보면 최근 북한 문예 동향이 김일성주의의 유연한 완화를 보이는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통일 문학사의 기초가 되는 민족 공동체적 문예이론을 모색하고, 나아가 단절된 민족적 동질성을 되찾자는 남북한 동포의 공동체의식이 마련될 기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 문예이론의 역사적 변모과정 고찰

## - 최근의 문예이론 동향을 중심으로

김 성 수

### I. 머리말

#### 1. 문제제기

본 연구는 북한 문예이론(文藝理論)의 역사적 변모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통일된 문학사를 서술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1994년의 현 시점에도 우리는 국토의 분단이 민족 공동체의 동요와 민족적 동질성의 단절로 굳어지는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통일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차원의 비정치적 학술적 교류에서부터 그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견해가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남북한이 지속적으로 대립과 화해의 길항작용을 반복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북한의 문예이론을 학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민간차원의 통일 노력에 일조를 하고자 한다. 단절된 민족적 동질성을 되찾아 보자는 모색에서 문학예술의 특수한 정서적 성격이 남북한 동포 모두에게 공동체의식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는 냉전체제적인 반감이나 낭만적인 열정으로 북한 문학을 본 점도 있다. 지금 이 시점이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학술차원의 시각과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술적 접근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자료를 폭넓게 수집 분석한다. 종래의 이 분야 연구는 한두 권의 이론서로써 북한 문예이론 전체를 규정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 따라서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에 압도된 주체문예이론이 전부인 것으로 오해되어 왔다. 그것만이라면 통일된 문학사의 기초를 세우기가 어렵다고 할 정

도로 이질감이 강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자료를 발굴해보면 통일 문학사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문예이론이 여러 곳에서 발견됨을 알 수 있다. 이에 이들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민족적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는 통일 문학사의 이론적 기초를 세울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상의 접근방법에 따라 실증적(實證的)인 서지작업의 기반 위에서 사료(史料) 분석과 역사주의적(歷史主義的) 해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한때 철저한 김일성 유일사상체계(唯一思想體系)의 수단으로만 이해되었던 문예이론이 90년대 이후 최근에는 내적인 변모(이론적 유연함)를 보이고 있음을 논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문예의 이론적 변모에 대한 인식이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앞당기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데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북한에서 40여년간 이루어진 문예이론은 그 자체로 완결된 하나의 고정불변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역동체이다. 이를 역사주의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각 시기를 대표하는 문예이론서의 대비는 필수적이다. 적어도 북한 문학사의 초창기(1950-60년대)와 중기(1970-80년대), 그리고 80년대 후반 이후 최근의 변모를 역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원론서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이론서들을 '문예의 개념, 기능, 창작방법, 담당층, 문학예술사' 등 문예이론 항목별로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1970년대의 주체문예이론서와 이전의 리얼리즘론에 입각한 문학개론류와는 서술체계 및 서술방식이 판이하여 동일한 근거 위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주체문예이론'이 주체문예시대 문예원론서임은 틀림없는 것만큼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차이의 의미를 천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주체문예이론과 그 이전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이론을 비교 분석해야 통일된 문학사의 기초가 되는 문예이론을 발견하고 가치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80, 90년대의 문학원론서에 해당하는 자료가 없는지 찾아보고 분석하는 일도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예이론서의 단순비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론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통일 문학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이론과 그렇지 못한 이론을 분별하고 평가할 것이다. 이때, 평가의 기준은 특정 이념이나 계급의 옹호가 아닌 민족 공동체론에 근거를 둔 민족문학의 입장에서 수행될 것이다.

## 2. 연구 대상 문예이론서

북한 문예이론(文藝理論)의 역사적 변모과정을 고찰하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문예이론서(文藝理論書) 자료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주요 목차이다.)

- ① 박종식·현종호·리상태, 『문학개론』, 교육도서출판사, 1961. (학우서방, 1964)  
(문학의 사회적 기능 / 문학작품 / 문학 발전과정)
- ② 대학용 『문학개론』, 교육도서출판사, 1970.  
(문학의 사회계급적 성격 / 사회혁명적 성격 / 작가와 창작 / 문학발전의 합법칙성)
- ③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북한의 문예이론』 서울 : 인동, 1989 재간행)  
(주체적 사회주의 문예의 본성과 특징 / 창조 / 창조자)
- ④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이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3.  
(사회주의 문예의 본성과 특징 / 창조 / 문예형태의 발전)
- ⑤ 김정분, 『미학개론』, 사회과학출판사, 1991.  
(주체의 미학관 / 미학적 견해 - 문예의 본질과 본성, 예술의 발생, 내용과 형식, 형태 / 미적 활동과 방법 / 미학사상의 발전단계)

본 연구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일 점은 우리 학계에 널리 소개된 1975년판 『북한의 문예이론』이 북한의 문예이론을 대표하는 책이 되기 어렵다는 사실의 논증이다. 더욱이 주체문예이론의 완결된 교과서로 인정해서도 안된다는 점이다. 이 책이 우리에게 너무 생소하고 단순소박한 이론을 동어반복적인 소략한 서술방식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북한 문예학계의 수준 전체를 객관적으로 이질화하고 폄하하게 만든 주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책의 전후에 나온 다른 문예이론서와 비교할 때 이 책은 어떤 완성된 이론체계를 대중적으로 쉽게 풀어쓴 책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다. 주체문예이론의 전범으로 이해되던 이 텍스트는, 실제로는 주체문예이론이 '형성되어가는 와중'에 나온 대중교육서로서 주체문예이론의 전 면모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책에는 '내용과 형식'론 등 문예이론서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항목도 없는 등, 이전의 일반적인 문예이론서(61년판이나 70년판, 83년판)와는 상이한 소략한 서술체계로 이루어진 이유도 이 책이 과도기적 이론서라는 근거



가 된다.

주체문예이론의 전 체계를 모두 포괄한 첫 이론서는 1983년판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한중모·정성무의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사회과학출판사, 1983)에서는 75년판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에서 빠뜨렸던 여러가지 항목(구성조직, 갈등, 양상)이 추가되고 이론적인 문제들(문학사적 관점, 문예의 본질, '종자론과 속도전' 등)이 더욱 정치하게 서술되어 이른바 주체문예이론의 전일적인 기본체계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sup>1)</sup>

다만, 다른 책들이 일반 대중독자 상대의 개론류 성격을 띤 데 반해 이 책은 전문 학술서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직접 대비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 또한, 주체문예이론이 의거하고 있는 주체사상이 1982년에 가서야 그 완결된 모습을 보인다는 견해에서도, 75년판 개론서의 미완결성은 증명이 되는 것이다.<sup>2)</sup>

북한 문예이론의 역사적 변모를 살피는데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주체문예이론의 실체와 전모를 알기 위해서는 계속 간행 중인 '주체문예이론 총서' 시리즈를 총괄할 수 있어야 하나 자료적 한계가 있고, 실령 자료를 다 갖춘다 해도 실증적 해설에 매물될 염려가 있기에 달리 방도를 구해야 할 것이다. 즉, 75년판과 83년판을 서로 보완하면 주체문예이론 체계를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하는 우리의 작업에서 또다른 난점이 있다. ①②번 자료는 "문학이론에서의 문학의 기본원리와 기초지식을 개괄적으로 논술한 학과"로서 문학개론의 이름에 부합된다. 그러나 75년판은 그 제목부터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일 뿐더러 기존의 문학개론이라는 개념과는 다른 의미를 띠고 있다고 여겨진다. 문학개론이라는 개념이 일단 사라지고, 문학만 아니라 예술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이론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자료를 ①②번 자료와 동일차원에서 직

1) 본 논문에서는 '종자론' 등 북한에서 사용하는 문예학 용어의 경우, 처음 사용하는 경우만 작은 따옴표('-')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그 이후로는 생략하기로 한다.

2) 이정길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1982년 김정일이 김일성 탄생 70주년기념 '전국 주체사상 토론회'에서 발표한 「주체사상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 주체사상의 전일적 체계가 수립되었다고 한다. 이정길, 『철학의 새로운 단계』(녹두, 1989), 256~260쪽 참조.

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북한에서 이와는 다른 문학개론 책이 출판되었다는 사실이 없고 또, 문학예술에 대한 북한 내부의 특수한 범주규정으로 봐서는 75년판 자료가 이전의 문학개론이 맡고 있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①②번과 같이 다루기로 하였다.

한편 80년대 문예이론의 변모를 알려주는 90년대 문예이론서를 비교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료를 찾기 어려워, 아쉬운대로 김정본의 『미학개론』을 부차적인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최근 1990년대의 북한 문예동향이 김일성주의의 고착화가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조금씩 유연화(완화)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도 있겠다.

앞으로 본론에서는 이들 역대 문예이론서들을 ‘문예의 개념, 기능, 창작방법, 담당층, 문학예술사’ 등 이론 항목별로 비교 분석하여, 그 역사적 변모의 과정과 의미를 천착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 II. 각 문예이론서의 서론부분 비교

### 1. 서론 체제의 변화양상

먼저 박종식·현종호·리상태, 『문학개론』을 살펴보면 발행연도(1961)가 말해 주듯이 주체사상이 체계화되기 이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고 하겠다. 그때까지 북한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이론에 의거하여 여타의 문학논의가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서론의 목차를 보더라도 그것은 명백하게 드러난다.

1. 우리 문학 건설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문학리론의 임무
2. 우리나라의 고전적인 문학리론 사상의 문학전통
3. 우리 당의 문예정책과 김일성 원수에 의한 맑스레닌주의 문학리론의 창조적 발전
  - 1) 맑스레닌주의 문학리론의 형성
  - 2) 해방 전 우리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문학리론사상의 발생과 발전

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북한에서 이와는 다른 문학개론 책이 출판되었다는 사실이 없고 또, 문학예술에 대한 북한 내부의 특수한 범주규정으로 봐서는 75년판 자료가 이전의 문학개론이 맡고 있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①②번과 같이 다루기로 하였다.

한편 80년대 문예이론의 변모를 알려주는 90년대 문예이론서를 비교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료를 찾기 어려워, 아쉬운대로 김정본의 『미학개론』을 부차적인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최근 1990년대의 북한 문예동향이 김일성주의의 고착화가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조금씩 유연화(완화)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도 있겠다.

앞으로 본론에서는 이들 역대 문예이론서들을 ‘문예의 개념, 기능, 창작방법, 담당층, 문학예술사’ 등 이론 항목별로 비교 분석하여, 그 역사적 변모의 과정과 의미를 천착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 II. 각 문예이론서의 서론부분 비교

### 1. 서론 체제의 변화양상

먼저 박종식·현종호·리상태, 『문학개론』을 살펴보면 발행연도(1961)가 말해 주듯이 주체사상이 체계화되기 이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고 하겠다. 그때까지 북한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이론에 의거하여 여타의 문학논의가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서론의 목차를 보더라도 그것은 명백하게 드러난다.

1. 우리 문학 건설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문학리론의 임무
2. 우리나라의 고전적인 문학리론 사상의 문학전통
3. 우리 당의 문예정책과 김일성 원수에 의한 맑스레닌주의 문학리론의 창조적 발전
  - 1) 맑스레닌주의 문학리론의 형성
  - 2) 해방 전 우리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문학리론사상의 발생과 발전

3) 해방 후 우리 당과 김일성 원수에 의한 맑스레닌주의 문학리론의 창조적 발전 및 풍부화

#### 4. 맑스레닌주의 문학리론의 당성

1) 맑스레닌주의 문학리론의 과학성과 혁명성

2) 온갖 반동적 리론들과의 투쟁에서의 맑스레닌주의문학리론의 원칙성과 비타협성<sup>3)</sup>

다음으로 대학용 『문학개론』(1970)의 경우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문학이론과 주체 문예이론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를테면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셈인데, 서론의 목차 제목에서도 그 면모가 잘 드러난다. ‘현 시대의 최고봉의 맑스레닌주의 문예사상인 김일성 동지의 문예사상은 문학개론 체계와 내용의 기본’이 그것인데, 이에 따르면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사상의 최고봉 = 김일성의 문예사상이 된다.

이전의 자료들이 어떤 면으로든지 마르크스레닌주의와의 관련성을 적시해놓고 있는 반면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1975)에는 어느 곳에도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으로 명시된 전혀 새로운 문예이론이 등장한다. 서장(序章)의 긴 제목 ‘서장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독창적인 문예리론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문예리론’을 보더라도 그 점은 마찬가지이다. 이는 1975년이 주체사상이 이론적으로 체계화되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북한사회의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발을 맞추어 문예이론에서도 대폭적인 체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 2. 문학의 개념 변모와 현대성의 의미

북한의 문학개론을 살펴보면서 눈에 가장 두드러지게 띠는 것은 문학 자체에 대한 인식의 변모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문학의 기능에 대한 의미부여의 변화

---

3) 앞으로 이 논문에서 북한 문예이론서 원 자료를 인용할 때는 원본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에서 찾을 수 있다. 61년 자료의 경우, 문학의 사회적 기능이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이론의 일반론에 의해서 설명된다. 주지하다시피 문학의 인식 교양적 역할이나 미학 정서적 특징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이론의 체계에서 이미 오래된 전통이다.

“문학은 다른 사회 의식 형태들과는 달리 그의 미학적 기능으로 하여 사람들의 감정에 작용하면서 거대한 인식 교양적 역할을 수행한다.”<sup>4)</sup>

그러나 70년 자료에 오면 문학의 사회적 기능이 ‘문학의 사회혁명적 기능’으로 교정되고, 문학의 기능이 인식 교양적·미학 정서적 기능뿐만 아니라 ‘생활의 교과서, 투쟁의 무기’로 그 범위를 넓힌다. 다음으로 75년 자료에서는 문학의 사회적 기능이 아예 ‘공산주의적 인간학’이라는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본성과 특질로 규정된다.

1961년에는 문학의 이론적 대상이 부르조아 문학의 대타개념으로서 진보적 문학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문학의 기능이 마르크스레닌주의 문학 일반원칙으로 설명되고 있다. 1970년에 오면 문학은 ‘생활의 교과서, 투쟁의 무기’로서 규정되고 문학의 ‘현대성’ 원칙이 제고되어 있다. ‘생활의 교과서, 투쟁의 무기’는 ‘문학의 사회혁명적 기능’ 항목에서 특히 ‘혁명적’ 기능에 대한 강조로 인한 배려로 보인다. 이는 60년대 비약적인 사회주의 국가발전 전략을 꾀한 북한사회의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병진정책’이 문예방면에도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5)</sup>

은 주민의 노동계급화를 꾀한 북한의 당대적 사회상태가 “노동계급의 문학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옹기 이해하고 그를 더욱 노동자, 농민의 계급적 이익에 맞는 혁명적인 문학”을 요구했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말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문제는 그들[작가와 예술인 - 인용자]을 혁명화하는 데 있습니다. 작품을 쓰는 사람들이 당정책을 몰라서도 안되며 혁명적 원리를 몰라도 안됩니다. 사람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여야 혁명적 작품을 쓸 수 있습니다.”<sup>6)</sup>

4) 박종식 외, 『문학개론』(교육도서출판사, 1961), 37쪽.

5) 스칼라피노·이정식, 한홍구 옮김,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3권(돌베개, 1987), 821쪽.

다음으로 북한 문예이론서에서 흔히 거론되는 '현대성'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자. 현대성이란 "시대에 대한 문학예술의 민감한 반응이며 시대의 절실한 과제와 리념, 시대적 정서를 민감하게 포착반영하는 문학예술의 사상-미학적 본성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7) 일반적으로 문예이론은 과거 문학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문학의 합법칙적 발전과 문학기론의 산출 근거를 문학 전통유산의 개괄에서 추출해 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 할 때, 북한 문예학에서 '현대성 원칙'의 등장은 그네들의 현실적 문제해결이라는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1970년 자료부터는 서론에서 이론의 토대인 과거의 문학사적 개괄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1975년 자료도 마찬가지이다. 실사 과거 문학 전통이 이론 도출의 근거로 이용된다 하더라도 항일 빨치산의 혁명문학만 해당된다. "과거를 그림에 있어서도 오늘에 가까운 것부터 그리는 것이 현대성의 요구로 된다."고 역설 하면서 항일무장투쟁기의 문학을 주로 문학을 기술하는 전거로 사용할 뿐, 그 이전의 문학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970년 당시에 나온 문학사의 실제기술에서도 이 '현대성 원칙'이 일관되게 관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문학사의 시기구분을 19세기 말~1945년으로 하면서도(제2권) 김일성의 부모인 강반석·김형직의 문학을 별도의 책(제3권)으로 묶은 것을 보면 현대성의 실제 내막을 알 수 있는 것이다. 8) 그 당시 김일성의 유일사상 체계를 북한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항일무장투쟁기 문학창작의 대표성 설정이 필요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문학의 시기를 19세기 말~1945년으로

6) 대학용 『문학개론』, 14쪽에서 재인용.

7) 대학용 『문학개론』(교육도서출판사, 1970), 114쪽.

8) 대학용 『문학개론』과 같은 시기에 간행된 김일성대학 조선문학 강좌, 『조선문학사』 1~6권(김일성 종합대학 출판사, 1971.7 : 이 간행년도는 1권의 간행년도이다. 나머지 2~6권의 간행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을 보면, 2권과 3권이 각각 19세기 말~1945년과, 혁명문학예술·김형직 강반석문학으로 되어 있다. 이상은 김동훈, 「북한 문예학·문학사 연구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에 대한 자기비판과 과학적 문학사의 과제」(『노들』 1992년 겨울호) 부록 : 북한의 각종 문학사 서지, 415~416쪽을 참고할 것.

잡을 수밖에 없는 실상때문에 이론적인 절충을 하게 된 것이다.<sup>9)</sup>

원래 ‘현대성의 원칙’은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유래하였다.

“창극 <춘향전>도 좋고 연극 <리순신 장군>도 좋습니다. 우리는 지난날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은 지난날보다도 오늘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직접 관련된 문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sup>10)</sup>

김일성의 발언이 갖는 북한 사회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현대성의 원칙’은 이러한 과도기적 성격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예로 보인다. 실제로 ‘현대성의 원칙’은 75년판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문학이 그때그때의 당면한 정치적 과제에 부응하고 사회역사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의 ‘현대성’ 원칙은 그 평가에 주의를 요한다. 원래 우리에게는 논의의 객관적 요구와 사회적 실천의 의의를 강조하는 의미의 현대성 또는 ‘현재성’ 원칙이 북한에서는 조금 달리 쓰인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로 바뀌었다는 뜻이다. 즉, 이 원칙에 의해 노동계급의 문학인 사회주의문학은 일반론적인 의미의 ‘사회적 기능’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천리마운동’이나 ‘유일사상의 체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이론에서 말하는 사회개조의 기능이 미학 일반론에서 일컬어지는 사회의 미적 개조라는 추상적 범주 차원으로 이해되는 것을 반대하고 실제적인 물질적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역기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유일사상의 확립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적 중앙집권화의 논리가 사회경제적 생산논리에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등으로 관철되더니 급기야 문예분야까지 하나의 생산공정으로 이해하는 실용주의적 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것으로 비판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9) 이와 관련하여 1960년대 전 기간동안 『문학신문』 지상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기사는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10) 『김일성 저작집』 제 2권, 572쪽, 대학용 『문학개론』, 110쪽에서 재인용.

거시적으로 보아 각각의 문학개론에서는 문예이론의 명칭이 ‘맑스레닌주의 문학이론’ → ‘최고봉의 맑스레닌주의 문예사상인 김일성의 문예사상’ → ‘김일성이 창시한 독창적인 주체적 문예이론’으로 각각 다르게 명명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문학에서 ‘문학예술’로, 문학 ‘일반’에서 ‘사회주의’ 문학으로 그 관심의 초점이 이동하는 것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말이 된다. 여기에서 75년판의 독특한 문예론적 가치가 드러나는데, 이는 우리의 문학사적 전통을 돌이켜 보건대 아주 새로운 경험이다.

우리 남한의 문학사적 흐름과는 사뭇 다른 북한의 이러한 문학현상은 북한 사회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반봉건적(半封建的)인 사회구성체에서 사회주의 사회로 진입하는 와중에서 문학 일반론과는 성격이 다른 사회주의 사회의 문학론의 필요성이 당연하게 요구되었던 것이다. 또한 소수의 문학향유에서 다수의 문학이 지향되다 보니 문학에 대한 기존의 관념이 달라지게 되는 필연성을 동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바, 문학의 사회적 기능이 문예의 본질로 규정되어 문학을 아예 ‘인간학’으로 부르는 경로를 취하게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사회주의 문학예술은 ‘공산주의적 인간학’의 의미가 강하므로 기존의 문학장르보다도 효율적인 교양 감화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가극이나 영화의 기능, 창극, 무용의 역할은 중요시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문학개론만이 아닌 다른 범주의 문예적 교과서 즉, ‘주체의 문예이론’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이해된다.

이처럼 문학에 대한 인식의 근저에서는 북한의 당대적 현실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문학은 내적인 자기 역사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내적인 자기변모의 양상도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각 문예이론 항목별로 비교 검토하는 자리를 통하여 우리는 그 작업을 수행할 것이며, 그 비판과정에서 우리의 민족문학론과 다른 이론에 대해서는 과감한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 III. 문학의 본질과 기능의 변모

#### 1. 문학 본질의 변모



거시적으로 보아 각각의 문학개론에서는 문예이론의 명칭이 ‘맑스레닌주의 문학이론’ → ‘최고봉의 맑스레닌주의 문예사상인 김일성의 문예사상’ → ‘김일성이 창시한 독창적인 주체적 문예이론’으로 각각 다르게 명명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문학에서 ‘문학예술’로, 문학 ‘일반’에서 ‘사회주의’ 문학으로 그 관심의 초점이 이동하는 것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말이 된다. 여기에서 75년판의 독특한 문예론적 가치가 드러나는데, 이는 우리의 문학사적 전통을 돌이켜 보건대 아주 새로운 경험이다.

우리 남한의 문학사적 흐름과는 사뭇 다른 북한의 이러한 문학현상은 북한 사회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반봉건적(半封建的)인 사회구성체에서 사회주의 사회로 진입하는 와중에서 문학 일반론과는 성격이 다른 사회주의 사회의 문학론의 필요성이 당연하게 요구되었던 것이다. 또한 소수의 문학향유에서 다수의 문학이 지향되다 보니 문학에 대한 기존의 관념이 달라지게 되는 필연성을 동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바, 문학의 사회적 기능이 문예의 본질로 규정되어 문학을 아예 ‘인간학’으로 부르는 경로를 취하게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사회주의 문학예술은 ‘공산주의적 인간학’의 의미가 강하므로 기존의 문학장르보다도 효율적인 교양 감화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가극이나 영화의 기능, 창극, 무용의 역할은 중요시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문학개론만이 아닌 다른 범주의 문예적 교과서 즉, ‘주체의 문예이론’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이해된다.

이처럼 문학에 대한 인식의 근거에서는 북한의 당대적 현실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문학은 내적인 자기 역사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내적인 자기변모의 양상도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각 문예이론 항목별로 비교 검토하는 자리를 통하여 우리는 그 작업을 수행할 것이며, 그 비판과정에서 우리의 민족문학론과 다른 이론에 대해서는 과감한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 III. 문학의 본질과 기능의 변모

#### 1. 문학 본질의 변모

북한 문예이론의 역사적 변모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문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들의 변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즉 문예의 본질적 성격과 기능에 대한 변모를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1967년 주체사상의 확립을 앞뒤로 해서 '문학' 일반 중심의 마르크스레닌주의문예학이 '사회주의문학예술' 중심의 주체문예이론으로 바뀐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문학'에서 '문학예술'로, 문학 '일반'에서 '사회주의'문학으로 대상이 바뀐만큼 역사적 변모를 밝히려면 보다 커다란 인식들이 필요하다. 즉 동일한 범주의 문학회론이나 예술원론을 포괄할 수 있는 문예학의 지평이 확보되어야 비로소 문학사 서술의 미학적 기초가 변모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문예이론서의 해당 부분 목차는 다음과 같이 비교된다.

박종식 외, 『문학개론』(1961)

제1편 문학의 사회적 기능

제1장 문학의 사명

문학의 사회적 본질 / 문학의 인식교양적 기능

제2장 문학의 공산주의적 당성은 인민성의 최고표현

문학의 계급적 성격 / 문학의 공산주의적 당성 / 문학의 인민성

대학용 『문학개론』(1970)

제1편 문학의 사회계급적 성격

제1장 로동계급문학의 사회주의적 성격

문학의 사회계급적 성격과 세계관 / 로동계급문학의 사회주의적 성격

제2장 문학의 당적 로동계급적 인민적 성격

문학의 로동계급적 성격 / 당성 / 인민적 성격 / 부르쵸아 및 좌우경 기회주의

제2편 문학의 사회혁명적 기능

제1장 생활의 교과서 투쟁의 무기로서의 문학

제2장 문학의 인식교양적 기능의 미학정서적 특성

제3장 문학의 현대성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1975)

제1편 주체적인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본성과 특질  
 제2장 공산주의적 인간학  
 제3장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  
 당성 / 로동계급성 / 인민성 / 반동적 반혁명적 문예사상과의 비타협성

우선 이론의 대상을 보면, 1961년의 『문학개론』에는 부르조아문학에 대한 대타개념으로서 진보적 문학이 주된 반면, 1975년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에는 대타개념이 거의 전제되지 않은 채 주체시대의 유일한 ‘사회주의문예’만이 대상이 되고 있다. 종간의 1970년판 문학개론은 문학 일반이라기보다는 ‘로동계급의 문학’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변모의 방향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주체문예이론은 ‘주체적인 사회주의문학예술’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상 자체가 배타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를 평가하면, 사회주의 이전의 모든 문학과 단절된 점에서는 문예학적 인식의 지평이나 대상이 공시적 통시적으로 축소된 반면, 문학만이 아니라 연극 영화 등 예술 일반으로 대상을 넓히고 그 본성과 기능을 공산주의적 인간학이라는 윤리적 범주로 확대한 점에서는 새로운 인식틀로의 변모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전제하에 문학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인식과 규정이 어떻게 변모하는지 밝혀보기 위하여 먼저 ‘계급성, 당성, 인민성’ 범주가 3가지 문학개론에서 어떻게 달리 나타나며 그 변모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사회적 기능과 그에 따른 작가의 역할이 문학의 대상 변화와 맞물려 변모된 양상을 정리할 생각이다.

1967년 주체사상의 확립을 전후로 해서 ‘문학’ 일반 중심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관이 ‘사회주의 문학예술’ 중심의 주체문예이론으로 대상이 변화한 사실은, 단지 그것의 변화에만 머물지 않고 해당 시기에 맞는 문(예)학의 사회적 기능과 작가의 역할까지도 새롭게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능과 작가의 역할이 변모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그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미학적인 기초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는 각 문학개론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급성, 당성, 인민성’ 범주, 문학의 사회적 기능과 작가의 역할 변화를 차례대로 비교한 후 그 변화의 의미를 추출하는 순서를 따르기로 한다.

## 2. 문학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 범주의 변모

먼저 '당성 계급성 인민성' 범주가 문학개론의 어느 위상에 있는지를 보면 1961년 판에서는 '사회적 기능', 1970년판에는 '사회계급적 성격', 1975년판에는 문예의 '본성과 특질' 항목에 속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범주가 처음에는 문학 일반의 '기능'으로 인식되었다가 나중에는 사회주의문예의 '본성'으로 인식되는 변모를 보인다. 문학의 여러 기능 중 인민 교양이라는<sup>11)</sup> 사회적 기능, 사회혁명적 기능이 아예 본질의 차원으로 굳어졌다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는 그러한 대중교육과 사회개조의 측면이 갈수록 강화되었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 개인적 정서 함양이나 심리적 쾌락 등 부르조아문예학에서 흔히 말하는 문학의 다양한 본질과 기능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박종식 외, 『문학개론』(1961)에는 '문학의 계급적 성격, 문학의 공산주의적 당성, 문학의 인민성' 범주가 제1편 '문학의 사회적 기능'편에 '문학의 사명'과 함께 속해 있다. 계급성을 '노동계급성'만으로 한정짓지 않거나 '당파성' 대신 당성이란 용어를 쓰지만 '공산주의적'이라는 한정사를 붙이는 것으로 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일반 문예학과 별다르지 않다.

사회주의사회의 문학이 지닌 계급적 성격에 대한 언급을 예로 들어보자. 문학은 사회의식의 한 형태로서 사람들의 사회적 존재, 그들의 생활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각이한 물질적 생활과 조건에서 사는 사람들은 각이한 생활 경험을 반영하며 계급적 요구에 답하기 위하여 각이한 사상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사상은 계급의 이익의 반영에 귀결된다. 문학 창조자인 작가의 경우도 그의 사회적 견해, 미학적 견해, 계급적 성격을 띠므로써 그의 미학적 이상에 의하여 창조된 문학작품 역시 계급적 성격을 띤다.<sup>12)</sup>

문학의 계급적 성격은 사회의 계급적 대립이 더욱 첨예화되는 역사적 시기에 뚜렷이 나타난다. 계급사회에서는 두가지 민족문화가 존재하는데 지배계급의 문화와 그에 대치되는 민주주의적이며 사회주의적인 문화가 대립되며 각기 계급성을 띠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에 의하여 지도되는 사회주의

11) 북한의 '교양'이라는 용어는 우리의 대중교육과 비슷한 뜻으로 사용된다.

12) 박종식 외, 『문학개론』(1961), 47쪽.

적 문학만이 존재한다. 사회주의 문학은 전체 인민대중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반영하여 노동계급의 세계사적 사명을 실현하는 투쟁에 복무하는 계급적이며 당적인 문학이 된다.<sup>13)</sup> 이러한 계급성 이론은 레닌 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이론에서 보편적인 설명이라 할 수 있다.

당성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예술의 당성은 가장 선진적인 계급인 노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의 예술적 구현에 의하여 담보되고 노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 목적의식적으로 복무하는 문학예술의 혁명적 본질을 규정하는 점에서, 그 이전시기 이를테면 진보적 부르조아의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예술의 사상적 경향성, 당파성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고 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이론에서 보편적인 설명이라 할 ‘당파성 / 당파취함 / 경향성’이라는 용어체계<sup>14)</sup>를 버리고 대신 ‘당성 / 당파성 / 경향성’이라는 용어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드러난 용어 차이만 있을 뿐 내포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이다.

인민대중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또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문학의 일반적 본성을 의미하는 ‘인민성’ 개념 규정이라든가,<sup>15)</sup> 그 세 범주간의 관계를 ‘문학의 공산주의적 당성은 인민성의 최고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등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문학의 사명’ 항목에서도 ‘문학의 사회적 본질’ ‘문학의 인식교양적 기능’이라 하여 문학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 기능을 인식과 교양으로 파악함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론의 교과서에 비교적 충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대학용 『문학개론』(1970)에는 ‘문학의 노동계급적 성격, 당성, 인민적 성격’ 범주가 제1편 ‘문학의 사회계급적 성격’편에 속해 있다. ‘제1장 노동계급문학의 사회주의적 성격’이라 하여 문학은 사회계급적 성격과 세계관의 특성에 따라 그 본질과 기능이 달라진다고 하며, ‘노동계급의 문학은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학의 당적 노동계급적 인민적 성격’ 범주에서도 무원칙한 당성이나 어느 계급에게나 가능한 계급성 개념이 배제되고 유일사상으로서의 당성과 노동계급성만이 오로지 문학용어로 자리잡게 된다.

13) 박종식 외, 『문학개론』(1961), 49쪽.

14) 소련아카데미, 편집부 역, 『미학의 기초』 2권(논장, 1988) : 임범송 외, 『맑스주의 문학개론』(나라사랑, 1989) 참조.

15) 박종식 외, 『문학개론』(1961), 60쪽.

이러한 배타적 용어 규정의 근거로서 유일사상 외의 모든 문예사상이나 이론 등을 ‘부르조아 및 좌우경 기회주의’라 하여 적극 비판하고 문학의 기능을 보다 현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당 문예정책의 절대적 무오류성이라는 원칙때문에 문예를 풍부화할 수 있는 많은 계기를 스스로 제한한 일은 북한 문예비평사에서 적지않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 문예정책당국이나 비평가들의 비판을 보면 1945년부터 1953년에 이르기까지 남로당 계열의 임화(林和)의 민족문화론이나 문화노선을 별다른 논증이나 설명없이 곧바로 부르조아미학으로 등치시켜버리는 경향을 보게 된다. 즉, 임화 등의 문학을 ‘무덤, 죽음, 비겁, 영탄, 절망, 애수, 원한, 패배’ 등 ‘부르조아적 정서’의 독소를 퍼뜨린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평화적 민주기지 건설’이라는 당대현실의 진실을 왜곡하는 자연주의적 문학사상으로써 자기들의 문학으로 하여금 민족적 허무주의를 선전하며 패배주의에 물들게 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임화의 시집 『너 어느 곳에 있느냐』, 김남천의 단편 「꿀」, 이태준의 장편 「농토」 등을 패배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작품으로 단정하고 그에 따라서 부르조아미학의 해독을 주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부르조아미학하면 자연주의, 형식주의, 유희주의, 예술지상주의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프로문학의 맹장이었던 임화 등의 문학을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비난 일변도의 논의풍토가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들의 당적(黨的) 문학이념에 어긋나는 모든 미학적 지향을 싸잡아서 부르조아 반동미학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될 정도이다. 따라서 북한 비평사나 문예정책사에서 사용하는 ‘부르조아미학’이란 용어는 그들의 사회주의 리얼리즘미학과 노선이 다른 모든 경향을 포괄하는 가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사태가 이렇다면 전후문학이 부르조아미학의 잔재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는 제대로 관철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오히려 정치적 배경과 관련되어 리얼리즘론의 도식주의적 편향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sup>16)</sup>

부르조아적 경향에 대한 전면적 비판은 문예이론에서 문학의 기능 자체를 바꾸게

16) 참고, 「1950년대 北韓 文藝批評의 展開過程」, 조건상 편저, 『韓國戰後文學研究』(성균관대 출판부, 1993), 254-255쪽.

만들었다. 즉, '문학의 사회혁명적 기능'이라 하여 문학의 고유한 기능을 인식교양적 기능과 미학정서적 특성뿐만 아니라 '생활의 교과서, 투쟁의 무기'로 구체화 내지 확대하고 그 실제적인 근거로 '현대성'이라는 개념을 들고 있다.

문예분야까지 하나의 생산공정으로 이해하는 실용주의적 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현대성' 개념의 한계는 75년판 주체문예이론서에서 잘 드러난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 범주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이론 일반에는 없는 새로운 개념과 내포로 나타난다. 즉, 미학이론에 '수령론'이 개입 관철됨으로써 개인 숭배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주체문예이론에서 '당성'이란 어떻게 규정되는가? 이는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규정되며,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에 기초한 높은 계급적 각성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즉 당에 대한 충실성은 당의 혁명위업에 대한 철저한 복무의 정신을 말하는 바, 당이 노동계급의 당이므로 혁명위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려는 혁명정신의 집중적 반영이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당에 대한 충실성이란 곧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의미한다고 논리가 비약한다. 왜냐하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이 된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예술에서 당성을 훌륭히 구현하는 문제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구현하는 문제와 통일되어 있으므로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 체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sup>17)</sup>

문예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 범주의 가장 주된 문제는 결국 셋의 상호관계인데, 계급성과 인민성의 최고 구현형태인 당성에 관한 설명의 핵심을 보면 결국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범주는 문예이론이나 미학의 개념이 아니라 정치학의 범주로 전화되어 인식된다는 의미가 되며, 게다가 개인숭배적인 정치주의 내지 아예 비학술적 신앙 차원의 개념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하나 문제점으로 당성 개념이 역사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17) 이상 당성 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1975), 93쪽 참조. 91년판 미학개론에서도 수령론에 입각한 주체미학이론이 정교하게 개진되고 있다.

1961년판 문학개론에서는 문학의 당성 개념이 분명 역사적 개념이라 했는데, 주체문예이론에서는 통시적 시각이 배제되고 선언적으로 서술된 점에서 역사주의원칙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이 가능한 것이다. 즉, 1961년판에는 프로문학 이전 시기에도 계급투쟁에서 문학이 무기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일정한 당파성을 나타낸다고 했던 것이다. 그 당파성의 역사적 발전형태로서 가장 완전하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당성이 나오는데, 그것은 유일하게 끝까지 혁명적 계급인 노동계급이 역사무대에 출현하고 과학적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이 결합된 력사적 조건하에서 당적 지도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에서 발생하였다고 하고 있다.<sup>18)</sup>

그런데 주체문예이론에서는 당성개념이 수령에의 충실성이라는 식의 수령론으로 수렴되어 수령 출현 이전 문예의 당성을 인식할 수 없는 자가당착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역사주의 원칙의 적용이 정당하게 되지 않는 성격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 3. 문예의 사회적 기능

북한의 문학개론류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대중에 대한 교양 기능이 매우 강하게 부각되어 있음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즉 대중들에게 당의 정책을 이해시키고 당 사업의 영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점이 문(예)학의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의 사회적 기능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의 문학개론류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기능과 그에 따른 작가의 역할이 문학의 대상 변화와 맞물려 다르게 설정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1967년 주체사상의 확립을 전후로 해서 '문학' 일반 중심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관이 '사회주의 문학예술' 중심의 주체문예이론으로 대상이 변화한 사실은 단지 그것의 변화에만 머물지 않고 해당 시기에 맞는 문(예)학의 사회적인 기능과 작가의 역할까지도 새롭게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모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미학적인 기초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는 각 문학개론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기능과 작가의 역할 변화를 비교한 후 그 변화의 의미를 추출하는 순서를 따르기로 한다.

북한의 문학개론에서 설정하고 있는 이론적인 대상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61년

18) 박종식 외, 『문학개론』(1961), 51, 52쪽.



판 『문학개론』은 부르조아 문학에 대한 대타개념으로서 진보적 문학이, 70년판 『문학개론』에서는 ‘로동계급의 문학’이, 75년판에서는 대타개념이 거의 전제되지 않은 주체시대의 유일한 ‘사회주의문예’가 주된 대상으로 설정되고 있다. 이러한 대상 설정의 변화는 주체사상의 확립과정과 사회의 내부적인 변화와 관련되어 나타난 것이라 여겨진다. 주목해야 할 것은 대상의 변화가 사회적 기능의 변화와 관련되면서 문학의 범위를 넘어서서 연극 영화 장르까지 확대되는 반면에 이전의 문학적 전통과는 긴밀한 관련을 주목하지 않아 축소된 느낌을 준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사회적 기능이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본성으로 자리잡게 되는 과정이다. 사회개조의 기능에서 본질로의 변화, 이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이론을 북한의 역사적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각 문학개론의 세부적인 비교로 들어가기로 하자.

61년판 『문학개론』에서는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규정하기에 앞서 문학의 상부구조적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문학의 상부구조적 측면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의식형태가 토대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작용하고 토대의 공고화에 사상적 무기 역할을 한다는 데에 두고 있으며, 다른 상부구조와의 차이점으로 미학적 기능과 인식교양적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전체 인민을 최후의 승리로 고무 추동하는 데 있으며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며 사람들을 붉은 공산주의자로 개조하는 위대한 역사적 위업 달성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데 있다”고 규정한다. 이것은 대중들에게 현실 생활의 본질을 인식시키며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를 밝혀 현실에 대한 개조의 정신으로 교양한다는 인식교양적 측면과, 현실 생활의 본질을 추출하여 형상화한 후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하여 대중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사상 미학적 교양의 측면이라는 두 개의 축이 사회적 기능으로 설정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들은 일반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이론과 거의 비슷한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즉, 현실의 내포적 총체성과 운동방향을 재생산하여 특정하고도 본질적인 한 측면에서 현실을 내보이면서 대중과 사회를 미적으로 교양하고 개조하는 것으로 문학의 기능을 설정한 것이다.

70년판 『문학개론』은 사회적 기능이 ‘사회혁명적 기능’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현실 사회의 요구가 강하게 반영된 듯한 느낌을 준다. 70년판 『문학개론』 역시 생활의 진실한 반영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지만 중심이 생활의 반영에 있지 않고 대중에 대한

교양의 수단이 더 강조되어 상대적으로 반영에 대한 서술이 부각되지 않는다. 또한 문학의 사회혁명적 기능이라 명명하여 문학의 기능을 인식교양적 기능과 미학정서적 특성뿐만 아니라 생활의 교과서이면서 투쟁의 무기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특징적인 것은 인민에 대한 교양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상성과 예술성의 통일을 역설하고 있는 점이다. 61년판 『문학개론』은 사상성과 예술성을 담지할 수 있는 언어나 형식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는 민족적 특성을 논하는 자리에서 잠시 고찰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70년판 『문학개론』은 묘사의 생동성·진실성·심오성, 생활의 범위에 맞는 구성의 폭과 치밀성, 사상의 전달에 효과적인 작품의 형식과 묘사 표현수단, 수법의 통일 등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사상성과 예술성의 통일을 시도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조건으로 '현대성' 개념을 끌어들이고 있다. 현대성이란 '현실을 반영하며 현실의 요구에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의 본성'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개념이 사회혁명적 기능을 높일 수 있다고 꼽고 있다. 첫째 현실생활이 대중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 둘째 그 시기에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해답을 준다는 점, 셋째 오늘날 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까지도 옹계 반영한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면 70년판 『문학개론』에서 피력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문학인 사회주의 문학에서의 사회적 기능은 일반론적인 의미에서의 사회적 기능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천리마운동'과 '유일사상체계'에 기여하는 것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이론에서 주장한 대중과 사회의 교양과 미적 개조라는 추상적인 차원의 이해에 대한 반발로서 현실사회에서 가시적인 것을 도모하는 식으로 인식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은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것이 전도된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문학 자체에서 자연적으로 흘러 나오는 것으로 사회적 기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을 거꾸로 현실의 논리에 끌려다니는 것으로 설정되어서는 그 기능의 타당함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한편 75년판 『북한의 문예이론』에서는 사회적 기능이 '주체적인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본성과 특징'의 장에서 피력되고 있다. 주체문예이론에서는 문학예술을 혁명적 본질과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당 사상사업의 방향과 기본 임무에 철저히 복종되는 사상적 무기로서의 문학예술이 강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사명을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 속에서 혁명적 세

계관을 확고히 세우며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적극 불러 일으켜야 할' 것으로 규정한다. 또 문학예술의 성격, 기능과 역할 역시 내용과 사상에 의하여 규정됨을 명시하고 있다. 주체문예이론에 이르러서는 문예학의 모든 원칙이 유일사상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체문예이론에서는 문예의 기능을 교양적 기능과 사상미학적 기능 외에도 '동원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동원적 기능이란 유일사상으로 무장된 혁명전사인 노동자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나서는 것이다. 그리고 작품의 사상미학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일사상의 정확한 구현으로부터 나오는 생활반영의 진실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주체문예이론에서 피력되는 문예이론과 사회적 기능 역시 70년판 『문학개론』과 마찬가지로 문학 이외의 것에 의해 역으로 규정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유일사상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무엇이든지 유일사상으로 무장하기만 한다면 미학적 기능이든 예술성이든 제고되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하는 의문이 남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70년판 『문학개론』과 75년판 『북한의 문예이론』에 나타난 공통적인 문제점은 앞에서 지적한 것 이외에는 없는가? 아마 이 둘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과거 우리 민족문학의 전통 유산에 대한 배타적인 자세일 것이다. 주체사상이 확립되면서 문학개론류에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현상은 항일혁명문학에 대한 정통성의 부여였으며, 문학에만 한정지어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연극과 영화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나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중과의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대화방식으로 인하여 기록문학에만 한정되었던 범위가 관객과 직접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간접적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연극 영화영역으로 확대된 현상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중을 동원하여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추진해갔던 사회주의 전면 건설과정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때 문예의 사회적 교양적 기능의 강조는 당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문학적 유산에 대한 편의주의적인 해석의 연장선에서 당시의 상황에 맞는 것들로만 제한적으로 제시한 것은 과학적 방법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 4. 작가의 역할

그러면 각 시기별로 다르게 설정된 사회적 기능 하에서 작가의 역할은 어떠한 것

이었는데 살피보기로 하자. 서술체계 상에서 나타난 작가에 대한 언급은 70년판과 75년판에서만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기능과의 연관 하에서 작가의 역할에 관한 언급은 세 편 모두에서 보이기 때문에 이 측면의 비교는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61년판 『문학개론』에서는 작가에게 요구되는 것은 생활에 대한 연구와 체험, 올바른 현실인식과 선진적 사상을 갖는 정도를 들 수 있다. 즉 현실에서 본질적이고 의미있는 것을 추출하여 문학적 형상으로 작품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작가는 생활을 연구하고 체험하는 자세와 선진적 사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러한 점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문예이론에서 보여지는 바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작가가 제시한 형상이 대중들을 미학적으로 교양하고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참여하는 정도가 작가에게 부여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70년판 『문학개론』에서는 작가에 대한 당의 지도와 유일사상에 대한 강조가 눈에 띄기 시작한다.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 작품을 창작하여 전 사회의 혁명화에 이바지하는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혁명화하고 공산주의자로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작가 스스로가 김일성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하며 조직생활의 강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가의 혁명화 방도를 대중의 생활에 뛰어들어 노동자, 농민의 심정을 가지고 관찰하고 체험하는 관찰과 체험의 합일을 주장한다. 이 현실침투의 전제조건은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연구한 후 현실에 대한 당의 혁명적 입장인 과학적인 태도와 방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70년판 『문학개론』에서 보여지는 특이한 점은 창작에 대한 신비화를 거부하면서 작가의 창작적 특색을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즉 작가의 예술적 소양은 누구나 쌓을 수 있으며 누구든지 노력하면 높일 수 있다고 하면서 창작의 신비화를 거부한다(그러나 그것의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음). 그리고 작가의 창작적 특색은 작가의 문학활동 전체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창작적 개성이며 작품의 사상예술적 특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작가의 창작적 특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를 소재의 선택, 전형창조, 구성조직, 작품의 정열과 창작적 기백, 언어·묘사표현 등 주로 형식적인 측면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문학예술의 원천으로서 인민대중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토대의 발전에 따른 상부구조의 발전으로 생각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즉 인민의 생활발전의 높이에 따라 문학예술의 발전 역시도 수반된다는 데서 연유하였으리라 생각된다.

75년판에서는 작가들이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혁명적 세계관이 확고히 선 혁명적인 작가로 될 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그리고 작가들을 혁명화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조직생활의 강화, 창조과정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과정으로 만드는 것,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는 것 등을 설정한다.

또 하나 특징적인 사실은 문학의 담당층으로서 인민대중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소극적 향유층이며 문예의 수용자였던 인민대중이 '군중창작' 방식에 의해 적극 창작층으로 변모하여 문예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문학예술의 원천으로 인민대중을 설정하는 것 자체는 70년판 『문학개론』과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70년판 『문학개론』과 차이를 보이는 가장 커다란 점은 유일사상에 대한 강조와 형식적 측면에 대한 간과를 들을 수 있다. 70년판 『문학개론』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문예이론과의 차이점과 우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75년판 문예이론에서는 유일사상만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며, 작가들이 유일사상으로 무장하면 거의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논조가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75년판에서는 문예의 형식적인 측면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 5. 문예의 본질·기능에 대한 이론 변모의 의미

지금까지 북한 문예이론의 역사에서 문예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인식과 규정이 어떻게 변모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당성 계급성 인민성' 범주가 3가지 문학개론에서 어떻게 달리 나타나며 그 변모의 의미는 무엇인지 추정해보았다.

'계급성, 당성 인민성' 범주가 문학원론의 어느 위상에 있는지를 보면 1961년판에서는 '사회적 기능', 1970년판에는 '사회계급적 성격', 1975년판에는 문예의 '본성과 특질'로 되어 있다. 이들 범주가 처음에는 문학 일반의 '기능'으로 인식되었다가 나중에는 사회주의문예의 '본성'으로 인식되는 변모를 보이는 것이다. 문학이라는 대상이 사회주의문학으로 바뀌니까 여러 기능 중 사회개조의 기능이 곧바로 문예의 본질로 전화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당성 개념은 처음 당파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현대성 원칙에 의해 좁은

의미의 실제 당에 대한 충실성으로 내포가 협소화되더니 결국 수령에의 충성 문제로 바뀌었다. 이는 개념의 협소화뿐만 아니라 정치주의화 내지는 관료화 교조화가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계급성 개념도 노동계급성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시야가 협소화되었다. 인민성 개념은 그 위상이나 내포가 별다른 변모를 보이지 않았으나 보다 단순하고 편의적인 개념으로 완화되었다고 평가된다. 세 범주의 관계를 규정하는 '당성이 계급성 인민성의 최고 표현, 구현태'라는 기본원칙은 계속 지켜졌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각 시기의 문학개론에서 사회적 기능은 해당 시기의 사회적 성격에 따라 변화가 있었음을 알았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관류하고 있었던 점은 인민에 대한 인식적 교양적 측면의 강화라는 것이다. 천리마 현실에 따른 노력영웅의 창조, 그를 통한 인민에 대한 당의 정책 및 사상에 대한 교양은 주체문예이론의 성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각 시기의 문예이론서에서 사회적 기능은 해당 시기의 사회적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인간형을 제시하여 발빠른 대응을 보였다. 이 원칙에 의해 북한 문학은 일반론적인 의미의 '사회적 기능'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천리마운동'이나 '유일사상의 체계'에 기여하였다. 각 시기에 당 문예정책의 전개와 함께 이루어진 새로운 인간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해방직후 '평화적 건설시기'(1945-50) 민족문화 건설에 관한 방침에 따르면, 일제시대의 낡은 반봉건 잔재를 극복하고 '민주건설'의 주요과제인 토지개혁에 적극 나서는 농민 등을 그려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한국전쟁시기(1950-53) 문예 지도방침에 따르면, 당 최고 지도부의 슬로건 "우리의 예술은 전쟁 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50.12.24)는 김일성의 말과 같이 작가·예술인들이 총력으로 전쟁영웅을 그려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전쟁후의 '전후복구건설 및 사회주의 기초 건설시기'(1953-60) 문예 지도방침에는 "모든 것을 전후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하여"(53.8.5)라는 슬로건이 내세워졌다. 이에 맞추어 복구 건설에 앞장서는 노동영웅을 그리되 단순히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적 인격도 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한 인간형을 '공산주의적 인간형상, 혁명적 공산주의자, 새로운 노동계급의 정형' 등이라 하여 그 실체를 모색하는 데 다른 어떤 문예논쟁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넷째, '사회주의 전면 건설기'(1961-66) 문예 지도방침에 따르면 문예작품의 주인공은 단순히 건설 노동영웅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고뇌하면서 발전하는 사회주의 건설자가 되어야 하였다.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

예술을 창조하자”(60. 11. 27)는 슬로건에 맞추어 이러한 새 인간형을 ‘천리마 기수 형상’이라 하여 구체화하는 데 이 시기 문예역량이 집중되었다. 60년대 중반에 비평계를 휩쓴 전형론은 바로 이러한 천리마 기수 형상, 혁명투사 형상, 투사-인간 형상으로 구체화되어 논쟁적으로 전개되었다.<sup>19)</sup>

이런 방식으로 문학 내지 문예가 당대의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 이제 그러한 문학관의 변화가 주는 의미를 추출해보자. 우선 주체문예이론 이후로 올수록 당의 작가에 대한 지도의 부분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문예학의 분야에 정치주의 혹은 교조주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61년 문학개론에서는 부각되지 않았던 작가에 대한 창작지도가 70년 문학개론에서는 등장하기 시작하여 75년 『북한의 문예이론』에서는 당의 지도 아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여야만 올바른 창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그 증거의 하나일 것이다.

또다른 측면은 형식적 측면에 대한 간과나 문학적 유산에 대한 편의적인 평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부르조아 문학을 주로 형식주의적 문학이라 비판을 가하면서 형식적인 측면에 대한 간과가 주체문예이론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학적 유산에 대한 평가 역시도 주체문예이론에서는 편의주의적인 측면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정치주의나 교조주의의 영향으로 작가에 대한 지도부분이 강화되었으리라는 추측은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능이 사회주의 문예의 본질로 변화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에 대한 답은 대상의 설정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1년판 문학개론에서는 그 대상이 부르조아 문학에 대한 대타적 의미에서 진보적인 문학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70년판 문학개론에 들어서는 사회혁명적 기능으로 대상이 설정되고 노동계급의 문학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주체문예이론에 와서는 사회주의 문예의 본성으로 자리잡으면서 그 대상이 인민의 문예로 설정되었다. 즉 부르조아에서 노동계급으로 그리고 인민대중으로의 문예 주체의 변화와 함께 문예향유층의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기능이 사회주의 문예의 본성으로 변하게 된 것이라 추측된다.

19) 참고, 「寫實主義 文藝批評의 전개와 문학신문」 『아시아문화』 제8호(翰林大學校 아시아文化研究所, 1992), 274쪽.

#### IV. 내용과 형식론의 변화

##### 1. 내용 형식론 서술의 성격

문학텍스트 상의 내용과 형식은 문학예술 작품이 존재하는 방식 중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물론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 텍스트 상의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어떤 작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용자(독자, 관객)에게 전달되고 향유될 수 없다면, 좋은 작품인듯 해도 그 작품은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최악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역시 내용과 형식이 당대와 맞는 관계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데서 내용과 형식이 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는 규정은 유효할 것이다.

또한 이로부터 내용과 형식에 관한 이론은, 보다 일반화된 범주이면서 동시에 해당 사회의 시대성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층위와도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역으로 말하자면 추상적인 층위의 이론적 설명 가운데에서 그 이론을 생산해낸 해당 사회의 문학예술에 대한 인식을 살필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문예이론서에 나타난 작품의 내용·형식에 대한 이론과 그 변모 양상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 사회 내에서 문학예술에 대한 인식을 읽어내는 데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이다. 더욱이 이 장에서 다루게 될 전형과 갈등, 종자와 같은 부분은 현재 북한의 문예이론을 검토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변모의 양상과 그 내적 동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살피기로 한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각 문예이론서의 내용과 형식론 항목들을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 ① 61년판 문학개론 :

###### 제2편 문학작품

< 문학의 내용과 형식의 통일 / 문학작품의 전형성 / 문학작품의 주제와 사상 / 문학작품의 구성 / 문학작품의 언어 >

##### ② 70년판 문학개론 :



## 제3편 작가와 창작

〈 소재의 선택과 전형화 / 문학작품의 언어와 형태 〉

## ③ 75년판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

## 제Ⅱ편 주체적인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창조

〈 문학예술작품의 종자 /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에서의 전형성 〉 11

61년판과 70년판은 서술체계상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일반적으로 내용과 형식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은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75년판은 내용과 형식에 대한 고려가 '전형성'과 '종자'에 제한되어 언급되고 있다. 이는 75년판이 주체문예이론의 확립 과정 중에 나온 이론서이기에, 주체문예이론의 전 면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론류가 최소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과 형식에 대한 항목 설정은 아예 없고, 대신 '사회주의적 내용과 민족적 형식'이라는 항목과 전형성·'종자'만이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자료 성격의 상이성 때문에 기계적으로 변모를 읽을 수는 없다. 자료의 성격 변화가 문예이론에 관한 시대적인 의미를 수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설명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범주들을 대비하여 그 변모 양상을 읽어내고 그 의미를 추적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전자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1) 비교 대상이 되는 위의 세 종류 이외에 필요한 곳에 보조자료를 보완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특히 75년판 이후에 나온 이론서를 다루게 될 것이다.

④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이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3.

Ⅱ.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창조:〈종자의 탐구와 그 형상적 구현 / 전형적 성격의 창조 / 생활에 대한 사실주의적 반영 / 구성조직 / 갈등의 설정과 해결 / 양상의 규정〉

⑤ 류만·김정웅, 『주체의 창작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83.

〈종자의 선택과 주체의 해명 / 인간과 그 생활에 대한 진실한 형상 / 구성조직 / 예술적 묘사〉

⑥ 김정본, 『미학개론』, 사회과학출판사, 1991.

2편 주체의 미학적 견해 : 4장 미적 현상으로서의 예술 - 3절 예술의 내용과 형식

이를 위하여 대략적으로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즉 내용과 형식을 차례로 먼저 살피고, '종자' 그리고 '전형과 갈등'은 따로 떼내어 살필 것이다. 그리고 난 후 과연 변모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 2. 내용과 형식에 관한 이론의 변모

### 가. 내용

북한의 문예이론에서의 내용이란, 결국은 '주제'와 '사상'(이하 작은 따옴표 생략)으로 요약된다. '내용에는 이것들이 속한다'는 명시된 말이 없을지라도 암묵적으로 동의된 사항이다. 그러면 우리가 논의의 출발로 삼아야 하는 사항은 그 둘 간의 관계가 어떠한가라는 질문이다.

61년판에서는 우선 그 양자 간의 불가분리적 관계를 설명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 주제는 "작가에 의하여 작품에 설정되었고 작품의 내용의 다양한 측면들을 하나의 통일된 단일성으로 조직하는 기본 문제"(101)<sup>2)</sup> 이고, 사상은 예술적 형상들을 통해서 작가가 표명한 사상이자 독자가 획득하는 사상을 의미한다(105). 주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작품에 표현한 다양한 생활 소재들과 작가의 사상은 개개의 문제들로 분열됨으로써 목적인 대로 전일적인 내용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80). 즉 "주제의 형성의 기초에는 사상이 놓여 있으며 사상은 주제 속에 구현된다."(109)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주제와 사상은 결국은 작품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으로 불가분리적 관계에 놓인 것이다. 어떠한 것이 선행하는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는 별 의미 없는 관심 밖의 사항인 셈이다. 역설적인 면에서 작품에 관여하는 작품외적 사상보다는 작품내에서 구현된 주제가 상대적으로 중시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70년판에서는 주제와 사상의 불가분리를 마찬가지로 강조하고 있으나 무게 중심이 '보다 중요한 것은 사상'(157)이라는 입장으로 옮겨진다. 이는, 61년판에서

2) 괄호 ( ) 안에 있는 숫자는 각 문예이론서의 해당 쪽수를 가리킨다. 이하 같음.)

언급했던 ‘주관적 사상(작품 창작 전에 가지고 있던 작가의 사상)’과 ‘객관적 사상(작품에서 얻을 수 있는 사상)’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것이 전자라고 표명하였던 기본입장이 주제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친 결과이다. 문제는 사상이 주관적인 사상으로 환원 이해됨으로써 작품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주제-사상적인 측면이 작품의 외적인 영역이 개입한 모양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작가의 세계관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제가 문학작품답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상성이 강조되는 것은 이런 맥락인 것이다.

75년판의 경우는 주제와 사상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사상성’과 ‘예술성’의 관계를 논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인식의 편린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 즉 문예에서 사상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데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되는 것은 예술적 형상을 통하여 현실을 인식하고 인간생활을 반영하는 고유한 특성이지만, 그것이 어디까지나 사상을 표현하고 선전하는 사회적 사상의식의 한 형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예술성 안에 사상성이 포섭되지 않고 분리되어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예술성이란 암묵적으로 문학예술을 문학예술답게 하는 모든 요소로서만 이해될 뿐이고, ‘결합’이라는 당위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사상성은 이미 문학예술 저편 피안에 존재하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주제와 사상의 관계에 있어 사상의 지도적인 역할은 북한 문예의 한 특질을 이룬다. 작품 안에 놓인 ‘주제-사상’적인 측면을 가지고 말하자면, 당성을 관철시킬 수 있는 통로가 약화되어 창작 실천에 있어서 강력한 지도성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당성을 지닌 문학예술의 생산을 위해서는 사상의 강조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 방향이 작품외적인 영역에서 통제하되 내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작품 창작의 요소로 옮기게 된 것이다. 문예 창작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당 정책이 관여할 수 있는 원론적 토대가 이미 마련된 셈이다.

#### 나. 형식

북한의 문예이론에서의 형식은 ‘구성’과 ‘언어’를 포섭하는 개념이다. 이후에 살펴보면 알게 되겠지만 북한에서 사용하는 구성의 개념은 통상 우리가 사용하는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같은 마르크스스레닌주의 문예이론을 표방하고 있는 중국 문예학에서조차 구성이란, ‘문학작품 내부의 조직배치와 구조’로서 내용에 속하는 ‘슈제트’

와는 엄밀히 구분하고 있다.<sup>3)</sup> 구성은 문학작품마다 다 있지만 슈제트는 그렇지 않은 데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에 비하면 슈제트를 형식에 넣은 것이나 구성의 함의가 보다 포괄적이라는 면에서 북한 문예학계의 구분은 다소 내용과 형식에 대한 기계적인 분리의 인상을 준다. ‘성격’을 내용이자 형식이라는 설정을 하고 양자간의 변증법적 통일과 내용의 우위성, 그리고 형식의 반작용성을 토대로 설명하기는 하지만, 내용과 형식의 특성이 양 극단화되어 분류한 흔적이 농후한 것이다.

그러면 구성을 중심으로 하여 이론의 변모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61년판에서 구성의 개념 규정은 “작품의 모든 부분을 단일한 전일체로 통일하며, 인간 성격의 발전과 현실 생활의 제반 자료들을 형상적 배열에 조직하는 기능”(83)을 수행하는 ‘작품 내용의 조직’(111)이다. 이 규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구성은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형상집단, 슈제트, 인물·자연묘사, 대화, 독백, 서정적 토로, 에피소트’ 등이 속하게 된다. 이때 (중국의 문학개론에서는 내용에 속하였던) 슈제트는 “사건 전개와 발전의 체계이며 등장 인물의 성격 형성의 력사이며 설정된 갈등의 력사”(119)로서, 환경전개·사건발단·사건발전·정점·결말 등의 과정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런데 70년판에서는 구성 대신에 ‘엮음새’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엮음새’는, 작품내용의 다양한 사건이나 인물성격들을 하나로 통일하며 생활화폭을 조직 배열한 것으로, 작품내용의 조직(178)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여기서 확인되듯이 엮음새는 61년판의 구성과 동일한 위상의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리하여 엮음새 세부 서열로는 ‘형상집단, 줄거리, 서정토로, 낱이야기, 묘사, 설화’가 있는데, 보다시피 슈제트가 없어지는 대신 ‘줄거리’가 나타나고 ‘에피소트’ 대신에 ‘낱이야기’라는 순우리말로 바뀌게 된다. 줄거리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호상관계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련계와 충돌과 발전의 체계”, 즉 “사건과 성격 발전의 력사이며 갈등의 력사”(180-181쪽)라고 하는 데서 슈제트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줄거리의 발전 법칙을 ‘환경전개·사건발단·사건발전·정점·결말’ 등으로 예를 든 것도 그러하다.

이렇게 큰 의미의 변화가 없는데도 용어상으로 약간의 변개를 보이는 것은, 아마

3) 임범송 외, 『맑스주의 문학개론』(연변인민출판사, 서울 : 나라사랑, 1989), 125쪽 참조.

도 소련에서 들어오는 문예학의 용어를 우리 것으로 하려는 데서 오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주체문예이론이 체계화된 형태로 소개된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한중모·정성무, 사회과학출판사, 1983)에서는 읽음새가 다시 ‘구성’이라는 용어로 회복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가장 최근에 나온 김정본의 미학개론에서는 소략하나마 내용과 형식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구성의 세부 서열로서, 즉 ‘인물들의 행동과 사건의 발전을 보여주는 종적 관계로서의 읽음새’를 들고 있는 것이다.<sup>4)</sup>

한편 구성의 세부 서열을 살펴보자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의 경우, 인물관계·갈등선·사건선 등이 있다고 하면서 별도로 항목을 정하여 ‘인간관계, 이야기줄거리, 감정조직’ 등을 살피고 있다.<sup>5)</sup> 참고로 이 자료와 같은 해에 출간된 『주체의 창작리론』(류만·김정웅)으로 보완하여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인간관계’는 종전의 ‘형상집단’과 대응되는 것이지만, 내포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약간의 변모를 보인다. 즉 61년판과 70년판 문학개론에서는 형상집단이라 하면 긍정적인 인물집단과 부정적인 인물집단을 가리키고 그들간의 관계를 일컫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에 이르러서는 긍정적인 인간들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야기줄거리’는 ‘전일적인 사건체계’로 이전의 슈제트와 줄거리의 범위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sup>6)</sup>

그런데 무엇보다도 ‘감정조직’이라는 세부 서열의 확장이 주목된다. 이것은 “생활의 논리를 따라 인간의 감정세계를 긴장과 완화, 축적과 폭발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펼쳐보이면서 성격의 본질을 정서적으로 드러내는 형상방법”으로서 극조직(구성조직에서의 기본)의 기본인 것이다.<sup>7)</sup>

이는 이전에 이야기 줄거리가 감당하기에는 미흡했던 인물의 정서적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따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문학예술이 단순히 사건 중심이기 보다는 인간 중심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정서적 흐름의 표현(물론 사상을 정서적으로

4) 김정본, 『미학개론』(사회과학출판사, 1991), 247쪽.

5) 북한 문예학에서 자주 보이는 ‘갈등선, 사건선’의 ‘선’의 뜻이 무엇인지 불분명하지만 대략 줄거리나 뼈대를 의미하는 ‘선(線)’이 아닐까 추측된다.

6) 류만·김정웅, 『주체의 창작리론』(사회과학출판사, 1983), 186쪽 참조.

7) 윗책, 231쪽.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이라는 주문론의 기본적인 입장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때 감정조직 뿐만 아니라 '사건선·갈등선' 등에 사용되는 '--선'이라는 접미사의 활용을 통해서, 체계면에서 이런 변모가 보여주는 의미의 다른 한 측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굳이 이런 문예학의 용어로 정착하기 이전에도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문예학의 용어로 정착화·체계화함으로써 창작에 있어서는 보다 실천적인 지도가 이루어지게 하고, 분석에 있어서는 작품의 다양한 층위들을 면밀히 과학적으로 살핌으로써 정당하게 요구되는 바에 적확하게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다.

이밖에 주목되는 것은 『주체의 문예이론 연구』에서 '양상'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형상의 정서적 색깔'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체문예이론에서 처음 제기되고 해명된 문제라고 하기는 하나, 흔히 '스질'(style)이라 사용하는 것과 별반 다르게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양상이라는 문예학의 용어로 정착되는 과정은 '종자'이론을 구체화하는 것과 밀접하다는 것을 염두할 필요는 있다. 즉 같은 종자라고 하여도 사회제도, 각이한 생활분야, 구체적인 정황 그리고 이런 것들을 형상화하는 작가와 예술인들의 창작적 개성에 따라 '생활의 본질'이 다르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또한 양상을 올바르게 살리기 위해서는 교양적 목적과 문예의 형태상 특징,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비위', 그리고 주인공의 성격 등이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양상은 생활의 본질과 생동한 형상을 뚜렷이 밝혀내는 문제인 것이다.

요컨대 형식면에서 보이는 변모는 한편으로는 문예학의 용어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얼마간의 혼란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체문예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보다 주체 문예사상을 올바르게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는 도정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문제에 있어서 세부 서열의 세목화(감정조직)는 작가의 창작실천시 보다 주의를 요하는 인간의 문제를 더욱 심도있게 하며, 분석할 때는 보다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가능하도록 체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다. 종자

한편, 75년판에 새롭게 등장한 용어인 '종자'에 대하여 검토해보도록 한다. 우리 학계가 그 이해와 평가에 가장 애를 먹는 것이 바로 이 개념이다. 주체문예이론에

따르면,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분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로서, 작품의 구성 부분에서 그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내용의 제 측면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한다.<sup>8)</sup> 83년판 『주체의 문예이론 연구』에도 거의 그 서술기조가 같다. 결국 “좋은 종자를 골라 잡는 것은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모든 형상요소들과 예술적 세부들을 기본 문제의 예술적 해명에 복종시키면서 창작사업을 힘있게 다그쳐 나감으로써 창작의 속도와 작품의 질을 다같이 보장하게 하는 확고한 담보”(186-187쪽)인 것이다.

그리하여 내용과 형식을 한꺼번에 틀어쥐는 개념으로서의 ‘종자’는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장하는 기본고리가 당의 요구, 인민의 요구와 만나는 지점에 놓여있음을 설명해주는 용어인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용어는 창작실천에서 지도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특수한 사회주의적 사회 구조에서 기인하는 반영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종자’가 표방하는 실재가 너무 빈약하여 주체문예이론의 특징인 종자론의 성격과 의의에 근본적인 의문을 가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종자는 “일제 침략자들의 요구에 순종해도 죽고 거역해도 죽는 막다른 처지에서 벗어나는 길,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을 찾고 참된 삶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sup>9)</sup> 이것이 어떻게 내용·형식을 통일시키는 작품의 핵(核)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치한 논리가 부족하여 설득력있는 서술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결과적으로 종자론은 자칫 종자 개념에 대한 환상에 빠지게 만들어 창작 신비주의와 상통하고, 작가 스스로가 아닌 외부(이를테면 당 문예정책)에서 종자를 쥐어주어야만 창작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수동적이고 비과학적인 창작 관행을 낳게 만들 여지를 보이고 있다.

#### 라. 전형과 갈등

여기서는 내용이자 형식인 성격에서, 그리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서 핵심을 이루는 ‘전형’, 또한 이와 밀접한 ‘갈등’을 살펴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원

8) 75년판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 『북한의 문예이론』(인동출판사, 1989), 207-208쪽.

9) 류만·김정용, 『주체의 창작리론』(사회과학출판사, 1983), 5쪽 참조.

형'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때 이 개념은 작품의 실제 대상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모델(model)'의 의미로 이해된다. 원형은, 남한의 문예학계에서와는 달리 북한의 문예학계에서 무척 중요한 개념으로 정착화되어 있다.<sup>10)</sup> 그리고 이 원형은 전형의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 주목을 요하는 것이다.

61년판까지만 하더라도 원형은 자서전적 작품에 제한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70년판에서는 보다 일반화되어 소재의 선택시 실질적인 인간을 원형으로 삼는 것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문학의 소재는 바로 본질이 체현되어 있는 구체적인 산 자료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점이 중시되었다. 실제로 김일성이 그 원형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기도 하였는데, 김책, 안길, 강건, 최춘국, 조정철, 오중흠 등(146)이 바로 그런 예이다. 문학작품으로 형상화될 혁명투쟁의 모델이라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원형이론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수령의 작품 소재화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주체의 창작리론』에 이르면 원형에 기초한 전형의 창조에서 한 사람의 투쟁자료를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주체문예론에 의해서 이미 밝혀졌다고 언급함으로써 이론적으로 보다 정리된다.

원형에 대한 이러한 논의과정은, 문학예술의 소재가 '생동한 자료'와 원형에 보다 많이 의존됨으로써 여타 사회주의 문학이론과도 구별되는 문학적 현상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현상은 바로 '교양적 의의'와 '현대성의 원칙'이 결합된 지점에 있다. 즉 원형은 전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소재 선택인데, 그 선택이란 현대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현대성은 긍정적인 현실(혹은 긍정적인 주인공의 형상 창조)의 부면을 부각하여 '긍정감화교양'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긍정감화교양'이란, 김일성이 천리마 시대를 반영하는 문학의 소재 선택의 기본이 '긍정적인 주인공', '모범적인 실례'에 있다고 교시한 데서 나온 것이다.<sup>11)</sup> 쉽게 말하자면 좋은 것 혹은 긍정적인 인물을 통하여 감화를 받음으로써 교양적 의의를 얻

10) 남한 문예학계에서 사용하는 '원형'이란 용어는 신화원형비평이론에서 핵심적인 개념인 '원초적인 심성(心性)이나 심상(心象)'을 가리키는 원형(原型)이고, 북한 문예학계에서 쓰는 원형은 작품으로 전형화(典型化), 형상화되기 이전의 작품 모델을 가리키는 원형(原形)의 의미이다.

11) 김일성, 「우리의 혁명과 인민군대의 과업에 대하여」, 128면, 70년판 문학개론, 152쪽에서 재인용.



는 것이 더 좋다는 사상이다. 만약 부정적인 것을 전면으로 드러내자면 의도와는 상관없이 해로운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인식의 발로인 것이다.

바로 원형의 이런 의미 강화로부터 전형에 대한 다음 설명이 가능해진다. 소재 차원인 원형으로부터 작품 내 전형으로 전화하는 과정에서 '현대성의 원칙'이 '교양적인 의의'와 결합되면서 6,70년대의 '천리마 기수의 전형 창조'와 '갈등론'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다. 긍정적인 것이 대중 교양에 더욱 낫다는 주장이 확대되면 무갈등론이나 단순갈등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즉, '낡은 것과 새것의 투쟁'이라는 전통적인 갈등론 대신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의 대립'만 강조함으로써 현실 사회에 대한 비판적 안목이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전형과 갈등에 관한 이론이 일정한 변모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체제의 경직화와 함께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볼 때 원형을 통한 전형화가 모범적 인간형인 모델을 선택하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기실 다양한 인간형을 창조하지 못하고 소재를 제한당하는 창작의 질식, 나아가 인간성의 협애화를 초래하는 부정면이 더욱 크다고 생각된다.

61년판에서 전형은 대체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것과 동일하며 전형화의 여러 형태를 설명하면서 유연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형태들 중 하나에서 현실적 인간의 전형적 본질이 심오하고도 완전한 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전형창조의 유일한 직접적 모체로 되는 경우를 들고 있어 이후 '원형' 개념 강화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때 그 모체의 예는 김일성, 항일혁명투사, 천리마 기수 형상 등이다. 특히 '인식교양적인 의의'를 들면서 오늘 시대의 전형은 '천리마 기수의 성격'에 있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70년판에 오면 전형은 갈등 개념과 아울러 설명되고 있어 이전의 논의보다 풍부해진다. 전형은 "계급과 계층의 호상관계를 선명히 하며 그의 계급적 본질을 해당 계급과 계층의 대표자로 그려내는 것"(160)이 근본적인 요구이고, 전형적인 것은 작가의 계급적 당적 입장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61년판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서는 당성과 전형성이 통일되어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역시 '천리마 기수의 전형 창조'는 보다 강화된다.

이때 갈등이 전형창조의 유력한 수단인 것은, 전형적 성격 창조에서 갈등의 전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70년판에서는 그간 논의의 축적을 토대로 천리마 시대의 갈등은 상용적이며 비적대적이기 때문에 그 갈등은 기본적으로 단결

과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극단적일 수 없고 부정선(否定線)이 주도적인 자리를 차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갈등의 기본이 되는 계급투쟁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교양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학예술이 굳이 없는 부정적인 것을 크게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다.

더욱이 75년판에서부터는 긍정적인 것과 모범적인 것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갈등을 전혀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무갈등론의 방향으로 선회한다. 이것이야말로 계급이 없기에 갈등이 있을 수 없다는 사회주의 사회의 진실을 반영하는 것이며 교양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당(黨)의 방침'이라는 설명으로 요약된다. 이렇게 되면 '긍정감화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특히 '김일성 수령의 고매한 덕성을 칭송하는' 문예작품에서는 부정선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갈등론적 입장은 『주체의 문예이론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주체의 창작리론』의 경우 '천리마 기수 형상'에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전형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전형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삼고 있으며 당과 수령에게 끊임없이 충실한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의 본보기"(54면)인 것이다. 전형문제의 관건은 자주정신으로부터 정치적 생명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푸는 것이며, 이때 정치적 생명에 대한 문제는 결국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다. 그런데 결국 당성과 노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은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라는 서술에서 이 시기 전형의 요체를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문예학에서의 전형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이론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형'과는 그 양상을 전혀 달리한다. 원형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전형성을 획득하게 하는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갈등을 전혀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나, 전형문제의 관건이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귀결되는 대목이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예이다.

### 3. 내용과 형식에 관한 이론적 변모의 의미

과연 이러한 변모는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교양적인 의의'와 '현대성의 원칙'에 의하여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러한 변모를 낳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의심스럽다. '생동한 자료'와 '원형'을 보다 풍부하게 활용하여 현실에 제기된 초기

의 관심사와 문제거리가 그 사회를 진보의 방향에 놓이도록 한다면 실제로 문학예술이 감당하는 기능에 오히려 적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된 범주와 영웅 형상에만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역기능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한편 이런 논의가 가능했던 것도 '갈등을 전혀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무갈등론'의 배경으로부터 연유한다. 그 배경은 곧 그들이 북한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이다. '무갈등론'에 대한 비판이 활발하던 50,60년대 논의 당시도 그 자장(磁場)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현실에서는 적대적인 갈등관계는 아니지만 예술작품에서는 얼마든지 예리화할 수 있다는 논의는 결국 같은 맥락에서 임혀지기 때문이다.

61년판 전형론이 지닌 이론적 유연함에서 70년대 이후 도식적으로 이론이 변모하는 데는 많은 부분이 북한 사회의 당대 현실적인 요구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긍정감화교양' 사상이라 요약되는 문예정책의 일환으로, 각 장르의 예술들이 긍정적인 현실을 드러내어 그로부터 감화를 받아 더욱 좋은 사회를 꾸려가자는 실용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일반 대중을 이념적으로 단합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문예물을 통한 교양에 박차를 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북한의 문예학은 전형의 문제를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초창기의 발전을 멈추고 서서히 낮은 생산력으로 정체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노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거의 영웅들을 모범으로 내세웠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변모과정에서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한 쪽으로는, '긍정감화교양' 사상 실현의 중심이 되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 사회 내에서는 수령이야말로 '긍정적인 주인공', '모범적인 실례'에 속하기 때문이다.

북한 문예이론 중 내용 형식론의 커다란 변모를 보면서 사회주의 사회의 계급 철폐가 인간 간의 대립과 갈등을 얼마만큼이나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과연 인간사회에 무갈등이 가능할까?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을 지켜본 우리에게 그들이 지극히 주관주의적인 낙관론에 근거를 둔 현실 인식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

## V. 장르론의 변화

### 1. 장르론의 성립과 변모과정

의 관심사와 문제거리가 그 사회를 진보의 방향에 놓이도록 한다면 실제로 문학예술이 감당하는 기능에 오히려 적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된 범주와 영웅 형상에만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역기능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한편 이런 논의가 가능했던 것도 '갈등을 전혀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무갈등론'의 배경으로부터 연유한다. 그 배경은 곧 그들이 북한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이다. '무갈등론'에 대한 비판이 활발하던 50,60년대 논의 당시도 그 자장(磁場)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현실에서는 적대적인 갈등관계는 아니지만 예술작품에서는 얼마든지 예리화할 수 있다는 논의는 결국 같은 맥락에서 임혀지기 때문이다.

61년판 전형론이 지닌 이론적 유연함에서 70년대 이후 도식적으로 이론이 변모하는 데는 많은 부분이 북한 사회의 당대 현실적인 요구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긍정감화교양' 사상이라 요약되는 문예정책의 일환으로, 각 장르의 예술들이 긍정적인 현실을 드러내어 그로부터 감화를 받아 더욱 좋은 사회를 꾸려가자는 실용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일반 대중을 이념적으로 단합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문예물을 통한 교양에 박차를 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북한의 문예학은 전형의 문제를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초창기의 발전을 멈추고 서서히 낮은 생산력으로 정체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노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거의 영웅들을 모범으로 내세웠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변모과정에서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한 쪽으로는, '긍정감화교양' 사상 실현의 중심이 되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 사회 내에서는 수령이야말로 '긍정적인 주인공', '모범적인 실례'에 속하기 때문이다.

북한 문예이론 중 내용 형식론의 커다란 변모를 보면서 사회주의 사회의 계급 철폐가 인간 간의 대립과 갈등을 얼마만큼이나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과연 인간사회에 무갈등이 가능할까?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을 지켜본 우리에게 그들이 지극히 주관주의적인 낙관론에 근거를 둔 현실 인식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

## V. 장르론의 변화

### 1. 장르론의 성립과 변모과정

북한에서 장르론은 일찍부터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창작과 비평, 본격문학과 대중문학의 구별이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북한의 사회체제에서는 문예정책과 문예학의 논의가 개별 장르론으로 구체화되어서 창작의 질을 고양시키는 것으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장르론에 대한 인식이 독자성을 획득하고 일반화되는 시기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중반에 걸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북한 역사서에서 '사회주의 기초 건설기'와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기'로 지칭되는 시기로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고 김일성 중심의 유일지도체계가 점차로 형성되는 시기이다. 즉, 사회주의 제도가 성립되고 공고화되는 시기로 분산되고 개별화된 사회정치적 제반 논의들이 점차로 통일되어 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문예학에서도 사회주의 사실주의론의 제반 문제들, 다시 말해 발생 발전문제, 민족적 특성 문제, 형상론, 혁명적 대작론 등이 논쟁적으로 전개되고 서서히 주체문예론으로의 도정(道程)이라는 단일한 결론을 얻어간다.

장르론 역시 논쟁적 구도 속에서 체계화와 일반화가 이루어진다. 제일 먼저 진행된 것은 서정시론이다.<sup>12)</sup> 1958년에 간행된 『문학신문』을 보면 정론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후에도 풍자시, 서사시에 대한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다. 단편소설론은 1961년과 1963년 두 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다. 장편소설론 역시 1963년 초에 지상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sup>13)</sup>

북한에서 장르론은 독자적인 체계를 가지고 논쟁시되기보다 다른 비평논쟁과 결합되어 전개된다. 1950, 60년대 북한 문학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논쟁으로 사실주의 발생 발전 논쟁, 도식주의 비판, 천리마 기수 형상 논쟁, 혁명적 대작 논쟁 등을 들 수 있는데, 장르론은 언제나 이러한 중요 논쟁의 구체화 과정과 맞물려 있다.<sup>14)</sup> 도식주의 비판 시기에 벌어진 정론시 논쟁이 시의 서정성에 대한 논란을 촉

12) 이에 대한 소개와 평가에 관한 논의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심선옥, 「1960년대 북한의 서정시론(1)」 『반교어문연구』 3집( 반교어문학회, 1991)

13)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는 『문학신문』 해당 자료를 분석하면 전모를 알 수 있으며 다음 논문이 참고가 된다. 김동훈, 「장편소설론의 이상과 '혁명적 대작 장편' 창작방법논쟁」 『한길문학』 1992. 여름호.

14) 이들 북한의 리얼리즘 비평논쟁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교적 풍부한 논의

발한다든지, 1961년과 1963년에 벌어진 단편소설과 장편소설 논의가 혁명적 대작 논쟁과 결합되어 있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이것은 북한 문예학이 작품의 사상적 내용과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고, 작품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논의를 진행시켜나가는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해당 시기 문예정책의 변화가 작가의 조직방식과, 교육방식, 그리고 창작지도방식의 변화로 나타난다고 할 때, 이것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단위는 개별장르들과 장르들의 구성상 특징이 구현된 작품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문학개론서들의 서술체계와 강조점의 변모가 이러한 논쟁과정과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이는 문학개론서의 지위 자체가 문학이론의 기초적 문제들을 체계화함으로써 문학 창작에 이론적 무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되거나 혁명적 인간으로 교육하기 위한 기초과목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체적 문예이론이 확립되기 이전의 문학개론서나 이후의 문학개론서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론의 실천적 측면이다. 다소 도식화하자면 문예발전의 원칙이 문학의 사회적 기능과 대응한다면, 문예발전의 구현방도가 장르론이나 작가, 인민대중의 역할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식화는 연대가 올라갈수록 밀접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문예이론서 목차에서 확인해보자. 1961년판 『문학개론』은 '문학작품의 종류와 형태' 아래 '현실묘사의 문학적 방식과 기본형태들', '소설', '오체르크', '서정시', '서사시', '극'이 설정되어 있다. 반면 1970년판 『문학개론』은 '문학작품의 언어와 형태' 아래 '1절 문학작품의 언어', '2절 문학작품의 형태구분', '3절 문학의 형태'가 배치되어 있어 61년판 『문학개론』에서 다른 장으로 분류되었던 '언어와 형태'가 한 장으

가 있었다.

김성수, 「우리 문학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발생」 『창작과비평』 1990. 봄호 : 김동훈, 「북한 학계 리얼리즘논쟁의 검토」 『실천문학』 1990. 가을호 : 권순궁, 「우리 문학의 민족적 특성」, 정우택 공편, 『우리 문학의 민족형식과 민족적 특성』 (연구사, 1990) : 김재용, 「북한문학계의 반종파투쟁과 카프 및 항일혁명문학」 『역사비평』 1992. 봄호 : 김재용, 「유일사상체계의 확립과 북한문학의 변모 - 천세봉, 『안개 흐르는 새언덕』론」 『한길문학』 1991. 겨울 : 김동훈, 「장편소설론의 이상과 '혁명적 대작 장편' 창작방법논쟁」 『한길문학』 1992. 여름호 참조.

로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언어 항목의 비중과 지위가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그외 영화항목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장르 분류기준과 종(種)장르의 설정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1975)에 이르면 서술체계와 내용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종류와 형태’ 라는 장 아래 ‘제1절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에서의 종류와 형태 발전의 합법칙성’, ‘제2절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에서의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리용과 발전’이 설정되어 있다. 분류방식과 종장르의 특징을 나누어 서술하는 방식은 변화가 없지만, 문학일반론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특징을 설명하지 않고 직접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법칙과 그것의 이용방도에 주의를 돌리고 있다. 즉, 사회주의 문학예술론에 문학 일반론이 포함, 해체되어 서술되는 것이다.

결국 북한 장르론 변화의 일반적인 방향은 사회주의 문학의 특징이 분명히 구현된 작품을 중심으로 장르체계를 재구성하려는 지향의 강화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시간이 뒤로 갈수록 장르론의 이용과 적용에 보다 큰 비중이 두어진다. 이는 영화문학의 비중이 증가하고, 고전 작품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태도가 사라진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70년판에서 모범적 작품으로 들고 있는 것은 항일무장투쟁 때 창조된 작품이거나 1950년대 이후에 창조된 작품이며, 『주체문예이론』에서 들고 있는 작품은 항일무장투쟁 때 창조된 작품을 소설화한 것이거나, 1960년대에 쓰여진 작품이다.

이것은 북한 문예학이 작품의 사상적 내용과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고, 작품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논의를 진행시켜가는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해당 시기 문예정책의 변화가 작가의 조직방식와 교육방식, 그리고 창작지도 방식의 변화로 나타난다고 할 때, 이것이 실현되는 단위는 구체적인 개별장르들과 개별장르들의 구성상 특징이 구현된 작품일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한국전쟁시기 이전부터 작가들의 현실체험과 조직화를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이는 사회주의 문학관에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겠으나 북한에서 그 정도와 범위는 보다 광범하고 치밀한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1958년을 기점으로 작가의 현장체험과 창작원칙의 강조는 문예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이전 시기에 비해 훨씬 높아진다.

창작원칙과 현장체험이 강조된 이유는, 소련 문예학의 영향과 카프의 문예유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제한시키면서, 항일혁명문학의 전통과 현실탐구를 강조함으로써 독자적인 사회주의 사실주의론을 확립시켜가는 과정과 관련된다. 소련과 카프 문화유산의 극복을 당대 현실에 기반한 창작물을 통해 달성하려 하다 보니 그의 개별적 구태인 작품론, 장르론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대문학의 경우 원론적인 분류방식과 체계보다 개별장르의 구성원리와 기능이 중요시되고, 장르의 통시적 발전체계보다 개별장르의 횡적 체계가 중시되는 점도 이의 결과물이다.

이 점은 남한의 장르론이 주로 고전문학의 연구성과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과 대비된다. 주지하다시피 남한에서 장르론은 “상상성, 허구성을 중시하는 서구 근대문학 기준으로는 직접적 자기표현의 문학과 기술 의론(記述 讖論)의 언어행위가 당당한 문학으로 여겨졌던 한문문화권의 문학현상을 해명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통해 진전되어 왔다. 북한 문예이론의 ‘정론’에 비슷하게 해당되는 ‘교술(敎述) 장르류(類)’를 ‘서정, 서사, 희곡’과는 독립된 별도장르로 설정하고 이를 일관된 장르 분류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문학 등 고전문학의 전통과 특성에 보다 주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 2. 장르론 서술체계 비교

앞서 북한 장르론이 ‘서정, 서사, 희곡, 교술’ 등 장르류 기술 체계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실을 지적했으나 이는 장르류의 개념과 분류기준이 무의미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보편적인 분류학이 애초부터 시야에 들어올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며, 이는 북한 장르론의 이해에 있어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북한 장르론에서 장르의 개념은 개념 표지의 차이를 제외한다면 그 강조점이 남한의 장르 개념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북한에서 장르와 상응하는 개념은 ‘종류와 형

15) 이상의 경해를 체계화한 대표적인 이론서로는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민음사, 1984) ; 조동일, 『문학연구방법』(지식산업사, 1980)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장르종, 장르류’를 ‘작은갈래, 큰갈래’라 이름짓고 체계적 장르론을 펴고 있다.



태'라는 용어인데, 이는 '문학예술 작품의 존재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문학예술의 갈래 또는 그 갈래에 속하는 문학예술작품들의 특성을 규정하는 개념'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여기서 북한 장르론에서 종류와 형태 분류가 타당성 있게 되려면 모든 갈래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징과 특정한 갈래에만 해당되는 특징을 모두 아우르는 분류기준의 설정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남한 장르론에서도 포괄적 장르이론의 수립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이다.

그러면 앞으로 북한 문학개론서의 장르론 서술체계를 장르 분류기준과 장르의 구성상 특징을 설명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61년판 문학개론의 분류기준은 기본적으로 현실묘사의 3가지 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현실묘사의 3가지 방식은 현실인식의 다양성으로 설명되는데, 서사적 방식, 서정적 방식, 극적 방식으로 나뉜다. 먼저 서사적 방식은 '주인공과 그의 생활현상들을 작가 자신이 이야기해주며 그와 함께 등장인물들의 담화, 행동 및 사상들을 묘사재현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서사적 종류' 생성의 기초이다. 그리고 서정적 방식은 '인간들의 내적체험, 감정, 사상 등을 직접 표현하는 방식'이며 극적 방식은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으로써 현실을 재현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모두 문학의 세 가지 종류를 이룬다.

'종류'는 다시 몇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서사적 종류에는 연대기, 소설, 우화, 오케르크 등이 있고, 서정적 종류에는 향가, 고려 인민가요, 시조 등이 해당되며, 극적 종류는 희극, 비극, 극으로 나뉜다. 이들은 다시 몇 개의 장르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향가에는 정론적(政論的) 향가, 풍자적 향가, 만가적(晩歌的) 향가가 있고, 소설에는 사회소설, 모험소설, 역사소설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이 시기까지 북한의 장르론이 삼분법(三分法)을 엄격하게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전문학을 모두 아우르는 분류체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주목된다. 장르를 형태의 하위 분류형식으로 보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61년판 개론에서 개별 장르의 특징은 주로 구성적인 측면에서 논해진다. 소설의 경우 용적에 따른 분류를 채용하여 단편소설과 중편소설, 장편소설을 나누고 있는데, 단편소설은 '인간생활의 한 계기를 포착하여 그를 묘사 재현하는 것'이 기본 특징이고 장편소설은 소설문학의 대형식으로 생활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무진장한 넓이를 가지고 반영되며 방대한 등장인물과 함께 기본주제에 따르는 여러 개의 부차

적 주제들이 수반된다고 한다. 중편소설은 단편소설과 장편소설의 중간형식이다. 시의 경우는 감정의 성격에 따라 송가, 정론시, 풍자시를 구분한다. 극은 비극, 희극, 극으로 나누고 있다.

70년판 개론에서 장르분류의 기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서정·서사적' 방식이 추가된다. 여기에는 서사시, 수필, 답시 등이 해당되는데 이론적 체계는 설명이 생략된 채 문학이 풍요롭게 발전한 결과 서사적 방식과 서정적 방식의 침투가 일어난 역사적 현상으로 설명된다. 3분법체계가 4분법체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0년판 개론에서 강조되는 것은 개별장르의 사회적 기능이다. 이전에는 장르의 기능이 장르의 기원을 논하면서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고정된 형태 속에서 설명되는데 반해 여기서는 장르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실의 성격을 언급함으로써 장르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단편소설의 경우 생활의 한 단면을 반영하는 게 특징이라 하여 61년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생활의 한 단면을 '혁명투쟁의 본질이 반영되고 시대의 특징이 집중된 극적인 것이 있는 데'라고 하여 세부논의에서 큰 차이를 드러낸다.

이 점은 서정시에서도 확인된다. 풍자시나 정론시의 설명에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나 송가(頌歌)의 설명에는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61년판에서 송가는 '찬미할 만한 영웅적 공적에 대하여서와 웅장하고 송출한 만한 사건과 자연환경에 대하여 시인이 품은 동경과 찬양의 정을 담아 노래한 서정시 형태의 한 장르'로 「찬기파랑가」나 「용비어천가」가 이에 해당된다고 한다. 반면에 70년판에서 송가는 송시(頌)詩로 개념이 변모한 채, '위대한 혁명의 수령에 대하여, 당과 조국에 대하여, 그의 영웅적 업적과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송축의 사상감정을 노래하는 서정시'로 설명된다. 강조점이 서서히 달라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영화항목이 새로이 추가되고 서정문학의 종류로 가사가 삽입되고 실화문학에 예술적 정론이 추가된 것도 변화한 측면이다. 이는 전후복구 건설 이후 새롭게 활성화되고 발전한 장르들과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증대한 장르들을 적극 장르론에 포섭하려는 노력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70년판 개론에서 모범적 작품으로 들고 있는 것이 항일무장투쟁 때 창조된 작품이거나 1950년대 이후에 창조된 작품이라는 사실도 이의 반영으로 보인다. 결국 이 변화는 개별장르와 현실과의 연관을 증대시키고 사회주의 사회가 형성된 이후 새롭게 발전한 장르들을 중심으로 장르체계를 재

구성하려는 지향이 강화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점은 75년판 주체문예론에 이르면 현저히 강화된다. 서술체계와 내용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우선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종류와 형태' 아래 '1절 사회주의적 문학 예술에서의 종류와 형태 발전의 합법칙성', '2절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에서의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리용과 발전'이 설정되어 있어서 문학 일반론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특징을 설명하는 방식은 사라진다. 즉, 직접 사회주의 문학 예술의 법칙과 그것의 이용방도에 주의를 돌리고 있어서 문학일반론은 사회주의 문학예술론에 해소되어 버린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서술체계에서 강조점의 변화이다. 앞서 살펴본 개론서들은 모두 유와 종, 그리고 장르들을 세세하게 다루는 데 반해 주체문예론은 이에 대한 서술을 아예 생략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강조되는 것은 문학에 한정되지 않고 전 문학예술에 적용할 수 있는 '혁명적 대작과 소품의 병행 발전'이라는 원칙이다. 혁명적 대작은 '위대한 역사적 사건들을 줄거리로 하여 조선혁명의 발전과 함께 투쟁 속에서 자라나는 주인공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려 내는 작품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건의 규모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 사상적 내용의 심오성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한다.

이론에 따르면 '혁명적 대작'은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며 그들을 혁명가로 키우는 데 이바지하는 작품으로서 혁명투쟁과정과 투사의 성격이 묘사되어야 한다고 한다. 형식에 있어서 대형식의 작품, 내용에 있어서 광활한 서사시적 화폭을 담되 시대의 본질, 시대의 특성, 시대의 주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혁명적 대작은 혁명의 시대를 폭넓게 묘사하되 서사시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혁명가의 형상을 기본 주인공으로 창조하되 그의 운명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해야 하며, 혁명사상을 표현하되 그것이 작품에 일관되고 충만되어야 한다. 동시에 사상성과 예술성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sup>16)</sup>

또한 전에 볼수 없이 영화와 가극, 가요의 중요성이 증대된다. 이들은 모두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사회주의 사회체제가 본격화된 이후 선전과 출판

16) 이에 관해서 비평사와 관련시켜 자세한 논의를 한 것으로 즐고, 「장편소설론의 이상과 '대작장편' 창작방법논쟁」(『한길문학』 1992. 여름호)이 있다. 특히 253-255쪽 참조.

업의 발전에 따라 비약적으로 발전한 양식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항일무장투쟁때 창조되었던 연극이나 노래를 개작하거나 항일무장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형식의 변형이 이루어진 작품들이라는 점이다. 특히 가극(歌劇)은 '피바다식 가극', '성황당식 가극'이라 하여 종래의 가극의 틀을 과감하게 깨뜨린 작품이라 하여 종래 장르와는 별개의 것을 창조하여 사회주의 사실주의 가극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서 주체문예론의 장르론적 관심이 전 역사시기를 포괄하는 장르론 체계보다 사회주의의 특수성이 구현된 장르론 체계로 현저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점과 '문학론'에서 '문화론'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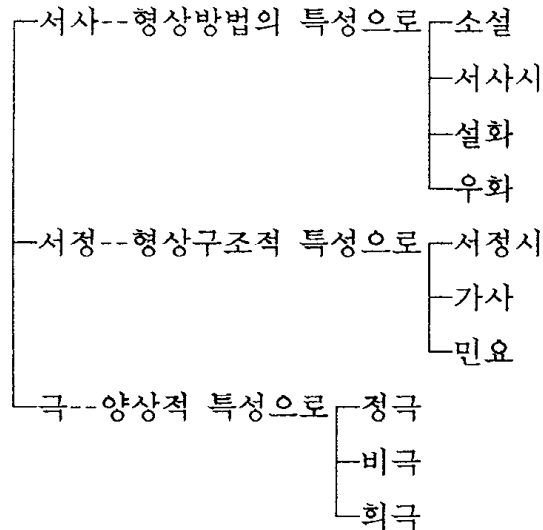
### 3. 최근의 장르론 체계

남한의 장르론과 뚜렷한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최근 북한 장르론의 특징을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은 장르의 분류기준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우선 유장르는 인식활동의 다양성과 가치지향에 토대를 두고 있는 묘사방식에 따라 구분된다. 서사적 묘사 방식은 '인간성격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생활들을 작가가 이야기해주며 그와 함께 등장인물들의 담화, 행동, 사상 등을 묘사 재현하는 방식'이고, 서정적 묘사방식은 '주로 외부세계에 의하여 일어난 인간들의 내적 체험, 감정, 사상 등을 직접 표현하는 방식'이다. 반면 극적 묘사방식은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으로써 현실을 재현하는 방식'이라 정의된다.

북한 장르론의 또 다른 특징은 형태, 종류의 구분원칙을 고정된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즉 문학예술의 종류는 일정한 부류에 속하는 문학예술작품들을 일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일차적으로 분류하였을 때 구분되어 나오는 갈래 또는 그 갈래에 속하는 작품들의 속성을 규정하여 부르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형태는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문예작품들을 다시 일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재차 분류하였을 때 나오는 문학예술의 갈래 또는 그에 속하는 문예작품들의 속성을 종류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하여 주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소설의 경우 서사의 하위장르라는 면에서는 형태로 취급되지만 단편, 중편, 장편의 상위장르라는 면에서 본다면 종류가 된다는 것이다. 갈래가 종류와 형태의 통일로 파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장르론 체계분류표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7)

문학--묘사방식을 기준으로



위 표에 따르면 북한의 장르론 인식체계는 기본적으로 3분법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위 판소리나 가사, 경기체가 등과 같은 '혼합장르' 또는 '비순수한 장르'의 귀속문제가 논쟁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는 사실도 분류체계가 일찍부터 고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의 반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 장르론이 단일장르적 특징만을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전후 북한문학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본 장르들은 거의 혼합장르, 종합장르라고 할 수 있다. 서정시에 서사적 요소가 광범위하게 도입되거나 서사시 창작이 꾸준히 진행되었다든지, 영화나 가극 등의 형태가 강조되었다든지 하는 게 그 예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들은 어떻게 이론화되고 있을까?

첫째는 세가지 종류에 '서정-서사방식'을 추가하는 데서 그 편린을 찾아볼 수 있다. 서정-서사방식이란 서사적 방식과 서정적 방식이 결합된 종류로 이에 해당되는 종장르들은 서사시나 수필, 답시(譚詩)들이다.

둘째로 형태와 종류의 구분원칙이 고정되어 있다기 보다 개별 종장르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문학예술의 종류는 일정한 부류에 속하는 문학

17) 정성무, 『시대와 문학예술형태』(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7), 40쪽.

예술작품들을 일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일차적으로 분류하였을 때 구분되어 나오는 갈래 또는 그 갈래에 속하는 작품들의 속성을 규정하여 부르는 개념이며 문학예술 작품의 형태는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문예작품들을 다시 일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재차 분류하였을 때 나오는 문학예술의 갈래 또는 그에 속하는 문예작품들의 속성을 종류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하여 주는 개념" 이라 규정하여 분류기준을 종장르의 특징에 맞추어 상대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설의 경우, 서사의 하위장르라는 면에서는 형태로 취급되지만 단편, 중편, 장편의 상위장르라는 면에서 본다면 종류가 된다는 것이다. 갈래가 종류와 형태가 통일되고 구체화된 결과물로 파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장르기준은 이전에는 시기별로 약간씩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61년 판 개론에서는 형태, 종류, 장르가 단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서사적 방식, 서정적 방식, 극적 방식이 종류에 해당되고 연대기, 소설, 시조, 향가, 희극, 비극 등은 종류의 하위장르인 형태에 해당된다. 장르라는 용어는, 형태의 하위 장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론적 향가, 만가적 향가, 사회소설, 모험소설 등에 제한되어 사용된다. 하지만 종류와 형태의 특징이 개별 장르에 통일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기본 관점은 최근의 주체문예론에서도 일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북한 장르론의 특징은 일단 외국 문예학에서 나눈 기준에 여러 형태의 우리 문학을 일괄적으로 짜맞추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장르론을 추상적 일반론에 개별장르를 해소하지 않고 개별장르들의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장르론에 역동성을 부여한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다. 하지만 묘사 방식, 형상수법 등 분류체계를 짜는 기준들 각각이 갖는 상호연관성이 치밀하게 설명되지 않으며 문학작품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의 미학적 근거들이 불충분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 VI. 창작방법론과 문학사론 비교

### 1. 서술체계 비교

먼저 1961, 1970년판 문학개론, 1975년판 주체문예이론 중 '문학사, 창작방법' 항

예술작품들을 일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일차적으로 분류하였을 때 구분되어 나오는 갈래 또는 그 갈래에 속하는 작품들의 속성을 규정하여 부르는 개념이며 문학예술 작품의 형태는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문예작품들을 다시 일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재차 분류하였을 때 나오는 문학예술의 갈래 또는 그에 속하는 문예작품들의 속성을 종류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하여 주는 개념" 이라 규정하여 분류기준을 종장르의 특징에 맞추어 상대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설의 경우, 서사의 하위장르라는 면에서는 형태로 취급되지만 단편, 중편, 장편의 상위장르라는 면에서 본다면 종류가 된다는 것이다. 갈래가 종류와 형태가 통일되고 구체화된 결과물로 파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장르기준은 이전에는 시기별로 약간씩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61년 판 개론에서는 형태, 종류, 장르가 단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서사적 방식, 서정적 방식, 극적 방식이 종류에 해당되고 연대기, 소설, 시조, 향가, 희극, 비극 등은 종류의 하위장르인 형태에 해당된다. 장르라는 용어는, 형태의 하위 장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론적 향가, 만가적 향가, 사회소설, 모험소설 등에 제한되어 사용된다. 하지만 종류와 형태의 특징이 개별 장르에 통일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기본 관점은 최근의 주체문예론에서도 일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북한 장르론의 특징은 일단 외국 문예학에서 나눈 기준에 여러 형태의 우리 문학을 일괄적으로 짜맞추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장르론을 추상적 일반론에 개별장르를 해소하지 않고 개별장르들의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장르론에 역동성을 부여한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다. 하지만 묘사 방식, 형상수법 등 분류체계를 짜는 기준들 각각이 갖는 상호연관성이 치밀하게 설명되지 않으며 문학작품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의 미학적 근거들이 불충분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 VI. 창작방법론과 문학사론 비교

### 1. 서술체계 비교

먼저 1961, 1970년판 문학개론, 1975년판 주체문예이론 중 '문학사, 창작방법' 항

목의 서술편차를 대비해 보기로 한다.

#### 1961년판 『문학개론』

3.1 문학예술 발전의 합법칙성 : 문예 발전에서 노동의 역할 및 문예의 발전, 문학 발전과정에서의 계승과 혁신

3.2 창작방법과 사조 : 창작방법과 사조, 창작방법으로서의 사실주의와 낭만주의

3.3 우리나라 사실주의 문학의 발생과 발전 : 사실주의 창작방법 이전의 문학 발전과정, 우리나라에서 사실주의 문학의 발생과 발전, 우리나라에서 비판적 사실주의의 시원, 발전

3.4 우리나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의 발생과 발전 :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개념과 그 세계사적 의의,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의 발생 발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의 기본특징,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현대성

#### 1970년판 『문학개론』

3.1 작가와 혁명화 : 3.1.1 작품 창작과 작가의 세계관

4.2.1 선행문학의 비판적 계승과 혁신 : 문학 발전의 계승성, 유산 계승의 원칙

4.2.2 민족적 특성의 계승 발전 : 민족적 특성의 개념, 계승 발전

4.3.1 현대의 유일하게 옳은 창작방법으로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의 혁신성 : 창작방법의 개념과 특성,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혁신성

4.3.2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의 미학적 요구 : 사상혁명의 무기로서의 기능, 현실반영의 진실성

#### 1975년판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7장. 문학예술작품의 종자 : 7.1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의 기본핵, 7.2 종자의 파악과 예술적 가공

9장. 사회주의적 문학예술 창작에서의 속도전 : 9.1 속도전은 창작의 높은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는 주체적인 창작원칙, 9.2 속도전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의 혁명적인 창작원칙



세 자료의 비교를 통해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예원론 전체 편차에서 ‘문학사, 창작방법’ 항목의 비중 자체가 감소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대신 창작 주체 또는 문예담당층 문제의 비중이 강화됨으로써, 창작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 자체보다 담당층 내지 사회주의문예의 유일한 담당층이라 하는 인민대중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체문예이론이 기반을 두고 있는 주체사상 일반의 특징인 사람 중심의 사관에서 나온 결과로 생각된다.

원론서의 서술방식에 있어서도 학문적 저술 대신 대중을 위한 인식교양적 기능을 강화한 결과, 풍부한 작품 예문과 각주, 선행 이론과의 비교 논평이 없어져 버렸다. 이는 논리적 서술과 풍부한 실례 대신 선언적 일반명제와 그에 대한 자기완결적 논리 및 동어반복적 해설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동어반복적 해설은 처음 책을 대하는 보통독자에게 책을 차츰 읽어 나갈수록 자연스럽게 내용을 이해하게 만드는 장점도 없지 않지만 그에 따른 정보량의 부족 등 결점도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주체문예이론 체계 밖의 독자에게는 대단히 불친절한 자기완결의 논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 이론체계가 변증법적 사유의 소산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폐쇄된 비변증법적 논리의 산물로까지 생각된다.

## 2. 창작방법론·문학사론의 변모와 그 의미

### 가. 창작방법론

각 시기의 문예이론서에서 리얼리즘 내지 창작방법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창작방법의 개념을 보면 다음과 같다.

61년판에는 창작방법을 작가가 생활 자료를 선택 평가 표현하는 예술적 일반화의 원칙, 형상 창조의 원칙(61-180)이라고 했으며, 70년판에는 작가가 현실을 반영하면서 계급적 입장, 세계관적 기초, 창작수법상 견지에서 지도되는 사상예술적 원칙(70-274)이라 하였다.<sup>18)</sup> 그에 반해 75년판에 오면 창작방법 개념이 아예 없어지고 창작과정이나 예술적 가공의 수법차원으로 전락한다. 대신 창작방식(지침)으로서 ‘속도전’ (‘종자론’이 전제되어야 하는 조직창작론)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18) 61년판, 180쪽 ; 70년판 274쪽.

둘째, 세계관과 창작방법의 관계는 각 이문서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다.

61년판에서 세계관과 창작방법의 관계는 완전한 분리도 일치도 아니다. 완전 분리는 부르조아 문예학의 오류이지만 그렇다고 일치하거나 양자 사이에 아무 차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작가의 세계관은 작가의 세계에 대한, 즉 자연과 사회 인간에 대한 견해와 표상의 총체로 본다면 창작방법은 현실을 형상적으로 일반화하는 원칙이며 전형화의 원칙이다. 형상 창조의 과정에 비록 세계관이 참여하지만 세계관의 제반 내용을 창작과정에 단순히 옮겨놓는 것은 아니다. 세계관이 창작과정에 작용하기는 하나 그 자체가 창작과정은 아니다. 창작방법은 생활 현실을 형상적으로 파악하는 특수한 수단이나 그 자체가 작가의 사상의 도해나 삽입은 아니다. 그 구체적인 구현체인 작가의 문체는 그가 의거하고 있는 창작방법의 물질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다.<sup>19)</sup>

70년판에서 세계관과 창작방법의 관계는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창작에서 규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주관적 측면이며 작품의 창작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작가의 세계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혁명적 세계관의 확립은 창작의 선결조건이다. 이것은 창작과정이란 다만 형식적 수단들의 구성작업이 아니며 순수한 자료의 조립 과정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작가의 세계관의 결정적 영향하에서 생활을 형상적으로 재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였을 때 가장 당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창작에서 세계관의 결정적인 역할에 대한 김일성의 창조적 문예사상은 현대 수정주의이론에 대한 타격이며 가장 탁월한 마르크스레닌주의문예이론이라고 주장되기에 이른다.<sup>20)</sup>

75년판에는 창작방법으로서의 리얼리즘 항목은 아예 없다. 다만 사회주의 문예의 유일한 본성으로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있을 뿐이다. 그 경우 세계관과 창작방법의 관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내용에 민족적 형식'이라는 식으로 내용과 형식 차원으로 바뀐다. 굳이 창작방법과 관련된 것을 꼽으라면 창작지침상 특징으로서의 '종자론' '속도전'이 있을 뿐이다.

셋째, 창작방법과 문학사, 사조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고 있다.

19) 이상 논의는 61년판 180-182쪽의 요약.

20) 이상 논의는 70년판 123-125쪽 요약.

61년판에서 창작방법은 작가들의 일정한 창작원칙, 창작방향, 창작태도 등으로 규정된다. 가령 리얼리즘 창작방법을 전형적 환경 하에서의 전형적 성격의 창조라 할 때는 역사적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창작 표현원칙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창작방법은 동시에 역사적 개념이다. 창작방법은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 발생, 발전, 소멸하며 다른 창작방법으로 교체된다. 따라서 문학사조는 창작방법의 결과이며 창작방법의 역사적 형태라고 한다.

이에 반해 70년판에서는 '사실주의, 진보적 낭만주의' 대 '반사실주의, 반동적 낭만주의'의 대립구도가 혁명적 낭만주의 단계를 거쳐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에 이르렀다는 인식을 보인다.

이상의 비교를 통해 볼 때, 상대적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폭과 다양성을 가진 예술방법'으로서의 리얼리즘 개념에 근접했던 61년판에서의 창작방법론이 크게 변모됨을 알 수 있다. 즉, 주체문예이론이 형성됨에 따라 매우 교조적이고 규범적인 창작원칙 차원으로 협애화, 실용주의화되다가 75년판 주체문예이론에 이르러서는 아예 사회주의 문예 개념 일반 속에 해소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문학 창작과 수용 전 과정에 관여하는 원리들의 체계로서 예술방법 개념까지 격상되었던 '사실주의' 개념이 단순히 창작과정상의 지침 정도로 기능화되어버린 셈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미학 일반 즉 미적 반영론에서 말하는 세계관과 창작방법의 변증법적 관계는 소멸되고 세계관 위에 선형적으로 놓여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당 정책'의 전달수단으로서 철저하게 복무하는 차원으로 전락한 것 같다. 이는 이미 1960년대 대작장편 창작방법 논쟁 때 그 단초를 보인 문제이다.<sup>21)</sup>

대작 장편의 경우 사실주의의 문예학적 위상 자체는 창작방법의 차원에서 묘사기

21) 엄호석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 그 좋은 예라 하겠다.

사실주의는 물론 방법이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묘사의 성격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방법에 대하여 말하건 묘사의 성격에 대하여 말하건 사실주의라는 말에서 올리는 중요한 것은 생활에 대한 진실한 묘사의 정신이다. 그만큼 사실주의는 생활 묘사의 진실성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생활 묘사의 진실성의 문제는 혁명적 작품 특히 혁명적 대작을 창작하는 작가들에게는 더욱 긴절한 미학적 요구로 제기된다. 엄호석, 「혁명적 작품 창작에서의 사실주의 묘사 정신」 『문학신문』 1964. 12. 11, 1면.

법의 차원으로 전락한 감도 없지 않다. 이러한 리얼리즘론의 실용주의적 변조가 나중에 주체문예이론으로 이행하는 하나의 문예학적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작방법이 단순히 작품의 핵심인 '종자'를 '예술적 가공'하는데 그치고,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창작원칙'으로만 사고된다면 이는 말을 만들자면 '사회주의적 자연주의'나 '프롤레타리아 자연주의'가 될 것이다. 마치 리얼리즘이 '부르조아 자연주의'로 반동화되듯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고착화, 정치주의화되어버리는 편향을 보일 것이다.

#### 나. 문학사론

다음으로 각 문예이론서에서 문학사(문학발전과정)론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앞에서 서술체계상의 변화를 말한 바와 같이 시대가 지날수록 문학에 대한 통사적 이해방식이 없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추상적 개념과 역사적 개념의 통일적 사고하에 인식되던 리얼리즘의 '역사화' 개념이 사라지고, 대신 '리얼리즘 /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의 혁신성 - 현재적 요구와 정치적 기능 강화'로 귀결됨에 따라 문학사를 바라보는 인식틀로서의 기능을 잃었다는 점도 주체문예론의 주요한 특징이다. 마치 1956년 무렵의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가 '리얼리즘 / 반 리얼리즘'의 대립구도로 문예학이 퇴행해간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의 '계승과 혁신' 중 '계승'의 측면이 약화 부재하고 '혁신'의 측면이 계속 강화됨에 따라 과거와의 단절에 가까운 비역사주의적 사고의 틀에 수렴되는 편향이 보이게 된다. 그 예로 근대 부르조아문학 내지 초기 프로문학의 미적 특질을 규정해주던 '비판적 리얼리즘'의 인식틀이 상실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리얼리즘의 역사적 발전이라는 문학사 이해가 갈수록 약화되어 나중에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역사적 필연성에 대한 서술 자체가 필요없는 당연한 전제로 바뀌는 것도

---

22) 문학사 발전과정을 중세문학에서의 리얼리즘, 비판적 리얼리즘, 사회주의 리얼리즘 등 역사적 발전의 3단계 구도로 파악하는 규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성수, 「우리 문학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발생」, 『창작과비평』 1990. 봄호 : 김동훈, 「북한 학계 리얼리즘논쟁의 검토」, 『실천문학』 1990. 가을호 참조.

문제이다. 이런 방식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 창작방법의 초역사적 배타적 강조를 하게 되면 문학사의 합법칙적 발전 모델에 대한 비역사주의화, 고정화가 초래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비판적 리얼리즘의 역사적 발전형태, 또는 자본주의 사회의 비판적 리얼리즘보다 우월한 창작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현대의 유일하게 옳은 창작방법'이라는 선언적 규정만으로 규정한다면 비교 우위 아닌 절대 우위에 빠져 변증법적 역사인식 대신 신비주의화, 도식주의적 사고의 고착화에 귀결될 위험이 크지 않나 생각된다.

70년판 문학개론은 61년판과는 달리 문학의 '사회적 기능' 항목의 강화가 두드러져 당대적 필요성에 급급한 느낌을 주며, '현대성' 원칙의 불균형한 강조가 초래한 실용주의 편의주의 편향의 결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모든 과학적 논리적 개연성에 대한 사유의 원천봉쇄로 사용되는 '부르조아미학, 부르조아 사상 잔재, 수정주의미학' 규정의 남용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학사 서술과 문예이론서 서술의 문제는 서로 상호 영향관계에 놓여있으므로 변모의 함수관계는 필연적이다. 문학사 서술이 주체사상 전후에 크게 바뀌었다면 그 근거가 되는 문학이론 자체의 변모가 바탕에 깔려 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주체사상 이후의 문학이론서는 실제 문학사와의 구체적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여러 이유때문에 주체문예이론 체계가 우리에게 추상적, 관념적, 공허한 해설서처럼 보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예이론서에서 이론과 실제 작품 예증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원론서의 특징은 고도로 추상화된 용어 개념을 대중화된 평이한 용어로 쉽게 해설해낼 필요도 있지만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풍부한 예를 들어주는 것도 원론의 포괄성을 제고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문예이론서들은 시대가 갈수록 그 예증이 사라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61년판에서 우리 고전 및 근현대문학의 풍부한 유산에 대한 구체적인 예증을 보이던 것이 70년판에서 항일혁명문학 위주의 당대문학만으로 전반적인 개념을 예증함으로써 원론의 포괄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화되었다. 그러던 것이 75년판에서는 아예 문학유산의 예문이 없어지고 김일성 김정일의 문예 교시만 예증됨으로써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된 데는 주체문예이론에서 문학사적 인식, 즉 문학 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 사고 대신 주체문예로의 단선적인 발전 모델만 배타적으로 체계화됨으로써 고전문학 유산의 전통 계승이나 다른 나라 문학과와의 영향관계에 대한 인식의 틀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통시적 사고의 틀이 부재한 공시적 인식틀의 신뢰성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알 수가 없다.

### 3. 실제 문학사 서술 검토

그러면 북한에서 나온 실제 문학사 서술에서는 이상과 같은 리얼리즘 창작방법 및 문학사론 같은 문예이론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 분석해보기로 한다.

우리 남한 학계의 문학사는 다양한 미학적 원리를 보여주는 가운데 문학작품 중심의 사적 서술이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 이념적 내용은 자유민주주의와 민족우선주의라 할 수 있다. 반면 북한 문학사의 미학적 원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보자.

남한 학계에 처음 북한 문학의 성과물이 소개될 때 대부분은 주체문에 관련 이론서들이었다. 우리 연구자들에게는 1970-80년대의 북한사회의 소산인 주체문예이론서들이 보여준 “위대하신 수령님 ...” 운운하는 생경한 문체와 독특한 서술방식때문에 문제의식을 공유할 연구성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아가 이것이 북한 학계의 성과를 모두 대표하는 것으로 오해되어 북한 문예학의 역사적 성과를 축소하고 우리 학계와의 이질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역기능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1967년 전후의 주체사상 정립기를 기점으로 북한 문학의 전개과정을 2분하여 봄으로써, 이전까지 북한 문예학의 전개과정을 한 덩어리로 보는 비역사적 태도를 본격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sup>23)</sup> 그 결과 북한 문학의 미학적 원리가 주체사상 이전과 이후에 크게 바뀌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전에는 “인민성, 계급성, 당파성” 중심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론이 등장하여 소련이나 동독에서 보이는 사회주의리얼리즘론과 비슷하였다. 1959년에 나온 『조선문학통사』 상권(원시-19세기)의 서문을 인용하면 사회주의 문학권의 일반적인 리얼리즘 미학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3) 북한의 문학사가 1967년 주체사상 정립을 전후로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정리한 연구업적은 민족문학사연구소 공저, 『북한의 우리 문학사 인식』(창작과비평사, 1991)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 책을 서술함에 있어 역사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의 진보적 문학을 관류하고 있는 열렬한 애국주의, 풍부한 인민성, 높은 인도주의의 전통을 밝히며, 특히 해방후에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문예정책에 의하여 찬란히 개화 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의 새로운 성과와 그의 특성을 명확히 천명하려는 지향으로 일관했다.

그런데 주체사상 정립 이후에는 “인민성, 로동계급성, 당성” 중심의 주체문예이론이 주된 이론이었다. 특히 자기 집단에 대한 사상적 충실성 정도에 불과하던 당파성 개념이 직접적으로 조선 노동당에 대한 충성심 내지 나아가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내용이 바뀐 것은 중요하다. 이는 온 주민의 로동계급화를 꾀한 북한의 당대적 사회상태가 “로동계급의 문학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옳게 이해하고 그를 더욱 로동자, 농민의 계급적 이익에 맞는 혁명적인 문학”을 요구했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학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예 김일성 유일사상에 종속되어버린 셈이다.

북한 문학사의 미학 기준이 이렇게 개인 숭배로 바뀐 과정과 이유는 무엇인가?

1970년판 『문학개론』을 보면 마르크스레닌주의 일반원칙에 입각한 문학원론의 체제에다 김일성의 문예 관련 교시를 적절하게 삽입·부기하는 방식으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문예이론의 전체 체제는 보편성에 입각하되 그 구체적 항목에는 당 최고지도부의 견해를 삽입하는 식으로 서술되어, 이 시기 문예이론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절충 및 과도기형태임을 알려주고 있다. 1975년판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을 보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문예이론’이라 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미학의 일반원칙은 사라지고 보편적인 체제와는 전혀 다른 독특한 서술방식과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북한 문학사이론은, 마르크스레닌주의미학이론에 입각한 보편적 원론에 우리 작품을 예시했던 1단계, 마르크스레닌주의미학이론에 입각한 보편적 원론체제에 김일성의 문예사상이 병행 서술되었던 2단계를 거쳐 보편적 원론체제를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한 김일성만의 유일사상체계이론을 확립한 3단계로 변화 발전한 것

24) 북한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조선문학통사』 상 (원시-19세기)(과학원출판사, 1959.5 ; 인동출판사, 1988 재간행)의 머리말 참조.

으로 생각된다. 이는 김일성의 권력 강화과정과 일치하며 주체사상의 종교화과정이기도 하다. 이제는 신격화된 김일성의 존재에 종교적 신념이 덧붙여진 차원이 되어 학술적인 논의대상을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북한 문학사의 이념은 일반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북한 특유의 주체사상으로 변모했으며(물론 그 중간단계에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주체적 수용’이라는 과도적 이념이 있었다). 창작방법론에서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라는 개념이 그 내용을 바꾸어가면서 지속되어왔다.

비교하자면, 남한의 민족주의적 문학이념은 북한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한 계급문학의 이념이나 주체사상(유일사상체계)에 기반을 둔 주체문예의 이념과 뚜렷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남한의 사실주의와 낭만주의적 창작방법론도, 사실상 주체문예의 방법론에 수렴되어버린 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론과는 적지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문학사의 지평 자체가 달라져버리게 된 점도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 다만 고대·중세문학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고 근현대문학의 경우에는 심각한 형편이라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 4. 북한 근현대문학사의 서술체계 비교

근대문학의 경우 남북한 문학사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에서는 대체적으로 19세기 말의 애국계몽운동의 결과 나온 최남선의 「해(海)에게서 소년에게」와 이인직의 「혈의누」·이광수의 「무정」 등을 중심으로 한 반중세적 근대지향 문학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현대문학의 출발을 1930년대 이상·김기림 등의 모더니즘·초현실주의·심리주의·주지주의 문학에서 찾거나 1945년 8.15 광복에서 찾았다. 이는 문학사 서술에서 시대적 배경보다 실제 작품 성과를 중시한 경우이다.

북한에서는 1967년의 주체사상 확립 이후 1880년대 제국주의 외세 침략에 대항한 인민대중의 자주적 투쟁을 근대 기점으로, 1926년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을 현대의 기점으로 삼는 것이 공식화되자 문학사 또한 그에 맞춰 시대구분을 다시 하고 문학사의 전체상을 바꾸었다. 이는 물론 문학사관의 변모와 문학사론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근대문학의 경우 김일성 유일사상체계에 맞추어 김형직, 강반석의 문학이 주류를 점하는 것으로 현대문학(해방전)은 김일성 자신의 ‘항일혁명문학’이 주도



적이고 모든 여타 문학이 그 영향하에 있는 것으로 서술되었다. 이것은 남한 문학사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물론 북한 문학사가 처음부터 김일성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북한 문학사에서 1967년의 주체사상 전후가 뚜렷이 차별되는 것은 근대문학의 형성과정에서 이른바 김일성 가계의 '혁명문에 전통'이 느닷없이 끼어드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체사상 전후의 문학사를 대비해보자. 먼저 이전의 안함광 저, 『조선문학사』(9) 19세기말- 1919년의 문학(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4) 목차를 보면 김일성 집안의 문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1. 사회정치정세와 반일애국운동으로서의 계몽문화운동 2. 선행한 문학유산의 합법칙적 계승 3. 이 시기 사실주의문학사조의 특성과 문학발전의 일반적 정형 4. 신소설 5. 사실주의문학의 새로운 발전 6. 창가와 자유시의 출현 7. 가사체형식의 시가작품들 8. 의병투사들의 애국적 시가 9. 애국적 정론 10. 류인석 11. 신채호  
결론 : 이 시기 문학의 문학사적 의의와 역사적 제약성

위 목차에서 보듯이 이 문학사는 지배층문학과 피지배층문학의 대립적 총체로서 실상을 파악하고 그 토대 위에서 진보적인 이념과 리얼리즘미학의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생경한 김형직 강반석의 혁명문학 전통이 등장하지 않으며, 심지어 오늘날 남한의 진보 학계가 지향하는 문학사의 모델을 보는 듯하다.

그런데 주체사상 확립 이후 1971, 2년에 나온 『조선문학사』는 전혀 그 내용을 달리 한다. 즉, 문학사에서 처음으로 김일성 家系가 문학담당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제1권의 서문을 보면, 뒷권의 예고가 나와 있는데, 이를 보면 “제3권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도 밑에 개화발전한 혁명문학예술과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조선 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 선생님과 탁월한 여성 혁명활동가이신 강반석 녀사의 문학을 취급하였다.”고 되어 있다.<sup>25)</sup>

김일성대 조선문학강좌에서 나온 6권짜리 문학사의 제3권은 위에서 보다시피 오늘

25) 김일성종합대학 조선문학 강좌, 『조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1. 7), 10쪽.

날 우리가 '항일혁명문학'이라 알고 있는 문학을 별도의 한 권으로 기획하고 있다. 개화기 및 일제시대 문학이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창조된 혁명문학예술과 그의 부모인 김형직, 강반석의 문학이 주를 이루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1977-81년판 5권짜리 문학사의 제2, 3권은 항일혁명문학이 주류이고 기존의 문학사상이 종속된 형국을 띠고 있는 등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26)

우리의 민족문학론의 관점에서 볼 때 비판될 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1967년 이전의 문학사에서는 비교적 온당하게 배치되었던 부르조아문학과 프로문학의 유산이 1970년대 이후에는 유일사상체계의 강화라는 이데올로기적 요인에 의해 비학문적으로 왜곡된 점이다. '김형직, 강반석의 문학'과 항일혁명문학이 부당하게 문학사에 편입되고 주류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우리 근대문학의 풍부한 유산이 배타적 자의적으로 축소 왜곡되어버린 점은 비판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문학의 소중한 유산인 19세기말 - 1920년대초 및 30년대 후반의 부르조아 순수문학, 1920년대 중반부터 30년대 후반까지의 프로문학이 배출한 비판적 사실주의문학의 성과가 지나치게 축소되어버린 것은 되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남한의 민족주의문학론의 입장에서 볼 때 주체사상 이후 북한 문예학의 근대문학 개념 자체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근대문학에 대한 개념적 인식이 결여된 결과 반침략반봉건 애국주의사상이란 잣대 하나만으로 모든 문학사 사실을 무리하게 재단하다 보니 문학적 완성도는 물론, 중세문학인 한시나 전근대문학인 구비문학을 무차별적으로 부각시킨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일제하이긴 하지만 많은 양심적인 지식인 작가들이 문단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을 쌓아왔는데도 한껏 외면하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

이광수·김동인·염상섭·이효석 등의 문학을 무조건 부르조아 자연주의 성향이라 해서 배제하고 게다가 임화·김남천·이태준 등의 진보적인 문학까지 김일성 항일

26) 박종원 류만 최탁호 공저, 『조선문학사』(19세기말-192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 열사람 1988)와, 김하명 류만 최탁호 김영필 공저, 『조선문학사』(1926-194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 열사람 1988)에서는 근현대문학의 주류를 김일성 家系에서 찾고 있다. 이는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동인이 문학의 변모에 강하게 작용한 증거가 된다.

빨치산 문학과 연계가 없다 하여 뻔다면 잘못된 것이다. 이는 북한 문학사의 대표적인 오류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근대문학이 모국어에 의한 민족문학이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부르조아문학이건 프로문학이건 좌우성향을 통합하여 서술하는 것이 통일된 문학사의 방향이리라고 전망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학계의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할 때 주체사상 이후 최근의 북한 문학사와 비교하여 이질감을 따질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 이전 우리 문학사와 공통점이 많았던 1950-60년대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겠다. 이를 통해 통일된 민족문학사의 앞날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 VII. 마무리

### 1. 북한 문예이론의 변모

기존의 남한의 연구자들에 의한 북한 문학원론에 대한 평가는 1975년에 간행된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에 국한되어 검토되어 왔다. 그러나 앞서 지적되었듯이 책은 북한의 문예이론의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자료이다. 왜냐하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문학원론의 체계에서 주체사상에 근거한 문예이론으로의 전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산출된 과도기적 이론을 담고 있어 이론적 구성의 체계면에서도 소략하고 과도기적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주체의 문예이론에 대한 평가를 이 책에 국한하는 것은 북한 문학계의 이론적 변모를 간과하게 되고 그 이론적 의의를 평가하는 데도 올바르지 못하다고 하겠다.

북한의 모든 분야의 이론체계가 그러하듯 문예이론서의 서술도 주체사상의 창시와 확립을 계기로 확연한 변화를 드러내준다.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변모에 대한 이유를 문학이 유일사상의 선전도구화한 것에서 찾고 있다. 북한의 문학이 당문학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한 이러한 평가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렇듯 문학외적인 사실에만 국한하여 이러한 변모의 동기를 찾는 것은 북한의 문학현실에 대한 무관심과 안일한 접근의 산물이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에서 문학의 기능과 그 역사적 변모, 문예 대중화의 실제적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빨치산 문학과 연계가 없다 하여 뻔다면 잘못된 것이다. 이는 북한 문학사의 대표적인 오류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근대문학이 모국어에 의한 민족문학이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부르조아문학이건 프로문학이건 좌우성향을 통합하여 서술하는 것이 통일된 문학사의 방향이리라고 전망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학계의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할 때 주체사상 이후 최근의 북한 문학사와 비교하여 이질감을 따질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 이전 우리 문학사와 공통점이 많았던 1950-60년대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겠다. 이를 통해 통일된 민족문학사의 앞날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 VII. 마무리

### 1. 북한 문예이론의 변모

기존의 남한의 연구자들에 의한 북한 문학원론에 대한 평가는 1975년에 간행된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에 국한되어 검토되어 왔다. 그러나 앞서 지적되었듯이 책은 북한의 문예이론의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자료이다. 왜냐하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문학원론의 체계에서 주체사상에 근거한 문예이론으로의 전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산출된 과도기적 이론을 담고 있어 이론적 구성의 체계면에서도 소략하고 과도기적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주체의 문예이론에 대한 평가를 이 책에 국한하는 것은 북한 문학계의 이론적 변모를 간과하게 되고 그 이론적 의의를 평가하는 데도 올바르지 못하다고 하겠다.

북한의 모든 분야의 이론체계가 그러하듯 문예이론서의 서술도 주체사상의 창시와 확립을 계기로 확연한 변화를 드러내준다.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변모에 대한 이유를 문학이 유일사상의 선전도구화한 것에서 찾고 있다. 북한의 문학이 당문학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한 이러한 평가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렇듯 문학외적인 사실에만 국한하여 이러한 변모의 동기를 찾는 것은 북한의 문학현실에 대한 무관심과 안일한 접근의 산물이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에서 문학의 기능과 그 역사적 변모, 문예 대중화의 실제적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문학의 건설과정은 원론적으로 소수의 지식인 문학가가 향유하던 문학예술을 대다수 민중에게 개방시켜 민중 스스로가 창작부터 향유까지 일관하는 전이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작용하였다. 이것은 문예이론서의 사회적 본질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문학개론에서 문학예술론으로의 변모에 결정적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즉, 문학개론이 대학의 교재로서 전문 문학 연구자 양성상 필요하였다면, 문학연구로부터 문학의 실제 창작과 향유로 문학예술의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문학 대중화의 과정에서 이러한 서술체계상의 변모는 불가피하였으리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까지 북한에서 주체문예이론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문예이론서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역사적 변모의 과정과 그것이 갖는 의미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1950-60년대 체계화된 마르크스레닌주의문학이론이 1970년대의 과도기를 거쳐 1980년대 이래 지금까지 주체문예이론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의 문예이론 동향과 관련하여 이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이전의 문학이론과 주체문예이론이 다른 점은 우선 그 대상장르에 있어서 점차 확대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즉 문학 일반의 차원에서 전개되던 이론의 영역이 사회주의 문예로 대상이 바뀌면서 연극 영화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의 문(예)학이 대중에 대한 인식 교양의 측면과 현대성을 강조한 데서 촉발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점은 과거 우리 문학 유산에 대한 간과이다. 실학파나 카프의 문학에 대한 충분한 예시가 주체문예이론으로 가까와질수록 사라지고 있다. 이것은 주체문예이론이 대중을 위한 교양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이유 외에도 문학사적 정통성의 부여 문제와 결부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들은 과거의 진보적 민족문학보다 1930년대 김일성의 만주 빨치산 활동에서 유래한 이른바 항일혁명문학예술에서 훨씬 더 많은 문학 전통을 찾고 있다.

또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각 문예이론서에서 구사되고 있는 개념과 용어 규정이 시대에 따라 의미영역이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사회적 기능이 사회주의 문예의 본성으로 바뀐 점과 당파성의 당성으로의 대체, 광의의 인민성 개념이 계급성으로 변화한 점 등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장르론에서도 역시 변화의 양상이 보이게 되는데, 장르 구분의 일반론이 주체문예

이론에 와서는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것은 장르 구분의 통시적인 발전체계보다 횡적인 분류체계가 중심되고 있다는 데로 귀결된다.

북한의 문예이론의 변천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이론과 일맥 상통한 면모를 보이던 60년대의 문예이론이 주체문예이론으로 오면서 역사주의적인 원칙이나 과학적인 이론 수립과는 점차 멀어지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경험과 사회적 요구에 입각한 새로운 문예이론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가 주체문예이론으로 나타난 것이라 여겨진다. 북한의 문예이론을 실용주의적인 편향이 보인다는 평가 역시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판단일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 문학의 내재적 변모양상을 문예이론서 서술체계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재의 북한 문예이론은 이전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이론 일반론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으로 별개화되었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다. 미학 개념의 이러한 내용 변화를 결론적으로 정리하여 문예이론서의 비교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 ① 박종식·현종호·리상태, 『문학개론』(교육도서출판사, 1961)
- ② 대학용, 『문학개론』(교육도서출판사, 1970)
- ③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사회과학출판사, 1975)
- ④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사회과학출판사, 1983)

①이 주체사상 이전의 원론, ②가 과도기적 이론, ③이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론의 출발, ④가 주체문예론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 2. 최근 북한 문예이론의 동향

그러면 1990년대 최근 북한의 문예이론의 특성을 살펴보자. 이는 북한의 문학 이론류의 변모과정과 그 의미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평가할 것인가 하는 궁극적인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먼저 ‘공산주의 인간학’으로 주체문학예술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점이다. 60년대 중반 이래 북한의 문학계가 문학의 자율성에 대한 요구를 수정주의로 규정짓고,

문학의 당성 강화를 목표로 했음에 비추어 북한의 문학규정과 접근시각의 변모는 필연적이었다. 이러한 북한의 문예학적 노력은 공산주의 인간학의 이론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문학의 사회적 본성의 차원으로 확장한 이러한 문학예술론으로의 변모는 문학이 갖는 사상적 교화의 수단에 대한 부단한 강조가 구체화된 것이다.

둘째는 작가의 창작과정을 당의 실제적인 지도의 과정과 긴밀히 통일시키려는 시도이다. 사회주의 문학의 당파성을 협애화하여 적용한 북한 문학의 당성 규정은 작가의 창작을 당의 선전활동의 일환으로 이해하여 작가의 당정책에 대한 이해와 복무를 무엇보다 강조한다. 작가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종자론과 속도전론 등 북한의 독창적 문예창작이론의 개념화에 작용하여 문예창작에 있어 당의 정책관철을 그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방식으로 경제 생산과정방식을 문학예술 창작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폐해는 적지 않았다. 창작이 질식하고 그나마 출판된 문예물은 도식성과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셋째는 북한의 문학이 당대 직면한 현실에 근거하여 과거의 문학유산을 재구하고 재평가하는 '현대성'이라는 가치평가의 기준에 과도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문예이론서의 서술에 필요한 작품의 예로 1960년대의 책예선 고전 문학작품을 거론하던 것이, 이후에는 항일혁명예술 작품에 국한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 사실주의 창작방법에 입각한 작품창작에서 그려야 하는 주인공의 형상이 60년대의 '천리마 기수'에서 최근의 '수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주체형의 새로운 공산주의자'를 들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넷째는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구체적 적용을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북한 나름의 독창적인 사회주의 사실주의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이전 시기의 사회주의 사실주의 규정의 일개 구성요소에 지나지 않던 민족적 특수성을 사회주의 사실주의 일반과 등치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학예술작품이 민족정서에 근거할 것을 요구하는 북한사회의 자민족 중심주의에서 나온 것이다.

현실의 빠른 변화가 갈피를 못잡게 하는 이즈음의 정세를 헤쳐나가는 방법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살펴본 북한 문예이론서의 서술은 전 시기를 통해 관철되는 그 원칙적 비타협성과 이론적 확신성으로 하여 우리에게 당혹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적대적 계급의 해소는 자신의 사회체제에 대한 철저한 신뢰

의 근거가 되었을 것이지만 폐해도 적지 않았다. 주체사회의 건설과정에서 자의반 타의반 구축하게 된 자립경제의 폐쇄성에 의하여 '우리식 사회주의가 필승불패'라는 도덕적 신념 내지 종교적 신앙을 전인민적으로 내면화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폐쇄사회의 문학적 상관물인 북한의 문예이론서는 그 특수한 이론화의 내재적 필연성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다. 주체문예는 사회주의 사실주의문학 건설과정에서 나온 왜곡된 특수한 경로이지 북한 문예정책당국이 주장하듯 인류문화의 새 기원을 여는 보편적 문학건설의 성과로 보기는 불가능하겠다. 더 나아가 북한의 주체문학이론이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북한적 특수성의 발현이라기보다는 당의 명령에만 충실히 복무하는 사회주의 문화론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즉, 현실 사회주의 몰락을 목도한 우리에게 북한 사회가 소련이나 여타의 동구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른 사회주의 건설 경험과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을 이루었다는 북한 나름의 주장보다는, 사회주의 국가 일반이 부딪쳤던 문제를 북한 역시 내포하고 있으리란 추측이 더 개연성을 갖고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의 비판적 평가는 최근 북한문학 관계서적에서 수령형상 창조에 대한 강조와 작가의 창조성이 당의 개입에 의해 굴절되는 양상을 확인할수록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보편과 특수 관계라는 원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주체문예이론은 특수한 대상만을 일반화시켜 다른 모든 대상까지 포괄하려고 하는 점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가진 원론이라기보다는 한정된 대상에만 자기완결적 자족성을 가진 폐쇄적인 이론으로 생각된다. 주체사상 전체 체계도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특히 주체문예이론은 특수와 보편의 문제가 환원론적으로 오류를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 문제를 구체화시켜 본다면 '당성 계급성 인민성' 범주가 문예이론 전체에서의 위상이 변모한 점과 각각의 내포가 달라진 점 등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재 북한의 공식적인 문예이론인 주체문예이론은 마르크스레닌주의문예이론의 '북한적 구체화'를 거쳐 아예 별개의 사상체계에 기반을 둔 문예학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그 변개의 정도가 다른 나라 이론체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인식틀을 세우기가 쉽지 않을 정도이다. "주체적인 사회주의 문학예술은 공산주의적 인간학"이라고 하는 주체문예이론의 핵심적인 명제는 문예를 인간학이라는 총체적인 범주로 격상(?)했다는 점에서 일견 긍정적이다. 그러나 앞서서도 밝혀냈듯이 당성, 노동계급성 개념의 실용주의적 편의주의적 개변, 개인숭배적인 정치주의 편향, 인민성 개념의 편의성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주의원칙의 포기과 이론의 교조주의화 등 부정적인 평가의 여지가 많은 배타적인 이론체계라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지 않나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1. 북한 자료

- 박종식·현종호·리상태, 『문학개론』, 교육도서출판사, 1961  
 대학용 『문학개론』, 교육도서출판사, 1970.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3.  
 김정본, 『미학개론』, 사회과학출판사, 1991.  
 『해방후 우리 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1  
 『현대작가론1』,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1  
 『현대작가론2』,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  
 은종섭, 『조선 근대 및 해방전현대 소설사연구 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은종섭, 『조선 근대 및 해방전현대 소설사연구 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김성수 엮음, 『우리 문학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논쟁』, 서울 : 사계절, 1992  
 리동수, 『우리나라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연구』, 북한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1988  
 『문예론문집』 1권, 어문도서편집부 편집, 사회과학출판사, 1976  
 『문예론문집』 4권,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한중모, 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3  
 장영, 『작품의 인간문제』(주체적문예리론 연구1), 문예출판사, 1989  
 류만, 김정웅, 『주체의 창작리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3  
 김정웅, 『종자와 작품창작』, 사회과학출판사, 1987  
 김정웅, 『종자와 그 형상』, 문예출판사, 1988  
 류만,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에서 생활묘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리동원, 『작품의 주인공』, 문예출판사, 1990

역사주의원칙의 포기과 이론의 교조주의화 등 부정적인 평가의 여지가 많은 배타적인 이론체계라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지 않나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1. 북한 자료

- 박종식·현종호·리상태, 『문학개론』, 교육도서출판사, 1961  
 대학용 『문학개론』, 교육도서출판사, 1970.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3.  
 김정본, 『미학개론』, 사회과학출판사, 1991.  
 『해방후 우리 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1  
 『현대작가론1』,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1  
 『현대작가론2』,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  
 은종섭, 『조선 근대 및 해방전현대 소설사연구 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은종섭, 『조선 근대 및 해방전현대 소설사연구 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김성수 엮음, 『우리 문학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논쟁』, 서울 : 사계절, 1992  
 리동수, 『우리나라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연구』, 북한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1988  
 『문예론문집』 1권, 어문도서편집부 편집, 사회과학출판사, 1976  
 『문예론문집』 4권,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한중모, 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3  
 장영, 『작품의 인간문제』(주체적문예리론 연구1), 문예출판사, 1989  
 류만, 김정웅, 『주체의 창작리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3  
 김정웅, 『종자와 작품창작』, 사회과학출판사, 1987  
 김정웅, 『종자와 그 형상』, 문예출판사, 1988  
 류만,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에서 생활묘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리동원, 『작품의 주인공』, 문예출판사, 1990

『문학신문』 1956-1993

## 2. 남한 자료

국어국문학회 편, 『북한의 국어국문학』, 지식산업사, 1990

민족문학사연구소,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 창작과비평사, 1991

김재용, 「북한문예학의 전개과정과 과학적 문예학의 과제」 『실천문학』 1992. 봄호

김윤식, 『한국 현대 현실주의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0

임진영, 「해방직후 민주건설기의 북한문학」 『해방전후사의 인식』 5, 한길사, 1989

김성수, 「우리 문학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발생 발전」 『창작과비평』 1990. 봄호

\_\_\_\_\_, 「북한 학계 리얼리즘논쟁의 검토」 『실천문학』 1990 가을호

권순궁 외편, 『우리 문학의 민족형식과 민족적 특성』, 연구사, 1990

최용권, 「80년대 북한의 문학사연구와 문예이론」 『한길문학』 1992. 봄호

오오무라 마스오, 「북한의 문학선집 출판현황」 『한길문학』 1990. 6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 1980年代 北韓의 女性政策研究

研究責任者：李 承 姬 (梨花女大)

## <요 약 문>

이 논문은 1980년대 북한의 여성정책을 분석한 것이다. 북한에서 출간된 1차자료를 사용하여 첫째, 북한 여성정책이 형성되어온 과정과 여성정책의 축적 둘째, 1980년대 여성정책의 이념과 방향 셋째, 여성정책이 집행되는 과정과 여성단체의 역할 넷째, 여성정책의 집행되는 방법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여성정책이 형성되어온 과정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기, 사회주의혁명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여성정책의 특징과 내용을 연구하였다. 첫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기 여성정책은 여성을 사회적으로 해방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추진하는것(여맹조직화), 여성을 사회적으로 해방하는것(남녀평등권법, 사회와 가정의 개조), 여성을 사회생활의 여러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시키는것(노동과 정치 참여) 등 세부분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사회주의 건설기 여성정책의 목표는 가정에 있던 여성을 사회적 노동에 편입시켜 여성들의 생활과 의식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성을 인민경제의 여러부분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는 것과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의 확보가 중요시 되었다. 셋째,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친 사회주의 건설시기 여성정책은 여성의 사회적 노동참가가 계속 추구되었고 그것을 위한 사회적 조건의 확보를 위한 정책이 특별히 제시되었으며 사상 교양사업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1980년대에도 여성의 사회적 노동참가는 계속적으로 강조되었고 여성들의 사상혁명을 위해 여성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것이 중요과제로 추구되었다. 1980년대의 여성정책은 1970년대와 연속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과 여성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것이었지만 1980년대의 특징은 사상혁명에 그 무게중심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1980년대 여성의 사회적 노동참가는 세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장이나 기업소에서의 노동 둘째는 가내작업반에서의 편의봉사 노동 셋째는 여성지원대 참가가 그것이다. 두번째와 세번째는 유희노동력인 소위 '가두녀성'이 참가하는 방식인데 세번째 여성지원대 노동은 건설현장이나 농번기의 농촌등에서 한정된 기간동안 지원

노동을 하는 것이다. 여성의 사상혁명은 여맹이 중심이 되어 여맹의 조직생활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여맹은 당의 지도하에서 독자성과 책임성을 갖고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정치사업을 하였다. 여성정책의 집행방법도 사상개조의 방법이 주가 되었다. 긍정적 모범에 의한 일반화, 보람과 긍지의 강조, 당과 수령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보답과 도리, 자력갱생의 정신이 그것이다. 자발적인 노력봉사나 노동강화의 동력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영웅이라는 모범을 따라배우는 것, 삶의 가치를 집단주의에 두는 것, 보답, 도리, 충성심, 자각, 양심, 의리, 기쁨, 신심, 열의 같은 감정이었고 '사상'이 여성정책의 집행의 원동력이 되었다. 1980년대 여성정책의 특징은 첫째, 그 이념적 기반이 주체사상이라는 것이다. 1980년대에는 여성의 사상개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목표로 등장하였다. 1980년대 여성정책은 두개의 축으로 진행되었다. 하나의 축은 여성에 대한 사상교양-자발적인 노동참여-인간개조의 과정 즉 사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이 우선되고 사상개조가 되면 자발적으로 노동에 참여하며 그 과정을 통해 인간이 개조된다고 하는 여성개조과정이며 또 하나의 축은 여성의 사회활동의 증대와 그것을 위한 조건을 확보하는 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건설기라는 과도기적 성격이 여성정책에도 반영되어 1980년대 여성정책은 완전한 여성해방을 추구하면서도 남녀차이(성역할이나 기질)를 인정하는 모순성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는 과도기이고 따라서 남녀불평등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과 여성이 낙후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며 정책내용에 그 한계가 반영되는 것이다. 셋째, 여성의 이중노동부담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여성정책 집행에서 여성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執筆者 紹介(掲載順)

1. 趙 鏞 官 : 경찰대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고려대 문학사, 한국학대학원 철학(석)박사
  - 경희대, 서울교육대 강사등 역임
  - 연구실적 : 논문“공산주의의 도덕교육론” 등 다수
  
2. 李 相 瓊 : 한신대학 국문학과 강사
  - 서울대 문학사, 동대학원 문학(석)박사
  - 서울대, 아주대 강사 역임
  - 연구실적 : 논문 “서사성의 약화 그리고 통속성의 강화”등
  
3. 金 文 泰 : 성균관대 국문학과 강사
  - 성균관대 문학사, 동대학원 문학(석)박사
  - 강원대, 한림대등 강사 역임
  - 연구실적 : 논문 “안민가와 서사문맥”등 다수
  
4. 金 垠 哲 : 상지대 국문학과 조교수
  - 영남대 문학사, 동대학원 문학(석)박사
  - 대구대, 명지대등 강사 역임
  - 연구실적 : 저서 “문학입문” 등 다수, 논문 “한국 근대 산문시의 모색  
과 갈등”등 다수
  
5. 金 成 洙 : 성균관대 국문학과 강사
  - 성균관대 문학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 성균관대 문학박사
  - 연구실적 : 논문 “북한학계의 우리 문학사 연구 개관”등 연구실적  
다수
  
6. 李 承 姬 : 이화여대 정외과 강사
  - 이화여대 정치학사, 동대학원 정치학(석)박사
  - 계명대, 인하대 강사등 역임
  - 연구실적 : 논문 “분단시대의 여성운동”등

'94北韓 및 統一研究 論文集(第Ⅱ卷)

인 쇄 : 1994. 12. 1.

발 행 : 1994. 12. 5.

발행처 : 통일원 정보분석실

인쇄처 : 덕 성 문 화 사

---